

셰익스피어를 향한 열정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컬렉션의 영국희곡 관련 서양서 장서의 분석

이정진 지음



셰익스피어를 향한 열정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컬렉션의
영국희곡 관련
서양서 장서의
분석

셰익스피어를 향한 열정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컬렉션의 영국희곡 관련 서양서 장서의 분석

초판 1쇄 인쇄 2023년 2월 6일

초판 1쇄 발행 2023년 2월 10일

기획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저자 이정진

발행인 장덕진

발행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02-880-5314, <https://lib.snu.ac.kr>

편집·인쇄 네오프린텍(주)

ISBN 979-11-972628-9-0 03840

비매품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2023

이 책에 수록된 도서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발간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510만 권의 장서를 보관중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도서관입니다. 그 중 약 4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한 고문헌 자료실은 한국학 고문헌을 관리하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교내 학술자원의 저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고문헌자료실은 일제 강점기 국내 간행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 발행된 다양한 형태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고문헌자료실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도서분류표로 정리된 도서를 관리하던 구간도서(舊刊圖書) 서고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일사, 가람, 상백문고 등 개인문고 도서와 서울대학교 수집 도서 가운데 해방 이전 발행 도서와 동장본(東裝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문헌자료실은 단순히 오래된 자료를 열람하던 자료실 기능에서 벗어나 고전적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디지털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경성제국대학 입수 도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구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일본의 패전 직전까지 약 55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조선 최대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도서관에서 작성한 도서분류표를 바탕으로 일정하게 정리되었는데,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위상을 고려하였을 때 주

제별 장서구성이나 수집경위 등은 당대의 지식과 정보의 수집과 축적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연구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영문학 희곡 전공자인 이정진 박사에게 영국 희곡 도서의 장서구성과 그 특징에 대한 해설집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번에 발간한 『셰익스피어를 향한 열정』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장서를 토대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영문학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셰익스피어의 위상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이정진 박사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문헌 해설집 집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견인해주신 김명환 전 중앙도서관장님과 실제 사업을 진행해온 고문헌자료실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중앙도서관은 이후에도 관련 연구자나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도서관 장서에 기초한 참신한 연구성과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한 격려와 고문헌자료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장덕진

추천의 글

한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서울대학교는 1946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설립되었지만, 그 설립과정은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미군정이 당시의 여러 학교들, 즉 경성대학, 경성의학전문학교 등 모두 9개 학교를 통합하여 종합대학교인 국립서울대학교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소위 ‘국대안’에 대해 격렬한 반대운동이 벌어짐으로써 서울대는 힘겨운 출산의 진통을 겪었다. 이 남다른 산고는 해방 이후 남북분단이라는 제약 속에서 근대국가 건설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직결된 것이었다.

또 일본이 식민 통치의 필요성 때문에 조선에 세운 경성제국대학교가 서울대의 전신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은 서울대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서울대의 ‘개교’를 1946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에 통합된 전문학교 중 1922년에 설립된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전신인 대한제국의 법관양성소가 만들어진 1895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벌어진 적이 있다. 서울대의 개교 일자를 굳이 앞당기려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믿지만, 경성제대의 역사와 경험을 애써 지우려고 노력할 이유 또한 없다고 본다. 오히려 서울대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더 깊이 있는 경성제대 연구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1945년 해방 이전에 경성제대 도서관 등이 수

서한 소장자료에 대한 정리와 해제 작업을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이 경성제대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서울대의 어제와 오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의 일환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번에 발간하는 『셰익스피어를 향한 열정』은 영문학 분야 소장도서 중 영국 희곡과 관련한 장서들을 연구한 해제집이다. 저자인 이정진 박사는 세계 최고의 극문학을 성취한 셰익스피어 관련 도서에 집중된 이 컬렉션의 수서 기준에 관해 “하루 빨리 서구를 따라잡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최고로 통용되는 것들에 집중투자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이라고 파악하며, “(‘탈아입구’라는 국가적 구호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동경과 경쟁의식이 얽힌 일제의 서구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정진, 「셰익스피어를 향한 열정-경성제대의 ‘영국 희곡’ 부문 서양서 장서의 분석」, 『셰익스피어 리뷰』 58권 3호, 2022년, 295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저자도 언급하듯이, 앞으로의 연구는 어떤 분야이든 서고에 보관된 장서만이 아니라 당시 경성제대 도서관의 도서구입대장까지 분석하는 등 자료구입의 경로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당대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또한 식민지 본국에 설치된 도쿄대학을 비롯한 7개 제국대학은 물론이고 경성제대와 함께 유일하게 일본 본토 외에 설치된 대북제국대학(현 국립타이완대학)의 해당 컬렉션과 비교하는 작업, 또 해당 분야를 맡아 경성제대에 근무하며 연구와 교육에 종사했던 교수진들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분석까지 두루 필요할 것이다.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아직 이렇게 큰 구도의 기획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식민지 시대는 물론이고 일본 제국주의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근현대사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기여할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우리가 3년 후에 맞이할 경성제대 설립 백주년을 경축할 일은 결코 아니지

만, 그 백년의 기간을 한층 풍부하고 정확한 역사 인식 위에서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는 절실하고 또 절실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저자의 노고에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전 중앙도서관장
김명환

목차

| 연구서 |

CHAPTER 01 19세기까지의 셰익스피어 연구

- 044 *Critical, Historical, and Explanatory Notes on Shakespeare with Emendations of the Text and Metre*, by Zachary Grey (1754)
- 051 *Johnson on Shakespeare*, edited by Walter Raleigh (1925)
- 057 *An Essay on the Writings and Genius of Shakespeare, Compared with the Greek and French Dramatic Poets. With Some Remarks upon the Misrepresentations of Mons. de Voltaire*, by Elizabeth Montagu (1776)
- 063 *Morgann's Essay on the Dramatic Character of Sir John Falstaff*, edited by William Arthur Gill (1912)
- 069 *Tales from Shakespeare*, by Charles and Mary Lamb (n. d.)
- 074 *Characters of Shakespeare's Plays*, by William Hazlitt (1924)
- 079 *Shakespeare: His Life, Art, and Characters with an Historical Sketch of the Origin and Growth of the Drama in England*, by Henry Norman Hudson (1872)
- 083 *Essays on Shakespeare*, by Karle Elze, translated by L. Dora Schmitz (1874)
- 087 *Shakspe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by Edward Dowden (n. d.)
- 093 *Shakespeare as a Dramatic Artist: a Popular Illustration of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Criticism*, by Richard Green Moulton (1885)
- 097 *Shakspere and His Predecessors*, by Frederick S. Boas (1925)
- 102 *A Life of William Shakespeare*, by sir Sidney Lee (1922)
- 109 *A Study of Shakespeare*, by Algernon Charles Swinburne (1918)

CHAPTER 02 20세기의 셰익스피어 연구

- 114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Shakespeare Canon*, by John M. Robertson (1924)
- 120 *Shakespeare's Fight with the Pirates and the Problems of the Transmission of His Text*, by Alfred William Pollard (1920)
- 126 *The Lion and the Fox: the Role of the Hero in the Plays of Shakespeare*, by Wyndham Lewis (1927)
- 131 *Shakespeare and the Audience: a Study in the Technique of Exposition*, by Arthur Colby Sprague (1935)
- 135 *Shakespeare's Last Plays*, by E. M. W. Tillyard (1938)

CHAPTER 03 셰익스피어 관련 참고 서적

- 140 *The Natural History of Insects Mentioned in Shakespeare's Plays*, by Robert Patterson (1842)
- 144 *Shakespeare-Lexicon: a Complete Dictionary of All the English Words, Phrase, and Constructions in the Works of the Poet*, by Alexander Schmidt (1902)
- 148 *Shakespeare of Stratford: a Handbook for Students*, by C. F. Tucker Brooke (1926)
- 151 *A Shakespeare Bibliography*, by Walter Ebisch in collaboration with Levin L. Schüking (1931)
- 155 *Catalogue of the Exhibition of Shakesperiana: Under the Patronage of the Shakespeare Association of Japan and His Excellency the British Ambassador* (1933)
- 159 *Costume in the Drama of Shakespeare and His Contemporaries*, by M. Channing Linthicum (1936)

CHAPTER 04 여타 작가와 연극에 관한 연구

- 164 *Oscar Wilde by Frank Harris*, by Frank Harris (1938)
- 169 *British Drama: an Historical Survey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Time*, by Allardyce Nicoll (1925)
- 173 *Bernard Shaw: Playboy and Prophet*, by Archibald Henderson (1932)
- 178 *The English Folk-Play*, by E. K. Chambers (1933)
- 182 *Drama & Society in the Age of Jonson*, by L. C. Knights (1937)

| 작품집 |

CHAPTER 05 셰익스피어 작품집

- 188 *Shakespeare's Midsummer Night's Dream. The Second Quarto, 1600*, edited by William Griggs (1880)
- 193 *Shakespeares Comedies, Histories, & Tragedies. Being a Reproduction in Facsimile of the First Folio Edition, 1623*, edited by Sidney Lee (1902)
- 200 *The Works of William Shakspere*, edited by Charles Knight (n. d.)
- 205 *A New Variorum Edition of Shakespeare*, edited by Horace Howard Furness & Horace Howard Furness Jr. (1886-1919)
- 210 *The Pitt Press Shakespeare*, edited by A. W. Verity (1923-1926)
- 214 *The Old-Spelling Shakespeare: Being the Works of Shakespeare in the Spelling of the Best Quarto and Folio Texts*, edited by F. J. Furnivall and the late W. G. Boswell-Stone (1907-1808)
- 218 *The Granta Shakespeare*, edited by J. H. Lobban (1911-1926)
- 221 *The Comedies of Shakespeare; The Tragedies of Shakespeare; The Histories and Poems of Shakespeare*, edited by William James Craig (1915, 1924)
- 225 *The Shakespeare Apocrypha: Being a Collection of Fourteen Plays Which Have Been Ascribed to Shakespeare*, edited by C. F. Tucker Brooke (1918)

229 *The Swan Shakespeare: a Player's Edition*, edited by C. B. Purdom (1930)

CHAPTER 06 여타 작가의 작품집

- 234 *Chief Pre-Shakespearean Dramas: a Selection of Plays Illustrating the History of the English Drama from its Origin Down to Shakespeare*, edited by Joseph Quincy Adams (n. d.)
- 239 *Chief British Dramatists: Excluding Shakespeare Twenty-Five Plays from the Middle of the Fifteenth Century to the End of the Nineteenth*, edited by Brander Matthews and Paul Robert Lieder (n. d.)
- 243 *The Works of Thomas Kyd*, edited by Frederick S. Boas (1901)
- 247 *The Tragical History of Doctor Faustus*, by Christopher Marlowe, edited by Israel Gollancz (1925)
- 252 *A Woman Killed with Kindness*, by Thomas Heywood, edited by A. W. Ward (1925)
- 256 *The Maid's Tragedy and Philaster*, by Francis Beaumont and John Fletcher, edited by Ashley H. Thorndike (1906)
- 261 *The Broken Heart*, by John Ford, edited by Oliphant Smeaton (1906)
- 265 *The Tragedy of Tragedies or the Life and Death of Tom Thumb the Great*, by Henry Fielding, edited by James T. Hillhouse (1943)
- 268 *She Stoops to Conquer*, by Oliver Goldsmith, edited by Dudley Miles (1917)
- 272 *The Major Dramas of Richard Brinsley Sheridan: the Rivals, the School for Scandal, the Critic*, edited by George Henry Nettleton (1906)
- 276 *The Cenci*, by Percy Bysshe Shelley, edited by George Edward Woodberry (1909)
- 281 *The Tragedies of Algernon Charles Swinburne*, by Algernon Charles Swinburne (1905-1906)
- 284 *The Admirable Crichton*, by J. M. Barrie (1926)
- 288 *Androcles and the Lion: a Fable Play*, by George Bernard Shaw, edited by Max Bickerton (1933)

1 | 해제집의 대상 장서

이 해제집은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보관 중인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컬렉션' 중 서양언어로 쓰인 영국 희곡 관련 도서 453종 561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책들은 다시 희곡(Drama) 부분의 249종 276책, 그리고 희곡집(Dramatic Works) 부분의 204종 285책으로 나뉜다. 여기서 '희곡'은 분류범주로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상 '희곡집', 즉 희곡 작품 이외의 도서들을 포괄하며 영국 희곡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서들이 주를 이룬다.

이 해제 대상 도서의 전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컬렉션 내의 위치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본의 제국대학 시스템은 자국의 일본어 도서 및 여타 동양서와 서양서를 나누어서 소장했고, 각기 다른 분류 체계에 따라 청구기호를 부여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른바 화한서분류표(和漢書分類表)를 따랐고, 후자의 경우 듀이십진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서양서분류표를 개발해 사용했다. 이 해제집의 대상 도서들은 당연히 표기언어상 서양서에 속한다. 서양서는 우선 주제별로 분류되었고, 이 최초의 대분류는 22개의 알파벳 글자를 사용해 표시되었다. 그리고 여러 기준의 다음 단계 분류에 따라 이어서 3자리 숫자가 부여되었다.

영국 희곡 관련 도서들은 대분류상 A(총류, General Works), B(철학, Philosophy)등에 이어 문학(Literature)에 해당하는 F에 속한다. 문학 관련 도서들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영국문학은 F300번 대에 속했다. 이어서 도서의 발간방식이나 종류, 혹은 작품의 장르 같이 다소 비일관적이지만 그 나름으로 도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여러 성격의 범주에 따라 끝의 두 자리 숫자가 부여되었다. F301(목록·서지, Bibliography)부터 F310(문학사·전기, History, Biography)번 대까지의 10개 범주는 도서의 발간방식이나 종류에, F320(시, Poetry)부터 F380(소론·연설·편지 등, Essays, Oration, Letters & etc.)까지 7개 범주는 연구 대상 작품 혹은 보유 작품 자체의 장르에 해당된다. 특이하게도 영국문학의 경우 여타 국가의 문학과는 달리 이런 내용상의 분류에 이어 다시 지역 분류가 도입되었는데, F390(켈트 문학, Celtic Literature)부터 F396(오스트레일리아 문학, Australian Literature)까지 영연방 각국의 문학을 영국문학의 하위범주로 포함시켰던 것이다. 쉽게 짐작되듯이 희곡과 희곡집은 장르 범주에 속하고, 각각 F340과 F350이라는 기호가 부여되었다.

폐전 직전 14만여 권에 이르렀던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서양서 장서는 이후 많이 유실되어 현재 서울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해방 직후 시기에 등록된 일부 도서도 포함하여) 9만 권에 살짝 못 미친다. 그 중 F(문학)로 분류된 서적은 대략 만 천 권에 살짝 못 미치며, 그 중 F300의 영국문학은 절반에 육박하는 4,951권에 이른다. 영국 희곡과 희곡집 부문을 합한 서적들은 책 수에서 그 중 1/9 정도를 차지하기에 첫 해제집의 대상으로 적당한 규모이다. 이후 각각 단일 범주로 비슷한 규모인 F304의 전집(Complete Works), 그리고 F320의 시(Poetry) 부문에 대한 후속 해제 작업이 보태진다면 전체 영국문학, 나아가 서양서 문학 부문 장서의 성

격이 상당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곧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영국 희곡 관련 도서들은 실상 ‘셰익스피어’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할 만큼 영국문학을 대표하는 이 위대한 작가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첫 해제집의 대상으로 희곡과 희곡집 부문이 선택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라 하겠다.

2 | 장서의 개관 및 개별 해제대상 도서의 선정

1) 희곡 부문

이 부문 장서 249종 276권은 현재 보관 중인 서가의 위아래 3칸 정도 분량으로서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개관이 용이하지 않다. 이 부문 내부적으로 분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구번호 F340 이후에 각 도서별로 부여된 숫자는 그저 도서가 입수되어 진열된 순서를 말해주는 일련번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분히 대중적인 서적들과 본격적인 연구서들이 맞대어 있는가하면, 한편으로는 비슷한 주제에 관한 동일 저자의 책들이 흩어져 있다. 분류를 결한 이런 도서의 진열 상태는 그대로 이 장서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는 이점이 없지는 않으나, 당연히 개관 작업에 들어가는 수고를 대폭 늘어나게 했다. 게다가 상당수 저자들이 거의 잊혀진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 도서들이 수집되던 시기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흐르는 동안 학문풍토와 그와 연관된 출판문화가 바뀐 탓에 모든 책을 어느 정도는 읽어가면서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우선 도서를 작성언어에 따라 분류했다. 대략적으로 훑어보았을 때 뜻밖에도 영어 이외의 언어, 특히 독일어로 쓰여진 책의 비중이 상당했다. 작성언어가 일차적인 분류 기준이 된 이유는 필자의 능력의 한계 때

문이다. 영어 이외의 언어는 접근이 어려웠기에, 비영어권 도서들은 곧 소개할 하나의 예외 말고는 개별적인 해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물론이고 내용과약에 근거한 본격적인 분류에서도 배제해야 했다. 다만 비영어권 도서들 또한 제목 정도는 살펴보았는데, 그 정도 예비적인 조사만으로도 이 책들 역시 장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의도에 따라 수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성 언어	종수와 책수	백분율(%)
영 어	204종 228책	81.9 (82.6)
비 영 어	45종 48책	18.1 (17.4)
총 합	249종 276책	100 (100)

작성언어 (비영어)	종수와 책수	백분율(%)
독 일 어	40종 43책	88.9 (89.6)
프랑스어	2종 2책	4.4 (4.2)
일 본 어	1종 1책	2.2 (2.1)
헝가리어	1종 1책	2.2 (2.1)
라 틴 어	1종 1책	2.2 (2.1)
총 합	45종 48책	100 (100)

작성 언어별 도서의 정확한 숫자는 위와 같다. 보다시피 전체 장서의 1/6 정도가 영어 서적이 아니며, 그 대다수는 독일어 책이다. 그런데 작성언어가 영어가 아닌 이 도서들에서도 셰익스피어 관련 학술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비중이 작은 언어부터 살펴보면, 일단 헤르만 파르나겐(Hermann Varnhagen)이라는 이름의, 아마도 독일인 저자가 특이하게도 라틴어로 쓴 책은 영국 낭만주의 2세대를 대표하는 시인인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824)의 희곡 『만프레드』

(*Manfred*)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장서 상의) 나머지 두 ‘소수언어’로 쓰인 책은 모두 셰익스피어에 관한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출간된 2권의 프랑스어 서적은 모두 메지예르(Alfred Mézières, 1826-1915)라는 동일 저자의 것으로서, 제목(『셰익스피어의 동시대 작가들과 후계자』(*Contemporains et successeurs de Shakespeare*), 『셰익스피어의 동시대 작가들과 선배작가들』(*Prédécesseurs et contemporains de Shakespeare*))을 보면 당시 각광받는 연구주제였던 셰익스피어를 둘러싼 문학적 영향관계를 다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 책은 도쿄에서 열린 셰익스피어 관련 도서 박람회의 전시도서 목록이다. 일본어 발간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수록 도서명은 원어 그대로 적혀 있었기에 제국대학 도서관의 사서는 이 문헌을 서양서로 분류해 놓았다. 이 목록은 여러모로 바로 영국희곡 관련 장서 구성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공산이 크기에, 비영어권 도서로는 유일하게 개별적인 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행히 일본어 발간사가 짧아서 가능한 일이었다.

독일어 도서는 6종(6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목에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6종도 바이런에 관한 한 권 말고는 모두 말로(Christopher Marlowe, 1564-1593)나 키드(Thomas Kyd, 1558-1594)등 셰익스피어의 동시대 극작가에 관한 것이었다. 직전에도 언급했지만 19세기 후반 셰익스피어 연구의 일환으로 엘리자베스 시대 극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점차 셰익스피어에게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작가들에 대해서는 개별연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셰익스피어를 초월적인 천재로 숭배하는 과거의 낭만주의적 바드¹관

1 Bard, 흔히 음유시인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서사시를 비롯한 구전시가의 창작자 내지 전승자를 뜻하지만 영어권에서는 대문자로 표기하면 셰익스피어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런 호칭에는 『일리아드』(*Iliad*)와 『오디세이』(*Odyssey*)의 작자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원조 바드 호머(Homer)와 셰익스피어를 견주려는 영국인들의 자부심이 깔려 있다.

과 거리를 두면서,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성취를 해명하는 단서로서 이전 시대 영국의 연극적 전통과 특히 당대에 급속하게 축적된 실험적인 극작의 선례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새로운 연구 경향을 선도한 것은 독일의 셰익스피어 학계였다. 이 해제집의 몇몇 개별 항목에서도 먼저 근대적으로 탈바꿈한 독일 학계의 선진성을 따라잡기 위한 영국 학자들의 개인적·집단적 노력의 사례들이 소개된다. 그렇다면 영국 희곡 부문에 독일 서적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쉽게 해명된다.

그러나 이 독일어 서적들은 신중하게 선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셰익스피어 연구에 비교문학적 접근을 도입하는 등 근대적인 문예학의 방법론을 적용해 이후 세대의 학자들에게 전범이 되었던 울리치(Hermann Ulrici, 1806-1884)의 고전 『셰익스피어의 극예술: 셰익스피어 희곡의 서사와 인물』(*Über Shakespeares Dramatische Kunst: Geschichte und Charakteristik des Shakespeareschen Dramas*) 정도를 제외하면, 그에 견줄만한 유명 학자들의 저서는 전무하다. 독일 셰익스피어 연구의 태두라 할 슐레겔(August Wilhelm von Schlegel, 1767-1845)의 이름조차 찾을 수 없다. 사실 독일어 서적은 단행본 이외에 학술지 논문의 별쇄본이나 학위 논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희곡 부문 장서의 128번부터 153번까지 모두 독일어 서적인데, 그 26종의 대다수가 그런 성격의 출판물이다. 아마도 이 한 무더기의 책(개인 기증일 공산이 큰) 어떤 경위로 한꺼번에 입수하게 되었을 때 사서는 제목 정도만을 확인하고 장서에 전부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것이라면 책의 가치를 평가해 선별하기보다는 일단 모으고 보았으리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물론 당시 분야를 막론해 서양서의 구입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기에 이런 도서 수집방식이 유독 셰익스피어와 관련해서 두드러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

른 부문 장서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연구 대상 작가-작품의 시기	종수와 책수	백분율(%)
셰익스피어	133종 156책	64.5 (67.8)
엘리자베스 (튜더) 시대	30종 30책	14.6 (13.1)
중간합	163종 186책	79.1 (80.9)
왕정복고기 이후 현대까지	43종 44책	20.8 (19.1)
총합	206종 230책	100 (100)

위의 표는 영어 서적을 연구 대상 작가나 작품의 시기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보다시피 영어 서적 역시 셰익스피어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위에서 밝힌 이유로 엘리자베스 및 튜더 왕조 시기에 대한 연구 또한 셰익스피어 관련 연구로 포함시키면 영어 서적의 4/5 정도가 셰익스피어와 연관된 것이다. (전체 희곡 부문 장서 기준으로는 대략 1/6 분량의) 나머지 영어 도서 43종 44책은 엘리자베스 시대 이후 영국 희곡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그러나 도서의 면면을 보면 영국 희곡이라는 장서 분류명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구색을 갖추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 희곡사에는 성립기이자 최고 전성기인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견주기 어려워도 이후에도 몇 차례 중흥기가 있었다. 그런 때로는 서구권 전체에서 극문학이 다시금 활성화되었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이른바 ‘모던 드라마’ 시기가 가장 두드러지지만, 각각 17세기 후반 왕정복고기와 18세기 후반 또한 아직까지도 공연되는 주요 극작가와 작품을 배출한 시기였다. 바로 이 두 시기에 걸쳐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더불어 영국 극문학의 양대 전통으로 여겨지는 풍속 희곡의 고전들이 창작되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각 시기별 연구서를 골고루 네댓 권 정

도씩은 갖춰 놓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작가에 대한 저작은 현대 극작가 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다. 단적으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에 관한 저작은 전기를 포함해서 모두 6권이고, 현재는 피터 팬을 창조한 소설가로 더 잘려져 있지만 생전에는 극작가로서의 명성이 더 높았던 배리(J. M. Barrie, 1860-1937)에 관한 연구서도 4권이 나 된다. 반면 17, 18세기 극작가들은 연구서가 한 권씩만 수집되어 있고, 그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군에 속하지만 아예 빠진 이름들도 많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와 바이런의 극작품에 대한 연구서가 각각 1권, 2권씩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들의 희곡은 공연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른바 레제드라마(lesedrama)로서 영국 희곡사의 주류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 추측컨대, 더 중요한 극작가들을 제치고, 이 이단적인 시인-극작가들에 대한 책이 먼저 수집되었다는 것은 낭만주의 연구가 강제였던 당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문학 전공과정의 학풍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 그밖에도 영국 연극사에 관한 책도 몇 권 있으며, 특정 군소 장르의 역사를 추적하거나 영국 희곡사 전체에 걸쳐 특정 주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의 변천을 검토하는 연구서들도 보인다. 그러나 희

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정준영과 타계한 국문학자 김윤식을 위시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학과 구성 등 경성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동된 도서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이 밝혀져 있다. 경성제국대학은 예·본과 체제였고, 3년 과정의 본과는 의학부·법문학부·공학부로 나뉘어 입학생을 모집했는데, 현재의 단대에 해당하는 이 세 부문 아래에 여러 학과를 두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은 학과가 아니라 그 아래의 전공 혹은 강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예컨대, 법학, 철학, 사학과 더불어 법문학부의 4개 학과 중 하나였던 문학과에는 영문학을 포함한 7개 전공 혹은 강좌 과정이 존재했다. 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강좌별 추천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기에, 도서관 장서 분석은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많은 점이 해명될 수 있다. 역으로 도서관의 장서 구성은 전공별 교육의 수준과 경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김윤식의 연구(『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가 강조했듯이, 영문학 전공의 경우 전공 주임교수였던 사토 기요시가 바로 셸리 연구에 주력한 낭만주의 연구자였다. 당시 발간된 전공 학술지를 보면 낭만주의 시인으로 주제가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밖에도 영문학 전공 과정 학생들에게 미친 그의 영향을 증언하는 자료들이 많다. 영국 희곡 부문 장서에서 발견되는 다소 이외의 책들 또한 그의 영향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

곡 부문 장서의 전체 규모 등 여러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43종 44책의 도서가 너무 빈곤해 보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당장 셰익스피어를 제하고도 엘리자베스 시대 한 시기에 관한 책이 거의 맞먹는 규모이고, 무엇보다도 희곡집 부문에서 왕정복고기 이래로의 극작품의 비중은 이 정도로 작지는 않다. 이렇듯 왕정복고기 이래로의 작품들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서가 표나게 적은 것은, 학적인 탐구의 대상으로서 셰익스피어가 그만큼 우선시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책의 종류	종수와 책수	백분율(%)
고전 연구서	9종 10책	6.8 (6.4)
근대적인 연구서	97종 114책	72.9 (73.1)
참고자료 (서지 및 사전류)	11종 16책	8.3 (10.3)
중간합	117종 140책	88 (89.8)
대중서 내지는 비문학 서적	16종 16책	12 (10.2)
총합	133종 156책	100 (100)

이제 희곡 부문 장서의 축이라 할 셰익스피어 관련 영어 서적을 분석할 차례인데, 독일어 서적의 경우를 통해 예견되었듯 학술서 중심의 구성을 보여준다. 위의 표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전문적인 문학 연구자가 아닌 이가 쓴 책의 숫자가 제법 된다는 사실도 이런 요약에 반하지 않는다. 그런 저자들의 대다수는 의학, 조경학, 철학 등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단지 셰익스피어를 예시로 삼아 자기 분야의 지식을 대중화하는 것을 넘어 그 나름의 진지한 문학비평을 의도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개별 해제 대상으로도 선정된 한 책은 곤충학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면서 여타 작가들을 압도하는 셰익스피어의 자연관찰의 탁월함을 부각한다. 셰익스피어가 국민문화의 핵심적인 전통으로서 영국

사회에서 얼마나 열렬하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증언하는 이 ‘비문학’ 서적들은 장서를 다채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장서 수집의 기초와도 어울린다.

그러나 정작 본격적인 연구서의 선정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처음 개략적으로 장서를 검토했을 때 브래들리(A. C. Bradley, 1851-1935)의 『셰익스피어의 비극』(*Shakespearean Tragedy*)이 보이지 않아서 몹시 의아했다. 이 유명한 책은 19세기 후반까지 셰익스피어 비평의 가장 중심적인 갈래였던 이른바 성격비평의 최고봉으로서, 자주 셰익스피어 비평사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있는 저서로 거론되는 고전이다. 한편 셰익스피어의 신원 문제를 논하는 책이 7권이나 수집되어 있었고, 그 중 4권은 변호사 출신의 대표적인 반-스트랫퍼드 파 인사로서 셰익스피어가 절대로 스트랫퍼드 출신의 시골뜨기일 리 없다고 역설하며 학계를 도발했던 그린우드(G. G. Greenwood, 1876-1928)의 것이었다. 4권은 이 부문 장서를 통틀어 동일 저자의 것으로 가장 많은 숫자이다. 셰익스피어의 진짜 정체를 캐는 문제가 현재보다는 훨씬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던 시기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시에 온갖 억측과 낭설이 팽배했던 이 음모론적인 주제에 대한 비중이 대학 도서관치고는 지나치게 높았다.

그러나 상당수가 지금은 거의 잊혀진 낯선 저자들에 대해서 조사하면서³ 처음의 부정적인 인상은 많이 가시게 되었다. 동시에 결국에는 위의 두 사례가 아주 예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차례 개별 해제 항목에서도 밝혀 두었지만,) 역시나 중요 저자는 많이 빠져 있었고, 기껏 중요 저자를 가려 놓고도 대표 저작은 거르는 경우가 부지기

3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나온 이경식의 『셰익스피어 비평사』를 주로 참고했다. 상, 하권 1,500쪽에 이르는 이 압도적인 분량의 저서는 편집이 많이 허술하지만 셰익스피어 비평사의 복잡한 전개과정을 비교적 파악하기 쉽게 개관할 줄 뿐만 아니라, 다량의 직접 인용을 통해 주요 저자들의 논지를 소개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웹 상의 브리태니커 사전(<http://britannica.com>)을 통해서도 저자들의 학문적 경력을 확인했다. 개별적인 해제 대상으로 고려할만큼 중요 저자의 주요 저술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대의 서평도 참고하고자 했다.

수였다. 또한 엇비슷한 주제에 관해서 한꺼번에 다량의 책을 입수한 것도 여러 차례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체적인 장서의 구성을 보면 아주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계획 혹은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견지에서 보면 결함마저도 포함하여 이 장서의 두드러진 면모는 셰익스피어를 학습하려는 강력한 열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근대적인 연구서로 분류한 도서들은 다시 종류별로 세분화하면 입문서 류가 10여 종 이상으로 적지 않은데, 주로 청소년 독자들을 대상으로 셰익스피어의 전체 작품 세계를 간략히 개관하는 얇은 책들 위주이다. 넓게 보면 이런 입문서의 ‘원전’ 격으로서 아직까지도 통용되는 대중적인 셰익스피어 상을 정립한, 19세기 후반의 몇몇 대표적 영문학자들의 저작도 같은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우든(Edward Dowden, 1843-1913)이나 보아스(Frederick S. Boas, 1862-1957)같은 이들이 그런 저자들로서, 필자는 해제 작업의 일환으로 셰익스피어 비평사를 두루 조사하면서 직업적인 영문학자 1세대를 대표하는 이들의 셰익스피어 관련 주저가 요즘과는 달리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읽히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희곡 부문 장서에 수집된 셰익스피어 입문서 중에는 바로 이런 저자들이 자신의 주저를 쉽게 고쳐 쓴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수집 당시의 최신 개정판인 것을 보면 이 저자들의 유명세와 대중적 수요가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셰익스피어 강연자로 유명했던 계관시인 메이스필드(John Masefield, 1878-1967) 등 당대의 저명한 문인들이 쓴 셰익스피어 관련 저술 또한 10종 가까이 되는데, 이 책들 또한 접근이 용이한 해설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수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필자가 보기에 몇몇 문인들의 책이야말로 장서를 통틀어 가장 개성적이고도 도전적인 저술로 꼽을 만했다. 예컨대, 20세기 초반 유럽 모더

니즘 문학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한 명인 윈담 루이스(Windham Lewis, 1882-1957)의 책은 20세기 후반 문학연구의 주된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이데올로기 비평의 선구적인 사례였다.

앞서 학술적인 안목의 결여로 인해 도서 선정에 문제가 많다고 썼지만, 사실 이 부문의 장서 구축을 주도한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현재 수준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있었다. 입문서 류의 서적들, 특히 위에 언급한 가장 유명한 저자들의 것은 대부분 일련번호 100번대 이전의 것이다. 그밖에도 전체적인 장서의 형성과정을 보면, 셰익스피어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으로 통용되는 내용들을 빨리 학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 당장 위의 표에서 고전 연구서로 분류된 책들은 서가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 1709-1784)을 위시하여, 근대적인 문학연구가 출현하기 이전 대략 19세기 전반기까지의 셰익스피어 비평사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주요 저자들의 저서는 거의 일련번호 20번대 앞쪽에 몰려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정도 종수로는 그 긴 시기에 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맞지만, 선정된 도서들의 면면과 배치 순서를 보면 해당 시기 셰익스피어 비평사의 큰 흐름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동시에 장서의 구성을 보면 빨리 셰익스피어 학습의 출발선상을 벗어나 최신의 학술 경향을 따라잡으려는 조바심이 읽힌다. 위의 표에서 참고자료로 분류한 책들 중에는 학술서적의 서지가 총 6종으로, 그 중 4종이 셰익스피어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2종은 각각 셰익스피어의 동시대 극작가인 벤 존슨(Ben Jonson, 1572-1637)과 보먼트(Francis Beaumont, 1584-1616)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4종 가운데 3종이 당대의 최신 연구 위주의 서지이며, 그 3종은 무려 일련번호 2번인 책을 포함해 모두 서가의 앞쪽에 자리하고 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장서가 수집되던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는 새로운 연구 유파들이 연이어 등장하여 각축하던 그야말로 셰익스피어 연구사의 황금기였다. 여러 개별 해제 항목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하기에 앞서 대강만 훑아보더라도, 작품의 해석에 역사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사실적 비평을 필두로 특히, 엘리자베스 시대 연극계의 공연환경이나 예술적 관습을 결정적인 해석의 단서로 삼았던 무대비평 학파,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해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신서지학과 신비평의 세밀한 언어분석을 통해 다층적인 이미지 패턴을 읽어내는 시적 접근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새로운 학파들의 대표적 저서들이 이 시기에 발간되었다.

분명히 이 부문의 도서 선정에 참여한 이들은 이런 학술동향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 셰익스피어 학술장을 주도한 선진적인 학파들의 책이 두루 수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책 수 또한 20여종으로 적지 않아서 일반적인 주제 연구에 해당되는 서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바로 이 부류의 책들에서 위에서 말한 도서 선정의 문제가 두드러져서, 비교적 수궁이 가는 이전 시기의 도서 선정과 대조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애쓴 흔적이 보이지만 결국 중심부 학계와 상당한 시차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장서 구성에서 드러나는 학문적 수준에 대한 이런 평가는 추측의 성격이 짙기에 추가적인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단 위의 두 번째 각주에서 언급한, 도서관의 장서 구입 계획과 강좌 운영과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할 때 당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문학 전공 과정에서 개설된 셰익스피어 관련 강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19세기 중후반까지의 연구경향을 따라 초월적인 천재로서의 셰익스피어 상을 역설하는 강의 주를 이루었을 공산이 크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부문 장서에서

드러나는 허점이 어느 정도로 도서 확보의 어려움에서 기인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타 영문학 부문의 장서, 특히 경성제국대학 영문학 전공과정에서 두드러지게 강제였던 시 부문 장서와의 비교가 필수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내지'의 제국대학, 특히 도쿄 제국대학의 장서와도 비교하면 이 사안은 더욱 명확하게 정리될 것이다.

개별 해제대상의 분류	종수와 책수	백분율(%)
19세기까지의 셰익스피어 연구	13종 15책	44.8 (46.9)
20세기의 셰익스피어 연구	5종 5책	17.2 (15.6)
셰익스피어 참고서적	6종 7책	20.7 (21.9)
중간합	24종 27책	82.7 (84.4)
비-셰익스피어	5종 5책	17.3 (16.6)
총합	29종 32책	100 (100)

위의 장서분석에 기반하여 개별 해제 대상 도서 29종을 선정했다. 당연히 셰익스피어 관련 학술서 위주이지만, 대략적인 장서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그 밖의 도서들 중에서도 5종을 선정했다. 이 5종 중에는 학술서 이외에도, 다분히 대중적인 성격의 작가 전기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도 출간되어 계속 읽힐 만큼 그 나름으로 고전의 지위를 얻은 책들이기에 선정의 기초에 어긋나는 것을 감수할만했다. 셰익스피어 관련 학술서의 경우, 거의 그대로 목차로 쓰인 위의 분류표가 말해주듯이 최초 발간된 연도순으로 실었다. 이런 배치는 위의 분석에서 읽어낸 장서 구성의 주된 방향성, 즉 당시까지의 셰익스피어 비평사의 전체 흐름을 아우르겠다는 야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목표는 20세기 초중반기에 급격하게 분화되어간 다양한 연구의 갈래에 직면해 확연히 역부족의

양상을 보이기에 해제 대상 도서의 선정은 그 이전 시기로 치우친 편이다. 이런 연대기적 구성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셰익스피어 비평사의 전개과정을 보여준다면 이 해제집의 쓸모가 늘어나리라는 판단도 있었다. 물론 그러자면 이 장서에서 거른 중요 저자와 저서들을 꽤 많이 언급해야 했다. 해제 대상 도서의 비평사적 맥락화를 위해서도 필요했던 그런 추가적인 정보 탓에 전반적으로 각 해제 항목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도서들을 해제 대상으로 삼지 못한 것은 아쉽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대한 연구서로는 여러 극작가를 사회경제사적 맥락에서 비교하는 연구서 한 권을 선정해 비-셰익스피어 장에 포함시켰고, 일반적인 주제 연구에 해당되는 서적은 아예 선정에서 배제했다. 반면 대중서 내지는 비-문학 분야로 분류한 책들 중에서는 2종을 선정해 셰익스피어 참고서적 장에 포함시켰다. 앞선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분류가 충분히 가능한데다가, 꼭 소개하고 싶을 만큼 여러 모로 특색있는 책들이기 때문이었다.

2) 희곡집 부문

희곡집, 즉 희곡 작품 부문의 장서는 희곡 부문에 비해 셰익스피어에 치우친 정도가 훨씬 덜하다. 바로 아래 표에서 정리했다시피 책 수를 기준으로 장서의 60% 이상이 셰익스피어 이외의 작품에 할애되어 있다. 그 150종 182책 분량의 작품집은 희곡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비율로 시기별로 분배되어 있다. 두 번째 표를 보면 영국 희곡사의 발흥기이자 최고 전성기이기도 한 엘리자베스 시대를 포함한 17세기와 세계적인 명성의 영국 극작가를 여럿 배출한 20세기의 비중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문 장서는 이 정도 규모로는 상당히 내실 있는 구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장서에서 발견되는, 셰익

스피어를 위시한 45명의 극작가는 영국 희곡사의 가장 중요한 이름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으며, 작품 판본의 선택 측면에서도 앞선 희곡 부문과 호응하여 학술적인 비평관 위주여서 대학 도서관다운 품격을 갖추고 있다. 대체로 이런 평가가 타당하지만, 좀더 면밀히 살폈을 때 몇몇 중요 극작가가 누락되는 등 허술한 점이 없지는 않다. 이런 점까지 아울러 셰익스피어와 비-셰익스피어로 나누어 장서 구성의 주요한 특성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작가	종수와 책수	백분율(%)
셰익스피어	54종 103책	26.5 (36.1)
비-셰익스피어	150종 182책	73.5 (63.9)
총합	204종 285책	100 (100)

작품의 출간시기	종수와 책수	백분율(%)
17세기	48종 58책	32.0 (31.9)
18세기	19종 19책	12.7 (10.4)
19세기	16종 20책	10.7 (11.0)
20세기	54종 69책	36.0 (37.9)
각종 시기·장르별 선집	13종 16책	8.6 (8.8)
총합	150종 182책	100 (100)

이 장서의 셰익스피어 작품집은 거의 전집류이다. 도서의 종수와 책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이다. 그러나 청구기호 부여가 일관되지 않아서, 같은 전집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1부터 시작하는 추가 일련번호를 붙이는 대신 개별 종의 도서로 세서 일련번호가 그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른 부문 장서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판단이겠지만,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도서 분류 체계가 여러모로 엉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전집류 혹은 그에 준하는 시리즈가 낱권씩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아마도 출간이 진행중인 전집을 시차를 두고 입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 전집 형태가 영어권 셰익스피어 출판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런 전집 위주의 도서 선정은 당연한 것이다. 거의 전권을 갖춘 셰익스피어 전집만도 10종을 상회하는데, 그 면면이 다채롭다.

일단 전집의 편제 측면에서 보자면 20세기 들어 표준으로 자리잡은 작품별 1권 체제의 전집이 주를 이루지만, 19세기 후반까지 유행했던 단권형 혹은 희극, 비극, 역사극별로 모아 실은 3권 체제의 전집도 있다. 용도 면에서도 가정 비치용으로 기획된 대형 삽화판에서 집주본(集註本, variorum)이라 불리는 가장 엄격한 비평판을 포함해 다양한 성격의 학술적 판본들을 아우른다. 작품별 1권 체제의 전집이 학술적 판본인 경우가 많은데, 게 중에는 학생용 셰익스피어를 표방하며 기존의 학술적 성과를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집해 실은 전집류도 1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전집을 짜임새 있게 구비해 놓은 모습에서 희곡 부문의 장서 구성과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 연구의 초입에 있다는 자의식과 함께 향후 연구의 기초를 착실히 다지겠다는 열의가 읽힌다. 아마도 이 부문 장서 구성에 관여한 이들은 1623년 발간된 최초의 셰익스피어 전집인 첫 번째 이절판, 즉 F(olio)1 판본의 영인본에 각별히 자부심을 느꼈지 싶다. 그 전집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셰익스피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인 까닭이다. 동시에 몇 권 안 되기는 해도 엄선된 것으로 보이는 단행본 작품집들은 보다 최신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한 것들이었다. 대체로 서가의 뒷편에 배치되어 있는 그 작품집들은 그간 F1 판본에 비해 신뢰받지 못했던 셰익스피어 당대의 사절판, 즉 Q(uarto) 판본의 학술적 영인본 혹은 그간 F1 판본에 포함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셰익스피어의 정전 목록에서 배제되었던 이른바 외경(apocrypha)의 비평판 혹은 선집들이었다. 18세기에 이어 19세기 후반부터 서지학적인 연구가 다시금 활성화되면서 셰익스피어의 본문, 더 나아가 작품목록에 대한 재검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경성제국대학의 장서가 수집되던 시기에 이르러서는 셰익스피어 연구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렇듯 셰익스피어 작품집의 수집 역시 여러모로 이후의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 장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자료를 빠트린 상태이기도 했다. 이 장서에는 20세기 초반까지도 가장 권위있는 셰익스피어 전집으로 여겨진 캠브리지 판 전집이 없었다. 이 전집은 글로브 판(the Globe edition)이라고 불린 단권형 형태로 널리 보급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이 전집에서 본문 인용을 하는 것이 셰익스피어 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물론 그 본문을 그대로 차용한 여타 전집들이 많았고, 이 부문 장서에 포함된 전집 여러 종도 그러했다. 그러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도서관이라면 당연히 원래의 학계 표준 판본을 갖추어 놓아야 했다. 이 장서의 이런 결정적인 공백은 상당히 의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앞서 희곡 부문의 장서구성과 마찬가지로 드높은 셰익스피어 학습의 열의와는 별개로 연구 수준은 아직 변변치 않았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셰익스피어 연구에서 판본의 중요성조차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집 중에서는 전집 7종과 단행본 3종을 개별 해제 대상 도서로 선정했다. 전집에 대한 해제는 그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위에서 언급한 편제나 삽화의 유무 말고도, 전집들은 저마다 다양한 측면에서 특색을 갖추고 있었다. 예컨대, 본격적인 학술

적 전집의 경우 공통적으로 저본(底本)의 선택과 정정(emendation)을 통한 작품 본문의 개선이 편집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어휘해설 등의 특정 부록 항목에 주안점을 두으로써 다른 전집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행본 작품집의 경우에는 출판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학술 동향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켰다.

17세기, 특히 전반기 엘리자베스 시대 작품의 수집은 셰익스피어 못지않게 포괄적이었다. 이 부문 장서가 작품집을 보유한 총 13명의 17세기 극작가 중에서 11명이 엘리자베스 시대에 활동한 이들이었고, 그 시기의 중요 극작가들을 거의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었다. 극작가 간 작품집 수의 배분도 문학사적 위상에 비추어 적절해서, 예컨대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엘리자베스 시대를 대표하는 극작가였던 벤 존슨의 경우 6권짜리 전집을 포함 총 16권의 작품집이 있었다. 추가로 이 시기 작품의 수집은 선집에 의해 보완된다. 희곡집 부문에 포함된 총 13종의 선집 중에서 6종이나 엘리자베스 시대 극작품에 국한된 것이었다. 희곡 부문 장서에서 이 시기 관련 연구서의 비중이 컸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확실히 장서 구축을 주도한 이들은 엘리자베스 시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법학원(inns of court)에서 공연된 대본들의 비평판을 5권이나 갖추고 있었던 것은, 본격적인 영국 극문학의 기원으로서 때로는 작가가 불분명한 그 아마추어 작품들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비평적 식견을 말해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으로 가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편의상 같은 시기로 묶기는 했지만, 사실 17세기 후반은 근본적인 역사적 변동과 얽혀 문학사적으로도 전반기와 완전히 분리된 시기이다. 공화정의 종식 이후 1660년부터 시작된 왕정복고기 동안 복권한 귀족들의 주도로 대륙의 신고전주의적 문학관이 규범화되었으며, 풍속희극 같은 새로운

장르들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 부문 장서에는 이 시기에 활동한 극작가의 작품이 드라이든(John Dryden, 1631-1700)의 것밖에 없었다. 물론 드라이든은 희곡을 포함하여 여러 장르에 걸쳐 왕정복고기 최고의 작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시기를 대표하는 극 장르인 풍속희곡 작품집이 한 권도 없는 것은 상당히 의아하다. 적어도 영국 문학사 최고의 걸작 희극으로 꼽히는 『세상의 이치』(*The Way of the World*)를 내놓는 등 풍속희곡의 토착화에 크게 기여한 콩크리브(William Congreve, 1670-1729)의 작품집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했다.

반면 18세기 작품은 아예 이 장르 위주로 수집되어 있다. 총 19종의 책 중에서 1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풍속희곡의 부흥을 가져왔던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 1728-1774)와 셰리든(Richard Brinsley Sheridan, 1751-1816)의 작품들이다. 사실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이 두 극작가들의 작품 수는 그리 많지 않아서, 동일한 대표작들이 여러 작품집에 반복해서 실려 있다. 물론 게 중에는 학술적 비평판을 비롯하여 그 나름의 특색을 갖춘 것들도 있지만, 역시나 이런 중복된 도서 수집을 아주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 시기 작품들 중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로서 필딩(Henry Fielding, 1707-1754)의 극작품이 장서에 포함된 것이 놀랍다. 두말할 것 없이 필딩은 소설가로 훨씬 유명하고, 10년 동안의 그의 극작 활동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거론될 때도 거의 창작 경력의 오점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19세기의 경우 특이하게도 두어 명의 군소 극작가들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시인으로 더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다. 작가들은 통상 낭만주의 2세대로 분류되는 19세기 전반기의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와 바이런에서 중후반기의 브라우닝(Robert Browning, 1812-1889)과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1892)을 거쳐 후반기의

스윈번(Algernon Charles Swinburne, 1837-1909)을 아우른다. 생애 말년에 희곡 전집까지 발간한 스윈번을 제외하면 이들의 극작 활동은 대개 간헐적이거나 단발성의 시도에 가까웠고, 상업적인 연극 무대에서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둔 사례도 전무했다. 다만 셸리와 바이런의 작품들은 애초에 무대극을 지향하지 않았고, 위낙 19세기 초반이 연극사적으로 볼모의 시기이기도 한 탓에 단지 희귀한 사례로서가 아니라 영국 희곡사에서 그 시기를 대표하는 독자적인 예술적 성취로 거론되고는 한다. 그러나 역시 이들은 물론이고 낭만주의 계열 후배 시인들의 실패한 극작품까지 망라하여 수집된 것은, 위의 두 번째 각주에서 언급했듯 낭만주의 시기에 크게 치우쳤던 당시 경성제국대학 영문학 전공과정 교수진의 관심을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점이라면 보유 작가의 수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희곡집 부문 장서는 무려 20세기에 활동한 극작가 19명의 작품을 갖추고 있었다. 그 중에서 쇼나 배리 외에 아직까지도 거론되는 작가라면 골스워드(John Galsworthy, 1867-1933)나 베넷(Arnold Bennett, 1867-1931)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장서가 수집되던 동시대의 작가들이라 다른 시기처럼 문학사의 정전 위주로 수집하는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군소작가들의 작품 수가 한두 권인데 반해 골스워드나 베넷의 작품 수는 각각 5권으로서, 대체로 작가별 작품 수는 이후에 확립될 명성에 비례하는 편이다. 한편 여기서도 분류상의 결정적인 오류가 나타난다.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자연주의 문예운동을 주도한 하우스프만(Gerhart Hauptmann, 1862-1946) 영역본이 이 부문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희곡 부문에 독일어 셰익스피어 연구서가 대거 존재하는 것처럼 분류는 당연히 작가와 작품의 원래 국적을 따르는 게 맞다. 아무래도 당시 도서관의 실무 인

력이 하우프만의 국적을 몰랐을 공산이 크다.

비-셰익스피어 작품집은 총 14종을 개별 해제 대상 도서로 선정했다. 창작 연대별로 17, 18세기 작품이 각각 5권, 3권씩이고, 이어서 19, 20세기 작품은 모두 2권씩이며, 여기에 2권의 선집을 보탤다. 장서의 연대별 구성 비율을 반영하고자 했지만, 17세기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두 권의 선집은 이런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정되었다. 두 선집은 각각 엘리자베스 시대 이전과 이후 영국 희곡사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싣고 있다. 이 두 선집에 대한 해제는 그 수록작품들을 일별하며 영국 희곡사의 전개과정을 간추려 정리하고자 했다. 그 밖의 작품집에 대한 해제는 작가 소개에 이어 소략하게 플롯을 정리한 후 특색있는 판본의 경우 책의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끝으로, 각별히 주목해 주었으면 하는 작품집이 있어 미리 몇 마디 소개하고자 한다. 이 해제집의 제일 마지막 항목에서 다루는 작품집은 비교적 덜 유명한 쇼의 작품 하나를 싣고 있을 뿐이지만, 출간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일본에서 긴 시간 영어 교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의 편자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 문화를 열렬히 사랑했던 나라가 전쟁의 광기로 치닫는 와중에 미약하게나마 그런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려 했던 시도로 인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게 되었는지를 꼭 읽어주기를 바란다.

셰익스피어 작품목록

이후의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목록을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각 작품의 널리 통용되는 한글 제목과 영어 원제를 함께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소략하게나마 작품의 분류와 목록화정을 둘러싼 연구사적 맥락을 언급하며 셰익스피어 관련 서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르명 등 몇몇 중요 용어와 개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단 다음은 흔히 F1으로 약칭되는, 첫 번째 이절판(the First Folio) 전집에 수록된 작품목록이다. 1623년 출간된 그 최초의 셰익스피어 전집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씨의 희극과 역사극 및 비극』(*Mr. William Shakespeare's Comedies, Histories & Tragedies*)이라는 이름처럼 총 36편의 수록작품을 세 장르로 구분해 실고 있었다.

| 희극 |

1. 『템페스트』(*The Tempest*)
2. 『베로나의 두 신사』(*The Two Gentlemen of Verona*)
3.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The Merry Wives of Windsor*)
4.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
5. 『실수연발』(*The Comedy of Errors*)
6. 『헛소동』(*Much Ado About Nothing*)
7. 『사랑의 헛수고』(*Love's Labour's Lost*)
8. 『한여름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

9.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10.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
11.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
12. 『끝이 좋으면 다 좋다』(*All's Well That Ends Well*)
13. 『십이야』(*Twelfth Night*)
14. 『겨울 이야기』(*The Winter's Tale*)

| 역사극 |

15. 『존 왕』(*King John*)
16. 『리처드 2세』(*Richard II*)
17. 『헨리 4세 1부』(*Henry IV, Part 1*)
18. 『헨리 4세 2부』(*Henry IV, Part 2*)
19. 『헨리 5세』(*Henry V*)
20. 『헨리 6세 1부』(*Henry VI, Part 1*)
21. 『헨리 6세 2부』(*Henry VI, Part 2*)
22. 『헨리 6세 3부』(*Henry VI, Part 3*)
23. 『리처드 3세』(*Richard III*)
24. 『헨리 8세』(*Henry VIII*)

| 비극 |

25.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Troilus and Cressida*)
26.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
27.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Titus Andronicus*)
28.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29. 『아테네의 타이먼』(*Timon of Athens*)
30.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
31. 『맥베스』(*Macbeth*)
32. 『햄릿』(*Hamlet*)
33. 『리어 왕』(*King Lear*)
34. 『오셀로』(*Othello*)
35.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Antony and Cleopatra*)
36. 『심벌린』(*Cymbeline*)

위의 세 장르 중에서 (셰익스피어 당대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실제 역사를 각색한) 역사극의 분류는 자명한 것이지만, 희극(Comedy)과 비극(tragedy)은 현대적 의미와는 달라서 그 구분은 순전히 해피엔딩의 유무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새로운 장르 구분이 도입되었다. 위의 비극들 중에서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로마극(Roman plays)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다시 더 세분화해서 그 중에서 실제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작품들은 로마 사극(Roman historical plays)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다소 비현실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마술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템페스트』 등의 몇몇 후기 작품들은 로맨스(Romance)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연구사에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잘 알려진 새로운 장르 구분 시도는 역시나 문제극(problem play) 논의이다. 희비극의 특징을 아우르고 있는 탓에 장르 구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군의 작품들을 문제극으로 부르자는 제안이 널리 수용되었던 것이다. 각각 위의 희극 중에서는 『자로는 자로』와 『끝이 좋으면 다 좋다』가, 비극 중에서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가 전형적인 사례로 여겨지지만, 그밖에

도 『햄릿』을 비롯한 다수의 작품들이 문제극의 후보로 거론되어왔다. 현재는 작품의 장르구분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연구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논의는 셰익스피어 연구사의 중요한 유산임에는 틀림없다. 이 해제집의 대상이 되는 연구서들이 주로 출간되었던 대략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은 그런 논의들이 무척 활발했던 시기이기에, 여러 해제 항목에 걸쳐 거론될 것이다. 이와 연관된 논의로서 동시기를 흥미했던, (대개는 셰익스피어의 전체 창작 경력이 비극으로 수렴된다는 전제 하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의 창작 순서를 확정지으려는 시도 또한 이 해제집에서 자주 언급되는 연구주제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목록 또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에서 소개한 장르 구분만큼은 아니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의 유동적인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F1 전집의 권위에 도전했던 학자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개는 위의 작품목록에 새로운 작품을 발굴해서 추가하려는 시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대중적인 인식 속에서도 위의 36편 외에 적어도 다음 두 작품, 즉 『페리클레스, 타이어의 왕자』(*Pericles, Prince of Tyre*)와 『두 귀족 친척』(*Two Noble Kinsmen*) 정도는 셰익스피어의 정전으로 자리잡았고, 최근에는 『에드워드 3세』(*Edward III*)를 포함시키는 학술판 전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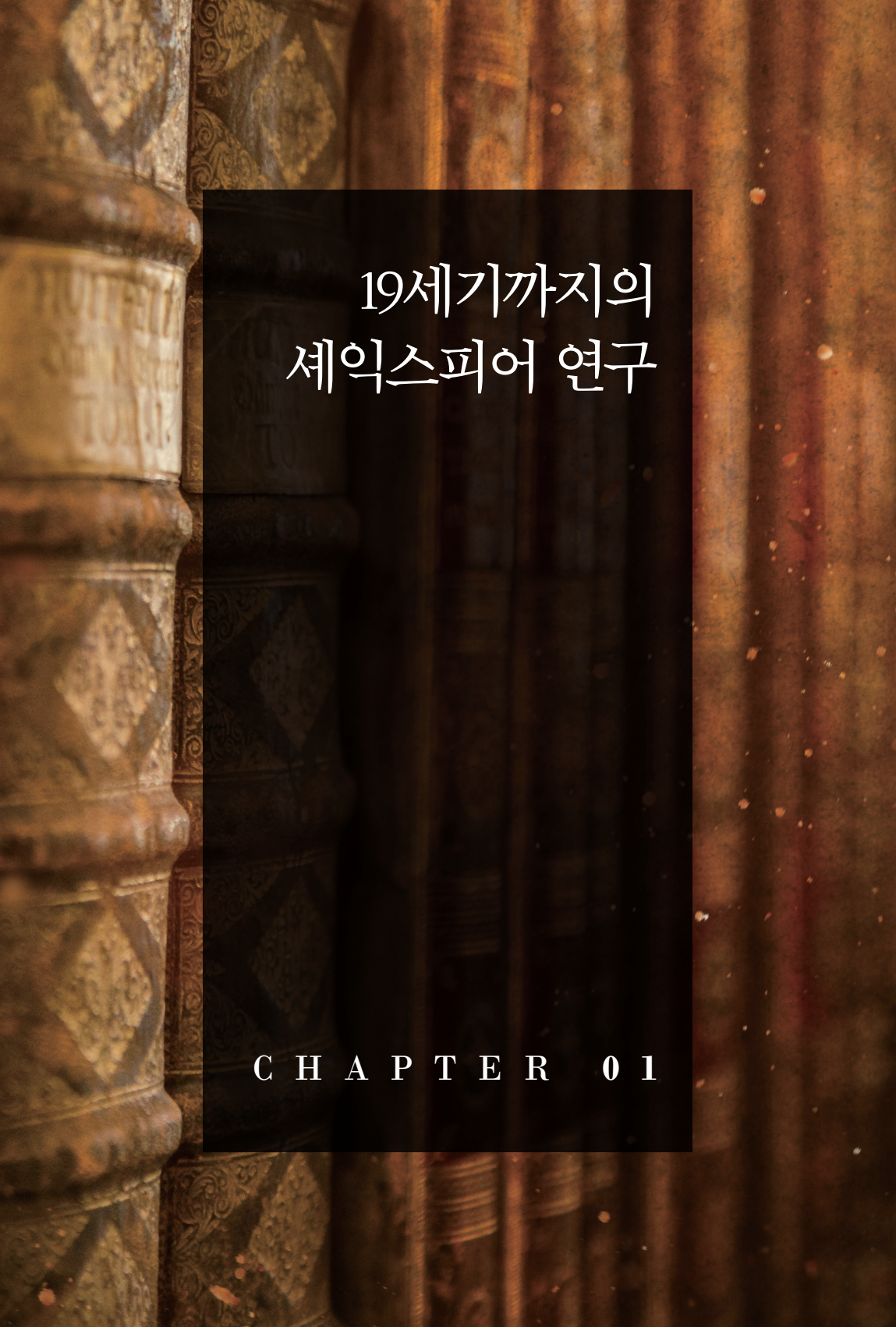
일단 크게 보아 F1 전집이 오랜 기간 큰 부침없이 그 권위를 유지해 온 이유는 초기 셰익스피어 출판의 역사를 보면 쉽게 수긍이 된다. 당대 최고의 인기작가였던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상당수가 그의 생전부터 자주 출간되었는데, 대개는 이절판의 반 크기인 사절판(quarto) 형태였지만 아주 드물게 팔절판(octave)인 경우도 있었다. 보통 작품마다 여러 판본이 있었고, 『헨리 4세 1부』같이 특별히 인기있던 작품은 8차례나 출간되었다. 이 해제집에도 종종 언급되는데, 학자들은 동일한 작품의 여

러 사절판 판본을 출간연도순으로 번호를 매겨 어떤 작품의 Q1, 2, 3, ... 으로 명명해 서로 구분한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생전에 자기 작품의 출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된 보다 자세한 사정은 이후 해제집의 몇몇 항목에서 설명되겠지만, 여기서는 작가를 배제하는 것이 셰익스피어 당대의 일반적인 출판관행이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당시의 출판업자들 중에서는 작품 본문을 싸게 확보하기 위해서 관객에게 대사를 외워 오게 시키는 등의 불법을 개의치 않는 부류들도 흔했고, 인기가 높았던 셰익스피어의 경우에는 다른 작가의 작품이 그의 이름을 달고 출간되는 일마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F1 전집은 셰익스피어의 사후에 발간되기는 했지만, 킹스맨(King's Men) 극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 배우들인 헤밍(John Heminge, 1566-1630)과 콘델(Henry Condell, 1576-1627)이 출간을 주도했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당장 총 수록작품 36편 중에서 무려 18편이 이 전집을 통해서 최초로 출간되었다. 그 작품군은 『맥베스』, 『줄리어스 시저』, 『템페스트』, 『자에는 자로』, 『십이야』, 『헨리 6세 1부』 등 위에서 언급한 모든 장르에 걸쳐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으로 간주되는 작품들을 망라하고 있었다. 셰익스피어의 작업 중인 수고(보통 정리가 안 된 상태라 foul paper 라 불린다)나 극단이 보관 중이던 정리된 원고 및 각종 지문을 포함하고 있는 공연진행용 대본(prompt book) 등 본인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집이 한 권씩 인쇄될 때마다 검토하는 등 그들이 이 전집의 출간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일화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절판 판형의 선택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신념을 웅변한다. 출판용 전지를 한번만 접어 가로 세로 각각 대략 20-22cm, 31-33cm 크기의 이 대형 판형은 주로 고전의 출판에나 사

용되었던 것이다. F1 전집은 영국에서 당대 자국의 극작품을 이 관형으로 인쇄한 최초의 사례였다.

그러나 F1 전집에 실린 작품만을 셰익스피어의 것으로 보고 작품 본문의 유일한 저본으로 삼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학계의 관행은 설득력을 잃었고, 사절판으로만 출판된 작품들도 셰익스피어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셰익스피어 연구사의 일대전환을 가져온 사절판의 재평가는 20세기 초반 신서지학과 공로였다. 그 학자들의 주장은, 그간의 통념과는 달리 사절판중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극단 소유의 원고에 바탕한 이른바 ‘우량 사절판’(good quartos)이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 판본들은 셰익스피어 본문을 연구하는 데 F1 전집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으로 간추릴 수 있다. F1 전집의 편집자들은 사절판을 악마화하는 데 열심이었던 반면, 이후 연구에 의하면 정작 F1 전집에 실린 몇몇 작품들 또한 기존의 사절판을 저본으로 삼고 있었다. 이 장서가 수집되던 시기가 바로 신서지학과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와 겹치는지라, 그들의 연구서의 예도 그들이 출간을 주도한 사절판 영인본 및 관련 저술들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그리고 최초의 셰익스피어 전집 출간 붐이 일었던 18세기 중후반 이래로 서지학은 언제나 셰익스피어 연구의 중심 분야이기도 했다. 바드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숭배 풍조가 일 정도로 셰익스피어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작품 본문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져갔지만, 그런 작업은 궁극에는 셰익스피어의 의도를 최대한 근사치로 추정하는 성격을 띠었기에 영원히 논쟁에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집 편집자나 후대의 서지학자들은 최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본문의 개선을 이뤄내고자 했다. 그들의 작업을 본문비평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본문 수정을 정정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것이다.



19세기까지의
셰익스피어 연구

C H A P T E R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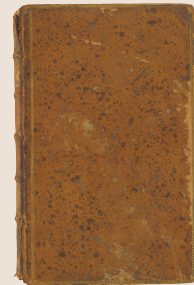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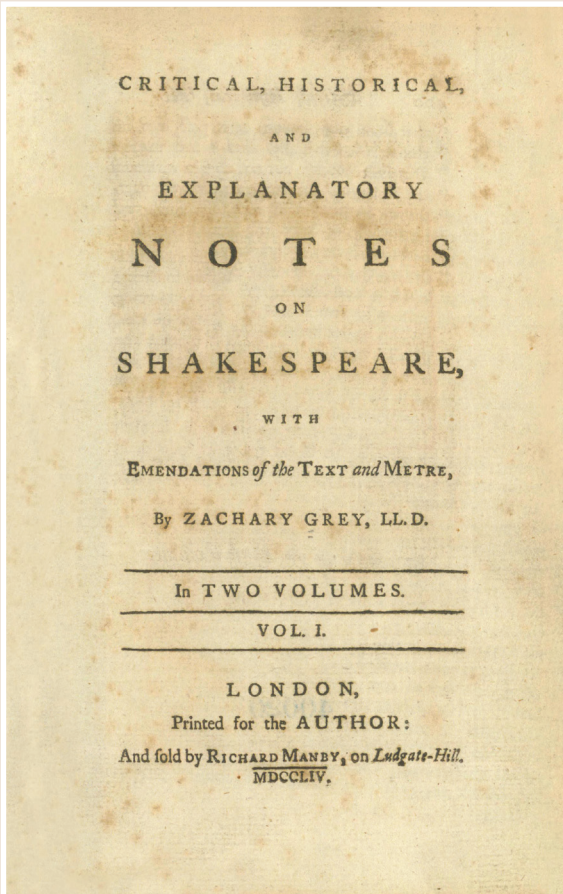
F340 10 1-2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평적, 역사적, 해설적 주 -
본문과 운율의 정정 포함

*Critical, Historical, and Explanatory Notes on Shakespeare with Emendations
of the Text and Metre*

Zachary Grey 저술

London : Printed for the author, and sold by Richard Manby, 1754.



셰익스피어 비평사에서 18세기는 무엇보다 위대한 본문비평의 시기로 기록된다. 그것은 직전 시기와 비교하면 완벽한 반전이었다. 직전의 왕정복고기(Restoration period, 1660-1688) 동안 셰익스피어는 대개는 번안되어 공연되었다. 왕과 함께 귀환한 귀족들이 망명생활 중에 학습한 대륙의 신고전주의적 문학관이 확산되었고, 셰익스피어는 이런 강력한 문화적 규범에 의거하는 과격한 개작을 거치고서야 공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예 연극이 금지되었던 그 이전의 내전기와 공화정 시기까지 포함하여 셰익스피어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곧 종식되고 셰익스피어에 대한 평가는 반등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럴수록 신뢰할 수 있는 본문을 갖춘 셰익스피어 작품집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18세기 내내 당대의 내노라하는 저명한 작가와 문필가, 그리고 학자들이 셰익스피어 본문을 확정짓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하여 저마다 탁월한 본문비평의 성과임을 자부하는 셰익스피어 전집이 다수 발간되었다. 18세기의 셰익스피어 전집 편집자로는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이었던 시인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와 비평가 새뮤얼 존슨이 가장 유명하지만, 셰익스피어 본문의 개선 측면에서 시오볼드(Lewis Theobald, 1688-1744)나 워버튼(William Warburton, 1698-1779) 그리고 말론(Edmond Malone, 1741-1812)처럼 평생에 걸쳐 셰익스피어와 엘리자베스 시대의 문학과 문헌을 연구한 이들의 기여가 훨씬 더 컸다.

후대에 와서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학자 부류의 편집자들이 이 일생일대의 과업에 들인 공은 가히 초인적이었다. 예컨대, 시오볼드 같은 이는 F1 판본을 저본으로 삼되 대개는 그 이전에 출간된 40여개의 Q 판본을 일일이 대교(對校)하는 것을 본문편집 작업의 근간으로 삼았

고, 추측에 의한 정정은 최대한 자제했다. 더 나아가 그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출전으로 추정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셰익스피어가 구사했던 표현과 단어의 정확한 뜻을 추정하기 위해서 800여 편의 과거 극작품을 연구하여 영어의 변천과정을 추적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 300개 이상의 정정을 도입했는데, 그 세밀한 근거를 주에 표기했다. 현재에도 학술적인 성격의 셰익스피어 판본은 작품해석에 관련된 것보다 본문편집의 근거를 밝히는 주가 위주인 것은 바로 이런 학자-편집자들이 확립한 전통이다. 일군의 탁월한 셰익스피어 편집자들은 대개 셰익스피어 전집 출간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오랜 기간 엘리자베스 시대의 문학작품과 문헌을 연구해왔고, 저명한 문인-편집자와 구분되는 이런 일종의 사전작업이 셰익스피어의 본문 개선이라는 성과를 낳는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셰익스피어의 편집자들은 최종적인 판본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꿈이었다. Q 판본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출간·유통된 경우가 적지 않았고, 합법적인 F 판본들의 본문 또한 편집자였던 셰익스피어 동료들의 기억에 의존한 대목이 적지 않았으며, 현대 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출판의 여러 단계에서도 왜곡이 발생했기에 셰익스피어의 본문은 애초에 완벽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문편집은 어느 정도는 셰익스피어의 의도를 최대한 근사치로 추정하는 성격을 띠었고, 따라서 영원히 논쟁에 열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18세기 내내 셰익스피어의 전집 출간과 관련해서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편집자들끼리 자주 협력관계를 맺기도 했던 터라 그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은원(恩怨)관계가 개입되면 논쟁은 과열되어 인신공격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런 사례로는 포프와 시오볼드의 경우가 가장 유명할 것이다. 1726

년 시오블드는 직전 해에 출간된 포프의 셰익스피어 전집을 비판하는, 셰익스피어 비평사에서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평가받는 『복구된 셰익스피어, 혹은 포프 씨의 최근 셰익스피어 판본에서 정정되지 않거나 자행된 다수의 오류에 대한 사례들』(*Shakespeare Restored, or a Specimen of the Many Errors as Well Committed as Unamended by Mr Pope in His Late Edition of This Poet*)을 출간했다. 1728년 포프는 그에 대한 ‘답례’로 그 유명한 풍자시 『던시아드』(*Dunciad*, ‘바보 열전’ 정도의 의미)를 썼는데, 그 작품에서 한껏 조롱되는 바보들의 왕은 대번 시오블드의 이름이 연상되는 티발드(Tibbald)였다.

그레이(1688-1766)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평적, 역사적, 해설적 주 - 본문과 운율의 정정 포함』 또한 비슷한 출판 배경이 있는데, 그레이의 적수는 18세기에 다섯 번째로 나온 셰익스피어 전집의 편집자였던 워버튼이었고 여러 차례 오갔던 둘의 논쟁에는 이전에 전집을 펴낸 포프와 핸머(Thomas Hanmer, 1677-1746)가 관련되어 있었다.

국교회 목사였던 그레이는 내전기의 출간물을 비롯하여 과거의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그 과정에서 서지학자로서의 수련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저술활동 초기에 그는 영국국교회와 왕정을 옹호하는 팸플릿의 저자로 명성을 얻었는데, 그의 글은 내전기 동안 공화정을 옹호했던 저자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특징이 있었다. 그의 문학관련 저술에서도 유사한 정치적 동기가 반영되었다. 1744년 그는 내전기에 발간된 버틀러(Samuel Butler, 1613-1680)의 『후디브라스』(*Hudibras*)의 주석판을 재출간했는데, 상세한 주를 통해서 이 작품의 풍자가 구체적으로 개신교 교파의 누구를 겨냥했는지를 밝혔다. 바로 이 책의 출간으로 워버튼과의 악연이 시작되었다. 워버튼은 자신의 지인에게 제공한, 버틀러 작품에 대한 주를 그레이가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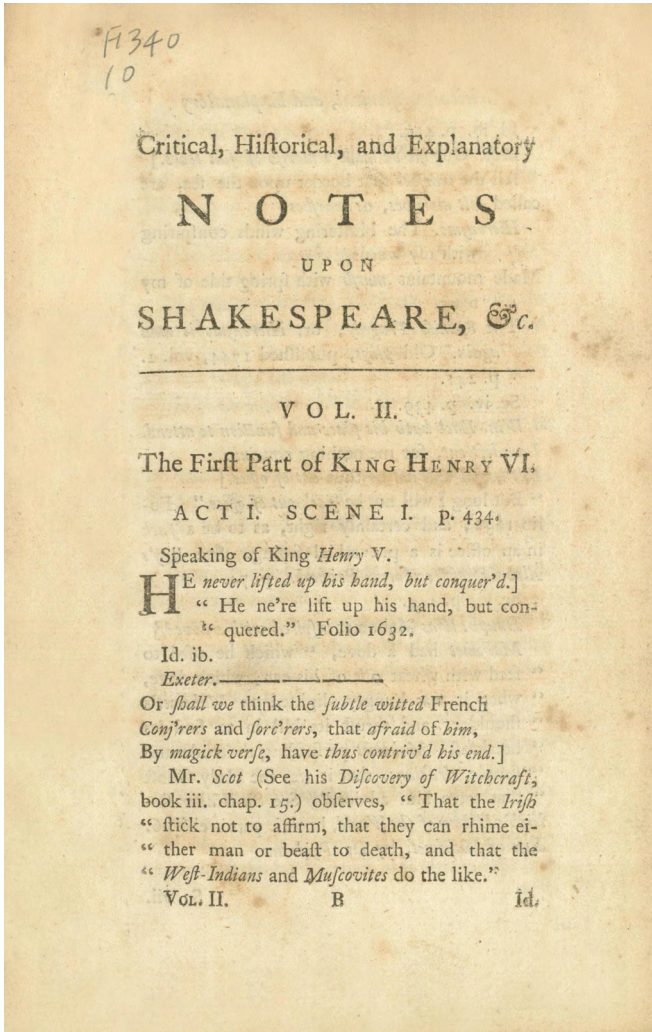
그렇게 이 판본에 대한 둘의 논쟁이 촉발되었고, 곧 논쟁의 대상은 1747년에 출간한 워버튼의 셰익스피어 전집으로 옮겨갔다. 그는 워버튼의 전집을 공격하는 팸플릿을 두 차례나 출판했다. 두 팸플릿은 각각 1747년과 1750년에 나온 『최근의 한 셰익스피어 판본에 대한 논평』(*Remarks Upon a Late Edition of Shakespeare*)과 『셰익스피어와 포프를 크게 개선한 이에게 보내는 친밀하고도 자유로운 편지』(*A Free and Familiar Letter to That Great Refiner of Pope and Shakespeare*)였다. 워버튼을 신랄하게 비꼬는 두 번째 팸플릿의 제목은 시간이 꽤 흐른 후에도 그에 대한 그레이의 악감정이 여전했음을 보여준다. 비판의 핵심적인 논지는 워버튼이 셰익스피어의 여러 판본 중에서 본인이 높이 평가했던 헨머, 그리고 포프의 판본을 훼손했던 것으로 모아진다. 요컨대, 워버튼은 전집의 판매고를 늘리기 위해서 공동편집자로 포프의 이름을 올려놓았지만 실제로는 포프의 전집을 저본으로 삼지 않았고, 한편 그토록 비난했던 헨머 그리고 시오볼드의 전집에서 많은 점을 차용했다는 것이었다.

시오볼드가 포프를 비판한 후 자신도 셰익스피어 전집을 펴냈듯이 선배 셰익스피어 편집자에 대한 비판은 최종적으로는 직접 개선된 판본을 내놓는 것으로 완수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레이 또한 이 해제 대상 서적을 출간하게 되었지만, 아마도 전집 출간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끌어올 만큼의 명망가는 아니었기에 책의 형태는 2권 분량의 정정 사항을 모아놓는 것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본문비평가로서 자부심은 상당했고, 여타 선배 편집자와 구분되는 자신만의 강점으로 인해 셰익스피어의 본문비평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믿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모든 셰익스피어 전집에 공히 나타나는 결점으로 “작품에서 언급되는, 셰익스피어 생애 중에 발생한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 그

리고 당시에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에는 대부분 폐기된 상당수 법률”들이 아예 간과된 점을 꼽으며, 자신이 그 공백을 메움으로써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해에 크게 기여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 그리하여 시오볼드의 경우처럼 셰익스피어 전집의 출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셰익스피어 비평사에서 그레이의 이름은 18세기 초에 활동한 군소 비평가 중의 한 명으로 언급되는 정도이다. 이런 사정은 무엇보다 잘못된 저본의 선택 탓으로 보인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의 본문을 F1 판본과 더불어 시오볼드·헨머·위버튼의 전집에서 인용하고 병기·대조하는 식의 지면 구성을 취했다. 그레이가 높이 평가하는 앞의 두 본문비평가는 모두 포프의 전집을 저본으로 삼았는데, 후대 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포프의 전집은 운율을 개선한 공로를 제외하면 대교정정을 거의 하지 않은 매우 불성실한 판본이었다. 그리고 그레이의 전반적인 셰익스피어 작품평 또한 오랜 기간 셰익스피어 비평의 주류였던 낭만주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매우 고루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오랜 기간 역사를 깊이 연구한 사람답게 셰익스피어의 시대착오(anachronism)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성적인 표현이나 말장난”(jingles, puns and quibbs)이 두드러지는 셰익스피어의 언어습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 책은 다채로운 시각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18세기의 셰익스피어 연구의 정황을 증언하는 흥미로운 사례로, 오늘날과는 사뭇 다른 당시의 출판 관행과 책의 형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역사적 접근이 대세인 이즈음의 셰익스피어 연구경향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 책은 시대를 앞서간 저술로 새로이 주목받게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해본다.



도판 1.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평적, 역사적, 해설적 주』 2권의 1쪽

F340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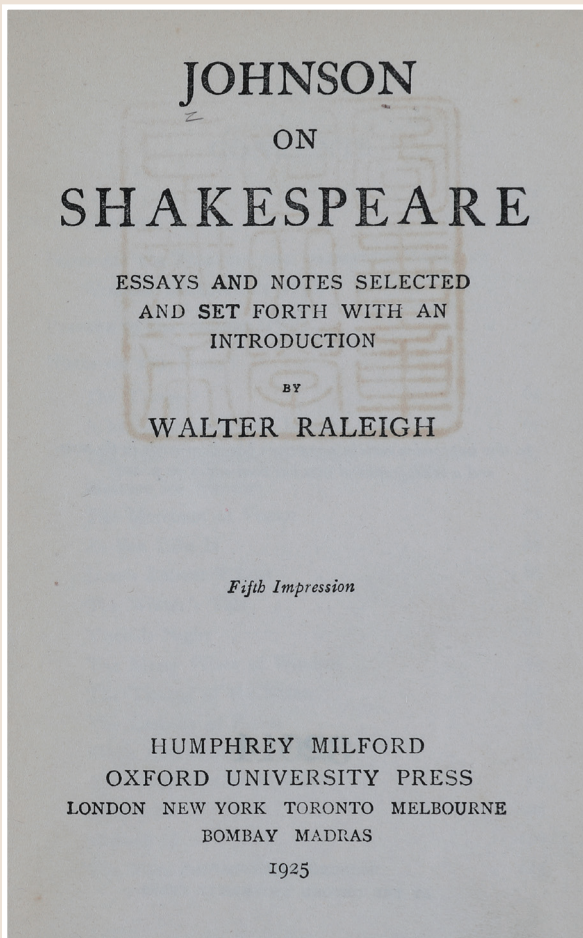
존슨의 셰익스피어론

Johnson on Shakespeare

Samuel Johnson 저술, Walter Raleigh 편집

London, New York, etc. : Oxford University Press, 1925.

* 1765년 최초 발간



18세기는 물론이고 근현대 영국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비평가를 뽑는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새뮤얼 존슨을 꼽는 이가 많을 것이다. 흔히 비평가로 불리지만 사실 그는 창작을 위시한 문필의 여러 영역에 걸쳐 걸출한 업적을 남겼다. 그 중에는 최초의 본격적인 영어사전도 포함되는데, 1755년 출간된 그 사전은 소수의 인원으로 불과 9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표준적인 사전으로 대접받으며 근대영어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옥스퍼드 대학을 중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닥터 존슨'이라고 하면 고유명사처럼 그를 지칭하는 것을 보면, 이 인물에 대한 영국사회의 존경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비평가로서 존슨의 대표적인 업적중의 하나가 바로 셰익스피어에 관한 비평이다. 존슨의 셰익스피어 비평은 본인이 편집한 셰익스피어 전집(1765)의 출간이 계기가 되었다. 그의 주는 다른 편집자들처럼 본문 확정의 근거를 밝히거나 작품의 배경지식을 제공하기보다는 까다로운 대목들의 풀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단지 자구 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나 작품 전체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나름의 비평으로 볼 수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대거 부상하는 이른바 성격연구 경향의 비평가들이 인물 심리에 관한 존슨의 주를 자주 참고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집의 서문이 있다. 존슨은 67쪽 분량의 긴 서문에서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당시의 주요 비평적 논란을 개관하고, 기존 견해를 종합하여 주요 비평 사안 대부분에 대해 셰익스피어를 옹호하는 강력한 논변을 전개했다. 요컨대, 이 서문은 삼단일(三單一)의 법칙과 같은 엄격한 신고전주의적 극작규범에 의거한 비판으로부터 셰익스피어를 성공적으로 옹호했고, (존슨 본인은 서문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도 줄곧 시적 정의의 문제를 거론하며 문학의 교훈성과 점잖음을 강조하는 등 여전히 신고전주의자로서 면모를 고수하지만), 이후 더 적극적으로 셰익스피어를 칭송하는 새로운 비평 흐름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존슨 특유의 압축적 표현에 담긴 명쾌한 논리는 이 서문에 권위를 더했고, 그리하여 오랜 기간 여러 갈래의 셰익스피어 비평이 두루 참고하는 문건으로 남을 수 있었다. 존슨의 전기 작가인 보스웰(James Boswell, 1740-1795)은 그가 편집한 셰익스피어 전집에 대해서 “대가다운 솜씨로 불멸의 존재인 바드의 탁월함과 결점을 펼쳐놓는 서문이 실려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장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는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쓴 바 있다. 시간이 한참 흘러 20세기에 들어서고도 사반세기가 흐른 시점에서 존슨의 서문과 주만 따로 떼어 내 엮은 이 책의 존재가 말해주듯, 존슨 서문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은 정확했다.

간추려 말하면, 존슨의 논변은 그간 결함으로 평가되던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특질들을, 편협한 신고전주의적 규칙보다 더 상위의 예술적 가치인 보편성과 사실성의 표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존슨은 셰익스피어가 고대의 대가들에 버금갈 정도로 현실에 충실한 작가임을 선언하며 서문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거울의 비유가 서문 초반부에 자주 등장하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모든 작가들, 적어도 이 시대의 작가들보다 자연의 시인이다. 그는 독자들을 위해 현실과 인간행태에 정확한 거울을 비추는 시인인 것이다.” 존슨 셰익스피어 비평의 대전제이자 최종결론이기도 한 이 진술은, 곧 셰익스피어 작품의 사실성이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핵심주장에 의해 보충된다. 예컨대,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이색적인 인물들은 개별적인 인간의 형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심리의 보편적 특질들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독자와 관객들이 지위나 처한 상황이 다른, 다채로운 셰익스피어의 인물

군에 두루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사실성을 보편성과 결합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셰익스피어에 대한 여러 혼한 비판을 논박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당장 이국을 배경으로 하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인물들이 해당 국가의 풍속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는 곧 학식의 부족을 보여준다는 비판은 작가가 중시하는 인물 형상화의 보편성을 외면한 것이 된다. 같은 근거로부터 대개는 작품의 통일성을 문제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반론이 제시된다. 예컨대, 고전극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희비극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셰익스피어의 극작술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실제 삶의 모습에 더욱 충실한 것이다. 그랬을 때 반드시 희극과 비극의 효과가 상쇄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증거하는 바였다. 이런 작가의 의도를 외면하고 규범의 무조건적인 준수를 역설하는 것은 그저 편협한 교조일 뿐이었다.

존슨은 창작을 규제하는 신고전주의 극작 규범 중에서도 한 작품에서 극적 사건과 시간 및 장소가 단일해야 한다는 이른바 삼단일 법칙을 가장 작위적인 것으로 꼽았다. 존슨은 연극 공연에서 시공간의 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극이 여러 시간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펼쳐진다고 해서 반드시 플롯의 통일성이 교란되는 것도 아니고, 관객들이 현실과는 다른 극적 사건의 배치를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세련미 면에서 부족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비할 데 없이 풍요로운 예술세계를 구축했다는 것이 존슨의 최종적인 셰익스피어 평이었다. 다음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세계를 자연의 비유를 들어 요약하는 이 서문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다.

엄격하게 규칙을 따르는 작가의 작품은 세밀하게 틀을 잡고 부지런히 가꾸어서 꽃향기가 퍼지고 겹겹으로 그늘진 정원이다. 셰익스피어의 극작은 숲이다. 그곳에는 떡갈나무들이 가지를 뻗고, 소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 곳곳에 잡초와 덩불이 흩어져있어서 종종 도금양나무와 장미에게 숨을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하는 등 대단한 장관이 시선을 사로잡고 끊이지 않는 다양성은 정신을 흡족하게 한다. 다른 시인들은 모양을 잡은 후에 세밀한 마무리를 거쳐 반짝이는 귀중품을 담은 장식장을 전시한다. 반면 셰익스피어는 비록 저급한 광물과 섞여 있고, 불순물로 더러우며, 외각(外殼)에 덮여있긴 해도 금과 금강석을 고갈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품고 있는 광맥을 열어젖힌다.

존슨의 서문이 셰익스피어 비평사에서 분수령으로 작용했고, 영국 문학사 전체에서도 고전적인 산문으로 대접받았다면, 존슨의 주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떨어진다. 존슨의 셰익스피어 전집은 주와 더불어 본문 역시 논란을 야기했다. 전집 발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본문비평 측면에서 준비 부족은 명확했다. 주는 평가가 엇갈리는 편이지만, 진짜 주가 필요한 까다로운 대목을 건너뛰었다는 비판은 근거가 없지 않았다.

이 책의 편집자는 편집자 서문에서 뜻밖에도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바로 존슨을 이해하는 자료로 이 주를 추천한다. 셰익스피어 전집에 달은 주에서만큼 존슨이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스웰이 구축한 존슨 상을 보완하는 자료로 이 주는 존슨의 애독자에게 필독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어떤 해석자 없이 한 시간 정도 존슨과 독대하기를 원하는 독자라면 이 셰익스피어 주에 눈을 돌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들[존슨의 주]은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서도 유려하게 쓰였다. 거기에는 지혜와 사실에 대한 관찰들로 꽂차 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그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

에 견줄 바는 못 되지만, 새삼 존슨에 대한 영국인들의 애착 역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340 17

그리스와 프랑스의 극작가와 비교한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그 천재성에 관한 에세이 - 볼테르 씨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일단의 논평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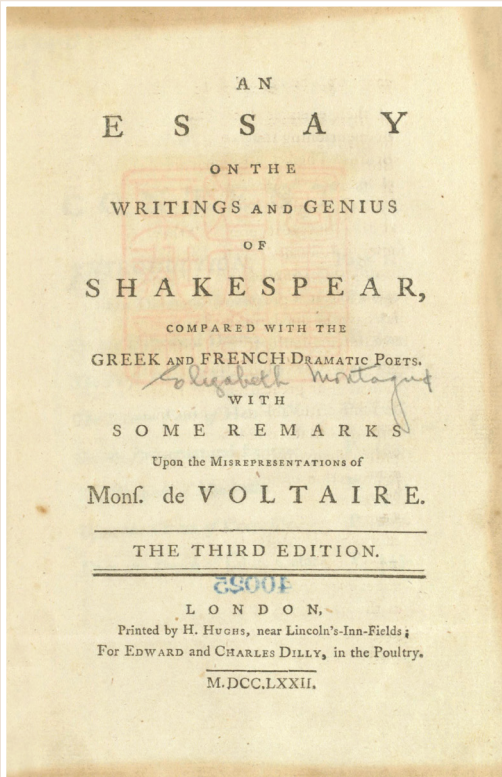
*An Essay on the Writings and Genius of Shakespear, Compared with
the Greek and French Dramatic Poets. With Some Remarks upon the
Misrepresentations of Mons. de Voltaire*

Elizabeth Montagu 저술

London : Printed by H. Huges for Edward and Charles Dilly, 1772.

3rd edition

* 1769년 초판 발간



18세기 셰익스피어 비평의 큰 흐름은 신고전주의의 극복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전 시기 우호적이었던 비평가들도 신고전주의적인 극작 규범에서 벗어나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면모를 약점으로 인정했던 반면, 18세기에 들어서면 점차 그런 수세적인 입장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셰익스피어의 탁월함을 부각하는 비평가들이 늘어났다. 이런 흐름을 대변하는 이가 바로 직전 항목에 소개한 존슨이었다. 그는 일단의 신고전주의 규범 자체를 경직된 교조로 공격함으로써 그 권위를 크게 허물어뜨렸다. 그러나 19세기에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초월적인 천재로 셰익스피어를 찬미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자리잡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신고전주의를 아예 의식하지 않기는 어려웠다. 신고전주의를 문화적 표준으로 전파했던 프랑스가 오랜 기간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군림하며 누렸던 위세가 그만큼 대단했다. 이런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18세기 중반 셰익스피어의 평가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전쟁’이 불거지게 된다.

그 발발의 계기는 볼테르(François-Marie Arouet, 1694-1778)가 제 공했다. 계몽주의 시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한 명이었던 볼테르는 원래는 유명한 ‘앙글로필’(*anglophile*)이었다. 볼테르가 30대 초반 한 세력가 귀족과의 언쟁 끝에 영국으로 망명해 근 3년을 보내면서 입헌 군주제와 언론의 자유 같은 영국의 정치 제도와 환경에 깊은 감명을 받아 영국의 사례들을 프랑스를 비판하는 지렛대로 삼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프랑스로 돌아가서 1734년 출간한 『철학적 서한』(*Lettres philosophiques*)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 책은 ‘영국 서한’이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같은 책에서 그는 영국 지성계의 과학적인 전통도 전했으며, 더불어 당시까지도 프랑스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셰익스피어를 우호적인 시각에서 소개했다. 그 자신이 극작가이기도 했

던 볼테르는, 세련미를 추구하느라 극적인 사건의 구성에 소홀했던 프랑스 연극계가 참조할 만한 대안으로 셰익스피어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완고한 신고전주의자이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셰익스피어가 “극의 규칙을 전혀 모르고 ... 좋은 취향은 흔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셰익스피어를 위시한 영국의 극작품들을 거듭해서 정돈되지 않은 자연 현상에 비유함으로써 반문명적인 것으로 표상했다.

곧 프랑스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인기가 높아졌고, 그러자 그는 신고전주의의 옹호자 역할을 자임하며 영국의 문화적 영향을 격퇴하는 싸움의 선봉에 서게 된다. 공격의 초점은 셰익스피어에 맞추어지고, 이제 그는 셰익스피어에 대해 가장 공격적인 비판자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다. 그는 본인 작품의 서문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과 나눈 편지 등 숱한 경로로 자신의 의견을 펴뜨리고자 애썼는데, 그 비판의 골조는 쉽게 예견되는 바 프랑스 극과 대비되는 셰익스피어의 ‘야만성’으로 모아진다. 영국의 지식계는 크게 반발했고, 볼테르를 직접 거명하며 셰익스피어를 옹호하는 저술들이 여러 편 출간되었다.

『그리스와 프랑스의 극작가와 비교한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천재성에 관한 에세이 - 볼테르 씨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일단의 논평 포함』이라는 긴 책제목이 명시하듯, 몬타구(Elizabeth Montagu, 1718-1800)의 책 역시 볼테르를 적수로 삼아 셰익스피어를 옹호하기 위해 쓰였다. 이 책은 바로 볼테르가 창조한 가장 유명한 인물인 깡피드란 필명으로 비평활동을 한 머피(Arthur Murphy, 17127-1805)의 것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볼테르 비판서 중의 하나이다. 책의 집필은 1768년 고딕 소설을 유행시킨 소설가 월폴(Horace Walpole, 1717-1797)과 볼테르 간의 서한집 출간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그 책에는 역시나 광대(buffoon)나 야만인(savage)같은 자극적인 언사로 셰익스피어를 폄훼하는 볼테르의

편지가 실려 있었던 것이다.

책은 서문을 제외하고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뒤에 일종의 부록처럼 플루타르크(Plutarch) 등 고대 그리스의 현자들이 등장하는 가상의 짧은 대화편(dialogue)이 3편 수록되어 있다.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1장. 「극시에 대해」(“On Dramatic Poesy”)
- 2장. 「역사극에 대해」(“On Historical Drama”)
- 3장. 「『헨리 5세 1부』에 대해」(“*The First Part of Henry IV*”)
- 4장. 「『헨리 5세 2부』에 대해」(“*The Second Part of Henry IV*”)
- 5장.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On the Præternatural Beings”)
- 6장. 「『맥베스』에 대해」(“*The Tragedy of Macbeth*”)
- 7장. 「코르네이유의 『시나』에 대해서」(“Upon the *Cinna* of Comeille”)
- 8장. 「『줄리어스 시저의 죽음』에 대해서」(“Upon the *Death of Julius Caesar*”)

책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저자는 서문에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정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실제로 작품마다 중요 대목을 체계적으로 인용하고 논평을 보태서 본인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총론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세밀한 작품분석을 셰익스피어 비평에 도입한 것은 몬타구가 거의 처음이었다. 그리스 비극을 포함한 고전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는 저자의 박식 또한 중요했다. 책의 말미에 고전을 훑어 낸 대화편을 창작해서 수록한 것도 해박한 고전 지식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컸다. 그리스의 고전비극은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희곡과 셰익스피어를 비교·평가하는 기준이었기에, 자신의 지적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프랑스의 신고전주

의와 그 권위의 근거가 되는 실제 고전과의 관련성을 의문에 부침으로써 볼테르의 셰익스피어 비판을 뒤집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전주의 자체의 권위를 해체하는 논법을 구사한다. 볼테르를 비판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전략은 볼테르의 셰익스피어 이해의 정확성을 문제삼는 것이었다. 저자는 볼테르가 번역한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서 다수의 번역 오류를 찾아냈다.

출간되자마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1785년까지 5번이나 재발간되는 등 이 책이 이례적인 성공을 거둔 데에는 위와 같은 학술적인 차원의 이유 말고도 셰익스피어 옹호를 민족주의적인 대의와 결부시킨 탓도 크다. 저자는 셰익스피어를 천재로 호명하는 만큼이나 자주 ‘우리나라 사람’(our countryman)으로 부르며, 이 천재 극작가를 영국성을 대변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그 방식은 존슨과 마찬가지로 볼테르의 자연/문명 수사를 뒤집어 셰익스피어에 활력과 진취성 같은, 자연의 건강한 자질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셰익스피어의 탁월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문명에 오염된 증표가 된다. “셰익스피어의 대부분의 희곡은 가장 고귀하고도 우아하며 타락하지 않은 소박성을 보여준다. 셰익스피어의 탁월함이 그런 성격을 띠기에 어떤 국가의 취향이 올바르고 세련될수록 그 명성이 높아지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시대에 인정을 받았고, 다음 시대에는 존경을 받았다면, 현재 그는 거의 칭송을 넘어 사모의 대상이 되었다.”

끝으로 저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엘리자베스’ 몬타구는 이 책을 통해 영향력 있는 셰익스피어 비평가로 부상하기 전에는 토론 모임인 블루스타킹 협회(The Blue Stocking Society)를 조직해 상류층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여성의 지적 활동을 고무하고자 했다. 이렇듯 운동가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선구적인 여성 저자의 존재는

후대 페미니즘 비평에 큰 영감을 주었다. 게다가 그녀는 단지 한 명의 셰익스피어 비평가를 넘어, 처음으로 셰익스피어에 대한 세밀한 작품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셰익스피어 비평의 새 장을 연 저자로 평가받기에 더욱 값진 존재였다.

F340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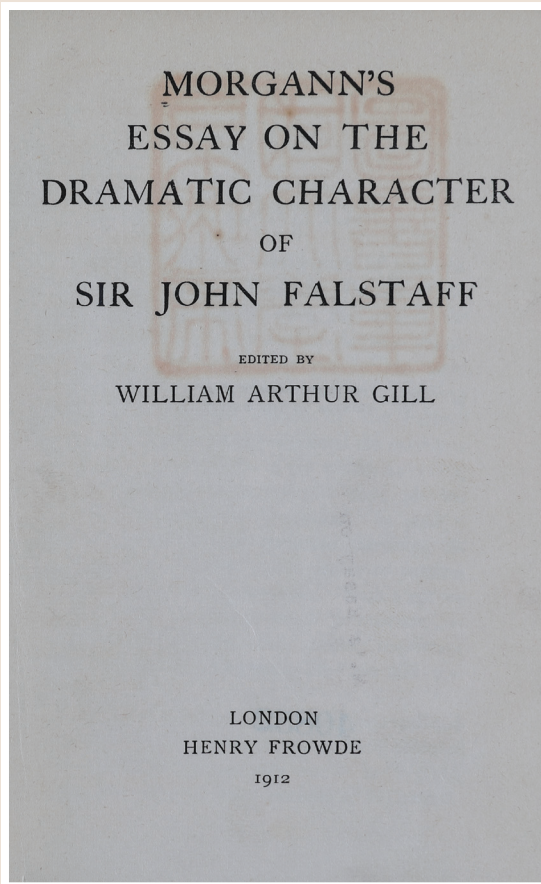
모간의 존 팔스타프 경이라는 극적인물에 대한 에세이

Morgann's Essay on the Dramatic Character of Sir John Falstaff

Maurice Morgann 저술, William Arthur Gill 편집

London : Henry Frowde, 1912.

* 1777년 최초 발간



18세기 후반 셰익스피어 비평에서 대두되는 주요한 흐름 중의 하나로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물에 대한 관심을 꼽을 수 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신고전주의적인 비판이 논박되면서 규범에 구애받지 않는 바드의 독창성에 주목하는 비평이 대세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신고전주의적 문학관에서 플롯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인물 형상화 측면의 경이로운 솜씨를 칭송하는 평자들이 대거 등장했던 것이다. 이전에도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물들의 다채로움과 생생한 형상화 방식을 언급하는 비평가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예 인물들에 초점을 맞춰 인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분석하고 자주 그 허구의 존재들을 실존인물처럼 다루면서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저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비평 사조의 본격적인 확산을 알린 저자로는 웨틀리(Thomas Whately, 1726-1772)와 리차드슨(William Richardson, 1743-1814)이 대표적이다.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한 웨틀리는 1770년 『몇몇 셰익스피어 인물에 대한 논평』(*Remarks on Some of the Characters of Shakespeare*)의 원고를 탈고했고, 사후 10여년이 지나 1785년 책으로 출간되었다. 서문을 제하면 73쪽의 본문으로 구성된 이 얇은 책은 미완성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관심을 끌며 1808년과 1839년에 재출간되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철학교수로 재직하던 리차드슨은 셰익스피어의 인물을 주제로 여러 권의 저서를 펴냈다. 그는 1774년 맥베스와 햄릿 그리고 이모겐 등의 성격을 도덕적 원칙의 사례로 접근하는 『몇몇 주목할 만한 인물들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예시』(*A Philosophical Analysis and Illustrations of Some of Remarkable Characters*)를 낸 이후 계속해서 비슷한 성격의 책을 여러 권 출간했다. 1798년에는 기존 저서에서 15편의 글을 추려낸 『셰익스피어 극의 인물들에 대한 에세이』(*Essays on Shakespeare's Dramatic Characters*)가 나왔는

데, 이 선집은 수정과 증보를 거쳐 5판까지 나왔고, 1812년에도 재출간되었다. 두 저자의 사례 모두 셰익스피어 인물들에 대한 성격연구가 당시에 얼마나 인기있는 비평주제였는지를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두 저자 모두 직업적인 비평가나 전문 연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성격연구는 당시 셰익스피어학의 또 하나의 중요 분야였던 본문비평과는 달리 학술적인 훈련이나 직업적인 문필 경력이 없는 아마추어 저자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었는데, 당시 이 주제가 열렬히 논의되고 많은 책이 출간된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후 성격연구는 오랜 기간 셰익스피어 비평에서 중요한 분야로 남았고,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서가 바로 1904년에 출간된 브래들리의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 『오델로』, 『리어 왕』 그리고 『맥베스』에 대한 강의』(*Shakespearean Tragedy: Lectures on Hamlet, Othello, King Lear, and Macbeth*)였다. 물론 후대의 성격연구는 18세기와는 달리 전반적인 문학연구의 변화에 발맞추어 세밀한 작품 분석에 근거한 형태로 바뀌었다.

모건(Maurice Morgann, 1725-1802) 역시 아마추어 저자로 원래는 식민지 경영과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차관 직책까지 맡았던 고위공직자였다. 그는 친구와의 논쟁에 자극받아 팔스타프에 대한 세간의 통념에 반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초판의 서문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이 인물이 겁쟁이로 보이기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논증하려는 바였다.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촉발된 저술이었지만 책 분량의 원고가 나오면서 출판까지 하게 되었는데, 출간 즉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1777년에 초판이 나오자마자 재판의 출간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소망에 따라 새로운 판본은 저자 생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책의 존재

는 잊혀지지 않았고 사후 20년 가까이 지나 1820년에 재출간되고 곧이어 1825년에도 다시 출간되었으며, 1912년에도 후배 학자의 서문을 단 이 네 번째 판본이 나왔던 것이다.

20세기 들어서도 출간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듯, 이 18세기의 소설가는 오늘날 셰익스피어 성격연구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받으며 대부분의 셰익스피어 비평사에서 반드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성격의 저술로는 웨틀리와 리차드슨의 저서와 더불어 거의 최초의 것이라는 점 이외에도 시대를 앞지른 이 책만의 고유한 특성이 그런 높은 평가를 낳았다.

이 책에는 저자인 모건이 자기 작업의 독창성과 선진성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 많다. 그는 자신의 저술을 ‘실험적인 시도’(experiment)이자 여러 차례 (검손을 가장해) ‘진기한 것’(novelty)으로 칭하고 있다. 이 1912년 판본의 편집자는 서문에서 당시의 성격연구와 구분되는 모건의 독창성이, 희곡의 “인물이 그 인물을 제시하는 극적 수단”에 의해 어느 정도로 조형되고 있는지 살피는 데 있다고 말한다. 당시까지 대부분의 성격연구는 “연극 속 인물을 실제 사람처럼 취급했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다채로운 인물 군상을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의 재료로 삼았다. 반면 모건에게 연극 속 인물은 기본적으로 허구의 존재로, 극작가의 기예의 산물이었다. 이런 입장에 기반한 모건의 팔스타프 인물론은 ‘팔스타프가 과연 겁쟁이인가’라는 최초의 질문을 이 인물에 대한 독자와 관객의 반응에 대한 것으로 바꿔놓는다. 팔스타프는 작품 속에서 기사의 의무를 배반했고 그런 비겁한 행동은 절대 완전히 잊혀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활력과 기지의 인물로 기억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질문을 인물에서 인물에 대한 인상으로 바꾼 후, 모건은 현실에서의 도덕적 평가와 어긋나는 그런 인물상이 작품 전체적

으로 준비된 것임을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결국 팔스타프 인물론은 그 인물을 창조한 작가 셰익스피어의 의도와, 그가 활용하는 극적 기교와 그 효과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모건은 책의 말미에 가서 자신의 비평작업의 대원칙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천명한다. 성격연구는 “당연히 셰익스피어의 천재성 그리고 그의 예술 행위에 대한 비평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모건의 연구는 자못 근대적인 문학연구 경향을 선취했기에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 이 책의 편집자는 모건이 현대에 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셰익스피어 숭배경향에서 자유롭다고 평가한다. “모건은 셰익스피어를 한 명의 위대한 인간이나 시인 혹은 철학자로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극작가의 기교나 창의적 노력을 깊이 비추는 통찰을 제공하는데, 숭배적인 경향의 관객들은 그 통찰을 활용하는데 주저할지도 모른다. 마치 모건이 신성한 신비를 침범하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A N
 E S S A Y
 O N T H E
 D R A M A T I C C H A R A C T E R
 O F
 S i r J O H N F A L S T A F F .

I am not *John of Gaunt* your Grandfather, but yet
no COWARD, *Hal.* *First Part of* HENRY IV.

L O N D O N :
 P R I N T E D F O R T . D A V I E S , I N R U S S E L - S T R E E T ,
 C O V E N T G A R D E N .
 M D C C L X X V I I .

도판 2. 1777년 발행 『존 팔스타프 경이라는 극적인물에 대한 에세이』 표지

F340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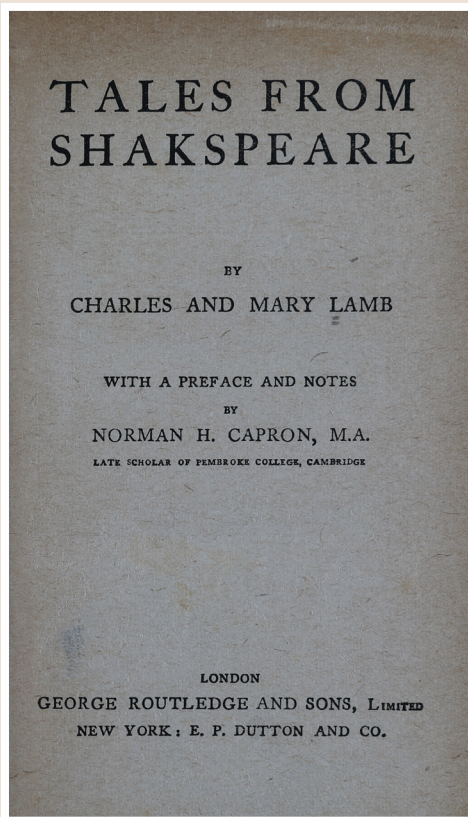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이야기

Tales from Shakespeare

Charles Lamb & Mary Lamb 저술, Norman H. Capron 서문과 주

London : George Routledge and Sons, n. d.*.

* 1806년 최초 발간



* 출간년도를 밝히지 않은 책들의 경우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no date'의 약자인 n.d.로 서지사항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뜻밖에도 지난 세기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다.

찰스 램(Charles Lamb, 1775-1834)은 여타 19세기 초반의 영향력 있는 셰익스피어 비평가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이 저명한 문필가였다. 런던의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기숙학교인 크라이스츠 হাস피탈(Christ's Hospital)에 다닌 인연으로 같은 학교 선배인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와 교우관계를 맺게 되고, 이후 평생에 걸쳐 당대 영국을 대표하던 낭만주의 계열의 문인들인 위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 사우디(Robert Southey, 1774-1843), 헌트(Leigh Hunt, 1784-1859)와 교류를 이어갔다. 그는 시작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했지만 곧 산문으로 방향을 틀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그의 작가적 명성은 바로 이 분야의 업적에 기인한다. 램은 1820부터 『런던 매거진』(*London Magazine*)을 위시한 여러 잡지에 엘리아(Elia)란 필명으로 정기적으로 에세이를 기고했고, 그 원고들을 모아 각각 1823년과 1833년에 『엘리아의 에세이집』(*Essays of Elia*)과 『엘리아의 마지막 에세이집』(*The Last Essays of Elia*)을 출간했다. 이 개성 넘치는 저작은 영국 에세이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전으로 여겨진다.

셰익스피어 비평가로서 램은 결코 많은 글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그의 비평문들은 통념을 깨는 주장을 담고 있으면서도 설득력있는 논거로 뒷받침함으로써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셰익스피어 비평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예컨대, 1802년에 발표한 『리처드 3세』의 관극평에서 램은 줄곧 혐오의 대상이었던 리처드 3세에 대해 거의 최초로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이후 이 악당 캐릭터의 탁월함에 대한 논의는 비평의 대세가 되었다. 셰익스피어에 관한, 램의 가장 잘 알려진 글이라면 「무대 공연의 적합성 측면에서 고찰한 셰익스피어 비극들」(“On the Tragedies of Shakespeare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Their Fitness for Stage Representation”, 1811)을 꼽

을 수 있다. 이 글의 유명한 한 대목은, 셰익스피어의 여러 비극 주인공과 더불어 각별히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은 연기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왜냐하면 “리어의 위대함은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 있으며 ... 이 작품에서 육체의 문제는 고려하기에 너무 사소해 보이는데, 리어 자신조차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다소 극단적인 반-연극주의는 당시의 상업적인 연극 관행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겠지만, 그에 앞서 셰익스피어를 온갖 제약 속에서 작업했던 극작가보다는 초월적인 ‘천재’이자 궁극의 ‘시인’으로 숭배했던 낭만주의적 셰익스피어관의 표현이기도 했다. 셰익스피어의 숭고한 언어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하는 연극적 재현에 대한 불만은 대다수 낭만주의 시인들이 공유하던 태도였고, 셰익스피어를 감상할 때 관극에 대한 독서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한 램은 그들 모두를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시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셰익스피어 비평가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램이지만, 오늘날 그의 이름과 셰익스피어를 이어주는 끈은 그의 예리한 비평활동과 결을 달리하는 대중적인 저술활동이었다. 램은 에세이 작가로 이름을 떨치기 전인 1807년 누이인 메리(Mary Lamb, 1764-1847)와 함께 셰익스피어의 주요작품 20편을 산문으로 풀어쓴 책을 출간했는데, 아동용으로 쓰인 탓에 오랜 기간 셰익스피어 입문서로 사랑받아온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 이야기』이다.

서문에서 얘기하는 저술 목적은 몹시 소박하다. 램 남매는 어린 독자들이 커서 진짜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자신들의 책이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비할 데 없이 훌륭한 이미지의 희미하고 불완전한 흔적”에 불과하다고 쓰고 있다. 그들은 이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어린 독자들이 읽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목을 삭제하되 최대한 원문을 편집하지 않고 많이 인용함은 불

론이고 자신들이 쓰는 문장에도 가급적 셰익스피어 당대에 없던 단어를 배제하는 것을 저술의 원칙으로 삼았다. 남매는 이렇게 원작에 충실함으로써 독자들이 나이가 들어 직접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고 “페이지마다 가득 들어있는 미덕을 가르치는 예시”들로 인도되기를 고대했다.

이 책이 다루는 셰익스피어 작품은 사극을 제외한 20편이며, 주로 비극은 찰스 램이, 희극은 메리 램이 맡아서 산문으로 재구성했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다음 순서로 배치되어 있으며, 괄호 안은 해당 작품의 주 서술자이다.

1. 『템페스트』(메리 램)
2. 『한여름 밤의 꿈』(메리 램)
3. 『겨울 이야기』(메리 램)
4. 『헛소동』(메리 램)
5. 『좋은실대로』(메리 램)
6. 『베로나의 두 신사』(메리 램)
7. 『베니스의 상인』(메리 램)
8. 『심벌린』(메리 램)
9. 『리어 왕』(찰스 램)
10. 『맥베쓰』(찰스 램)
11. 『끝이 좋으면 다 좋다』(메리 램)
12. 『말괄량이 길들이기』(메리 램)
13. 『실수연발』(메리 램)
14. 『자에는 자로』(메리 램)
15. 『십이야』(메리 램)
16. 『아테네의 타이먼』(찰스 램)
17. 『로미오와 줄리엣』(찰스 램)
18. 『햄릿』(찰스 램)

19. 『오델로』(찰스 램)
20. 『페리클레스』(메리 램)

『셰익스피어 이야기』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출간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분명 이 책도 일조한) 19세기 내내 커져간 셰익스피어의 대중적 인기로 인한 입문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계속 출간되었으며 여러 새로운 판본을 갖게 되었다. 책의 초판은 급진적인 정치 사상가였던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 1756~1836)이 운영하던 juvenile나일 라이브러리(Juvenile library)에서 출간되었다. 이후 다수의 상이한 판본이 출간된 것은, 아동서의 특성상 필요한 삽화의 교체를 빌미로 여러 출판사가 이 슈퍼-스테디셀러를 앞 다투어 출판했기 때문이었다.

해제의 대상이 되는 이 판본은 성격이 다르다. 사실 『셰익스피어 이야기』는 저자들의 의도와 달리, 셰익스피어의 까다로운 언어들에 그대로 쓰인 탓에 아동은 물론이고 성인 독자도 수월하게 읽을 수 없었고, 현대로 올수록 독자가 체감하는 독서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 판본은 책의 말미에 “상당히 정교한 성격의 주”를 포함해서 교사들이 “계속해서 술한 참고자료를 살펴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어” 주고자 했다. 그밖에도 이 판본은 책의 서두에 편집자인 램 남매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10쪽 분량의 글과, 이어서 짤막한 셰익스피어 전기 및 셰익스피어 희곡의 창작순서를 정리하는 글이 실려 있다. 이렇듯 이 판본은 교재로 기획되었고, 그런 출간의도에 부합하는 부록을 갖추고 있다.

F340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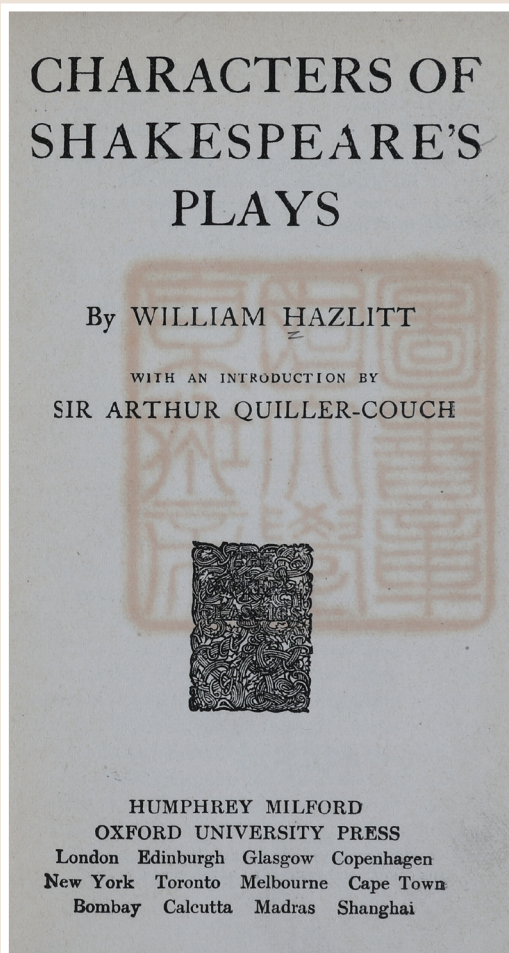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희곡의 인물들

Characters of Shakespeare's Plays

William Hazlitt 저술, Sir Aurthur Guiller-Couch 서문

London, Edinburgh, etc. : Humphrey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4.

* 1817년 최초 발간



해즐릿(William Hazlitt, 1778-1830)은 흔히 낭만주의 계열의 문필가로 알려져 있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 시기 최고의 문예비평가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의 주된 관심은 문학에 있지 않았고 다양한 경력을 거치는 중에 예술비평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 뜻밖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셰익스피어를 위시해 여러 주제에 관해 비평적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물론 그는 잘 알려진 것처럼 낭만주의 계열의 대표적 문인들과 교류했고, 특히 직전 항목에서 소개한 책의 저자인 찰스 램은 일찍이 해즐릿의 재능을 알아보고 평생에 걸쳐 우정을 이어가며 여러 방면으로 그를 도왔다.

해즐릿은 처음에는 철학자가 되고자 했다. 아버지를 이어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그곳에서 당대의 급진적인 정치사상을 접하고 도리어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면서 철학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것이다. 십대 후반 그는 독학으로 정치철학 분야의 고전들과 당대의 저서들을 연구하고, ‘인간정신의 본래적인 사심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자신의 철학적 과업으로 삼게 된다. 보수적인 정치사상이 전제하는 인간관을 논박하는 야심찬 지적 기획의 결실이 그의 나이 27살 때 출간된 『인간행동의 원칙에 대한 논의』(*An Essay on the Principles of Human Action*, 1805)이다. 그러나 이 저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히고 만다. 이후 그는 철학 연구를 하는 동안 형인 존(John Hazlitt, 1767-1837)의 지도 아래 생계의 수단으로 삼았던 초상화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나 생계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위대한 초상화 화가가 되고자 했던 그 노력 역시 좌절되고 만다.

1808년 가정을 꾸리면서 생계가 다급해진 해즐릿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철학 강연 및 교재류의 집필 등 닥치는대로 주어지는 일들을 하다가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하게 되는데, 오래지 않아 대단한 성공을 거두

면서 본격적인 문필가로 나서게 된다. 1812년 『더 모닝 크로니클』(*The Morning Chronicle*)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의회보도 담당이었지만 점차 예술비평이나 정치논평 류의 글이 주목을 받게 되고, 1815년에는 당대 지식계를 주도하던 잡지인 『에딘버러 리뷰』(*Edinburgh Review*)에 글을 싣는 등 곧 저명한 언론인이자 지식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후 그는 지명도 높은 매체에 정기적으로 에세이를 기고하고, 기고가 완료되면 글을 묶어 책으로 출판하게 된다. 예컨대,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들에 대한 인물 스케치의 형태로 당대의 정신적 풍경을 개관하는 『시대정신』(*The Spirit of the Age*, 1825)이 이런 방식으로 출간되었고, 그밖에도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에세이가 그의 생전에 10여 권 이상 책으로 묶였다.

『셰익스피어 희곡의 인물들』은 해즐릿이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처음으로 펴낸 저작으로, 역시나 잡지 기고가 저술의 계기가 되었으나 아직 명성이 높아지기 전이다보니 이후의 에세이집과 달리 전작출판에 가까웠다. 1816년 2월 연극평론가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에딘버러 리뷰』에 독일 셰익스피어 연구의 선구자인 슐레겔의 저작에 대한 서평을 실으면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해 내내 셰익스피어 작품론을 준비해서 이듬해에 출판했던 것이다.

자신의 오랜 지기인 찰스 램에게 헌정한 이 책은 출간 즉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초판이 불과 6주 만에 매진되었던 것이다. 이런 대단한 성공을 가져온 요인으로 우선 이 저작의 포괄성을 꼽을 수 있다. 책에서 다루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무려 35편으로, 해즐릿은 당시 위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를 제외한 셰익스피어의 모든 희곡을 다루었다. 연속성이 있는 『헨리 4세』 I, II부와 『헨리 6세』 I, II, III부는 묶어서 다루되, 그 밖의 30편은 작품별로 본

인의 선호와 세간의 일반적인 평가에 따라 짧게는 3쪽(『베로나의 두 신사』, 『원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실수연발』) 길게는 10여 쪽(『리어 왕』, 『줄리어스 시저』, 『오델로』, 『로미오와 줄리엣』, 『헨리 4세』 I, II부) 분량의 독립된 장을 할애해 차례대로 논평했다. 해즐릿은 심지어 유명한 소네트 연작을 비롯한 셰익스피어의 시작 활동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마지막 장에서 다루었다.

일찍이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셰익스피어의 모든 극작품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거기에 더해 해즐릿은 현학적이기보다는 (그간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구축했던) 세련되면서도 재치있는 문체로 독서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서문에서 그는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 슐레겔을 “지금까지 나온 셰익스피어 희곡에 관한 최상의 논의”로 언급하면서도 “문체상의 신비주의적 외관”을 결함으로 지적하며, 대신 자신은 영국 독자들의 취향에 맞게 “작품 자체의 특정한 구절들로부터 예시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글을 쓰겠다고 다짐한다.

책의 제목처럼 인물 중심의 논의방식을 택한 것 역시 대중친화적 집필기조를 잘 보여준다. 18세기 후반 이래로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물들을 마치 실존인물인 듯 전제하고 인물평을 하는 것은 광범위한 독서대중의 관심을 받는 셰익스피어 비평의 중심 주제였다. 물론 해즐릿의 경우는 그렇게 소박한 유형은 아니어서 그의 관심은 극적 구조나 운율의 운용 같은 작품의 미학적 요소에도 충분히 안배되어 있었다. 그래도 역시 논의의 초점은 인물평에 맞추어져 있고, 특히 인물의 심리에 대한 예리한 통찰들이 두드러졌는데, 현대의 심리학과 유사한 주제들을 다룬 그의 철학 작업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이 어울려져 이 책에는 인물, 때로는 작품 전체를 요약하는 인상적인 어구들이 많이 등장한다. 많은 예들 가운데서

도 햄릿이란 인물과 아울러 작품 전체에 대한 통찰을 담은 다음 논평이 특히 유명하다. 헤즐릿은 햄릿이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지만, 독자들 각자가 이 인물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상찬하면서 “우리 모두가 햄릿이다”(It is we who are Hamlet)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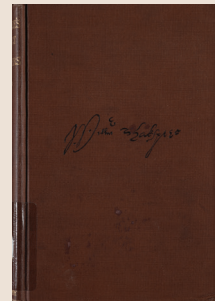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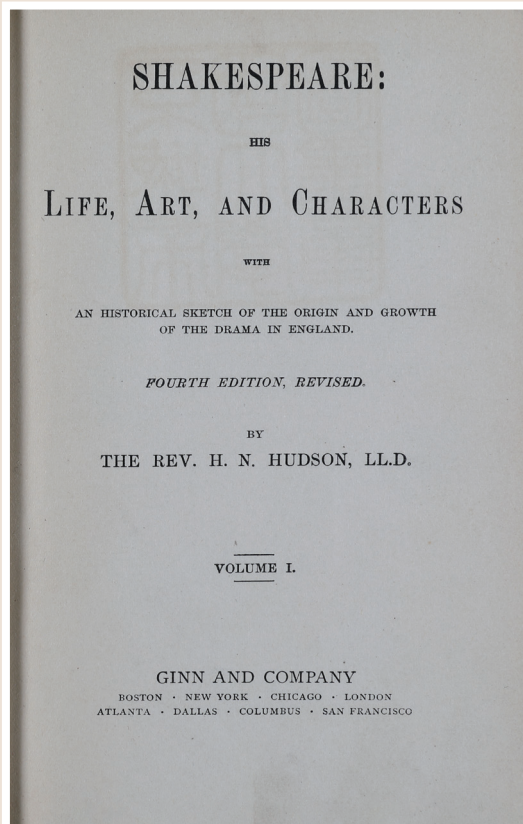
F340 19 1-2

셰익스피어: 작가의 삶과 예술 및 인성, 그리고 영국 희곡의 기원과 성장에 대한 역사적 개관

*Shakespeare: His Life, Art, and Characters with an Historical Sketch of the
Origin and Growth of the Drama in England*

Henry Norman Hudson 저술

Boston, New York, etc. : Ginn and Company, 1872.



영어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셰익스피어가 열렬히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청교도 이념에 따라 건국한 미국이었기에 한동안 연극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유지되었고,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은 실제 적용이 몹시 엄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공연을 규제하는 법률까지 제정되어 있었다. 19세기가 되면 상황은 일변하여 셰익스피어에 대한 열광이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전의 문화적 고립상황을 일거에 따라잡으려는 듯 연극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셰익스피어는 가장 인기있는 공연 레퍼토리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독서대중이 애호하는 작가가 되었다. 링컨 대통령이 셰익스피어의 열렬한 애독자였으며, 이른바 미국 르네상스 시기 - 미국문학의 고전들이 산출되었던 19세기 중후반 - 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셰익스피어를 창작의 영감으로 삼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예컨대, 폭넓은 강연활동으로 미국 사회의 지적 풍조를 혁신하고자 애썼던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은 셰익스피어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으며, 미국 소설사의 최고봉으로 여겨지는 멜빌(Herman Melvil, 1819-1891) 역시 셰익스피어에 심취해서 『모비딕』(*Moby Dick*, 1851)을 비롯한 그의 소설은 셰익스피어의 인용 문구들이 수시로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비슷한 시기에 셰익스피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또한 활기를 띠게 되는데, 『셰익스피어: 작가의 삶과 예술 및 인성, 그리고 영국 희곡의 기원과 성장에 대한 역사적 개관』의 저자 허드슨(Henry Norman Hudson, 1814-1886)은 미국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1세대를 대표하는 학자 중의 한 명이다. 그는 두 차례나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셰익스피어 학술지의 편집자를 역임했다. 1852-1857년과 1880-1881년에 각각 『셰익스피어』(*Shakespeare*)와 『하버드 셰익스피어』(*Harvard Shakespeare*)의 편

집자로 일한 경력은 단적으로 그의 학문적 위상을 말해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셰익스피어 강연자로 명성이 높았고, 이미 1848년에 두 권 분량의 강연록 『셰익스피어 강의』(*Lectures on Shakespeare*)를 출간했고, 1856년에는 셰익스피어 전집을 11권으로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역작인 이 책은 19세기 중후반 미국에서 퍼져나간 셰익스피어에 대한 열광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는 해도, 당대의 기준으로도 학문적 독창성이나 탁월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책을 여는 1장 「셰익스피어의 삶」(“Life of Shakespeare”)은 그 이상은 불가능한 수준의, 그야말로 최상의 찬미의 언사로 시작한다. “모든 이의 선택에 의거해 볼 때 셰익스피어는 문학의 가장 위대한 이름이다. 영어로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전혀 지나치지 않다. 셰익스피어의 천재성 덕분에 세계는 더욱 살만하게 되었고, 삶은 더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 되었다. 심지어 ‘셰익스피어가 썼던 언어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로 셰익스피어를 독서할 때 편안함을 느낄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기적극, 도덕극 등 영국의 민중적 연극 전통들과 셰익스피어 동시대 극작가들에 대한 표준적인 지식들을 간략히 정리하는 다음 두 장을 지나 이 책의 몸통이랄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예술」(“Shakespeare’s Art”) 장과 특히, 「셰익스피어의 인물들」(“Shakespeare’s Characters”) 장에 이르러 찬미의 어조는 다시 등장한다. 허드슨은 아이러니라고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고양된 어조로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세계가 자연의 축소판이며, 신적인 원리의 완벽한 예시라는 주장을 지치지도 않고 반복한다. 이렇듯 이 책은 바드를 신적인 존재로 숭상하는 슐레겔-콜리지 노선, 그리고 이 노선의 미국 쪽 대표라고 할 에머슨의 영향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실 이전 시기 낭만주의적 셰익스피어 관을 상투적으로 되풀이

할 뿐인 이 책은 근대적인 연구서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는 게 옳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또 한 명의 저명한 미국의 셰익스피어 학자인 화이트(Richard Grant White, 1821-1885)의 경우와 견주어 보면 허드슨의 후진성은 그저 역사적인 혹은 지역적인 한계로 치부하기 힘들다. 처음에 허드슨은 본문비평가로서 학문적 명성을 얻었다. 그가 1857년부터 10년에 걸쳐 펴낸 12권의 셰익스피어 전집은 발간 즉시 당대의 가장 우수한 셰익스피어 전집 중의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집은 1883년에 『리버사이드 셰익스피어』(*Riverside Shakespeare*)란 이름의 단권형으로 재출간되어 오랜 기간 인기를 누렸다. 그는 말년에서야 해석적인 성격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사후에 발간된 비평전집 『셰익스피어 연구』(*Studies in Shakespeare*, 1886)는 다음 세대의 셰익스피어 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핵심적인 주장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공연 대본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타협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었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그의 글은 학계에 큰 자극을 주었고, 작품이 놓인 여러 사회문화적 맥락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셰익스피어 연구의 큰 흐름이 바뀌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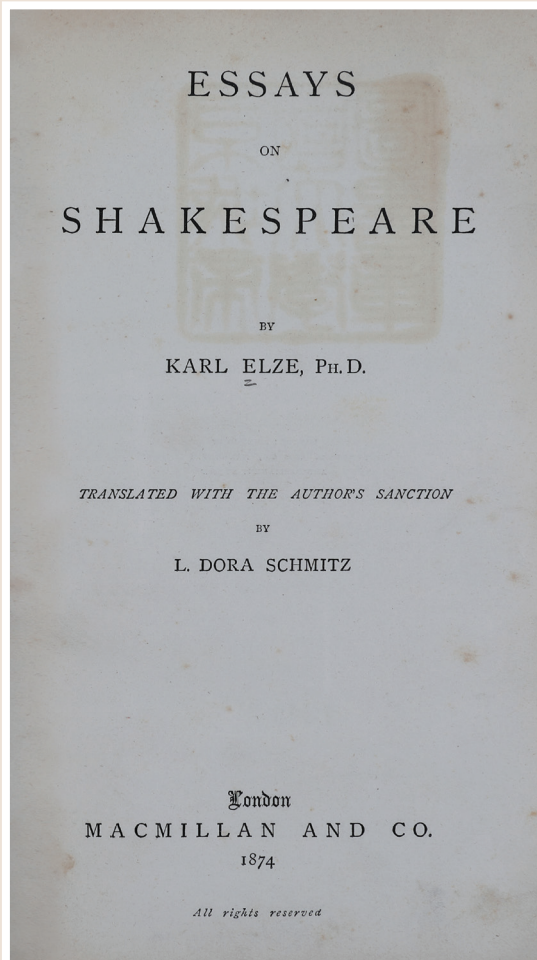
F340 192

셰익스피어에 관한 에세이들

Essays on Shakespeare (원저명 *Abhandlungen zu Shakespeare*)

Karle Elze 저술, L. Dora Schmitz 번역

London : Macmillan & Co., 1874.



저자인 칼 엘체(Karle Elze, 1821-1889)는 19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독일의 영문학자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현대문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김나지움에서 오랜 기간 교사생활을 한 후 할레 대학의 영어문헌학 교수로 부임했다. 그의 주 연구분야는 셰익스피어였고 대표적인 학문적 업적으로 셰익스피어 전기의 집필을 꼽지만, 바이런의 전기를 비롯한 몇몇 낭만주의 작가들에 대한 저술도 남겼다.

엘체가 학술지에 실은 논문들을 번역한 『셰익스피어에 관한 에세이들』은 당시 독일과 영국 양국의 셰익스피어 학계간 교류가 활발했음을 말해준다. 역자는 서문에서 책의 저자가 독일에서 영문학 연구로 큰 명성을 쌓아왔고 “최근 4년 동안에는 영국의 독서대중들에게도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좀 과장된 찬사인 듯 들리지만, 적어도 영국 학계가 독일의 셰익스피어 연구를 의식하고 동향을 주시한 것은 맞다.

독일 낭만주의 문학운동의 주창자들이 ‘자연의 작가’ 셰익스피어에게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문학이념의 이상적인 모델을 발견한 이래로 독일에서 셰익스피어의 인기는 지속되었고, 셰익스피어에 대한 근대적인 학술 연구는 독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평생 인정하기를 꺼려했지만, 콜리지는 실상 슐레겔의 착상과 개념을 빌어 셰익스피어에 관한 본인의 주장을 전개했고, 위즈워스의 경우에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독일인들에게 크게 빛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책이 출간되는 19세 중후반 무렵 독일의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은 이미 학회를 조직해 주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근대적인 학술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1864년 창립한 독일의 셰익스피어 학회(Deutsch Shakespeare-Gesellschaft)는 이듬해부터 세계 최초로 연간 정기 학술지인 『셰익스피어 연감』(*Shakespeare Jahrbuch*)을 발행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개별 연구 차원에서도 당시 독일 학계는 연구의 규모나 학문적인 체계에서 영국을 앞지르는 탁월한 업적들이 산출되고 있었다.

당시 독일 셰익스피어 학계의 권위자였던 올리치나 게르비누스(Georg Gottfried Gervinus, 1805-1871)의 저서들은 영국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836년 초판이 나온 올리치의 『셰익스피어의 극예술』은 1846년에 1차로 영역된 후에, 1876년 출간된 네 권짜리 최종 개정판은 독일에서 출간된 바로 그 해에 영국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게르비누스의 4권짜리 『셰익스피어』(*Shakespeare*) 또한 개정판이 나온 다음 해인 1863년에 『셰익스피어에 대한 논평들』(*Shakespeare Commentaries*)이란 제목으로 영국에서 출간되었다. 이 대작 연구서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세계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탄탄한 체계를 따라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주의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던 영국의 셰익스피어 비평과 대조되었다. 특히, 게르비누스의 경우 체계적인 운율 분석이라는 분석적인 방법론을 통해 작품의 집필 시기와 순서를 추정함으로써 셰익스피어의 작가적 발전과정 규명이라는 새로운 연구의 전망을 개척했다.

『셰익스피어에 관한 에세이들』의 영역본 출간 역시 독일을 선례로 삼아 일신하고자 했던 당시 영국 셰익스피어 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증명하는 한 사례일 것이다. 번역자 서문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저자 엘체의 경력이 바로 독일 셰익스피어 학회 기관지인 『셰익스피어 연감』의 편집을 맡은 적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역자는 이 책이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미학적인 성격의 연구 확산에 기여”하리란 소망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저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표한 작품론 성격의 소품 논문을 모은 것으로, 올리치나 게르비누스의 대작 연구서와는 비교하기 힘들다. 이 논문집에는 총 9편의 글이 실려 있다. 처음

으로 수록된 『템페스트』의 집필 시기』(“The Date of *the Tempest*”)에 이어지는 4편의 글은 각각 『한여름 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끝이 좋으면 다 좋아』, 『헨리 8세』에 대한 비평이다. 이어서 작품론 이외의 흥미로운 주제의 글들이 배치되어 있다. 「프랑스에서의 『햄릿』」(“*Hamlet* in France”)과 「셰익스피어가 다닌 여행에 대한 가정」(“The Supposed Travel of Shakespeare”)이 6, 7번째 글의 제목이고, 마지막에 실린 글은 「셰익스피어 이름의 표기」(“The Orthography of Shakespeare’s Name”)이다.

F340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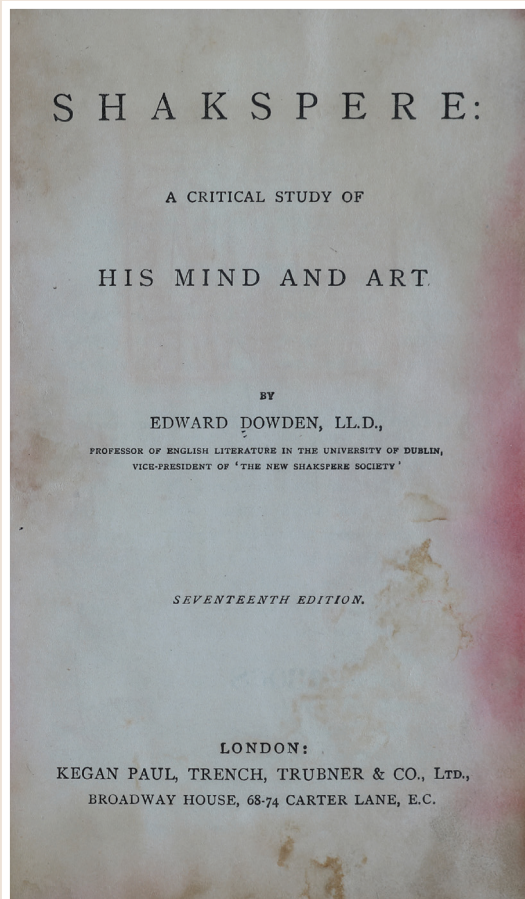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그의 정신과 예술에 대한 비판적 연구

Shakspe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Edward Dowden 저술

London :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n. d..

* 1875년 초판 발간



저자인 에드워드 다우든은 당대 셰익스피어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었고, 이런 명성의 토대가 된 저술이 바로 이 책 『셰익스피어: 그의 정신과 예술에 대한 비판적 연구』였다.

다우든은 아일랜드의 코르크 지역 출신으로 일찍부터 학업과 글쓰기에 두각을 나타낸 수재였다. 코르크의 퀸스 칼리지와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지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불과 20대 중반의 나이로 1867년 더블린 대학의 수사 및 영문학 담당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이 책 말고도, 같은 책을 쉽게 풀어쓴 『셰익스피어 입문』(*Shakespeare Primer*, 1877)이 여러 나라에서 번역출간되며 셰익스피어 학자로 명성이 높았지만, 그 밖에도 여러 작가에 관한 영향력 있는 저술을 여럿 남겼다. 예컨대, 그는 1886년에 출간된 셸리의 전기작가으로도 독서대중에게 널리 이름을 알렸다. 그의 학문적 관심은 프랑스 문학에게까지 뻗어 있었고, 말년에는 대중강연 등으로 문학연구와 인문교육의 당위를 알리는 데 힘을 쏟기도 했다. 한마디로 다우든은 영문학 연구와 교육이 제도화되는 시기에 그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한 대학자였다.

이 책은 다우든의 길고 성공적인 연구활동의 서막을 여는 첫 번째 저서였다. 이 책의 의의는 무엇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영국 최초의 연구서였다는 데 있었다. 직전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영국의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은 독일 학계의 성취를 따라잡으려 애쓰는 상황이었다. 1873년 창립한 신 셰익스피어 학회는 독일 셰익스피어 학회를 따라 이듬해부터 학회지인 『트랜잭션』(*Transactions*)을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학회 설립을 주도한 퍼니벌(F. J. Furnivall, 1825-1910)은 창립사에서 독일과 달리 정작 셰익스피어의 나라에서 그의 작품세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저서가 부재하는 상황을 통탄하며 동료 학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다우든의 책은 선배 학자의 열렬한 호소

에 대한 응답이었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퍼시벌의 영향력이 확인된다. 다우든은 서문에 퍼니벌이 작성한, 아래 셰익스피어의 (추정) 작품 연대표를 그대로 인용해 놓았다.

TRIAL TABLE OF THE ORDER OF SHAKSPERE'S PLAYS.

[This, like all other tables, must be lookt on as merely tentative, and open to modification for any good reasons. But if only it comes near the truth, then reading the plays in its order will the sooner enable the student to find out its mistakes. (M. stands for "mentioned by Francis Meres in his *Palladis Tamia*, 1598.")]

In his Introductory Essays to *Shakespeare's Dramatische Werke* (German Shakespeare Society) Prof. Hertzberg dates *Titus* 1587-9, *Love's Labour's Lost*, 1592, *Comedy of Errors* about New Year's Day 1591, *Two Gentlemen* 1592, *All's Well* 1603, *Troilus and Cressida* 1603, and *Cymbeline* 1611.

	Supposed Date.	Earliest Allusion.	Date of Publication.
FIRST PERIOD.			
Venus and Adonis	1585-7		1593
Titus Andronicus toucht up	(?) 1588	1594 M	[(?) 1594] 1600
Love's Labour's Lost	1588-9	1598 M	1598 (amended)
[Love's Labour's Wonne]		1598 M	
Comedy of Errors	1589-91	1598 M	1623
Midsummer Night's Dream	1590-1	1598 M	1600
(? two dates)			
Two Gentlemen of Verona	1590-2	1598 M	1623
(?) 1 Henry VI. toucht up	(?) 1590-2		1623
(?) Troilus and Cressida, begun		1594	
(?) Lucrece			1594
Romeo and Juliet	(?) 1591-3	1595 M	1597
(?) A Lover's Complaint			
Richard II.	1593-4	? 1595 M	1597
Richard III.	1594	? 1595 M	1597
2 & 3 Henry VI. re-cast	(?) 1594-5		1623
John	1595	1598 M	1623
SECOND PERIOD.			
Merchant of Venice	(?) 1596	1598 M	1600†
Taming of the Shrew, part	(?) 1596-7		1623*‡
1 Henry IV.	1596-7‡	1598 M	1598
2 Henry IV.	1597-8‡	1598 M	1600
Merry Wives	1598-9	1602	1602
Henry V.	1599‡	1599	1600
Much Ado	1599-1600‡	1600	1600
As you Like it	1600‡	1600	1623§
Twelfth Night	1601‡	1602	1623
All's Well (†L's. L. Wonne re-cast)	1601-2		1623
Sonnets	(?) 1592-1602	1598 M	1609
THIRD PERIOD.			
Hamlet	1602-3‡	(?)	1603*
Measure for Measure	(?) 1603		1623
Julius Caesar	(?) 1601-3	(?)	1623
Othello	(?) 1604	1610	1622
Macbeth	1605-6‡	1610	1623
Lear	1605-6‡	1606	1608*
Troilus & Cressida (?) completed	1608 ?	1609	1609
Antony and Cleopatra	1608-7	1608 (?)	1623
Coriolanus	(?) 1607-8		1623
Timon, part	1607-8		1623
FOURTH PERIOD.			
Pericles, part	1608‡	1608	1609*
Two Noble Kinsmen	1609		1634
Tempest	1610	? 1614	1623
Cymbeline	1610-12		1623
Winter's Tale	(?) 1611	1611	1623
Henry VIII., part	1613‡	1613 (?)	1623

* Entered 1 year before at Stationers' Hall.
 † Entered 2 years before at Stationers' Hall.
 ‡ May be lookt-on as fairly certain.
 § Entered in the Stationers' Registers in 1600.
 ¶ "The Taming of a Shrew" was publisht in 1594.

도판 3. 『셰익스피어』 초판 서문의 16-17쪽

그는 이 연대표를 출발점으로 삼되 셰익스피어의 작가적 발전양상을 더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했지만, 결국 셰익스피어의 작품활동을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한 퍼니벌의 시각을 그대로 수용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책은 선배 학자에 대한 상술이자 보론이라고 보는 게 맞다. 다우든도 이런 영향관계를 의식해서 나름의 차별화를 꾀하기는 했다.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물과 인간 셰익스피어간의 지나친 동일시를 경계하겠다는 서문의 다짐은, 바로 퍼니벌을 겨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간 셰익스피어의 정신적 성장을 추적하는 전기적 자료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접근한다. 셰익스피어의 ‘예술’보다 ‘정신’을 앞세우는 책 제목이 이미 시사하는 바, 다우든은 서문에서 저술 목적을 “작품에 대한 연구를 작가의 인성에 대한 탐구와 연결지며, 가능한 만큼 그의 지성과 인격이 여러 단계를 거쳐 청년기로부터 완전히 무르익는 성장과정을 살펴보려는 시도”로 규정한다. 이어서 어떤 한 인물이 셰익스피어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단서가 달리지만, 셰익스피어의 창작활동은 그의 인생경험을 반영하고 있기에 작품 속 인물들은 결국 “셰익스피어에게 존재하는 어떤 정신적 경향이나 습관의 단면들을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셰익스피어 당대의 사회적·지적 환경을 개관하는 1장 「셰익스피어와 엘리자베스 시대」(“Shakspere and the Elizabethan Age”)에 이어 2장 「셰익스피어의 정신과 예술의 성장」(“Growth of Shakspere’s Mind and Art”)은 『햄릿』 이전까지의 작품을 다룬다. 이는 『햄릿』에 이르러 셰익스피어가 작가로서 성숙기에 접어든다는 퍼니벌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한 장 구성이다. 3장은 『햄릿』에 주안점을 두되 비교대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함께 논의하며, 이어지는 4·5·6장은 각각 영국 역사극,

로마 역사극 그리고 『햄릿』 직후에 집필되었으며, 『햄릿』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비극 작품들인 『오델로』, 『맥베스』, 『리어왕』에 할애된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성을 논하는 7장에 이어 마지막 8장은 『템페스트』나 『심벨린』 같은 말기의 로맨스 작품들을 다룬다.

『햄릿』을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삼는 책의 열개는, 셰익스피어의 궁극적인 창작의 목표가 탁월한 비극의 집필에 있었다는 시각에 의거했다. 셰익스피어는 오랜 수련기를 거쳐 마침내 『햄릿』에 이르러 비극작가로서 역량이 무르익었음을 확인하고, 작가적 성숙기 내내 이 장르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전개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작품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다우든은 셰익스피어가 극작경력 초창기부터 이 비극 작품을 쓰기 시작해 다른 장르의 작품들을 쓰는 사이사이 계속해서 개작해 왔다고 보는데, 이 또한 퍼니벌로부터 받아들인 가설이다.

다우든이 작품에서 읽어내는 인간 셰익스피어의 모습은 그가 창조한 비극적 인물과 다르지 않다. 셰익스피어는 극단적인 충동의 소유자로, 어느 때에는 “죽음이라는 광대한 신비”에 완전히 압도당했고, 또 어느 때에는 “추상적인 사고와 상상력에 끌려 제한적이고 유한한 삶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전부 잃을” 지경이 되기도 했다. 본래 셰익스피어는 이상주의자나 반란자의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그 자신이 햄릿이나 로미오가 될 수도 있는 운명이었다. 다만 그 충동을 극복하고 통제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비극적인 몰락을 막아주었을 뿐이다. 그렇게 인격적 조화를 달성한 말년의 셰익스피어에 대응하는 인물이 바로 관조적인 현자라 할 프로스페로였다.

다우든의 이 책은 문학연구와 교육의 정당성을 인격의 도야 같은 ‘휴머니즘’적인 목표에서 찾았던 시대의 산물로, 현대적인 의미의 학술에서

벗어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리고 다우든이 주장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활동에 관한 '사실'도 후대의 연구로 반박된 것이 많다. 그러나 분명 이 책은 한 시기의 셰익스피어 연구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가치 외에도, 이후의 전문적인 문학연구와 달리 광범위한 독서대중에게 읽히면서 아직까지도 셰익스피어에 관한 상식으로 통용되는 여러 주장의 진원지로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우든은 셰익스피어의 철자를 'Shakspere'로 고수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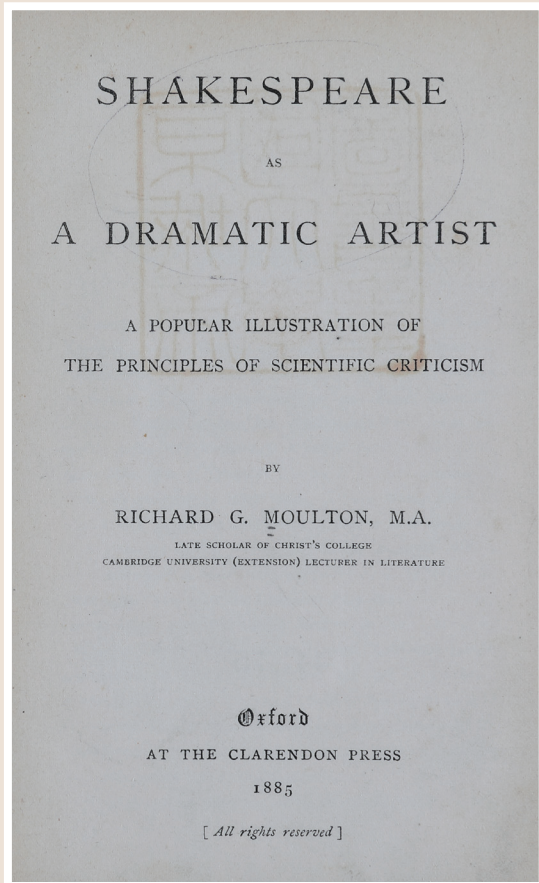
F340 32

극작가로서의 셰익스피어: 과학적 비평 원칙의 대중적 예시

Shakespeare as a Dramatic Artist: a Popular Illustration of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Criticism

Richard Green Moulton 저술

Oxford : Clarendon Press, 1885.



저자인 모울튼(Richard Green Moulton, 1849-1924)은 영국 출신이지만,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오랜 기간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한 영문학자이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예시로 삼아 극문학에 대한 ‘과학적 비평 원칙’을 제시하겠다는 이 야심찬 저서를 출간한 후 또 한 권의 희곡 연구서, 『고대의 고전 희곡: 원전과 영어 번역본의 독자 모두를 위한 문학의 진보에 관한 연구』(*The Ancient Classical Drama: a Study in Literary Evolution Intended for Readers in English and in the Original*, 1890)를 내놓지만, 이후에는 기독교 경전을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에 몰두하여 오늘날에는 『문학적인 성서 연구: 기독교 경전의 지배적인 문학형식에 대한 분석』(*The Literary Study of the Bible: an Account of the Leading Forms of Literature Represented in the Sacred Writings*, 1896) 같은 저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울튼은 자신의 첫 번째 저서였던 『극작가로서의 셰익스피어』에 상당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책은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내용이 보충되었다. 초판에서 『베니스의 상인』, 『리처드 3세』, 『맥베스』, 『줄리어스 시저』, 『리어 왕』 다섯 작품을 다루었는데, 2판(1889)에서 『템페스트』, 그리고 다시 3판(1892)에서 『오텔로』, 『사랑의 헛수고』, 『좋으실대로』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었다. 또한 새로운 개정판을 낼 때마다 본문비평의 최신 성과가 반영되어서, 작품 인용문의 수정은 1929년 판본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체로 개정은 작품 예시를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고, 저자의 핵심 주장은 이미 초판의 「서문」(“Preface”)과 「서론」(“Introduction”)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낙후된 문학비평의 현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이른바 귀납적 방법론(inductive method)의 도입을 역설한다. 모든 근대

과학활동은 사실의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잠정적인 가설을 도출한 후 추후의 관찰과 실험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귀납적인 방법론을 따른다. 반면 문학비평은 “문학적 미에 관한 근본적인 가정에서 도출되거나 일반적인 승인을 획득했다고 여겨지는 취향을 대표하는 정전”을 기준으로 삼는, 말하자면 연역적 방법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판관’(judge) 활동에 비유할 수 있는 이런 비평과 대조되는 ‘조사관’(investigator)의 비평이 그가 추구하는 바이다. 그는 ‘판관’의 비평이 아예 가치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더 이상 이런 종류의 비평이 부당하게 비평의 이름을 독점해서는 안 되며 귀납적 방법론에 기초한 보다 ‘과학적인’ 비평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저자는 여러 학문과의 유비를 통해 귀납적 비평의 원칙 및 효과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논증 내용을 일련의 ‘공리’(axiom)로 정리한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음의 첫 번째 공리로 보인다.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은 과학적 가설의 성격을 띠기에, 그 참됨은 그것을 통해 실제 문학작품의 세목을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에 의해 검증된다.” 과학적 언술을 흉내내 다분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 진술은, 어떤 비평적 판단에 앞서 개별 작품 자체에 대한 철저하고 정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저자가 역설하는 과학적인 문학비평의 실제 양상은 그의 어법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았다. 서문에서처럼 추상적인 원칙을 논하는 대신 이제까지의 셰익스피어 비평사를 맥락으로 삼는 서론에서, 저자는 작품분석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은 주로 인간 본성에 관한 깊은 지식에 있으며 “극예술의 기예에 대해서 셰익스피어는 무심했고,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편견에 맞서, 자신은 셰익스피어를 무엇보다 극예술에 혁명을 가져온 예

술가로 보려고 하며, 이제까지 간과되어온 극작술 측면에서 셰익스피어의 탁월성을 밝히고자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론 이후 각 장의 제목은 굉장히 구체적인 플롯 분석의 결론을 요약하고 있다. 예컨대, 1장에서 『베니스의 상인』의 두 개의 출전을 밝히고 나서 2, 3장은 작품의 플롯 운용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 각각의 제목은 「셰익스피어는 극화 과정에서 그 두 이야기를 어떻게 통제하는가」(“How Shakespeare Manipulates the Stories in Dramatizing Them”)와 「어떻게 셰익스피어는 플롯을 더 단순화할 목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가」(“How Shakespeare Makes His Plot More Complex in Order to Make It More Simple”)이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와 『리어 왕』에 관한 마지막 두 편의 글 모두 절정부가 극의 중간 부분에 배치된 특이한 플롯구성의 효과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과격한 과학주의를 표방하는 서문의 내용과 달리 이즈음의 시각으로는 대단히 표준적인 형식분석서에 가깝다.

책은 출간 당시 상당히 과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연구로 여겨졌고,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반론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납적 비평 방법론’이라는 기치를 걸고 당시의 주류 연구경향에 강하게 도전하는 어법과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렇지만 비평(연역적 연구)과 구분되는 분석적인 연구(귀납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의 입론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학계의 상식이 되었다. 이렇듯 모울튼의 책은 지난 100여 년간 문학연구 분야에서 벌어진 변화의 폭을 실감케 한다.

F340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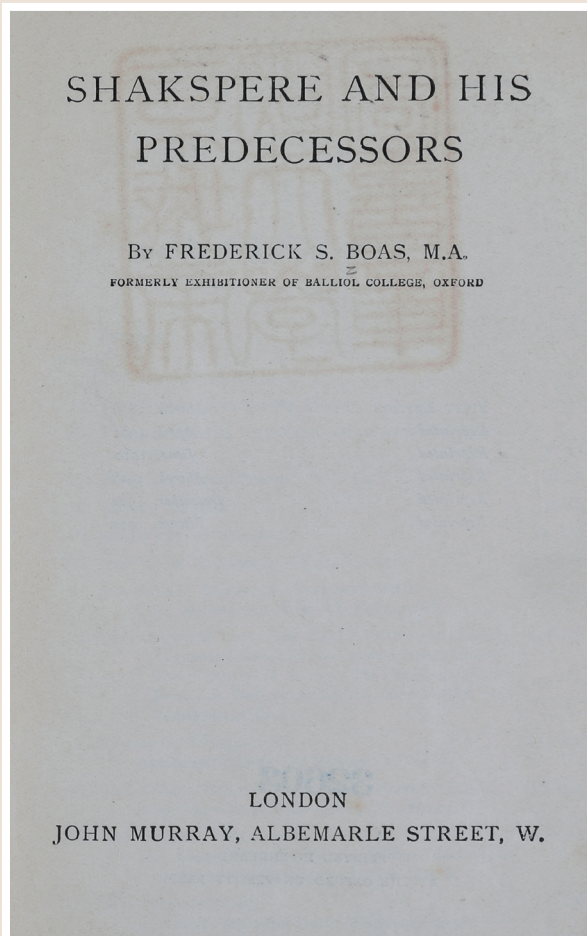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와 전 세대 작가들

Shakspere and His Predecessors

Frederick S. Boas 저술

London : John Murray, 1925.

* 1896년 초판 발간



보아스는 여러 모로 전전 항목에서 소개한 책의 저자인 다우든을 연상시키는 영문학자이다. 보아스 역시 아일랜드 사람이고, 벨파스트 출신인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학위과정을 마치고 나서 한동안 벨파스트의 퀸즈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이후에 그는 다우든과 달리 학계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교육 관련 공직을 맡아 일했지만, 꾸준히 연구활동을 이어가 평생 동안 십여 권이 넘는 저서를 펴냈다. 그는 셰익스피어를 중심으로 엘리자베스 시대의 작가들을 두루 연구했고, 본인 저술 외에도 그 시대 주요 작가들의 선집의 편자로도 유명했다. 보아스는 다우든 다음 세대의 영국 영문학계를 대표하는 저명 학자로, 선배 학자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연구활동에 종사하며 신생 학문인 영문학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연구를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은 보아스의 첫 번째 저서 『셰익스피어와 전 세대 작가들』은 바로 다우든의 연구업적을 계승하는 동시에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보아스는 서문에서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을 대략적인 집필순서에 따라 어느 정도 상세하게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다. 이런 집필의 취지는 다우든이 자신의 첫 번째 셰익스피어 저서에서 밝힌 것과 흡사하다. 20년의 시차를 두고 발간된 두 책 모두 퍼니벌이 신 셰익스피어 학회를 설립하며 역설했던, 일관된 시각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세계 전체를 해명하는 연구서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나 그는 다우든의 책이 셰익스피어의 역사극과 비극에 치우쳐 있으며, “작가의 인격을 드러내는 데”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자신의 연구는 훨씬 균형잡혀 있으며, 순전히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 책에서 내가 목표하는 것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출전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하고, 그 예술적 기교와 전반적인 의미를 조명하

며, 당대와 이전 시기 문학과와의 일단의 접촉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아스는 다우든과 더불어 ‘Shakspere’란 철자를 고수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분명히 선배 학자를 존중했지만, 최종적인 관심이 도덕적 원리의 탐구자로서의 인간 셰익스피어로 향하는 연구경향과는 거리를 두었다.

자체적으로 구분해 놓지는 않았지만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셰익스피어 등장 이전 영국 극예술의 성장과정을 개관한다. 1장에서 기적극 등의 토착의 연극전통을 소개한 후에 2장에서 르네상스 시기 외국의 작품을 모방한, 영국 최초의 장편 극작품들을 다룬 후에, 3장부터 5장까지는 셰익스피어와 활동시기가 겹치는 선배 극작가들의 작품세계를 간략하게 논한다. 특히, 3장 「연극의 부상 - 말로의 극작 개혁」(“The Rise of the Theaters - Marlowe’s Dramatic Reform”)에서 셰익스피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극작가로 말로를 꼽으며, 대륙의 영향에서 벗어나 영국 고유의 극작 전통을 창조한 이 선배 작가와 셰익스피어와의 비교 분석이 시도된다. 사실 셰익스피어에게 미친 여러 극예술 전통의 영향이야말로 이 저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로서, 보아스는 거듭해서 천재의 탄생이 가능했던 역사적 맥락을 부각하는 동시에 그의 예술이 다채로운 예술적 전통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부분이라 할 6, 7장은 습작기에 해당하는 소극품 작품들을 다루는데, 셰익스피어의 생애를 거론하면서 『사랑의 헛수고』나 『원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같은 작품들이 유년기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보아스는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그의 삶과 작품을 과도하게 연관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본인의 근본적인 입장을 환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8장에 이르러서야 셰익스피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후대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 몇몇 주요 주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극작

활동 초기에 관한 8장은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가 위작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정전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탈리아가 배경인 작품들을 다루는 10장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작품의 정치극으로서의 성격을 부각하는데, 각별히 두 남녀 주인공의 죽음을 계기로 그간 반목해왔던 두 가문의 적대적 관계가 종식되는 결말의 정치적 함의에 주목한다. 신비(mystery)를 키워드로 삼는 13장의 『햄릿』 해석 또한 후대에까지 회자되었다. 보아스는 이 작품의 플롯이 출전에서 크게 이탈하면서 주인공이 성격이 훨씬 복잡하게 바뀌었다고 분석한 후 햄릿이라는 인물이 셰익스피어 자신의 복잡다단한 내면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인다. 햄릿은 그토록 많은 대사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인물로서의 통일성을 결여한 채 어떤 근본적인 모순에 휩싸인 신비한 인물이 된 이유이다.

그러나 이 책이 셰익스피어 연구사에서 아직도 거론되는 것은 문제극이라는 논쟁적인 용어의 출처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아스는 위에 소개한 『햄릿』 해석이 담긴 13장에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자에는 자로』,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세 작품을 함께 묶어 문제극으로 분류했고, 『햄릿』 또한 이 작품군과 여러 속성을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극이라는 용어는 몹시 불안정했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점 때문에 학계에서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그 용어는 일차적으로는 이 작품군이 희비극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장르 분류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칭하지만, 동시에 보아스 당대의 사회비판적인 극작품과의 유비도 의도되었다. 19세기 후반 유럽을 풍미했던 문제극과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또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창작의도 때문에 장르 규약의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절정의 천재로서 셰익스피어는 앞[과거], 뒤[미래]를 아울러 보기에”, “확연히 근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이 극작가의 태도를 해석하고자” 애썼다

는 서문의 유명한 구절을 보면, 보아스는 결국에는 문제극이란 용어로 근대성을 선취한 셰익스피어의 탁월성을 기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이 용어로 말 그대로 예술적인 ‘문제’가 있는 작품을 지칭하는 연구도 다수 등장했다. 애초에 보아스의 용례 또한 어색한 장르의 혼용이라는 미학적인 문제를 환기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그 용례가 다변화되면서 문제극으로 분류되는 작품목록도 연구자별로 사뭇 달랐고, 더불어 문제극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이론적 논의도 활성화되었다. 이제 문제극은 셰익스피어 연구의 필수어휘로 자리잡았고, 이 용어를 축으로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분류하는 다양한 시도들도 축적된 상태이다.

F34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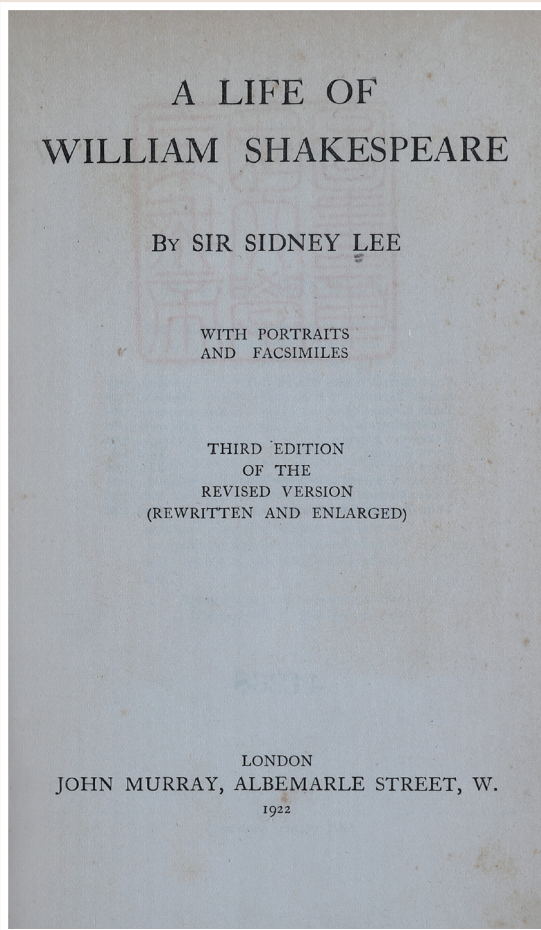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애 - 초상화와 각종 영인 자료 포함

A Life of William Shakespeare (With Portraits and Facsimiles)

Sir. Sidney Lee 저술

London : John Murray, 1922.

* 1898년 초판 발간



리(Sidney Lee, 1859-1926)의 셰익스피어 전기는 출간되자마자 그 권위를 인정받아, 1930년을 전후해 최신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전기들이 잇달아 출간될 때까지 대략 30년 동안 표준적인 셰익스피어 전기로 받아들여졌다.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대한 관심은 줄곧 셰익스피어 연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고, 때에 따라서는 핵심적인 주제가 되기도 했다. 18세기 후반부터 오랜 기간 인간 셰익스피어를 숭배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으며 그 전에는 셰익스피어가 상당한 학식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18세기 후반부터 오랜 기간 비평가들은 신고전주의적인 규범을 노골적으로 거스르는 셰익스피어의 극작 양태가 그저 무식의 소산이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원에 관한 정보에 공백이 많아서 기본적인 전기적 사실을 확정짓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바드 숭배의 분위기와 맞물려 이런 상황은 셰익스피어에 관한 신비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셰익스피어의 ‘진짜’ 정체를 둘러싼 음모론적인 주장이 등장해서 줄곧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런 중에도 제한적이지만 확보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셰익스피어의 생애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이어졌고, 시대별로 셰익스피어 관련 저술에서 두루 참고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은 전기작가는 셰익스피어 연구의 대가로 대접받았다.

리 이전에 그런 위상을 누린 대표적인 전기작가로 로우(Nicholas Rowe, 1674-1718)와 말론을 꼽을 수 있다. 둘 모두 18세기에 활동한 셰익스피어 전집의 편집자로서 그들의 셰익스피어 전기는 모두 자신들의 전집에 포함되었다. 최초의 셰익스피어 전집을 펴낸 로우는 역시 최초로 셰익스피어 전기를 썼고, 이후 이 40여 쪽 분량의 짧은 글은 요약본 형태로 18세기에 발간된 상당수 셰익스피어 전집에 실렸다. 오랜 기

간 정보으로 통용된 로우의 전기를 대체한 것이 말론의 전기이다. 말론은 셰익스피어 연구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학자로, 공문서와 공연기록 등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온갖 자료를 수집하여 처음으로 체계적인 방식으로 셰익스피어 작품의 집필 순서를 밝히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압도적인 분량의 셰익스피어 전기까지 집필했던 것이다. 방대한 자료에 기반한 그의 셰익스피어 전기는 무려 500여 쪽에 이르렀고, 이후의 모든 셰익스피어 전기는 어느 정도는 그의 작업에 빗질 수밖에 없었다.

리의 셰익스피어 전기는, 자신의 첫 직장이었던 『국가전기사전』(*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편찬사업 중에 작성한 셰익스피어 항목이 모태였다. 이를 확대한 초판이 1898년에 나왔고, 이후 꾸준히 개정증보를 거치면서 1922년 서문과 색인을 제외하고도 본문만 600쪽을 훌쩍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3판이 출간되었고, 이후에도 소폭의 개정증보가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후속 판본이 나왔다.

이 판본에 함께 수록된 초판의 서문은 책의 출간 경위와 저술의 목표를 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 이후 판본에 실린 서문은 주로 새로 추가된 내용이나 독자의 반응에 대한 소회를 적고 있다 - 자신의 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 전기는 『국가전기사전』에 실린 항목에 비하여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전’에 합당한 집필원칙을 따라 “위대한 극작가의 개인사에 관한 평이하고도 실용적인 서술”을 추구하기에 “오로지 검증된 사실과 시기”만을 제공하고 가급적 미학적 평가는 배제하고자 했다. 그간 셰익스피어에 대한 미학적 연구가 과잉인 반면 “간략한 범위에서 셰익스피어의 삶과 업적 및 평판에 관한 사실들을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 사실의 원 출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저작은 부재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자신의 작업이 그 공백을 메웠다고 자평한다. 그는 독자들에게 평가를 맡긴다면서도, 자신의 책이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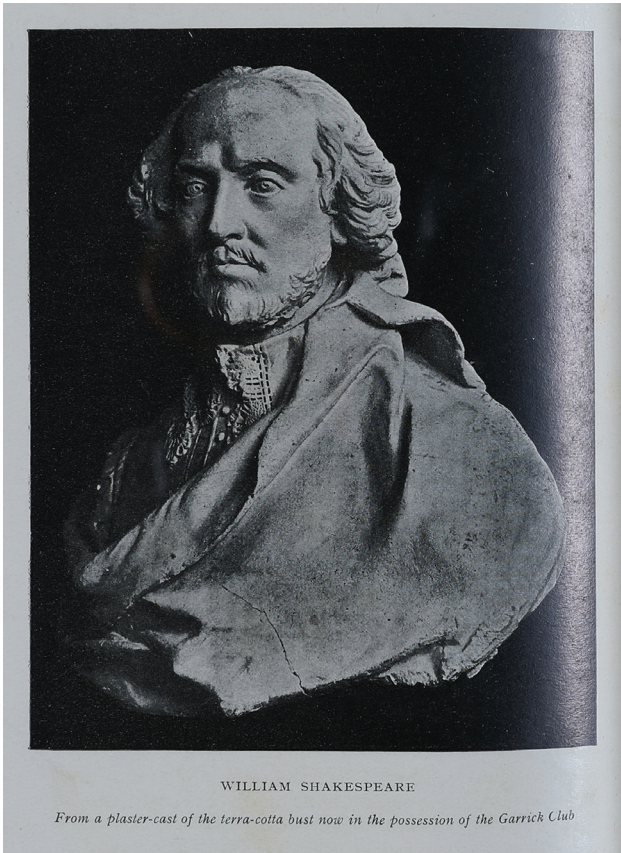
다음은 간략하게 간추린 장별 내용이다. 1~3장은 셰익스피어가 스트랫퍼드를 떠나기 전까지의 삶에 관한 것이고, 짧은 4장과 5장은 셰익스피어가 고향을 떠난 후 런던에 정착해 연극계로 진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6장은 다소 독립적인 장으로 5장에 이어 셰익스피어의 배우생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주로 런던 연극계에 대한 개관으로 우선 무대 구조부터 분장방식에 이르는 당시의 구체적인 공연환경 및 관행을 설명한 후에 셰익스피어가 활동한 글로브 극장을 위시해 런던에 소재한 여러 극장을 소개한다. 극작가 데뷔를 전후한 시기에 관한 7장에 이어 8장에서는 역사극을 위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는 셰익스피어의 초기 극작 활동을 다룬다. 이때 서술의 주안점은 말로 등 동시대의 선배 극작가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받은 예술적 영향에 맞추어진다.

9~12장은 100여 쪽에 걸쳐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다양한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예컨대 「소네트와 그 문학적 역사」(“The Sonnets and Their Literary History”)라는 제목의 10장은 통째로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그 외래의 장르가 영국에서 토착화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사실 이 전기는 리가 서문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평이한 전기적 서술 외에도 학술적인 내용의 비중이 컸다. 이어지는 11장 또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동원된 다양한 기발한 비유(conceit)를 분류하고 그 기원을 따져보는 등 다각적인 스타일 분석 후에 이 작품들이 셰익스피어 생애의 실제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당시의 일반적 해석을 뒤집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후 셰익스피어의 사망을 다루는 20장까지 셰익스피어의 사적인 삶과 전성기에 다다른 극작활동을 번갈아가며 다루는데, 후자에 속하는 13, 16, 18, 19장은 출전과 공연관련 사항 등 작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정짓는 것과 더불어 당시 셰익스피어 작품의 평판에 대한 서술

비중이 크다. 거듭 강조되는 사실은 당시 불법적인 경로로 광범위하게 작품이 출판될 만큼 셰익스피어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생애를 다루는 장들에서 각별히 주목을 끄는 내용은 재정상황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15장은 통제로 이런 내용에 집중해서, 셰익스피어의 수입이 159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사정과 함께 극단의 배당금과 집필료 등 각각의 원천별 수입 비중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특이하게도 이 전기는 2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130여 쪽의 적지 않은 분량을 셰익스피어 사후에 할애한다. 짧은 장들인 21장과 22장에서 각각 유족들의 신원과 자필 서명과 초상화 등 셰익스피어의 개인 유품을 소개한 후에, 작품들의 출판 역사(23, 24장)와 사후 영국에서의 셰익스피어 비평 및 공연의 역사(24장), 그리고 국외에서의 셰익스피어의 수용사(25, 26장)를 정리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렇듯 이 책은 셰익스피어의 전기에 더해 일종의 부록으로 당시까지의 셰익스피어 연구의 개관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저자인 리는 서문에서 자신의 소임을 엄격한 전기작가 역할에 국한했지만, 실상 이 책은 셰익스피어 소네트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그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도판 5.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애』 539쪽의 셰익스피어 흉상

F34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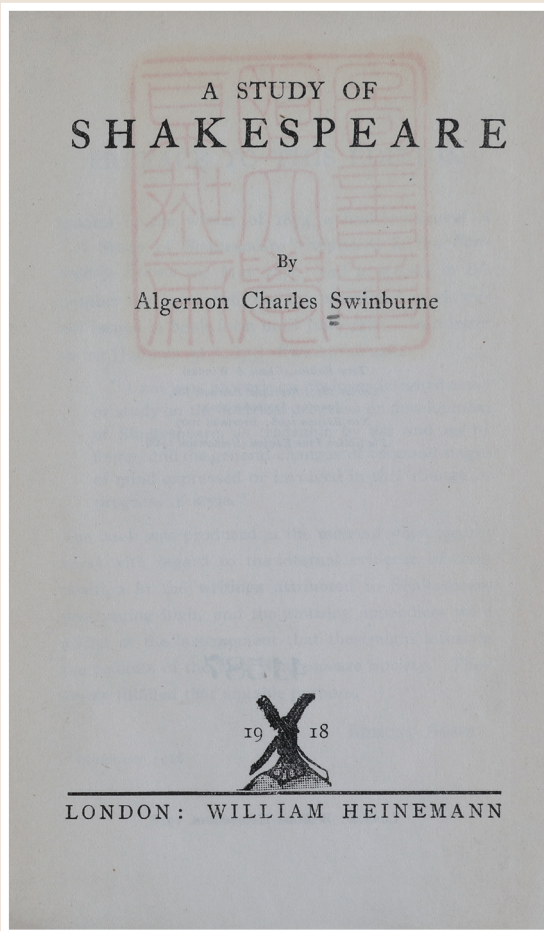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연구

A Study of Shakespeare

Algernon Charles Swinburne 저술

London : William Heinemann, 1918.

* 1880년 초판 발간



오늘날 스윈번은 주로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평생에 걸쳐 꾸준히 발표한 비평 에세이 또한 그의 창작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1868년 예언적인 성격의 장시로 유명한 초기 낭만주의 시인인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에 대한 저술을 시작으로 이후 『제인 에어』(*Jane Eyre*, 1847)를 쓴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e, 1816-1855)에 대한 비평서를 위시해 스윈번은 평생에 걸쳐 단행본으로만 10권이 넘는 작가론을 펴냈다.

이런 열정적인 비평활동은 본인의 창작활동과 긴밀히 얽혀 있었다. 스윈번은 합리성의 지배가 강화되는 근대사의 흐름에 깊은 반발심을 느꼈고, 주로 이단적이라고 여겨진 과거의 선배 작가들을 창작의 모델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금기를 깨는 도발적인 주제의 채택과 더불어 고풍스럽고도 이색적인 운율체계가 두드러지는 문학적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다. 낭만주의의 세기말 변형이라 할 이런 데카당스(decadence, 퇴폐)적인 태도는 실제 생활에서도 표출되어, 스윈번은 (실제로는 매우 과장된 것이었지만) 의식적으로 주류사회의 도덕률을 위반하고 스캔들을 야기하여 유명세를 누린 ‘셀럽’이기도 했다.

스윈번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선배 작가들은 영국 극문학의 태동기이자 최전성기이기도 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작가들이었다. 그는 그 시대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애착을 느낀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해서 말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더 나아가 그는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Mart Stuart, 1542-1587)같은 그 시대의 실존 인물을 주인공을 내세운 운문 역사극을 여러 편 남기기도 했다. 역시나 스윈번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작가들을 폭넓게 연구했고, 그 결실을 여러 권의 책으로 엮었다. 그는 채프먼(George Chapman, 1559-1634)과 말로, 그리고 존슨과 투어너(Cyril Tourner, 1575-1626) 등 그 시대의

대다수 주요 극작가들에 관해서 비평 에세이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스윈번이 가장 경애했던 극작가는 단연코 셰익스피어였다. 스윈번은 1880년 발간된 이 책 『셰익스피어 연구』를 포함해 총 3권의 셰익스피어 비평서를 냈는데, 나머지 2권은 1908년과 1909년에 연이어 펴낸 『셰익스피어의 시대』(*The Age of Shakespeare*)와 『셰익스피어』(*Shakespeare*)였다. 그 책들은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발간한 저서들이었다. 스윈번은 자타가 공인하는 셰익스피어의 의식적인 모방자였다. 그의 희곡에 등장하는 다수의 인물이 셰익스피어의 인물을 원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여러 비평가들이 줄곧 지적해온 사실이며, 그 자신부터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공연되었던 글로브 극장이나 블랙프라이어스 극장을 상상하며 희곡을 쓴다고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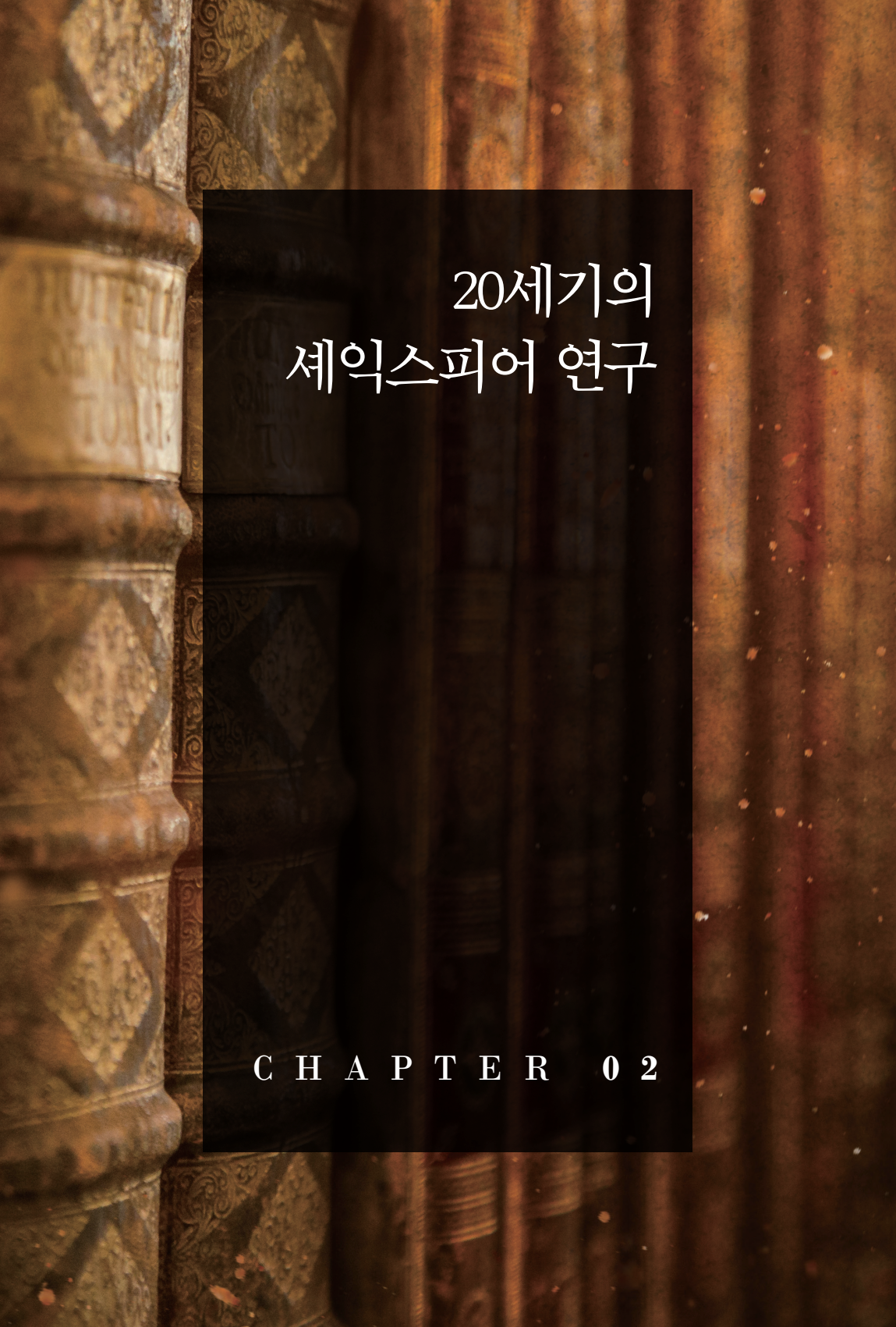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셰익스피어 비평가로서 그의 존재는 거의 잊혀진 것이 사실이다. 기교를 앞세운 그의 화려한 시적 스타일이 종래의 문학적 수사에 거리를 두고자 했던 모더니즘 문학운동의 득세와 더불어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처럼, 그의 칭송 일변도의 셰익스피어 비평 역시 근대적 셰익스피어 연구가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낭만주의적 전통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가 펴낸 세 권의 셰익스피어 관련 저술 중에서 외견상 연구서에 가장 가까운 이 책 『셰익스피어 연구』조차도 그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책의 서문은 저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식별되는 스타일의 전개와 발전양상, 그리고 소재 및 극작의 의도와 방식에서 나타나는 내외제적 변화들에 대해 필자가 증명가능한 일단의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밝히는 것이다.” 스윈번은 앞선 항목들에서 소개한 1세대 영문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세계 전체에 걸쳐 작가가 발전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으며, 제목의 ‘연구’나 인용한 대목의 ‘증명’ 같은 의식적인 어휘선택 또한 학적인 자세를 천명하는 것 같다. 그는 이 책에서 기존의 유력한 4단계 발전설을 대체해서 3단계 발전설, 즉 셰익스피어의의 작품세계는 ‘서정적이고 환상적인’ 첫 번째 시기에서 출발해서 ‘회극적이고 역사적인’ 시기를 거쳐 ‘비극적이고 낭만적인’ 시기에서 완성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증명’하는 근거이다. 그는 걸작으로 공인받고 있는 비극과 말년의 로맨스풍의 작품을 통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그 나름으로 신선한 주장을 펴지만, 오로지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권위에 기대어 논의를 전개한다. 셰익스피어의 작가적 발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운율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는 것이 ‘논증’의 대전제가 된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운율 운용은 기계적인 운율 테스트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오로지 본인처럼 뛰어난 시인만이 그 복잡미묘함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안에 담긴 정신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는 보다 객관적인 해석 방법론은 부정되는데, 이는 셰익스피어를 여러 역사·예술적 맥락 속에서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셰익스피어를 초월적인 천재로 숭배하는 이런 셰익스피어 해석은 그가 셰익스피어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하는 『리어 왕』에 대한 유명한 해석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가 볼 때 『리어 왕』이 최고의 그리스 비극 작가인 아이스킬로스(Aeschylus, 기원전 524-455)의 작품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것은 초역사적인 면모 때문이다. 『햄릿』이나 『오텔로』마저도 여러 사회적 배경 속에서 비극이 전개되는 반면, 『리어 왕』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서 “그 착상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이며, 가장 대양적이고 거대하다”는 것이었다.



20세기의
셰익스피어 연구

C H A P T E R 0 2

F34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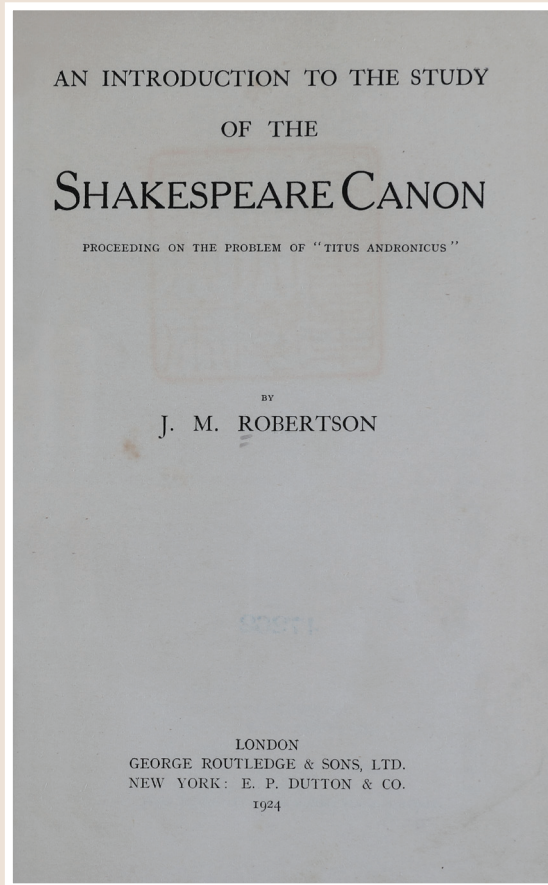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정전 연구 서설 -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의 문제에 기반하여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Shakespeare Canon - Proceeding on the
Problem of Titus Andronicus*

John M. Robertson 저술

London, New York : George Routledge & Sons, E. P. Dutton & Co., 1924.

* 1905년 초판 발간



19세기 말에 이르러 셰익스피어 연구의 장에서 보다 엄밀한 근대적인 방법론의 요구가 높아졌을 때 셰익스피어를 신격화하는 종래의 비평관이 흔들리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 이런 예정된 흐름은 본격화되어 셰익스피어를 초월적인 천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극작가, 즉 특정한 극장환경과 공연관행을 비롯해 그 시대 연극계의 여러 물질적인 조건하에서 작업했던 직업적인 예술인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득세하게 되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구체적인 현실과 연관지어 접근하기에 이런 새로운 흐름의 연구들은 당시 사실적 비평이라고 통칭된다.

그런 새로운 연구경향은 미국의 스톨(E. E. Stoll, 1874-1959)이나 독일의 슈킹(Levin L. Schüking, 1878-1964)같은 몇몇 지도적인 학자의 주도로 학파를 형성하고 적어도 학술작에서 주류가 되면서 셰익스피어 연구풍토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새로운 연구경향은 셰익스피어 작품이 놓인 맥락을 다변화함으로써 차차 분화되기에 이른다. 연극계를 넘어 더 큰 역사적인 맥락에서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려는 연구가 활기를 띠었고, 특히, 근대 초입의 정치·종교적 이데올로기 변동상황의 견지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살피는 연구들 가운데 탁월한 업적이 쏟아졌다. 이런 방면의 연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러브조이(Arthur O. Lovejoy, 1873-1962)의 『존재의 연쇄: 한 관념의 역사에 대한 연구』(*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an Idea*, 1936)와 톨리아드(E. M. W. Tillyard, 1889-1962)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세계상』(*The Elizabethan World Picture*, 1943)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엘리자베스 시대 연극계에 관한 실증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셰익스피어 작품이 당대의 연극관습을 반영하는 양상에 대한 연구도 크게 진척되었는데, 이런 연구 중에는 연극사 연구에 가까워서 해석보다는 기

술(記述)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많았다. 이 방면의 연구로는 직업적인 연극연출가이기도 했던 그랜빌 바커(H. Granville-Barker, 1877-1946)의 『셰익스피어 서문들』(*Prefaces to Shakespeares*, 1927-1930)이 대표적이다. 그밖에도 셰익스피어의 본문비평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신서지학회의 연구와 신비평의 세밀한 언어분석 방법론으로 셰익스피어의 다층적인 이미지 패턴을 읽어내는 시적 접근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학파들이 등장하여 경쟁했던 1, 2차 세계 대전 사이의 전간기는 실로 셰익스피어 연구의 부흥기였다.

『셰익스피어 정전 연구 서설: 『타이투스 앤드로니쿠스』의 문제에 기 반하여』의 저자인 로버트슨(John M. Robertson, 1856-1933)은, 비유하자면 20세기 초반 기존 셰익스피어 연구의 권위에 큰 타격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연구경향에 길을 터주는 기폭제 노릇을 했다. 사실 그는 진보적인 언론인이자 오랜 기간 의원으로도 활동한 정치인이었고 직업적인 학자는 아니었다. 예수의 일생이 창작의 소산이라는, 이른바 기독교 신화이론(Christ myth theory)의 옹호자로 유명세를 떨치는 등 그는 19세기 자유사상운동(freethought movement)의 계승자로, 여러 분야에 걸쳐 주류질서에 도전하는 이상파괴적인 성향의 지식인이었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셰익스피어 관련 저술 또한 이런 지적 성향과 궤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슨에게 일약 ‘셰익스피어 해체론자’라는 악명을 가져다주며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저서가 1905년에 발간된 『셰익스피어는 『타이투스 앤드로니쿠스』를 썼는가?』(*Did Shakespeare Write Titus Andronicus?*)이다. 이 책은 로버트슨의 셰익스피어 연구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저서로, 이 책에 담긴 주장에 기반한 장기간의 연구의 결실이다. 이 1922년부터 발간을 시작하여 1930년에 5권으로 완간된 『셰익스피어

정전』(*The Shakespeare Canon*)이다. 『셰익스피어 정전 연구 서설』은 제 목처럼 대규모 연구의 ‘서문’ 격으로,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의 문제에 기반하여라는 부제에서 짐작되듯이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를 명백한 위작으로 주장하는 1905년 저서의 개정증보판이다.

로버트슨은 이 ‘서문’에서 셰익스피어 연구의 합당한 대상, 즉 정전(canon)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새로이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셰익스피어의 위작 문제는 줄곧 셰익스피어 연구에서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는 자주 대표적인 위작 후보로 거론되던 작품이었다. 로버트슨의 차별성은,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라는 두드러진 경우를 예시로 삼아 정전의 범위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는 그간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온 F1 전집에 수록된 작품들 상당수가 셰익스피어의 수준에 못 미치는 위작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로버트슨은 그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시대 연극계의 공동창작 관행 같은 “외재적 증거”(external evidence)도 제시하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작품) 내재적으로 검토하는”(internally considered) 엄밀한 텍스트 분석이 되어야 했다. 그는 당시에 과학적 방법론으로 각광받던 운율 테스트 외에도 플롯이나 인물구축같은 극작의 모든 측면에 걸친 분석 및 작가간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각별히 셰익스피어와 협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린(Robert Greene, 1558-1592)이나 필(George Peele, 1556-1596)같은 동시대 극작가들의 어휘선택 습관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로버트슨과 기존 셰익스피어 학계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분석방법론보다 비교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선정에 있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전체 셰익스피어 작품의 창작과정과 기원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는 “셰익스피어의 바로 앞선 선배 작가들과 동시대 극작가들의 기명(signed) 작품들” 외에도 “그들의 무기명(unsigned) 작품을 매우 철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책의 구성을 보면 그가 이 제 안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었는지 알 수 있다. 1장에서 셰익스피어 비평의 상황을 개관한 후 2장부터 6장까지 서문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비교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나서 이어지는 세 개 장은 당시에 활동한 여러 극작가들의 무기명 작품들과 셰익스피어 작품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할애되고 있는데, 그 분량이 책 전체의 반에 이르는 200쪽에 육박한다.

해체론자라는 악명이 말해주듯 로버트슨의 주장은 학계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그의 주장은 후대 학자들의 엄밀한 본문 연구에 의해서 상당 부분 반박되었다. 그러나 별 의심없이 수용되던 셰익스피어의 작품목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해보자는 그의 파격적인 주장은, 학계가 기존 셰익스피어 연구의 암묵적인 전제들을 두루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본문연구의 대상을 대폭 확장하는 등 그 분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사실 로버트슨은 이 개정판 서문에서 그간 축적된 본문연구 분야의 성과를 수용하여 최초의 강경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후퇴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현재 셰익스피어의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수의 희곡들이 광범위한 공동창작의 산물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창작과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셰익스피어의 수정작업이 매우 철저했다”고 견해를 수정했던 것이다.

사실 셰익스피어 비평사에서 로버트슨의 이름은 『햄릿』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이자 20세기 전반기 최고의 비평가이기도 했던 엘리엇(T. S. Eliot, 1888-1965)의 영향이 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엘리엇은 셰익스피어 최고작 중의 하나로 평가되던 『햄릿』을 명백한 예술적 실패로 규정했는데, 플롯의 큰 줄기

라 할 햄릿의 복수지연 동기가 극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햄릿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이른바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그간 복수를 지연하는 햄릿의 심리에 대한 이런 저런 가설을 만들어온 비평들은 모두 작품의 실상을 외면했다는 것이었다. 엘리엇은 이런 주장을 담은 에세이 「햄릿과 그의 문제」(“Hamlet and His Problem”, 1919)에서 로버트슨의 해석을 이 문제적인 작품에 정직하게 대면한 드문 사례로 소개했다. 엘리엇이 인용한 로버트슨의 『햄릿』 연구서는 같은 해에 출간된 『『햄릿』의 문제』(*The Problem of Hamlet*, 1919)였다. 로버트슨 역시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복수지연이라는 비평사안이 주인공 햄릿의 통합적 심리를 가정하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도출된 가짜 문제로 규정한다. 그는 동일한 출전에서 파생된 여러 선행 작품을 거느린 『햄릿』이라는 작품의 기원을 환기하면서, 셰익스피어는 각색자로서 연극적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극적인 모순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고전으로서 『햄릿』의 지위를 흔드는 상당히 파격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해석은 『셰익스피어는 『타이투스 앤드ronic스』를 썼는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연구자들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F340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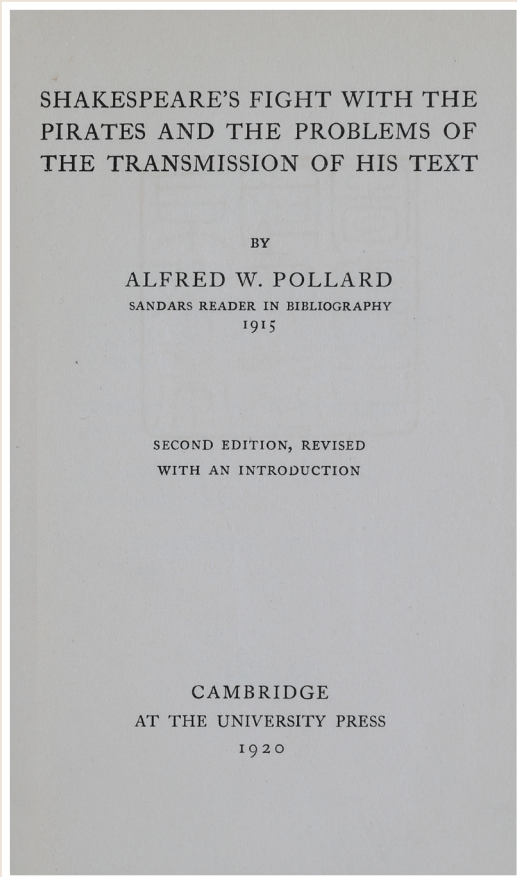
저작 도용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대처와 셰익스피어 텍스트의 전달 문제

*Shakespeare's Fight with the Pirates and the Problems of the Transmission of
His Text*

Alfred William Pollard 저술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0.

* 1915년 초판 발간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셰익스피어 텍스트에는 근본적인 불확정성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대한 불확정성을 줄이려는 학문적 노력은 계속 이어졌고, 텍스트의 분석을 본령으로 하는 문학연구의 속성상 그런 본문비평의 성과는 당연히 모든 셰익스피어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띤다. 셰익스피어 본문비평이 가장 크게 성장했던 시기로는 우선 이 분야의 확립기라고 할 18세기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시오볼드를 위시한 여러 탁월한 학자·편집자들의 평생에 걸친 헌신적인 노력으로 셰익스피어 본문이 대폭 개선되었고, 그 성과를 담은 여러 종의 전집 출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셰익스피어 비평사를 통틀어 그 시기에 견줄만한 시기가 바로 20세기 초반이다. 이 두 번째 셰익스피어 본문비평의 황금기를 연 주역은 1892년 런던에서 결성된 서지학회(The Bibliographical Society in London)였다. 이 학회가 셰익스피어 본문비평 분야에 가져온 일대 혁신은 셰익스피어 텍스트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맥락을 밝혀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 같은 연구성과를 요약하는 키워드가 ‘전달’(transmission)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일군의 서지학자들은 셰익스피어의 대본이 출판되기까지 거처간 여러 과정을 추적·재구성하고, 여러 종류의 출판물과 자료들을 비교함으로써 텍스트의 전달 중에 교란이 발생하는 주요 지점과 패턴을 규명했다. 이런 연구는 애매한 대목의 정정 판단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저본으로 삼아 마땅한 작품의 판본을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듯 학회의 구성원들이 정채된 셰익스피어 본문비평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셰익스피어 당대의 구체적인 출판환경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였고, 그 점에서 그들이 ‘신’ 서지학자로 불린 것은 타당했다. 더불어 그들은 전통적인 본문비평 방식인 대교

말고도 통계적 접근 같은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해서 본문 정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회가 주도하여 내놓은 서지학 분야의 여러 기념비적인 서적들을 보면 세대 구분 이전에 우선 그들은 자기 분야에 깊이 헌신한, 탁월한 실력의 학자들이었다. 그들의 업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1927년에 초판이 출간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출판된 서적과 해외에서 출간된 영어 도서의 약칭 목록, 1475-1640』(*A Short-Title Catalogue of Books Printed in England, Scotland, & Ireland and of English Books Printed Abroad 1475-1640*)을 꼽을 수 있다. 제목이 말해주는 바 가히 압도적인 규모의 이 출판물은 학회의 다음 세대 연구자들이 승계하여 계속 수정증보판이 나왔고, 20세기 후반이 돼서야 최종판이 발간되었다.

셰익스피어 연구 분야에서도 신서지학자들은 기초적인 자료의 출간을 주도하는 한편, 여럿이 새로운 전집 출간의 편집자로 발탁되어 18세기에 이어 다시금 전집 출간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전집으로는 도버 윌슨(Dover Wilson, 1881-1969)이 편집하고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펴낸 뉴 셰익스피어(*New Shakespeare*) 시리즈가 손에 꼽힌다. 윌슨은 이 전집을 펴내면서 개별 작품별로 책 한 권을 할애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여러 학술적인 성격의 셰익스피어 전집은 이런 편제를 따르게 되었다. 또한 이제는 윌슨의 선례를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100여 쪽에 이르는) 긴 서문을 작성해서 작품별로 그간의 축적된 학술성고를 정리하여 알려주는 것이 편집자의 당연한 역할로 자리잡게 되었다.

폴라드(Alfred William Pollard, 1859-1944)는 체임버스(E. K. Chambers, 1866-1954) 등과 더불어 신서지학파의 1세대에 속하는 학

자로, 오랜 기간 기관지인 『더 라이브러리』(*The Library*)의 편집을 맡는 등 학회의 초기 활동을 이끌며 학과 성립의 산과 역할을 했다. 당장 위에서 언급한,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영국의 출판상황을 총 정리하는 학회의 공동사업을 주도한 이가 폴라드였다. 셰익스피어 본문비평 분야에서도 위에서 말한 연구활동의 토대가 되는 입론을 제공한 이 역시 폴라드였다. 『저작 도용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대처와 셰익스피어 텍스트의 전달 문제』의 서문에서 폴라드는 그 입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중심적인 발상은 ... 초기 판본에 기초하여 셰익스피어 희곡 텍스트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초기 판본은 후대의 대부분의 텍스트 편집자들이 인정한 것보다 셰익스피어의 펜으로 쓴 원래의 원고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다. 도버 월슨 씨와 나는 이 시리즈의 후속 작업으로 후대의 편집자들이 원 자료를 과소평가해서 거기에 담긴 많은 단서들을 무시했지만, 그 단서들이야말로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각주를 모아놓은 소위 집주본 판본을 채우고 있는 다수의 추측 정정의 무용함은 과감한 주석자들이 정작 작품을 쓴 창작자의 특성을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여러 관점에서 보건대 우리가 더 잘 하고자 한다면 새롭게 시작해야만 한다.

위에서 말하는 “초기판본”은 주로 셰익스피어 생전에 출간된 Q 판본을 지칭한다. 셰익스피어 본문비평의 역사에서 이 판본들은 자주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신서지학이 등장할 무렵의 학계 상황이 특히 그러했다. Q 판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정설로 굳어진 데에는 앞선 항목에서 소개한 셰익스피어의 전기작가 리의 영향이 컸다. 그는 불법적

인 도용이 횡행하던 셰익스피어 당대의 출판계 사정을 근거로 Q 판본들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보았고,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본문을 확정짓는 근거가 되어줄 원 자료가 부족하기에 본문비평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론을 표명했다.

당시 셰익스피어 연구의 대가로 널리 인정받던 리의 권위에 도전하여 그의 비판론을 성공적으로 반박하고 본문비평의 새로운 전망을 연 저술이 1909년 출간된 폴라드의 『셰익스피어의 이절판본과 사절판본: 셰익스피어 희곡에 대한 한 서지학적 연구』(*Shakespeare's Folios and Quartos: a Study in the Bibliography of Shakespeare's Plays*)였다. 그것은 압도적인 학문적 승리였다. 폴라드는 광범위한 자료를 참고하여 셰익스피어의 생애 중에 그의 작품이 출판된 상황을 추적하였고, 그 결과 Q 판본에 대한 일반적인 의심을 재고하도록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리의 막연한 추정과 달리 셰익스피어 당대의 출판계는 해적출판이 만연하지 않았으며, 셰익스피어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이 도용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폴라드는 결정적으로 판권등록 기록과 같은 법률문서들을 발굴하여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그는 합법적 과정을 거쳐 출판된 14종의 이른바 ‘양질의 Q 판본’(good Qs)을 가려냈고, F1 판본이 그 판본들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책의 출간과 더불어 본문비평의 대한 비판론은 상당한 정도 불식될 수 있었다. 폴라드의 성과는 다수의 연구자에게 과거 본문비평의 여러 성과를 재평가하거나 (때에 따라서) 부정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졌고, 동시에 본문비평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더 신뢰할만한 저본이 확정되었기에 위의 인용문이 역설하듯, “초기판본” 혹은 “원 자료”가 품고 있는 단서들을 최대한 세밀하게 밝혀내는 게 중

요했다. 이 과정에서 폴라드가 시범을 보였듯이 특정 판본의 출판을 둘러싼 여러 법률적·기술적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그 단서를 캐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셰익스피어 본문비평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폴라드의 학문적 대의에 공감하고 그의 방법론을 따르는 학술적 성과가 곧 쌓이기 시작했다. 영국문화 전반에서 비중이 큰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것이기에 그 성과를 널리 소개하는, 다소 대중적인 학술총서가 기획되었고, 1915년에 총서의 서문 격인 이 책이 출간되었다. 110쪽 분량의 얇은 책은 기본적으로 폴라드의 유명한 주저를 간추린 것으로, 그 책에 대한 위의 설명으로 이 해제대상 도서의 내용 소개를 대신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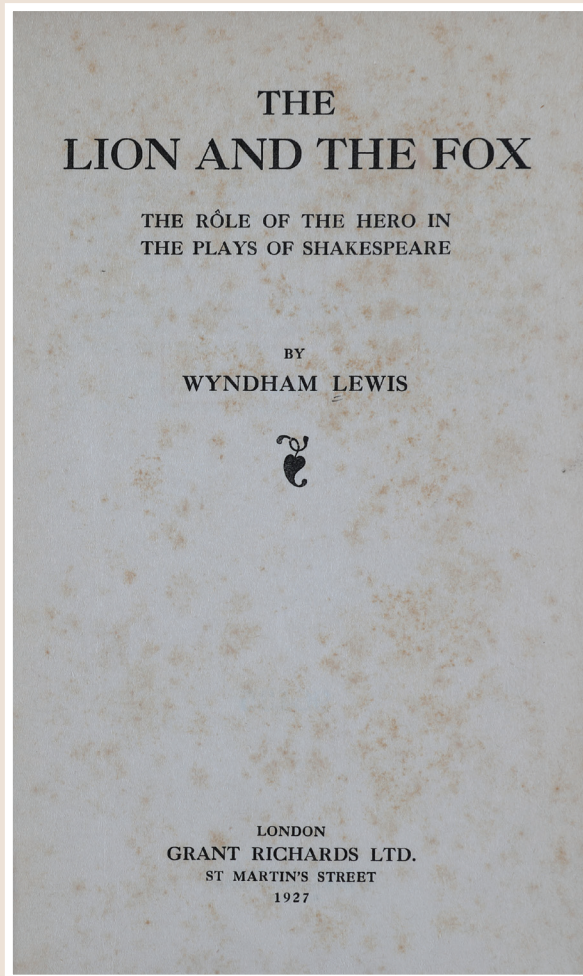
F340 121

사자와 여우: 셰익스피어 극에서의 영웅의 역할

The Lion and the Fox: the Role of the Hero in the Plays of Shakespeare

Wyndham Lewis 저술

London : Grant Richards, 1927.



저자인 윈담 루이스는 20세기 전반기 내내 여러 혁신적인 예술운동을 주도한, 영국 출신의 아방가르드 예술가이다. 그는 미술과 문학 분야를 오가며 활동한 전방위적인 예술가로 두 분야 모두에서 당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후에 철회하긴 했지만 한때 히틀러를 지지하기도 했고, 그의 소설이 반-유대주의 성향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탓에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혐의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현대예술사에서 입지를 회복했다. 이런 아방가르드 성향의 예술가가 고전 중의 고전인 셰익스피어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책은 그의 창작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저술의 의도를 그런 관점에서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루이스는 10대 후반부터 파리를 근거지로 전 유럽을 여행하며 나름의 예술가 수업을 거친 후에 20대 중반에 런던에 정착한 후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문학 쪽에 뜻을 두었다가 곧 미술로 방향을 틀게 된다. 30대 초입에 들어서서는 1910년대 중반부터 그는 큐비즘과 미래파의 스타일을 결합한 독자적인 추상화 스타일을 개발했는데, 그 새로운 화풍은 당시 교류하던 모더니즘 시운동의 지도적 인사인 파운드(Ezra Pound, 1885-1972)로부터 보르티시즘(vorticism, 소용돌이란 뜻의 vortex에서 유래)이라고 명명된다. 그렇게 근대성 비판을 기치로 내건 그의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파운드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1914년 둘은 보르티시즘 미학의 확산을 위해 『블래스트』(*Blas*)라는 제목의 잡지를 창간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영국 최초의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은 단명할 수밖에 없었다. 장교로 최전선에 배치되었던 루이스는 종전 후에야 창작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스스로 타이로스(Tyros, 신참이라는 뜻)라고 명명한 풍자적인 만화풍의 초

상화 스타일을 개발하고 동명의 잡지를 발간하며 그 스타일에 기반한 예술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는 한동안 미술 창작활동을 접고 문필활동에 집중하는데, 특히 개인발간에 가까웠던 잡지 『더 에너미』(*The Enemy*)에서 발표했던 다양한 주제의 비평적 에세이를 엮거나 확장해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다. 『사자와 여우: 셰익스피어 극에서 영웅의 역할』 역시 바로 이 시기의 산물이다. 이 예술 창작의 휴지기는 일종의 이념적 재정비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시기에 이르러 자신이 추구했던 아방가르드 미학에 대해 반성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간단히 요약하면, 자신의 시도를 포함하여 아방가르드 예술 전반은 서구의 급진적 변화를 저지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고, 자주 도리어 그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다는 것이다. 1926년에 출간된 가장 유명한 산문집인 『피지배 상태의 예술』(*The Art of Being Ruled*)은 이런 (자기-)비판적 기조에 입각해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예술의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글을 모아놓았다. 다음 해에 나온 산문집 『시간과 서구인』(*Time and Western Man*)에는 파운드나 스타인(Gertrude Stein, 1874-1946)처럼 한때는 예술적 동지이기도 했던, 모더니즘 운동의 지도적 인사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글이 실려 있었다. 이런 에세이집이 과거와 절연하려는 시도였다면, 『사자와 여우』에는 새로운 예술적 전망이 담겨 있었다. 루이스는 셰익스피어로부터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연루된 현대예술의 착잡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셰익스피어를 이상적인 정치적 예술가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던 그의 비평적 기획은 일단 셰익스피어가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주제화하는 방식에 대한 파악으로 시작된다. 루이스는 셰익스피어의 정치적 주제

를 마키아벨리(Niccollo Machiavelli, 1469-1527)를 빌어 정식화한다. 『군주론』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통치자의 조건으로 각각 사자와 여우로 비유되는 모순적인 자질을 두루 갖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루이스는 셰익스피어 비극과 역사극을 관통하는 ‘상위-주제’(meta-subject)를 그 두 자질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으로 정리한다. 셰익스피어 정치극은 중세와 근대의 가치체계가 혼재하던 시대의 산물로, 이런 전환기의 역사적 상황은 각각의 가치체계를 대변하는 인물들의 갈등으로 압축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이었다. 루이스가 보기에 셰익스피어가 그리는 정치세계에는 항상 용맹함을 비롯한 전래의 미덕을 실천하는 기사 유형의 인물군(‘사자’)과 부족한 힘 대신 계략을 활용하여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인물군(‘여우’)이 맞서고 있다.

루이스는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세계를 역사적으로 맥락화하는데 본문의 첫 세 장을 할애한다. 첫 장에서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튜더 왕조의 역사적 상황을 개관하며, 더불어 이탈리아의 정치사상이 영국에 유입되어 미치는 영향 또한 추적한다. 2장은 오롯이 마키아벨리에 집중하여 그 사상이 출현하는 역사적 배경부터 근대 서구사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몇몇 대표적인 마키아벨리즘의 사례를 소개한다. 3장에서 셰익스피어의 정치극에서 왕이 형상화되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역사적, 정치사상적 배경 연구 끝에 4장부터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문제 틀에 따라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이 제시된다. 그 복잡다단한 내용을 여기서 세세히 다 따라갈 수는 없고, 루이스의 논의는 최종적으로 이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작가 셰익스피어의 자세로 모아진다.

루이스가 셰익스피어가 정치적 주제를 극화하는 방식에서 주목하

는 것은 철저한 무당파성이다. 그러나 양쪽 진영 모두를 부정하고 초연하기만 해서는 예술적 재현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대립되는 정치적 입장 모두와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정치현실에 깊이 연루되는 극도로 모순된 태도가 요구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고도의 정신적·실존적 긴장을 버티는 예술적 자아가 탄생하게 된다. 이 자아는 ‘개인성의 초월’(impersonality)로 객관적 인식을 확보하지만 그 대가로 영원히 행동의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허무주의(nihilism)를 견뎌야 하는 운명이다. 그러나 이런 독특한 자아는 시대의 거울로 작용하여 정치적 갈등이 팽배한 세계에서도 적/동지의 이분법에 덜미를 잡히지 않으면서 정치현실의 총체상을 전달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듯 이 책은 마키아벨리즘이 셰익스피어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로 시작하지만, 궁극에는 셰익스피어를 매개로 격변기의 정치현실 속에서 저자 본인이 예술가로서 마주한 곤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으려한 시도이다. 그러나 루이스가 제시하는 예술가-지식인으로서 셰익스피어 상은 단지 그의 소망의 투영만은 아니고 상당한 학문적·비평적 근거가 뒷받침되었기에 설득력이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셰익스피어를 통해 제시하는 정치적 예술의 가능성은, 196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적 문예비평에서 중요한 테제로 부각되는 예술의 (반-)자율성 논의를 선취한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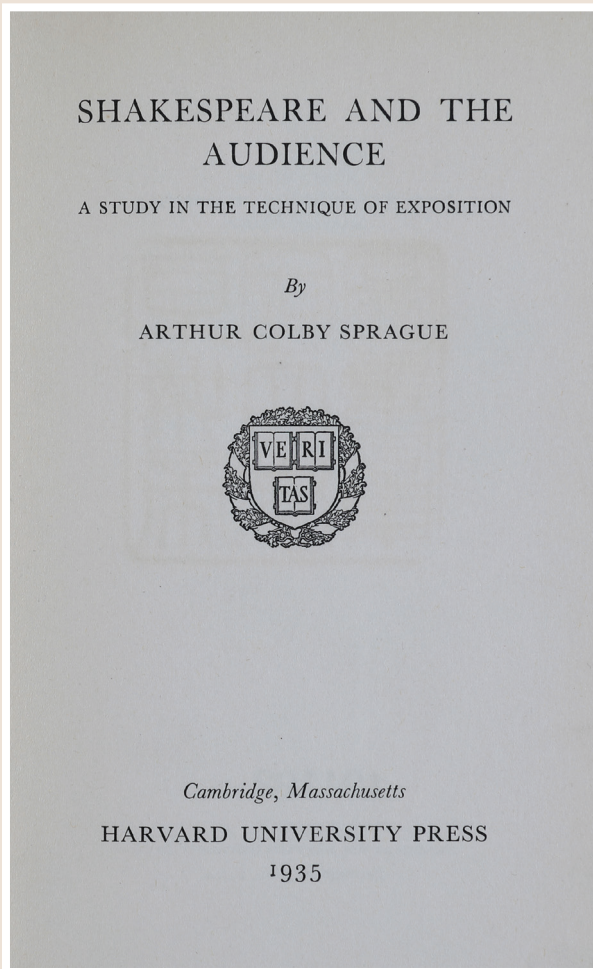
F340 258

셰익스피어와 관객: 극의 전개 테크닉에 관한 연구

Shakespeare and the Audience: a Study in the Technique of Exposition

Arthur Colby Sprague 저술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35.



2장의 첫번째 항목에서 셰익스피어를 직업적인 극작가로 접근하는 새로운 연구경향에서 여러 셰익스피어 연구 유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 중에는 작품 해석시 셰익스피어 당대 연극계의 구체적인 실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류도 있었다. 바로 연극사 연구에 가까운, 실증적인 연구의 비중이 큰 무대비평학파이다.

『셰익스피어와 관객: 극적인 전개 테크닉에 관한 연구』는 이런 연구 사조를 대표하는 학자인 스프라구(Arthur Colby Sprague, 1895-1991)의 초기 연구서이다. 그는 이 책 외에도 『셰익스피어와 배우』(*Shakespeare and the Actors*, 1944), 『셰익스피어 작품의 대표적인 공연과 배우들』(*Shakespearian Players and Performances*, 1953),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무대를 위한 희곡』(*Shakespeare's Histories: Plays for the Stage*, 1964) 등의 연구서를 남겼다. 주요 저서의 제목만 보더라도 그는 평생에 걸쳐 실증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공연의 맥락에서 분석했던 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프라구가 이 분야의 개척자는 아니었다. 그는 이 해제대상 도서의 서문에서 자신의 연구에 영향을 끼친 여러 선구적인 연구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명단은 앞서 역시 이 장의 첫번째 항목에서 언급되었던 스톨과 슈킹 그리고 그랜빌-바커 외에도 동시대의 여러 학자들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극연출가였던 그랜빌-바커의 『서문들』은 “여러 바람직한 특성으로 인해 이 시대의 비할 데 없는” 연구 성과라는 각별한 찬사를 받는데, 자신의 학문적 지향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사실 당시 셰익스피어 학계를 주도했던 스톨과 슈킹의 경우에는 무대비평학파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어디까지나 해석학적인 문학연구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학자들이었다.

사실 스프라구의 연극학적인 셰익스피어 연구는 자신이 교육받은 하

버드 대학의 학문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책에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는 있지만, 오랜 기간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베이커(G. P. Baker, 1866-1935)야말로 그의 학문적인 직계 선조로 보인다. 베이커가 1907년에 펴낸 『극작가로서의 셰익스피어의 발전』(*The Development of Shakespeare as a Dramatist*)은 셰익스피어 비평사에서 선구적인 무대비평학과 경향의 연구서로 평가받는다. 그는 일찍이 1905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극작 강좌를 개설했고, 1925년부터는 예일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로는 드문 창작 수업을 이어갔는데, 미국 희곡사 최초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오닐(Eugene O'Neill, 1888-1953)이 그의 수업을 듣고 극작의 기초를 다졌다. 미국 연극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베이커의 극작 강좌는 셰익스피어를 위시한 고전 극작품들에 대한 그의 분석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셰익스피어와 관객: 극적인 전개 테크닉에 관한 연구』는 명쾌한 제목처럼 베이커의 노선을 따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극작술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스프라구는 일단은 엘리자베스 조의 여러 대표적인 작품들을 예로 삼아 그 시대 연극 공연의 관습적인 장치내지는 예술적 규약의 존재를 확인한 후 셰익스피어가 이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솜씨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리하여 후대의 공연환경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도 셰익스피어가 관객들에게 강렬한 미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규명된다.

1장은 일종의 총론으로서 근대를 대표하는 서사 장르인 소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희곡에서 요구되는 압축적인 사건구축과 전개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지는 여덟 개의 장은 각각 엘리자베스 조 연극 무대의 특정한 예술적 관습에 할애된다. 각 장은 다시 여러 개의 짧은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논의에 이어 그에 바탕한 셰익스피어 작품

의 특정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는 식이다. 예컨대, 연극 공연에서 시공간을 구축하는 무대관습에 관한 2장 「시간과 공간」(“Time and Place”)의 소제목은 다음과 같다.

무대배경에 대한 설명(“Description for Scenery”) - 훌륭한 독자의 임무(“Task of Good Reader”) - 『리어 왕』의 폭풍 장면(“Storm Scene in *Lear*”) - 장소의 지칭(“Indication of Place”) - 『리어 왕』의 도버 해협 장면(“Dover Cliff”) - 무대 지문의 표기(“Writing of Stage Letters”) - 시간의 압축(“Condensation of Time”) - 시간의 병렬(“Double Time”) - 노래(“Songs”) - 밤 장면(“Night Scenes”) - 『한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

장별로 다루는 연극관습은 대략 다음과 같다. 3장은 독백과 방백 등 대사의 종류와 각각의 극적 기능에 관한 것이고, 4장은 작품을 열고 끝맺는 전형적인 방식을 다루며, 5장은 상황의 반전이 예고되거나 창출되는 극적 장치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6장에서 증언자 역할 등 군소인물들의 극적 기능을 개관한 후, 7장과 8장은 각각 그와 관련하여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chorus)에 비견될 수 있는 군소인물의 특정한 활용방식과 악당과 주인공을 가르는 극적 장치에 대해 다룬다. 「동기와 편견의 허용」(“Allowance for Motive and Prejudice”)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마지막 8장은 서스펜스의 창출을 위해서 정보가 통제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F340 276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희곡들

Shakespeare's Last Plays

E. M. W. Tillyard 저술

London : Chatto and Windus, 1938.

Shakespeare's Last Plays

E. M. W. TILLYARD

LITT. D.

University Lecturer in English
and Fellow of Jesus College
Cambridge

1938

CHATTO AND WINDUS

LONDON

저자인 틸야드의 가장 유명한 저술을 꼽자면,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중세의 종교적 세계관을 제시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세계상』일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문학연구 전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의 선구적인 업적으로서, 출간된 지 사반세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페이지북 형태로도 출간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 연구에 입문하려는 이들에게 필독서이며, 근대 초기에 관한 흥미로운 정신사적 연구로서 일반 독자의 관심도 끌고 있다.

그보다 4년 앞선 1938년에 출간된, 틸야드의 첫 번째 셰익스피어 작품 해석 연구서인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희곡들』은 여러모로 소품에 해당하며 유명세에서 그의 대표작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책 또한, 책이 다루는 주제에 관해서는 획기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흐름을 바꾼, 그 나름의 작은 ‘고전’이다.

책은 셰익스피어가 극작 활동을 마감하는 시기에 나온 세 편의 로맨스 희곡, 즉 『심벨린』, 『겨울 이야기』, 『템페스트』를 다룬다. 셰익스피어 말년의 이 세 작품은 직전 시기의 비극과 너무나 달라서 진즉부터 이런 급작스런 단절을 해명하려는 비평적 시도들이 이어졌다. 틸야드가 이 책을 낼 즈음에는 다분히 수사의 가공에 몰두하는 작품들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더 나아가 다분히 장식적인 작품에서 예술적 치열함을 소진한 셰익스피어의 정신적 위기를 읽어내는 해석 또한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런 의견은 틸야드가 이 책에서 주된 적수로 삼고 있는 20세기 초반의 영향력있는 문필가 스트래치(Lytton Strachey, 1880-1932)에서 기원한 것이었다. 동시에 틸야드는 이 작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데 스트래치의 기여가 컸다고 강조한다. 1906년에 발표된 스트래치의 글 때문에 이 작품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뀐 것은 맞다. 낭만주의적 셰익스피어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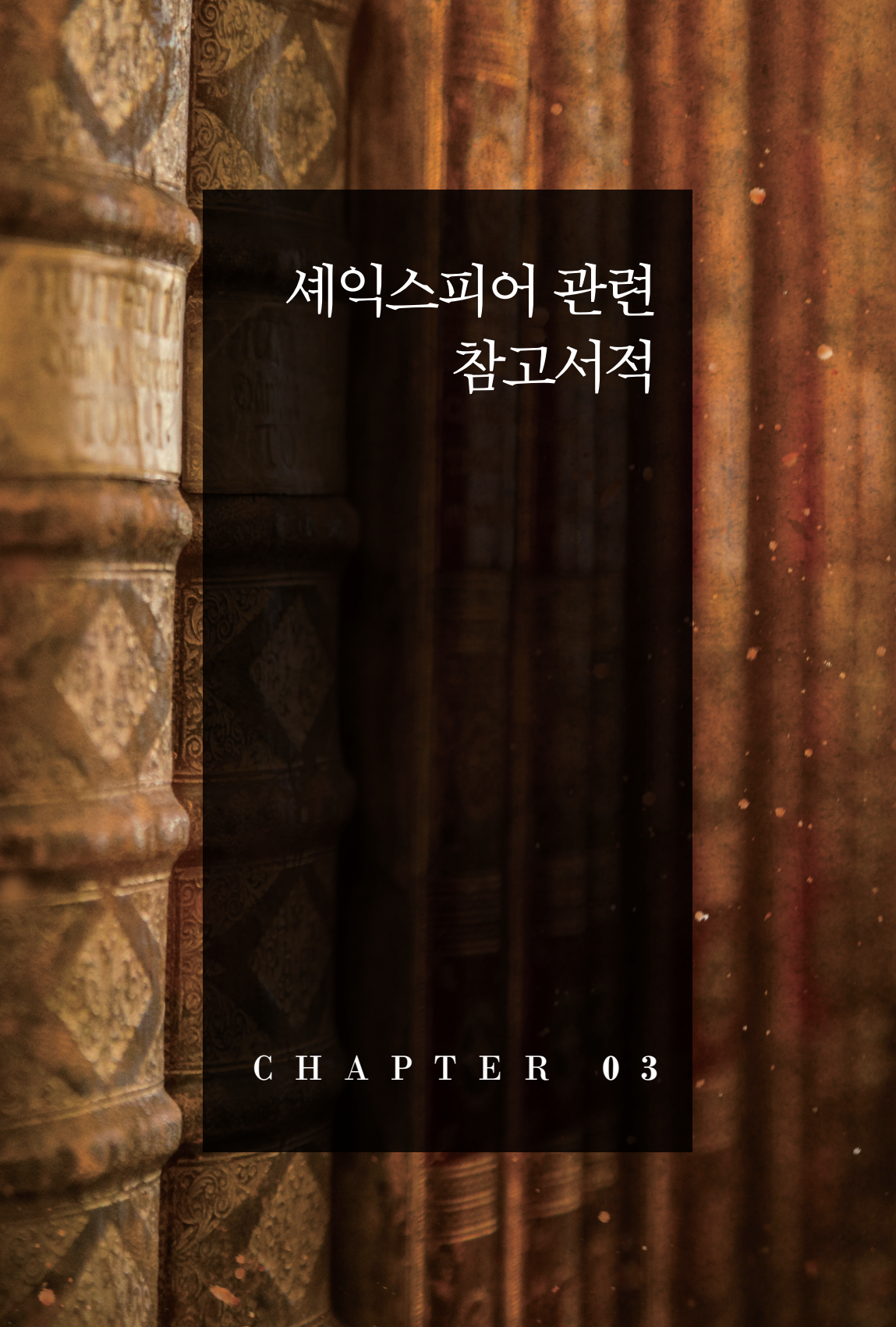
이전 세대 비평가들은, 로맨스 희곡의 인물들, 특히 『템페스트』의 프로스페로와 셰익스피어를 동일시하며, 이 작품들로부터 모든 갈등을 초월한 관대한 현자 셰익스피어 상을 도출했다. 작품의 수사적 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스트래치의 엄격한 형식적 접근은 이러한 구시대적인 연구 태도를 타파하려는 시도였다. 다만 스트래치는 분석 결과 셰익스피어가 시적인 표현을 가공하는 데만 몰두하는 일종의 데카당트한 예술가로 전락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틸야드가 보기에 이 작품군에 대한 오해는 로맨스 장르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바가 컸다. 그래서 서론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엘리자베스 시대를 대표하는 로맨스 서사시인 시드니(Phillip Sidney, 1554-1586)의 『아카디아』(Arcadia)를 예로 들어 로맨스 장르가 현실도피적이라는 현대적 편견을 논박한다. 로맨스의 세계는 코드화된 형태이긴 하나, 보다 사실적인 스타일의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현실과 깊이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로맨스 장르는 대중융합적일 가능성도 컸지만, 틸야드는 독자적인 분석 끝에 이 작품들이 관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문화적 소비재에 가깝다는 스트래치의 견해를 반박한다.

그래서 이 작품군에 대해 물어야 하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자신에게 낯선 장르를 들여와서 하려던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서론의 말미에서 제시하는 틸야드의 가설은 이 작품군에 대한 그간의 모든 비평적 시각을 뒤집는 것이다. 이전의 비평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 같이 이 작품군에서 단절을 확인하고, 이를 셰익스피어의 인격적 변화를 말해주는 증표로 보았다면, 틸야드는 이 로맨스 희곡과 직전 시기 비극의 연속성을 주장한다.

그는 이 책의 논지를 기존의 모든 비평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 즉 로맨스는 비극을 보완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정리한다. 별로 길지 않

은 100여 쪽 분량의 저술이지만 주장을 뒷받침하는 본문의 논증 내용을 자세히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최대한 간추리자면 이 로맨스 희곡들 또한 직전 시기 작품들과 비슷한 비극적 상황에서 시작한다는 분석이 핵심 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직전의 비극과는 달리 이 작품들에서는 초자연적인 힘의 작용으로 파국적인 결말이 회피되고 최종적으로는 해원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도래하게 된다. 틸야드는 셰익스피어가 이런 극적 전개로 현실과 길항하는 가능성의 영역을 탐구하려 했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셰익스피어에게 로맨스는 현실을 초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재적인 현실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이다. 다만 틸야드는 셰익스피어가 몹시 의식적으로 이런 주제를 극화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말라고 주문한다. 철저한 비극의 세계를 그린 후에 셰익스피어는 거의 본능적으로 대안적인 세계상을 모색했던 것이고, 세 차례나 그런 시도를 반복했다는 사실은 셰익스피어의 절박함이 대단히 컸음을 말해준다. 틸야드는 이 로맨스 희곡들이 셰익스피어의 그 어떤 작품보다 서로 깊이 얽혀있는 연속적인 시도였는데, 『템페스트』에 이르러서야 예술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앞선 시도까지 아울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결론내린다.



셰익스피어 관련
참고서적

C H A P T E R 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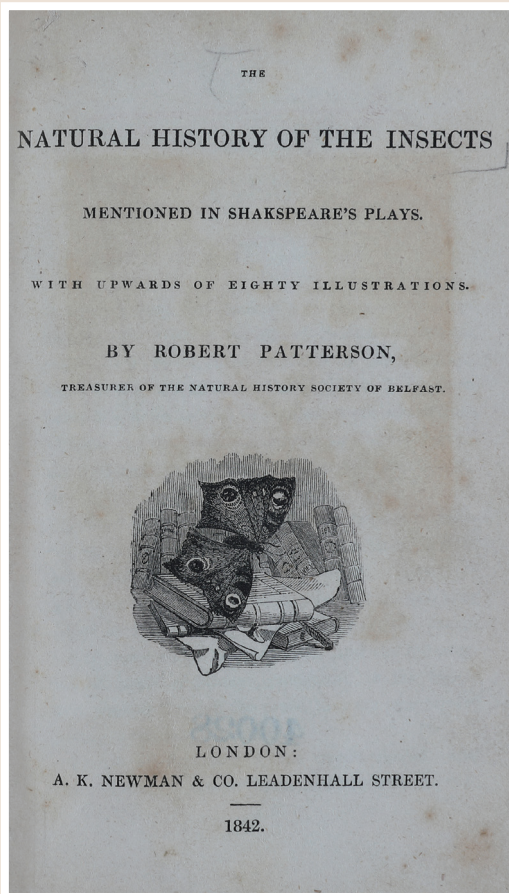
F340 86

셰익스피어 작품에 언급된 곤충의 자연사:
80개 이상의 도판 포함

*The Natural History of Insects Mentioned in Shakespeare's Plays:
With Upwards of Eighty Illust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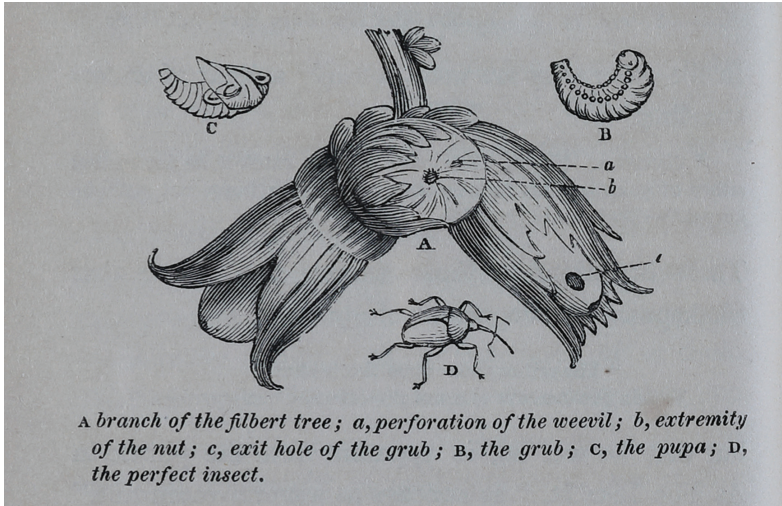
Robert Patterson 저술

London : A. K. Newman & Co., 1842.



저자인 패터슨(Robert Patterson, 1802-1872)은 벨파스트 출신의 저명한 자연사 연구자(naturalist)이다. 패터슨은 1821년 주도적으로 벨파스트 자연사학회를 창립했고, 이후 평생 동안 여러 직을 거치며 열정적으로 학회를 위해 일했다. 벨파스트 자연사학회는 아일랜드 최초로 공중기금을 조성해 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민간의 대중교육 분야에서 큰 역할을 했고,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인 패터슨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859년 영국왕립학회의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 책 역시 학회가 개최한 대중강연회의 원고가 토대가 되었다. 저자 서문에 따르면 강연회는 1832년 3월 1일부터 1836년 1월 1일까지 '대중의 밤'(Public Night)이란 이름으로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신사분 외에도 숙녀분 또한 청중으로 받아들였기에 ... 과학의 기술적인 용어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재질(금속)'(metal more attractive)"이 동원될 필요가 있었다. 저자가 말하는 '훨씬 매력적인 재질'은 물론 셰익스피어이다. (저자의 표현 자체가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인용이다. 이 구절은 『햄릿』 3막 2장에서 햄릿이 오펔리아를 높임으로써 은근히 왕비를 조롱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저자가 전제하는 지식의 성별 구도, 즉 남성적인 과학(이성)과 여성적인 문학(감성)을 대비시키는 구도는 우리 시대에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만큼 19세기 중엽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곤충 연구라는 희귀한 분야의 과학지식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픈 저자의 선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자주 인용하는 것 외에도 강연문의 어투를 그대로 살려 편지 형식으로 서술한 것, 그리고 책의 부제에서 강조하듯 많은 수의 도판을 실은 것 모두 지식의 대중화에 대한 저자의 열정을 말해준다.



도판 6. 『세익스피어 작품에 언급된 곤충의 자연사』 38쪽의 도판

그렇지만 이 책에서 낯선 과학지식의 전달을 위한 일종의 미끼 내지는 당의로만 세익스피어가 도입된 것은 아니다. 저자는 책 전체에 걸쳐 거듭 세익스피어 작품에 드러나는 곤충 관찰의 정확성을 상찬하고, 과학의 관점에서 깊은 존경을 표한다. 예컨대, 자연사 연구의 대의와 방법론을 개관하는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역시 영국의 국민시인이라 할 밀튼(John Milton, 1608-1674)의 『리시더스』(*Lycidas*)와 『겨울 이야기』를 비교하고, 자연 묘사의 정확성 면에서 세익스피어가 월등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세익스피어에게 따라다니는 ‘자연의 시인’이라는 상투적인 수식어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면서, 그에게 시대를 앞선 과학자의 이미지마저 부여한다. 서문에서 저자가 장담했다시피 이 책을 보면 “그 위대한 극작가의 숭배자들은 그의 제단에 바치는 또 하나의 제물로 받아들여 크게 기뻐할”만 했다.

물론 이 책은 분명 세익스피어의 독서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잠

재력이 크기는 해도 통상의 셰익스피어 연구의 참고자료는 아니다. 사실 이 책은 셰익스피어가 국민문화의 핵심적인 전통으로 영국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열렬하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에 분류상의 비일관성을 무릅쓰고 개별 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F340 2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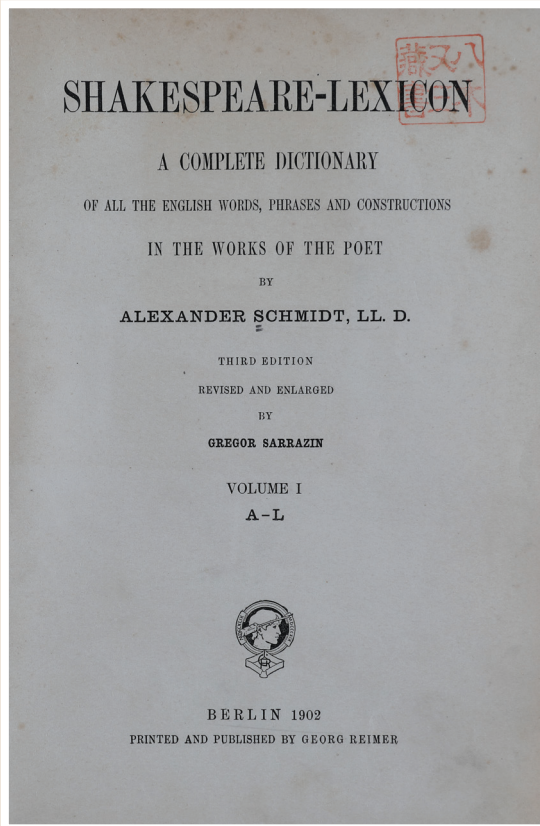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어휘집: 셰익스피어 작품의 모든 영어 단어와 구 및 표현구조의 완전한 사전

*Shakespeare-Lexicon: a Complete Dictionary of All the English Words, Phrase,
and Constructions in the Works of the Poet*

Alexander Schmidt 저술

Berlin : Georg Reimer, 1902.

* 1874년 초판 발간



이 책은 슈미트(Alexander Schmidt, 1818-1887)라는 저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독일에서 발간된 책이다. 슈미트는 독일의 저명한 셰익스피어 학자로, 바로 이 책의 저자로 셰익스피어 연구사에서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다.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 가히 야심찬 출판기획이기에 그런 명성은 쉽게 납득이 된다. 그런데 이런 방대한 규모의 셰익스피어 ‘사전’이 영국에 앞서 독일에서 이미 1874년에 발간되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다. 앞서 몇 차례 언급했듯 셰익스피어에 대한 본격적인 근대적 학술 연구는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1864년에 독일에서 세계 최초의 셰익스피어 학회가 조직되었으며,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영국의 학계는 보다 체계적인 문헌학적인 연구방법론을 포함하여 독일 학계의 연구성과와 의제를 수용하며 쫓아가는 입장이었다. 슈미트의 책은 19세기 중후반 당시 독일 셰익스피어 학계의 선진성을 증언해주는 단적인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다.

부제가 이미 책의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지만, 저자는 서문에서 다시금 출간의도에 대해서 명료히 밝히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어휘를 풀어서 설명하는 어휘목록은 당연히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그런 출판물이나 자료는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오래되어 의미 파악이 어려운 대목만 골라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책은 작품에서 사용된 “모든 어휘들을 모아 그 의미와 용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자” 했다. 예컨대, 첫 항목인 부정관사 ‘a’의 경우 셰익스피어 전 작품에 걸쳐 사용된 모든 사례들이 정확한 작품 내 위치 표시와 함께 모아져 있어서 두 쪽을 넘어가는 분량이다. 전형적인 용례 및 구분되는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하지만 명쾌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다. 과연 부제의 ‘사전’이라는 호칭에 걸맞은 모습이다. 한편 모든 사례의 작품 내 위치는 당시 표준적인 학술 판본의 위상을 누렸던 캠브리지 판 셰익스피어 전집에 의거하고 있었다.

Aboard, 1) absol. a) in a ship: Tp. I, 1, 21. Gent. I, 1, 157. Err. IV, 4, 154. Shr. III, 2, 173. Wint. IV, 4, 826. b) into a ship: Gent. II, 3, 36. Err. I, 1, 62. IV, 1, 86. 88. IV, 4, 162. Merch. II, 6, 65. Wint. III, 3, 7. 57. H5 II, 2, 12. 71. Hml. I, 3, 55. IV, 3, 56. Oth. V, 2, 370. Ant. II, 6, 142. Cymb. I, 1, 178. I, 6, 199. Per. IV, 1, 96. 102. Per. V, 1, 5. 9. *to lay knife a.* = to board, to grapple: Rom. II, 4, 214. *laying the prize a.* H6B IV, 1, 25 (= boarding the conquered vessel).

2) with an accus., always replying to the question ‘*whither*’: *they hurried us a. a bark*, Tp. I, 2, 144. Wint. IV, 4, 790. Ant. II, 6, 82. Per. III, 1, 13. *a. a person* = a. his ship: *I will bring these two moles a. him*, Wint. IV, 4, 868. *I brought the old man and his son a. the prince*, V, 2, 124. *her fortunes brought the maid a. us*, Per. V, 3, 11 (Ff *a. to us*).

도판 7. 『셰익스피어 어휘집』의 ‘aboard’ 항목

이렇게 그 출간목적이 분명하긴 하지만, 편집상의 문제들이 없을 수 없었다. 당장 어떤 작품까지 셰익스피어의 것으로 포함시키며, 그 작품의 어떤 판본을 정본으로 삼을지를 정해야 했다. 슈미트는 이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널리 수용될만한 보수적인 접근법을 택했다. 당시 활발히 전개되던 문헌학적인 연구의 성과로 연이어 새로운 셰익스피어 정전의 후보작들이 발굴되는 중이었다. 그러나 슈미트는, 공저자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상당수 학자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인정한 『페리클레스』를 제외하고는 F1, F2판에 수록된 작품들로 셰익스피어 정전의 범위를 제한했다. 그리고 판본 선택에 있어서도 당시로는 여전히 의구심의 대상이었던 상당수 Q 판본을 배제했다. 반면 못지않게 중요한 철자표기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표기로 통일하는 과감한 노선을 채택했다. 다만 같은 단어의 다른 철자가 “발음의 차이를 표시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당연히 단어의 뜻풀이 방식 또한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사안을 두

고서 슈미트는 다소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는 사전을 표방하는 출판물하기에 어원에 기반한 뜻풀이를 제공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셰익스피어 당대의, 무엇보다 작품의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셰익스피어라는 “언어의 천재는 때로는 아주 과격하고 새로운 용례를 개척해서, 검증하는 어휘의 부족을 보충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어휘의 기원과 파생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는데,” “셰익스피어의 언어는 그 자체로 연구하고 설명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방식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저자는 영어의 모국어 사용자가 아니면서 이런 사전류의 작업을 감당하려 했다는 자의식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슈미트는 서문 마지막에 각별히 영어권 독자들을 향해 자신의 영어문장에 대한 관대함을 주문하며, 그랬을 때 자신의 작업이 그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자부한다. 이 책이 출판사를 달리 하며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왔던 것을 보면 그의 소망은 충분히 실현되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이 책의 3판과 함께 1923년에 출판된 4판도 보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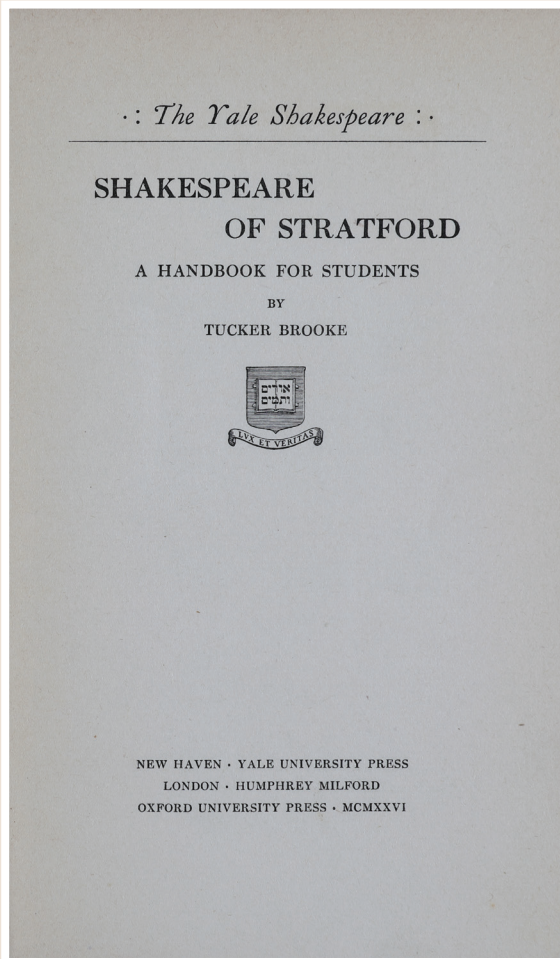
F340 76

스트랫퍼드의 셰익스피어: 학생용 편람

Shakespeare of Stratford: a Handbook for Students

C. F. Tucker Brooke 저술

New Haven,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H.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6.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관련된 자료집인 이 책은 예일 대학교 출판부가 간행한 셰익스피어 전집의 일부로 발간되었다. 1917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전집은 당시의 새로운 유행에 따라 극작품의 경우 작품별 1권의 편제를 채택해 총 40권으로 1927년에 완간되었다. 극작품으로는 F1 판본에 수록된 가장 표준적인 정전목록에 더해 새로운 연구 결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널리 인정받게 된 『페리클레스』까지 총 37권이 할애되었다. 이후 38, 39권에는 각각 소네트, 그리고 『비너스와 아도니스』(*Venus and Adonis*), 『루크리스의 능욕』(*The Rape of Lucrece*)을 비롯한 그 밖의 시작품이 실렸다. 『스트랫퍼드의 셰익스피어』는 전집의 마지막 권으로 발간되었다.

현대에 올수록 점차 사라졌지만, 원래 셰익스피어 전집은 작품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글들을 포함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 중에서도 셰익스피어 전기의 비중이 컸다. 기존의 연구성과 중에서 최선의 것을 가려내 모아놓는 것이 상당수 전집 편집자들이 공유하던 야심이었고, 오랜 기간 바드 개인에 대한 숭배 풍조가 강화되어 오면서 그의 삶에 대한 지식은 셰익스피어 학의 중요한 분야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축적된 연구의 규모가 방대해짐은 물론이고 전문화·세분화되면서 그런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대신 새로운 셰익스피어 전집은 최신 본문비평의 성과를 내세우게 되었다. 예일 셰익스피어 전집에서 이 책을 마치 부록처럼 마지막 권에 배치한 것은 이전 시기 전집 편찬의 전통을 떠올리게 한다. 위에 언급했듯 그밖에는 대체로 당시의 유행을 따르는 무난한 구성이기에, 그 나름의 특색을 갖추려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전기적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 전집에 수록된 셰익스피어 전기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의 생애

를 총 70개의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각각의 항목은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당시의 기록을 그대로 옮긴 후, 그것이 함의하는 바에 대한 일반적인 추정이나 역사적 배경 혹은 연관된 사실 등을 구분해 간략하게 기술하는 주가 적게는 한 개에서 많게는 서너 개가 잇따르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70개의 항목은 창작활동과 관련된 것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경제활동 혹은 가족들에게 벌어진 중대사 등 개인적인 삶의 행적을 보여주는 것이 많은 편이다. 예컨대, 책 중후반부의 47번째부터 50번째까지의 항목의 제목은 각각 “형 에드먼드의 장례”(1607), “손녀의 세례”(1608), “어머니의 장례”(1608), “스트랫퍼드의 존 애든브룩에 대한 고소”(1608-1609)이다. 그리하여 책에 인용되는 기록 중에는 동시대 작가들이 셰익스피어를 언급하는 등 사적인 문서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셰익스피어가 나고 자란 고향이자 말년에 다시 정착하게 되는 스트랫퍼드 지역의 교구 혹은 사법기관이 보관했던 공문서의 비중이 크다. 이 자료집의 제목을 ‘스트랫퍼드의 셰익스피어’로 정한 이유일 것이다.

그밖에도 이 책은 상당한 분량의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 책의 본문이 99쪽인데, 부록이 60여 쪽에 이른다. 첫 두 부록 역시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당대의 기록들인데,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잘못 언급된 경우를 모아놓은 첫 번째 목록이 각별히 흥미를 끈다. 두 번째 부록은 셰익스피어 개인이 아니라 그의 작품이 언급된 당대 기록의 목록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출판 경위와 창작순서, 그리고 운율 운용의 변화과정을 다루는 이어지는 부록들은 이 책이 제목처럼 각별히 학생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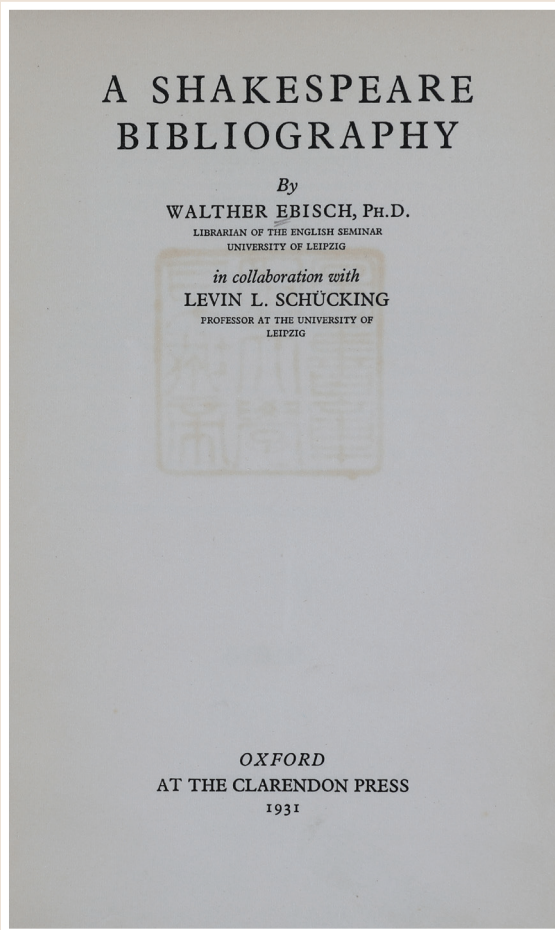
F340 115

셰익스피어 관련 서지

A Shakespeare Bibliography

Walter Ebisch & Levin L. Schüking 공저

Oxford : Clarendon Press, 1931.



이 책은 간명한 제목이 말해주듯 셰익스피어 관련 문헌을 정리해놓은 책이지만, 뜻밖에도 본문 분량이 277쪽에 그치고 있어서 비슷한 성격의 출판물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하다. 저자들은 이 점을 잘 의식하고 있었으며, 책의 제한적인 범위와 목표에 대해서 서문에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서문의 키워드는 ‘과학적’ 셰익스피어 연구이다. 공저자중 한 명이 앞서 여러 항목에서 언급되었던 바로 그 슈킹으로, 20세기 초중반 독일문예학을 선도하던 그는 바드를 신성시하던 이전 시기 셰익스피어 연구 전통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학자였고, 과학적 셰익스피어 연구를 기치로 내건 그의 저술들은 영국의 셰익스피어 학계에서도 널리 수용되어 새로운 연구풍토가 자리잡는 데 촉매 역할을 했다. 바로 이 책의 출간이 당시 슈킹의 영향력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례인데, 원래 슈킹이 교수로 재직하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펴낸 이 책은 거의 동시에 옥스퍼드 대학출판부를 통해 영국에서도 출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셰익스피어 연구와 관련있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전히 수록해야 할 문헌의 규모는 엄청날 것이기에 저자들은 신중하게 과학적 셰익스피어 연구에 필수적인 문헌으로 수록대상을 좁힌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엄밀한 선정을 위해서 문헌별로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그러자면 당연히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저자들은 그런 선정조건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이 책에 실린 저술이나 글을 다 읽어보았다고 자부할 수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문은 이 책이 “슈킹 교수의 아이디어에서 기원하지만, 에비쉬 박사가 실제 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했다”는 사실까지 밝히고 있다. 이런 사정은 어떠한 종류이건 충실한 서지를 완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책은 전통적인 의미의 서지라기보다는 주로 전문연구자를 위해 당시에 급속도로 팽창하며

세분화되고 있던 셰익스피어 학계의 동향을 개관하는 최신의 참고문헌 목록에 가깝다. 물론 이런 제한적인 목표의 서지 작성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이고, 이 책은 “이런 종류로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을 내세워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출간되었다. 그 같은 사실은 당시 이런 유형의 서적에 대한 학계의 수요가 컸음을 말해준다.

확실히 이 책은 당시 각광받는 새로운 연구주제 관련 비중이 크다. 책의 전체 구성은 우선 전통적인 작품 해석 위주의 저술들을 정리한 파트 B와 그 밖의 일반적인 연구주제에 관한 파트 A로 나뉘고, A, B 파트의 지면 비율은 대략 2:1 정도이다.

다시 파트 A는 14개 항목의 주제로 분류되는데, 단연 비중이 큰 주제는 유일하게 7, 8번째 두 항목이나 할당된 「셰익스피어의 예술」(“The Art of Shakespeare”)이다. 7번째 항목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독특한 조어법이나 수사적 기교와 관련된 문헌들을 정리해 놓았다면, 8번째 항목에서 말하는 ‘셰익스피어의 예술’은 그의 극작술이다. 앞서 여러 항목에서 살펴보았듯이 셰익스피어를 시인으로 접근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뒤집고 극작가로서 면모를 부각시키는 혁신적인 연구들이 20세기 초반 새로운 셰익스피어 연구경향을 주도했다. 그 새로운 연구경향을 대표하는 학자가 참여한 서지에서 이 주제가 부각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어지는 9번째 항목, 「셰익스피어의 무대와 작품의 공연」(“Shakespeare’s Stage and the Production of His Plays”)도 매우 밀접한 주제이고, 이 두 항목을 합치면 파트 A의 1/4에 육박하는 분량이다.

그 밖의 따로 항목을 부여받은 최신의 연구주제로는 셰익스피어 텍스트의 전달 문제가 있다. 「전달과 정정」(“Transmission and Emendation”)이라는 제목을 단 5번째 항목은 당시 각광받던 신저지학의 연구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랜 시간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셰익스

피어 전집 편집의 긴 역사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이 항목의 문헌 선정은 이 서지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만, 책 전체로 볼 때는 전통적인 연구주제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지는 않다. 3, 4번째 항목의 제목은 각각 「셰익스피어의 삶」(“Shakespeare’s Life”)과 「셰익스피어의 인성」(“Shakespeare’s Personality”)으로, 근대적인 문학연구가 자리잡아가던 19세기 후반까지도 다수의 셰익스피어 학자들이 이 주제로 많은 연구서를 남겼다.

그 밖의 주목할 만한 연구주제로는 12번째 항목의 「셰익스피어의 영향의 역사」(“Shakespeare’s Influence through Centuries”)를 꼽을 수 있다. 이 항목은 주요 유럽 국가별로 공연과 번역은 물론이고 그 밖의 여러 문화영역에서 확인되는 영향 등의 소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셰익스피어 수용 양상에 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마지막 14번째 항목인 「셰익스피어-베이컨 논란과 그 비슷한 가설」(“The Shakespeare-Bacon Controversy and Similar Theories”) 또한 흥미롭다. 과학적인 셰익스피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다고 밝히는 저술에서 이 주제를 거론한 것을 보면, 오늘날과 달리 셰익스피어의 신원 문제는 적어도 그저 호사가들의 한담 정도로 취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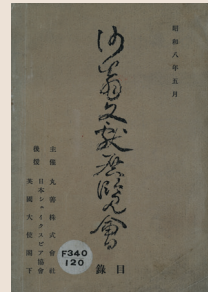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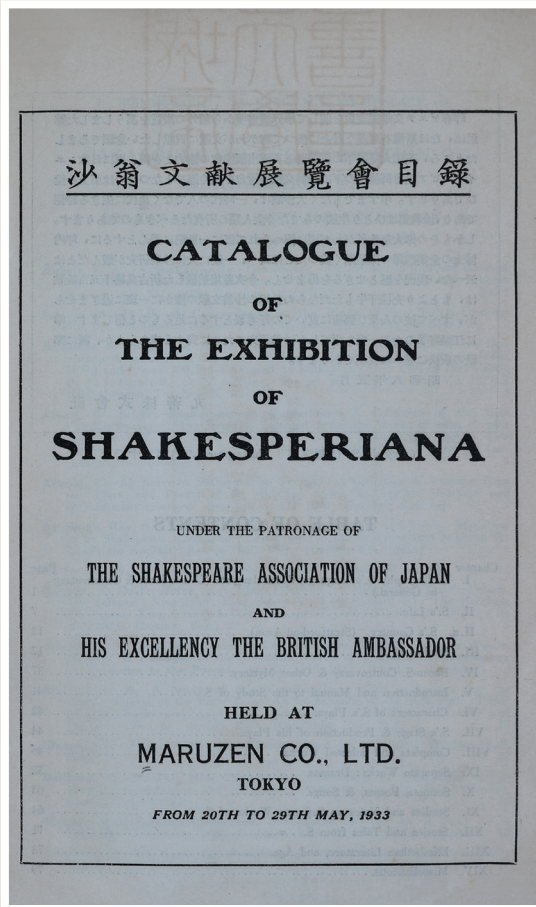
F340 120

셰익스피어 관련 문헌 전람회 목록 (일본 셰익스피어 학회와 주일 영국대사 후원)

Catalogue of the Exhibition of Shakesperiana: Under the Patronage of the Shakespeare Association of Japan and His Excellency the British Ambassador

= 紗翁文献展覽會目錄

東京：丸善株式會社，1933.



일본의 셰익스피어 수용은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한참을 앞섰다. 단적인 사례를 하나 꼽자면 대표적인 일본 근대문학의 개척자인 소설가 츠보우치 소요(坪内逍遙, 1859-1935)는 1884년에 이미 『줄리어스 시저』를 완역했고, 말년에는 아예 셰익스피어 번역에 매진하여 1928년에 희곡 37편과 시까지 포함하는 일본 최초의 셰익스피어 전집을 출간했다. 중국과 한국의 셰익스피어 번역은 그보다 한참 늦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야 최재서(崔載瑞, 1908-1964)의 탁월한 『햄릿』(1954) 번역을 필두로 신뢰할만한 셰익스피어 번역서가 나오기 시작했고,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셰익스피어 학회 주도로 전집이 출간되었다. 본격적인 중국어 셰익스피어 번역은 한국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예컨대, 아직까지도 높이 평가받는 주성하오(朱生豪, 1912-1944)의 셰익스피어 희곡 번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에 31편이나 출간되었다. 그러나 완결된 전집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1967년에 대만에서 출간된 것이 중화권 최초였다. 이렇게 권위있는 자국어 셰익스피어 번역이 갖춰지기 전 양국의 셰익스피어 번역서는 츠보우치의 증역인 경우가 많았다.

비교적 잘 알려진 이런 번역의 사정만큼이나 이 출판물 『셰익스피어 관련 문헌 전람회 목록』은 일찍이 일본이 셰익스피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제목이 명시하는 바 이 출판물은 일본에서 개최된 한 셰익스피어 관련 도서전람회에서 소개된 도서의 목록이다. 도서전람회는 쇼와(昭和) 8년(1933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개최되었으며, 행사를 주최한 마루젠(丸善)사는 1869년 서양서적의 수입과 번역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시에 이미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일본 근대화의 첨병 역할을 맡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름있는 회사였다. 그런 위상에 걸맞게 전람회는 큰 규모로 기획되었다. 목록 앞에 붙은 짧은 발간사는 전람회가 “주일영국

대사관의 찬조와 영국출판협회의 협력을 얻어냈고, 더 나아가 일본 셰익스피어 협회의 후원 속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시되는 도서 중수에 자부심을 표시한다. “이번에 수집해서 운반해온 과거와 오늘날의 전적 1500여점”은 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출된 셰익스피어 관련 도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 셰익스피어의 전모와 그의 예술이 이룬 바를 제대로 살피는 계기로는 충분하다고 믿는 바이다.” 이 전람회가 주로 염두에 둔 소구층은 학계와 지식계였다. 발간사는 바로 위에서 소개한 츠보우치의 전집 출간을 언급하며 그간의 일본에서 셰익스피어 수용의 성과를 자축하되, “전 인류의 소유인이 위대한 이름이 일본에 전해진 지 한 세기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과제로 서구의 셰익스피어 연구 현황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말로 끝맺는다.

도서의 분류 항목별 비중을 보면 발간사의 내용과 호응한다. 총 70여 쪽 분량의 목록에서 3번째 항목인 「셰익스피어 연구」(“Study of S.”)에 17쪽부터 37쪽까지 20쪽이나 할애되어 있고, 그 항목에 포함된 대략 400여 권의 연구서들 중에는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서적들의 비중이 크다. 관련하여 입문서류를 따로 떼어 내어 5번째 항목 「셰익스피어 연구 개관 및 교본」(“Introduction and Manual to the Study of S.”)으로 배치한 것도 흥미롭다. 7번째 항목인 「셰익스피어 희곡의 무대와 공연」(“S’s Stage & Production of His Plays”)은 당시 각광받던 연구주제였다. 사실 희곡집이나 12번째인 항목인 「셰익스피어 이야기」(“Stories and Tales from S.”) 정도를 제외하면 이 목록에 수록된 대다수 서적들은 연구서로 분류될 수 있었다. 4번째 항목인 「베이컨-셰익스피어 논란 및 여타 신비」(“Bacon-S. Controversy and Other Mystery”)는 현재에는 호사가들의 화제 정도로 여겨지지만, 당시까지도 셰익스피어

의 신원을 둘러싼 논란은 분명 학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번성하던 여러 새로운 셰익스피어 연구경향에 대한 일본 학계의 관심이 전람회 개최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집단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이 투입되어 역설적으로 일본의 학계는 일찍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개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 학계는 탈 식민주의가 유행하기 전에 이미 자국의 셰익스피어 수용의 사례들을 이 문화하는 연구들을 내놓았던 것이다.

끝으로 목록 제목에서 보이듯 셰익스피어를 약칭과 존칭을 섞어 '샤오우'(紗翁)로 부르는 당시의 호칭이 몹시 인상적이라는 것을 적어둔다.

F340 92

셰익스피어와 동시대 극작가들의 작품 속 의상

Costume in the Drama of Shakespeare and His Contemporaries

M. Channing Linthicum 저술

Oxford : Clarendon Press, 1936.

Costume in the
Drama of Shakespeare
and his
Contemporaries

BY
M. CHANNING LINTHICUM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MCMXXXVI

셰익스피어 관련 연구는 실로 방대해서 다른 작가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연구주제를 포괄한다. 이 책은 간명한 제목처럼 셰익스피어 작품을 중심으로 엘리자베스 시대 극작품에 등장하는 의상에 관한 것인데, 셰익스피어였기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단행본 규모의 저술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당장 옥스퍼드 대학출판부의 전신인 클레런던 출판사에서 발간된 것에서 알 수 있듯 그저 호사가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지한 학술서를 지향한다.

아마도 소소해 보이는 연구주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을텐데, 저자는 서문의 첫 대목부터 자신의 연구가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의 오랜 숙원을 푸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강조한다. “패션 변화의 연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문학 작품의 창작시기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과연 이 책은 유독 엄밀한 연대 파악에 공을 들이는 등 역사학적 조사의 비중이 크다. 책은 총 4장으로 각 장은 차례대로 의상의 색깔(colour), 재질(textile), 장식(trimming), 그리고 복식의 종류(costume)에 할애되어 있는데, 그 시대 극작품에 등장하는 의상 품목별로 “영국에서 사용된 최초의 시기”를 밝힌다.

물론 이 책의 용도는 훨씬 더 포괄적이다. 저자는 자기 연구의 잠재적인 수혜자로 전문연구자 외에도 “학생, 편집자, 연극제작자”들을 꼽고 있다. 각 장의 도입부에서 해당주제별로 기존 연구에 기반한 역사적 개관을 제공한다. 16-17세기 영국의 간추린 염료사, 방직사, 복식사는 그 자체로 흥미있는 읽을거리이자, 문학작품의 독서를 풍부하게 하는 유용한 참고자료 노릇을 할 것이다. 상징체계로서 색깔은 장르를 망라해서 문학작품의 의미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극 장르에서 복식은 인물의 배경, 더 나아가 성격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장치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의상에 관한 저서답게 도판을 20개나 실고 있는데, 이 값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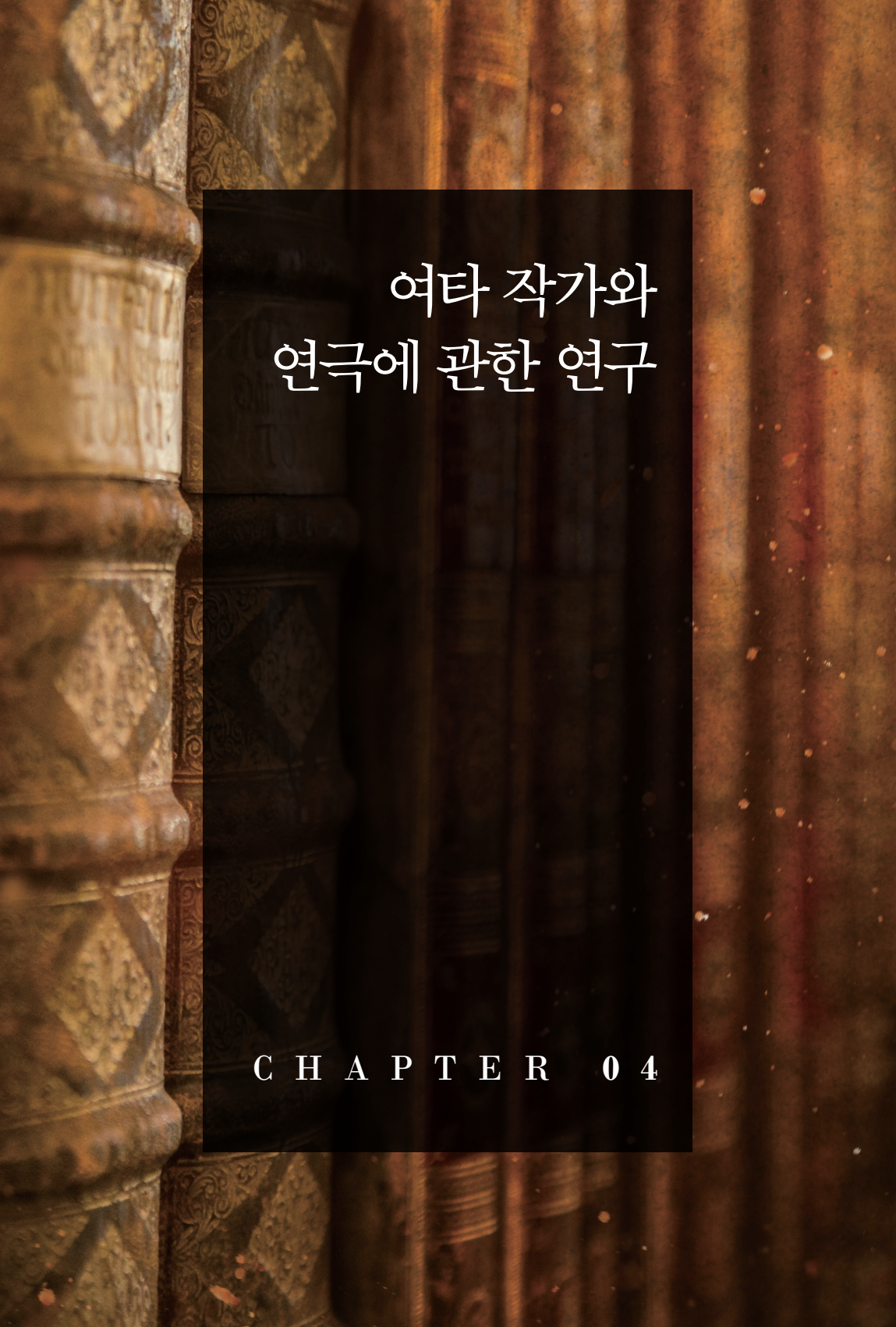
자료들은 각별히 공연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판 8-1. 『셰익스피어와 동시대 극작가들의 작품 속 의상』 178쪽의 도판



도판 8-2. 『셰익스피어와 동시대 극작가들의 작품 속 의상』 238쪽의 도판



여타 작가와
연극에 관한 연구

C H A P T E R 0 4

F340 268

프랭크 해리스가 본 오스카 와일드

Oscar Wilde by Frank Harris

Frank Harris 저술, George Bernard Shaw 서문

London : Constable & Co, 1938

* 1918년 최초 발간

OSCAR WILDE
BY FRANK HARRIS

WITH A PREFACE BY
BERNARD SHAW

CONSTABLE & CO
LTD LONDON 1938

저자를 강조하는 책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 저자인 해리스(Frank Harris, 1855-1931) 또한 와일드만큼은 아니었지만 다방면의 문필활동으로 꽤나 유명세를 떨친 작가였다. 아일랜드 출신인 그는 십대에 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여러 직종을 전전하다 어렵사리 캔자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낭만적인 성향의 그는 곧 안정적인 삶에 싫증을 느끼고 1882년 유럽으로 건너가서 작가의 꿈을 좇게 된다. 한동안 유럽 전역을 방랑하는 삶을 살던 그는 미국 신문의 특파원으로 일한 것을 계기로 언론계에 입문하게 되고, 런던에 정착해서 『새터데이 리뷰』(*Saturday Review*) 같은 명망있는 주간지의 편집장으로도 일하게 된다. 그즈음 해리스는 유명 언론인으로 당대의 저명인사들과 두루 교류했는데, 각별히 와일드를 위시한 몇몇 문필가와와는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게 되었다.

해리스는 190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에 몰두하기 시작해서 1910년대에는 『인간 셰익스피어』(*The Man Shakespeare*, 1909)를 비롯한 여러 편의 소설을 완성하여 작가로도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의 명성은 소설보다 여러 편의 자전적인 논픽션 작품에 기댄 것이다. 이 방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22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해서 1927년까지 4권으로 완간된 자서전 『나의 생애와 사랑』(*My Life and Loves*)을 꼽을 수 있는데, 당시로는 파격적인 수준의 생애 묘사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런 논픽션 계열의 작품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바로 오스카 와일드의 전기였다. 이 책은 1918년에 『오스카 와일드: 그의 생애와 고백』(*Oscar Wilde: His Life and Confessions*)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지만, 와일드 사후 10년이 지난 1910년에 이미 원고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밖에도 1915년부터는 당대의 저명인사에 대한 인물 스케치 모음

집이라 할 『동시대의 초상들』(*Contemporary Portraits*) 시리즈를 펴내기 시작했는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1923년까지 세 권이 더 출간되었다. 해리스가 말년에 마지막으로 펴낸 책도 버나드 쇼의 전기였다. 이렇듯 와일드의 전기는 해리스의 창작 경력에서 결정적인 전기로 작용했다. 그는 그 전기를 쓰면서 자신에게 작가적 명성을 가져다줄 특유의 영역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기의 구성은 표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와일드의 생애를 출생부터 연대기 순으로 서술하고는 있지만, 전체 분량의 2/3가 와일드의 사망 전 5년 동안에 할애되고 있다. 이 전기의 초점은 퀸즈베리 후작(Marquise Queensberry, 1844-1900)과의 법적 다툼 이후의 생애 후반기에 맞추어져 있는데, 잘 알려진 있다시피 와일드는 작가이자 사교계의 총아로 절정의 인생을 구가하던 중 1895년 퀸즈베리 후작과의 재판을 기점으로 그야말로 비극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재판과정은 동성애 같은 선정적인 요소가 풍부한데다가, 결정적인 대목에서 와일드가 석연치 않은 결정을 내리는 등의 극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애초에 아들과 연인관계였던 와일드를 동성애자라고 비난하는 퀸즈베리 후작에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와일드는 퀸즈베리 후작을 비방죄로 고소했고, 피고인 퀸즈베리 후작은 혐의를 벗기 위해서 법정에서 여러 경로로 확보한 와일드의 동성애 행각의 증거를 공개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재판은 와일드 측의 고소취하로 결론났지만, 거기서 드러난 행적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와일드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중노동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해리스는 가까운 친우이자 조언자로 최근거리에서 재판의 전개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고, 두 중심인물 이외에도 와

일드의 연인이었던 더글라스를 비롯한 여러 관련자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정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렇듯 이 전기는 그 '세기의 재판'에 대한 열렬한 대중적 관심에 부응하는 내용이었고, '고백'이라는 어휘가 들어간 초판본의 제목 역시 다분히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그저 상업적인 고려만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저자인 해리스는 재판과정에서 와일드란 인물의 본질적인 성향이 드러났다고 보았던 듯하다. 이 전기에는 확실히 와일드가 자신이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시사하는 서사의 가닥이 존재한다. 애초에 사건의 발단 자체가 와일드로부터 비롯되었고,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 법정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형사재판을 거부하고 도피하라는 여러모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극구 거부했던 것이다. 그런 연이은 '패착'은 단지 강렬한 명예욕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어느 정도는 와일드 스스로 몰락을 의도했다는 해석을 부른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해리스의 유명한 발언은 너무나 의미심장하다. "와일드의 인생은 한 편의 그리스 비극이었고, 그 자신이 그리스 비극의 열렬한 숭배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와일드는 고전적인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너무나 나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리스의 시각처럼 와일드가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붙였다면, 그런 상황에 맞설 분투하는 정신은 결여하고 있었다. 와일드는 출소한 후에도 계속 궁핍과 소외에 시달리면서 파리로 일종의 정신적 망명을 떠나지만, 육체적·정신적으로 이미 극도로 황폐해진 삶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다. 전기의 결말부는 와일드가 파리에서 비참할 정도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과정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다.

이 전기는 영국에서 출판금지 판정을 받았으나, 대신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어 큰 주목을 끌었다. 이 전기가 영국에서도 출판되기까지는 그로부터 꼬박 20년이 필요했다. 1938년 마침내 런던의 컨스터블 출판사에서 발간한 이 판본에는 버나드 쇼의 긴 서문이 실려 있었다. 쇼는 본인 역시 와일드의 지인으로 몇몇 대목의 사실관계를 문제 삼으며 바로잡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전기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견해는 단호하게 반박한다. 쇼는 책의 출간을 반대해온 세력의 사실왜곡을 조목조목 밝히며 그간 해리스를 음해해온 책임을 묻는다. 이 서문의 집필은 언제나 주류 영국사회의 위선에 맞서온 쇼다운 행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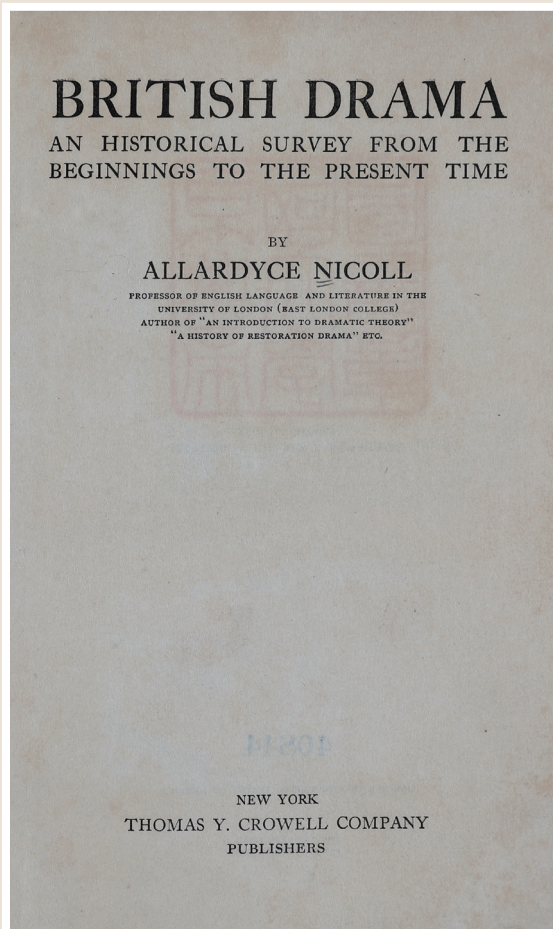
F340 165

영국 드라마: 시초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개관

British Drama: an Historical Survey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Time

Allardyce Nicoll 저술

New York : Thomas Y. Crowell Company, 1925.



저자인 니콜(Allardyce Nicoll, 1894-1976)은 학자 못지않게 교육자로 유명했고, 특히 몇몇 학문기관을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학문분야 발전의 기초를 닦은 교육행정가로 우뚝한 업적을 남겼다. 그런 방면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예일 대학교 드라마 학과의 이론과정을 강화한 것과 셰익스피어 인스티튜트(Shakespeare Institute)를 설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그는 글래스고에서 교육을 마치고 런던의 여러 대학에서 교육 경력을 쌓은 후 1933년 예일 대학교 드라마 학과의 학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현재 그곳은 연극 교육기관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지만, 니콜이 교수진에 합류했을 때만 해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는 이론교육의 비중을 높여 실기 위주였던 학과의 체제를 안정화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 많은 연극사 연구자를 길러냈다. 이후 부임한 버밍엄 대학교에서는 1951년에 셰익스피어 인스티튜트를 설립하고 1961년까지 소장을 맡아 영향력있는 연구기관으로 성장시켰다. 이후 셰익스피어의 고향인 스트랫퍼드로 옮긴 연구소는 현재 초기 셰익스피어 판본을 대거 보유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르네상스 시기 영국문화 연구의 중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니콜의 저술활동은 전반적으로 그의 교육경력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 그의 대표작이라면 단연코 6권 분량의 대작인 『영국 드라마의 역사, 1660-1900』(*History of English Drama, 1660-1900*)일 것이다. 1923년에 출간된 『왕정복고기 드라마의 역사, 1660-1700』(*A History of Restoration Drama, 1660-1700*)를 시작으로 2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이 시리즈는 수정을 거쳐 1952년부터 1959년 사이에 6권으로 재출간되었다. 이 평생의 역작을 제외하면, 나머지 저서는 대체로 대학교에서의 교재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집필된 것으로 보인다. 『연극의 발

전: 시초부터 현재까지 극예술 형식의 연구』(*The Development of the Theater: a Study of the Theatrical Art Form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Day*), 『드라마 이론 입문』(*An Introduction to Dramatic Theory*), 『연극과 드라마 이론』(*The Theater and Dramatic Theory*), 『세계 드라마』(*World Drama*) 등의 책 제목을 보면 대부분 입문서임을 알 수 있다.

『영국 드라마: 시초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개관』 역시 교재용 저술에 가깝다. 본문이 450쪽 정도로 다루는 주제에 비해 결코 많은 분량이 아닌데, 니콜은 서문에서 “개별 사례보다는 [영국 희곡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개관하는 것을 저술의 목적으로 밝힌다. 그리하여 “특정 작가와 그의 작품에 대한 일련의 짤막한 비평을 쓰기보다 영국 드라마의 전개과정에서 주요한 발현 양상”을 밝히고자 하면서, 셰익스피어처럼 시대를 앞서간 작가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군소 작가에 대한 서술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책의 구성은 대체로 셰익스피어가 기준이 되는 혼한 시기 구분을 따른다. 총 6부 중에서 엘리자베스 시대 이전 시기 영국 희곡사의 전개과정을 다루는 1부의 제목이 「시초부터 셰익스피어까지」(“The Beginning to Shakespeare”)이며, 엘리자베스 시대와 그 직후 시기를 다루는 2장이 전체 분량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사실 셰익스피어의 탁월함을 빼놓고 이 시기 극예술의 발전상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며, 실제로 이 장의 서술도 셰익스피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서문에서 밝힌 서술의 기조는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복잡한 비평적 사안들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는 의심마저 든다.

그러나 이 책은 영국 희곡사를 장르별로 평이하게 정리한 맛있는 입문서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니콜은 예술적 평가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최신의 연극사 연구의 성과를 대거 도입했다. 그런 선택은 확고한 학문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시대를 막론해 특정 희곡이 쓰일 때 염두에 둔 관객과 그 희곡이 상연되는 극장에 대한 일단의 정식화된 개념 없이 참다운 드라마의 이해는 가능하지 않다.” 서문에서 밝힌 신념에 따라 각 부의 첫 장은 시대별 극장환경과 관객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책의 진정한 주안점이 여기에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책은 연극사를 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학계에 데뷔했을 때만 해도 공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희곡연구에 종속된 것이었고, 바로 그 자신이 연극학이 독립된 학문분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학자 중의 한 명이었다.

이 책의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모던 드라마의 발전상에 대한 강조이다. 각각 왕정복고기와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초반 드라마를 다루는 3, 4, 5부가 30~40여 쪽 분량인데 반해 19세기 후반부터 저자 당대까지의 드라마를 다루는 마지막 6부는 100쪽을 넘어 거의 2부의 분량에 육박한다. 이런 비중은 「연극의 부활」(“The Revival in the Theater”)이라는 6부의 제목이 잘 보여주는, 이 시기 드라마에 대한 저자의 평가에 대응한다.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그 어떤 시기도 지금 시대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의 위대한 창조적 작가들의 집단을 보여주지 못했다. 비극과 희극은 함께 활기를 띠고 있고, 앞으로 이 새로이 깨어난 예술이 더욱 풍성한 발전을 달성하리라고 고대함직하다.” 이 책이 출간된 시점에서 이렇게 모던 드라마의 성과를 엘리자베스 시대에 견줄 정도로 높이 평가하는 이는 드물었을 것이다.

니콜은 최신 학문성과를 잘 정리해서 다수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량이 뛰어난 학자였고, 이 저작은 그가 학문활동 초기부터 교육자-저술가 역할에 헌신해 왔음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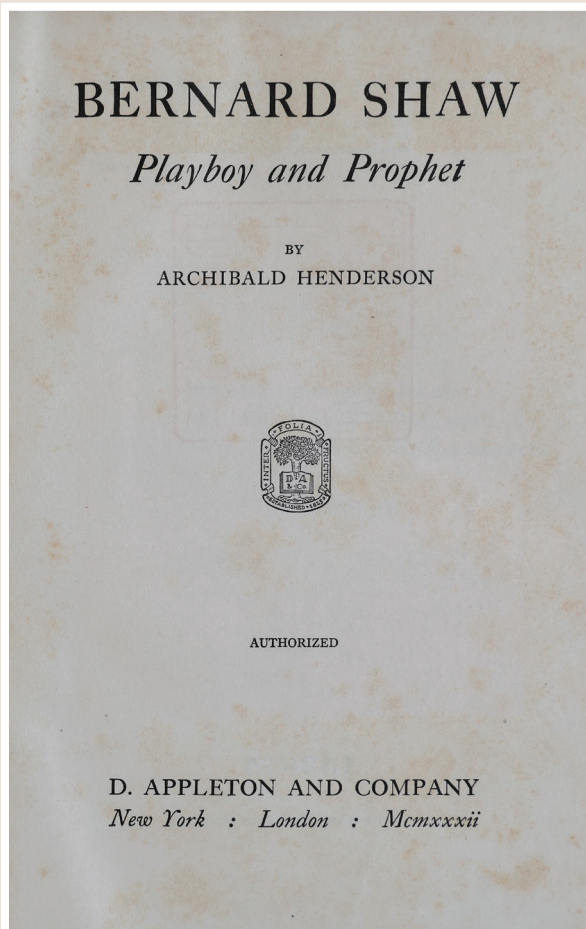
F340 279

버나드 쇼: 플레이보이와 예언자

Bernard Shaw: Playboy and Prophet

Archibald Henderson 저술

New York, London : D. Appleton and Company, 1932.



저자인 헨더슨(Archibald Henderson, 1877-1963)은 본업이 수학자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소르본 대학 등 유럽 여러 대학에서 견문을 쌓은 후 1908년 모교의 이론수학 담당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이름은 버나드 쇼의 전기작가로 기억되는바, 헨더슨은 대략 20여 년의 간격으로 세 차례나 쇼의 전기를 발간했다. 그밖에도 그는 쇼와의 대담집을 비롯하여 유럽 극문학의 현황을 미국의 독자에게 소개하는 여러 권의 저서를 펴냈는데, 이 동시대 영국 극작가와 관련된 다방면의 저술활동은 헨더슨의 평생의 과업이었다.

1903년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쇼의 작품 공연을 본 순간 헨더슨은 작가의 천재성을 확신하고 전기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1907년에는 런던으로 가서 직접 쇼를 만나 교우관계를 맺었고, 이후 헨더슨은 1950년 쇼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작가의 삶의 행보를 세밀히 기록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그의 개인자료 중 가장 비중이 큰 쇼 관련 기사 스크랩북은 무려 75권 분량이었다. 둘의 관계는 여러모로 존슨 박사와 그의 전기작가였던 보스웰을 연상시킨다. 헨더슨은 보스웰과 달리 자신이 흠모하는 대상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쇼의 문학적 업적만큼이나 인간됨에 깊이 매료되었고 쇼의 천재성을 알리는 것을 평생의 책무로 삼았다.

『버나드 쇼: 플레이보이와 예언자』는 1911년에 출간된 『버나드 쇼: 생애와 작품』(*Bernard Shaw: His Life and Works*)에 이은 헨더슨의 두 번째 쇼 전기이다. 첫 번째 전기가 1890년 무렵 쇼가 40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극작가로 성공하고 이후 20년간 예술적 명성이 공고해지는 과정을 서술한다면, 두 번째 전기에 담긴 쇼의 초상은 예술가라는 범주를 훌쩍 넘어선다. 첫 번째 전기가 출간된 이후의 쇼의 생애를 다루는 10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세 장,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홍보대사」(“The

International Publicist”)라는 제목의 10장은 평화운동가로서 쇼를 조명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쇼는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을 상징하는 존재로 부상했다. 헨더슨은 한 명의 작가인 쇼가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공적 인사로 자리잡게 된 경유를 해명하기 위해서 쇼의 전기를 업데이트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쇼에 관한 자신의 저술활동 또한 쇼의 영향력 증대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서문에서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전기가 쇼를 둘러싼 오해를 상당히 불식시켰다고 자부한다.

이전에 쇼의 어떤 면에 열광한 이들은 다른 면모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의 명성은 물샐틈없이 구획지어진 상태였다. 그 장벽을 허물어 쇼에게 포괄적인 명성을 부여하고, 각각 다른 이유로 그에게 열광하는 집단에게 그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서너 가지 다른 쇼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른 모습을 엮어서 통합된 쇼의 면모를 제시하는 역할이 나에게 부여되었다. 문학계에서 쇼는 별난 사회주의적 신념을 제외하면 진지함을 결여했고, 재치는 있지만 파괴적인 성향의 기묘한 작가라는 뼈뺀 시선을 받고 있었다. [...] 이제 그의 주장에 적대적인 이들까지도 쇼를 목적의식과 성실함을 갖춘 힘 있는 작가로 여기며, (명백한 천재성이 아니라면) 탁월한 재능이 활력과 인내 그리고 강인한 의지로 뒷받침되었던 그의 삶의 역정은 인상적인 인생의 교훈을 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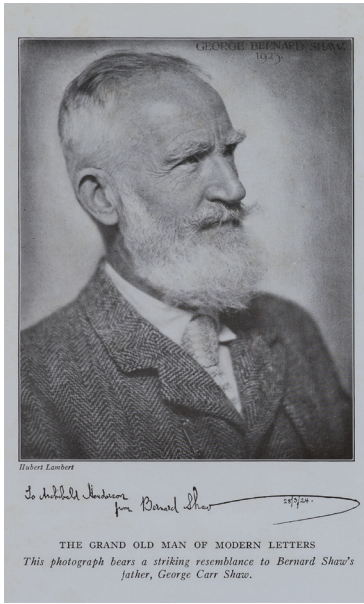
헨더슨은 쇼의 성공을 전적으로 자기 공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그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해온 자신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쇼가 현재와 같은 영향력은 누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이 전기의 서술전략은 그간 별난 면모에 가려져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보편적 가치에 부응하는 쇼의 진면목을 강조하는 것이다. 헨더슨은

이전 판본의 전기가 다루었던 시기까지는 각별히 쇼의 성실함과 불굴의 의지를 부각한다. 쇼는 10대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했지만 결국 단 한 편도 출판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30대가 넘어서야 새로이 시도한 극작 분야에서 마침내 창작자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 대목까지 또 하나의 주요한 서사의 가닥은 쇼의 사회주의자로 성장과정인데, 말년까지도 흔들림없이 고수한 쇼의 강인한 사회주의적 신념이 오랜 실천적·이론적 단련을 거친 결과임을 보여준다. 페비언 협회(The Fabian Society)에서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4, 5장에서 쇼는 교조에 빠지지 않고 여러 개혁 프로젝트를 상황에 맞추어 추진하는 실용주의자로 그려진다. 그리고 평론 및 극작을 아우르는 쇼의 전방위적인 문필 활동은 정치적 신념과의 밀접한 관련을 띠는 것으로 드러난다. 확실히 헨더슨은 쇼의 가장 본질적인 면모를 인류에게 진보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로 보는 듯하다. 전기의 부제에서 쇼를 ‘예언자’로 호칭하는 이유일 것이다.

쇼의 전기를 증보하면서 헨더슨은 예언자로서의 쇼와 대척점에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는 쇼의 새로운 면모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인다. 새로 집필한 책의 후반부에서 쇼는 미디어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논평을 구하는 일종의 만물박사로 묘사된다. 쇼는 이제 스스로 천재임을 내세우며 항상 논쟁 상대를 도발하여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미디어 맞춤형 캐릭터로 변모했던 것이다. 헨더슨은 이런 일종의 지식계의 광대 역할을 자연인 쇼가 꾸며낸 가상의 캐릭터라고 보는데, 쇼가 그런 연기를 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수의 대중을 급진적인 정치적 논의에 노출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쇼의 새로운 면모는 그가 바라던 대로 진보적 의제의 확산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쇼를 둘러싼 오해와 논란의 진원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헨더슨은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 '플레이보이' 연기까지 마다않은 - 쇼의 근본적인 진지함을 설득하는 역할을 자임했던 것이다.



도판 9-1. 『버나드 쇼』 「인사말」 (“Salute”)에 실린 쇼의 사진



도판 9-2. 『버나드 쇼』 「서문」 (“Introduction”)에 실린 삽화: 원래 『더 노스 이스턴 데일리』라는 일간지에 실린 것을 신문사의 허락을 맡아 이 전기에 실었는데, “세계(지구)의 골상을 분석하는 쇼”라는 사진에 딸린 어구가 인상적이다. 전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며 온갖 사안에 대해 논평하는 쇼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F340 125

영국의 민중연극

The English Folk-Play

E. K. Chambers 저술

Oxford : Clarendon Press, 1933.

THE ENGLISH FOLK-PLAY

By

E. K. CHAMBERS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33

앞서 19세기 후반부터 셰익스피어 학자들 사이에서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장환경과 공연관습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그런 연구가 무르익어 탄탄한 학문적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체임버스(E. K. Chambers, 1866-1954)는 셰익스피어 학계가 고대해 마지않던, 그 분야 최초의 고전적인 연구서의 저자였다.

1923년에 완간된 4권 분량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무대』(*The Elizabethan Stage*)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취였다. 이 저술을 본인 연구의 길잡이라고 밝힌 연구자들이 술하게 있으며, 후속 연구들이 축적되고 나서도 체임버스의 책은 여전히 그 분야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신뢰받고 있다.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동시대의 저명한 셰익스피어 연구자였던 그레그(W. W. Greg, 1875-1959)는 “살아있는 누구도 합당하게 비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그런 종류의 책”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이런 극찬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체임버스는 거의 혼자 힘으로 영국 연극사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했던 것이다. 그가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무대』에 앞서 1903년에 펴낸 『중세의 연극무대』(*The Medieval Stage*)는 최초로 영국 토착의 연극 전통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학술서로,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민중극 양식을 발굴했다.

체임버스를 소개하면서 그의 직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중앙정부의 교육부에 채용되었고, 1926년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오랜 기간 평생교육 분야의 책임자로 일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수십 년을 준비해서 20세기 초반 셰익스피어 학계의 지형을 바꾸는 대작 연구서를 펴냈으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체임버스는 서지학자로 학문활동을 시작했으며, 그 최초

의 학문적 정체성을 줄곧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 그는 18세기 후반 셰익스피어 본문비평의 대가인 말론의 이름을 따 1906년 설립된 서지학회에서 오랜 기간 대표를 맡았고, 공직에서 물러난 후인 1930년에는 상세한 해제를 곁들여 모든 시기에 걸쳐 산출된 셰익스피어 관련 주요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실과 사안에 대한 한 연구』(*William Shakespeare: a Study of Facts and Problems*)를 펴냈다. 역시 압도적인 분량을 자랑하는 이 책 역시 셰익스피어 연구사에서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영국의 민중연극』은 체임버스 말년의 소품으로, 첫 번째 대작인 『중세의 연극무대』를 보완하기 씌어졌다. 서문의 도입부는 이 책의 저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30년 전에 『중세의 연극무대』에서 재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몇몇 민속 루디(ludi, 로마에서 유래한 축제 혹은 종교행사와 함께 열리는 집단적 유희)중의 하나로 머머스 놀이(Mummer's play)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그 이래로 이 연희양식과 그와 유사한 놀이에 관해 상당한 양의 추가 연구가 축적되었기에 ... 오랫동안 지속된 이 독특한 연례의식에 관한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함께 엮어 새로이 검토하고자 한다.”

머머스 놀이는 영국 전역에서 발견되는 전통놀이의 일종으로, 보통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등 주요 절기를 맞이하여 성인 남자들 무리가 마을축제 기간중에 벌이게 된다. 놀이는 단순해서 무리가 술집이나 마을 공터에 모이면 임의로 두 명이 불러나와 칼싸움을 하다가 한 명이 죽으면, 이번에는 의사 역할을 맡이 이가 죽은 이를 살리는 순서로 전개된다. 다분히 재현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는 이 전통놀이는 일찍부터 연극사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체임버스는 『중세의 연극무대』를 쓸 때 29종의 지역별 머머스 놀이

사례를 검토했다. 이 책은 여타 학자들이 수집한 것을 포함하여 100여종의 보다 완결된 사례에 기반했고, 더 나아가 유사한 형태의 여타 ‘루디’와의 비교연구도 포함한다. 그 분석결과가 1부 「머머스 놀이와 그 유사종들」(“The Mummer’s Play and Its Congeners”)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지역별 변형을 가로질러 공히 나타나는 요소들과 몇몇 변형의 주된 패턴들을 설명한 후 머머스 놀이와 구분되지만 관련성이 보이는 영국의 전통연희 양식들이 소개된다. 2부에서는 비교대상이 외국 사례까지 확대된다. 머머스 놀이와 유사한 형태의 민중연희는 특히, 발칸 지역과 서유럽을 위시한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며, 더 이상 전승되지는 않지만 축제기간에 유행했다고 기록된 로마의 민중놀이 중에도 흡사한 유형들이 존재한다. 이런 비교분석은 머머스 놀이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설의 타당성을 따지는 근거가 된다.

F340 275

존슨 시대의 드라마와 사회

Drama & Society in the Age of Jonson

L. C. Knights 저술

London : Chatto & Windus, 1937.

Drama & Society in the Age of Jonson

L. C. KNIGHTS



Chatto & Windus

LONDON : 1937

저자인 나이트(L. C. Knights, 1906-1997)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셰익스피어 학자 중 한 명으로, 긴 학문적 생애를 영위하는 동안 셰익스피어를 위시한 엘리자베스 시대 문학과 사회에 관한 영향력있는 저서를 여러 권 남겼다. 1965년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캠브리지 대학의 에드워드 8세 영문학 석좌 교수에 취임했다는 사실은 그의 학문적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는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학자였다. 1933년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기간에 발표한 「맥베스 부인은 아이가 몇 명 있었을까」(“How Many Children Had Lady Macbeth?”)라는 글은 브래들리로 대변되는 셰익스피어 성격연구의 암묵적 전제들을 부각시켜 냉철하게 비판함으로써 일약 주목을 끌었는데, 셰익스피어 비평사의 고전이라 할 이 논쟁적인 에세이는 아직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다.

나이트를 얘기하면서 그가 『검토』(Scrutiny)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1932년 리비스(F. R. Leavis, 1895-1978)의 주도로 창간한 이 잡지는 문학비평을 근간으로 줄곧 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오랜 기간 담론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두 문화와 과학혁명』(The Two Cultures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1959)의 저자인 과학자 스노우(C. P. Snow, 1905-1980)와의 유명한 논쟁은 리비스의 지향을 잘 보여준다. 리비스는 근대의 기술문명이 (그가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를 위협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으며, 소멸되어가는 ‘유기적 공동체’(organic community)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문학의 가치를 역설했다. 그에게 문학교육은 단지 교양의 함양이나 수사적 기술의 학습을 넘어 영국사회의 문화적 연속성을 보존하고 대안적인 문명의 경로를 탐구하는 막중한 의의를 지녔다. 이런 문명적인 차원의 비판적 문제의

식에 기반한 『검토』 진영의 학술성과로는 리비스의 부인인 Q. D. 리비스(Q. D. Leavis, 1906-1981)의 『소설과 독서대중』(*Fiction and the Reading Public*, 1932)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 독창적인 연구서는 서구사회에서 근대 물질문명의 발달과 길항하는 독서문화의 전반적인 쇠퇴과정을 추적했다.

리비스의 캠브리지 대학 제자였으며 『검토』 발행 초기 리비스를 대신 해 공식적인 편집인 역할을 맡기도 했던 나이츠가 학문활동 초기에 선배이자 동료 학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당장 위에서 언급한 비평문에 담긴 브래들리 비판은 셰익스피어를 극시로 읽어야 한다는 리비스의 입론에 입각했다. 리비스에게 영향을 받아 『검토』의 동인들은 최대한 작품 자체에 밀착하여 여러 층위의 형식적 요소들이 교호하여 빚어내는 전체적인 예술적 효과의 분석을 문학비평의 본령으로 삼았다. 브래들리처럼 자주 작품에서 묘사하지 않은 상황을 추측하는 것은,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탁월한 문학작품이 보여주는 긴밀하게 조직된 시적 속성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나이츠의 박사학위 논문을 출간한 『존슨 시대의 드라마와 사회』는 확실히 Q. D. 리비스의 연구가 모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소설과 독서대중』과 달리 경제사적인 프리즘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역시나 엘리자베스 시대 극작품에 반영된 영국사회의 문화변동을 추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를 되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보다 온전했던 과거문화의 발골을 연구의 핵심 동기로 꼽고 있다.

이 책에서 제기되는, ‘문화’와 전통 및 환경에 대한 질문은 현재를 사는 모든 이들이 답하려 애써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질문이 쉬운 답변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대에 대한 순전한 관심은 반드시

시 현재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며, 우선 탐구할만한 건강한 국가문화가 존재했다고 다수가 동의하는 시기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기 엘리자베스 시대와 초기 스튜어트 시대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그 시기의 문화형식 중의 하나와 그 시기의 사회경제적 조건간의 일단의 상호교류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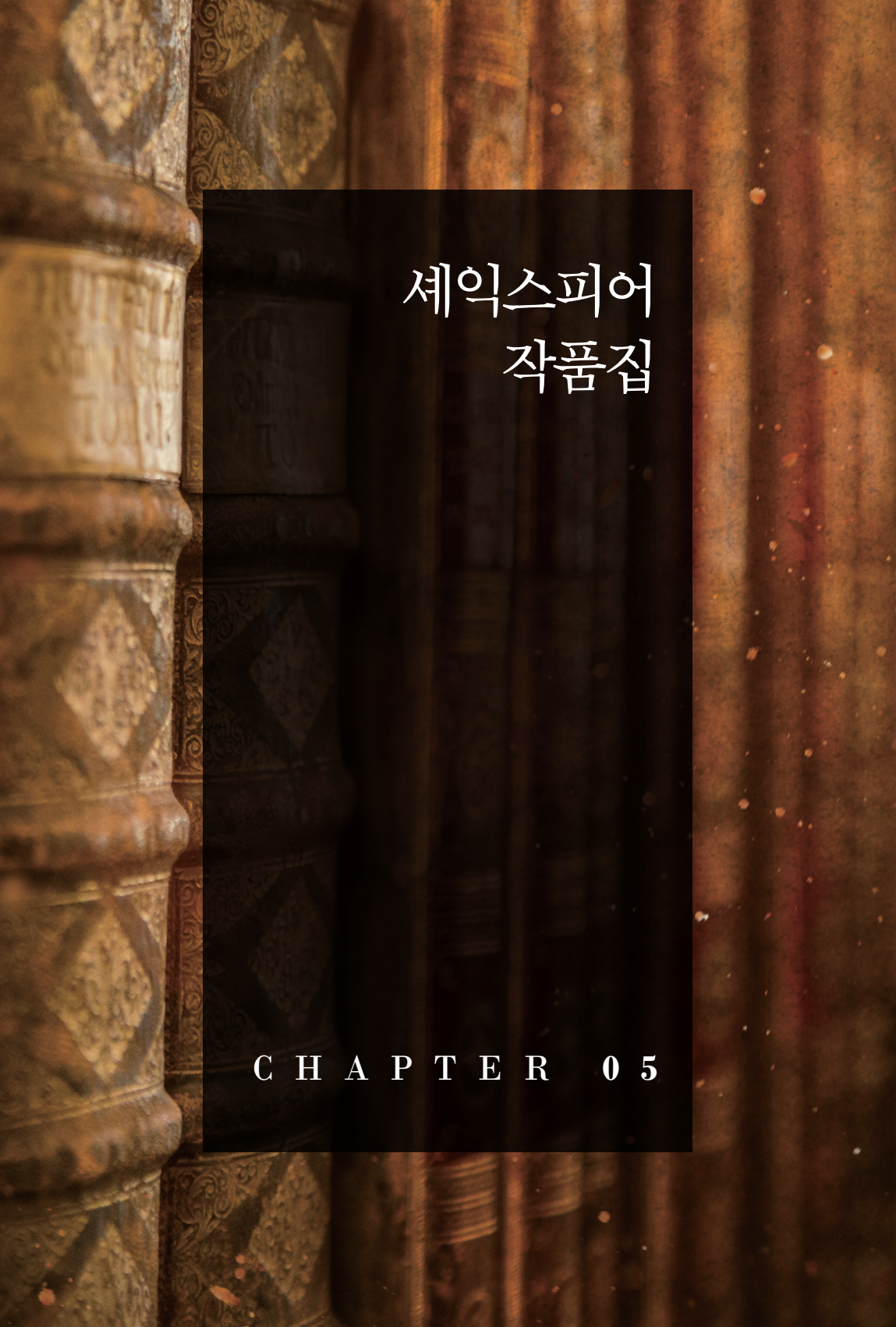
책은 1, 2부로 나뉘고, 1부는 「배경」(“The Background”)이라는 제목처럼 2부의 비평에 앞서 경제사를 위주로 여러 학문분야의 성과에 기대어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동상황을 개관한다. 1부의 첫 두 장, 「엘리자베스 조가 물려받은 경제적 질서」(“The Inherited Economic Order under Elizabeth”)와 「자본주의 사업의 발전」(“The Development of Capitalist Enterprise”)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의 경제환경을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3장 「국가적 삶의 새로운 요소들」(“New Elements in the National Life”)은 초기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이 가져온 보다 구체적인 생활상의 변화를 설명한다.

6장부터 시작되는 문학비평은, 해당 시기 주요 극작가의 작품들을 사회문화적 격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서로 대별되는 가치관과 관련짓는다. 나이츠는 이런 과감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내놓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가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1부와 2부를 매개하는 4장 「사회이론」(“Social Theory”)과 5장 「드라마와 사회」(“Drama and Society”)가 각각 1부의 끝과 2부의 처음에 배치되어야 했던 이유이다. 나이츠는 이 이론적 성격의 장에서 답해야 했던 질문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a) 1부에서 서술한 사건과 자코뱅 희극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의 성격을 확정지어야 하며, b) 어떤 사회의 ‘대중적인’ 관념과 태도를 포함하여 그 사

회의 상태와 문학 수준간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이런 이론적 예비작업 이후에 6장부터 이후 다섯 개의 장에서 벤 존슨을 위시한 5명의 대표적인 16, 17세기 극작가들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사회경제적 태도를 정리한다. 그리하여 존슨은 전통의 수호자로서 ‘재산 증식에 몰두하는’(acquisitive) 새로운 세태의 비판자로 규정되고, 데커(Thomas Dekker, 1572-1632)와 헤이우드(Thomas Heywood, 1574-1641)는 새로운 시민윤리를 모색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미들턴(Thomas Middleton, 1580-1627)은 부상중인 상업 계층을 대변했으며, 매신저(Phillip Massinger, 1583-1640)는 이미 퇴폐(decadence)의 기미가 보이는 ‘현대적’ 작가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사실 이 책은 다분히 경제주의적인 초기 마르크시즘 문학연구와 상통한다. 나이츠 또한 자신의 연구가 현재 상태로는 리비스적인 노선에 부합하지 않음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서문에서 현재의 연구를 예비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보완 방향을 밝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는 추후 연구에서 “엘리자베스 시대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한 서술과 더불어 당시 “경제활동의 비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설명”이 보완됨으로써 현대 문화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연구로 완성될 수 있으리라는 포부를 밝힌다. 그러나 나이츠가 예고한 연구는 나오지 않았다. 나이츠는 이후 리비스와 관계가 소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차츰 『검토』의 몇몇 교조적 관념에 대해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집

C H A P T E R 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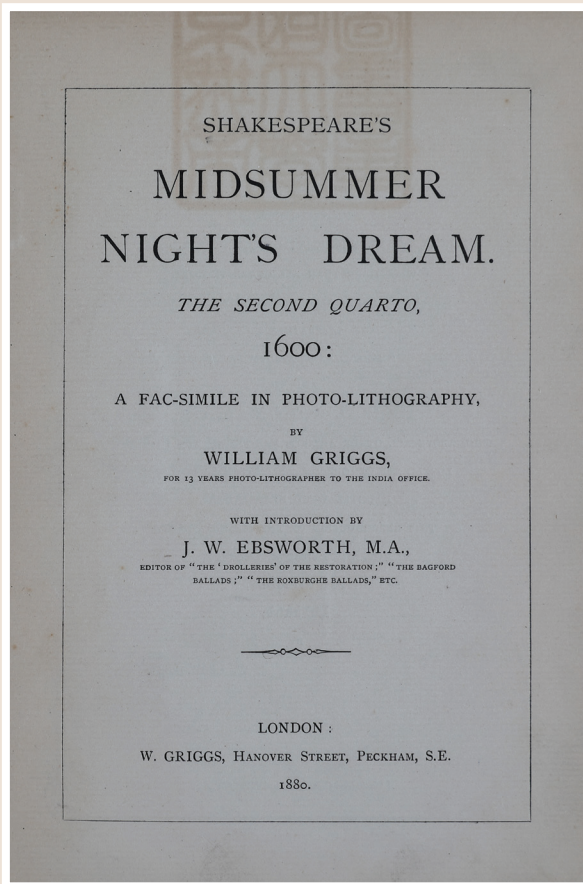
F350 11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 1600년 두 번째
사절판: 사진제판 영인본

Shakespeare's Midsummer Night's Dream. The Second Quarto, 1600: a Fac-Simile in Photo-Lithography

William Griggs 편집, Joseph Woodfall Ebsworth 서문

London : W. Griggs, 1880.



서론에서 셰익스피어 초기 출판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으며, 또 앞서 몇몇 해제 항목에서 F1 판본에 비해 평가절하되어왔던 Q 판본의 가치가 높아져간 사정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초반 신서지학파는 셰익스피어의 본문비평이 (추측 정정이 난무하는) 기왕의 판본을 폐기하고 Q 판본의 연구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런 초기판본 근본주의라 할 만한 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절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확산되고 있었다.

학문동향의 변화에 발맞추어 신 셰익스피어 학회는 회장인 퍼니벌의 주도로 Q 판본의 영인본 출간을 기획했고, 1880년에 1차분 4권을 내놓았다. 퍼니벌이 서문을 담당한 『햄릿』의 1603년, 1604년 두 Q 판본과 모두 1600년에 출간된 것으로 표기된 『한여름 밤의 꿈』의 두 Q 판본 총 4권이 한꺼번에 나왔고, 이후 14권의 Q 판본이 추가로 출간되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여름 밤의 꿈』 영인본 원본은 흔히 Q2로 불리는, 출판업자 제임스 로버츠(James Roberts, 1564-1606)가 발간했다고 알려진 판본이다.

본문 뒤에 실린 퍼니벌의 편집자 후기는 Q 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출간 기획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드러낸다. F1 판본에 실린 상당수 작품들의 출처가 Q 판본이기도 하고, Q 판본 형태로만 출간된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있기에, 그런 작품의 경우 당연히 Q 판본은 F1 판본에 견줄만한 권위를 지닌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셰익스피어의 본문을 진실되게 성실히 연구하는 모든 이들은 바드 자신의 원고를 가장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 이 판본들의 신뢰할만한 영인본을 ...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간 이런 수요는 충족되기 어려웠다. Q 판본의 출판 계획

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셰익스피어의 전기를 쓰기도 했던, 19세기 후반 또 한 명의 저명한 셰익스피어 학자 할리웰(James Orchard Halliwell, 1820-1889년) 역시 Q 판본을 출간했다. 그러나 직접 손으로 따라 그리는(hand-traced facsimiles) 작업 방식상 몇 부만 출간될 수 있었고, 가격도 권당 5기니에 이르렀다. 반면 퍼니벌의 영인본은 사진제판(photo-lithography)이라는 신기술을 활용해 가격을 6실링으로 낮출 수 있었는데, 이는 할리웰의 것과 비교해 가격이 1/17에 불과했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에 더해 이 영인본 시리즈는 긴 학술적 서문을 달고 있기도 했다. 『한여름 밤의 꿈』의 경우 중세 발라드 연구자로서 명성이 높았던 목사 앵스워스(Joseph Woodfall Ebsworth, 1824-1908)가 서문을 담당했다.

앵스워스 서문의 주된 내용은, 이 영인본 시리즈의 제 3권으로 발간된 다른 판본의 『한여름 밤의 꿈』, 즉 Q1 판본과 이 Q2 판본을 비교하는 것이다. 앵스워스는 약간의 단서를 달긴 하지만 확고하게 Q1 판본을 정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로버츠의 판본은 애초에 출판명부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텍스트 분석 결과 Q1 판본을 베낀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F1 판본에 실린 『한여름 밤의 꿈』이 Q2 판본에 근거한 탓에 여러 문제를 노정하게 되었다고도 본다. 실제로 이후 학자들은 Q2 판본이 1600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1619년에 출간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A
Midsummer nights
drame.

As it hath bene sundry times pub-
likely acted, by the Right Honoura-
ble, the Lord Chamberlaine his
seruants.

Written by William Shakespeare.



Printed by Iames Roberts, 1600.

도판 10. 『한여름 밤의 꿈』 Q2 판본의 원 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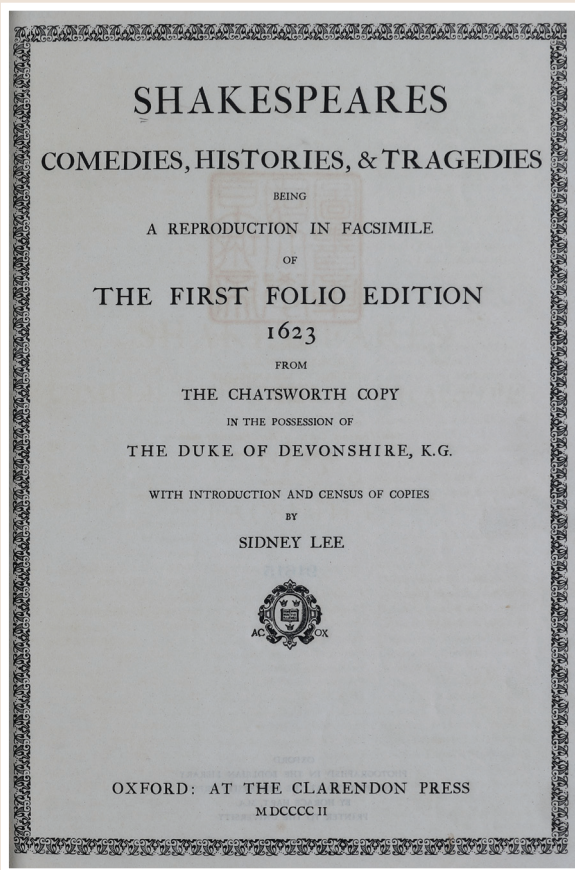
F350 142

셰익스피어 희곡, 역사극, 그리고 비극: 데번셔 공
소유의 채츠워스 판 최초 이절판의 영인본

Shakespeares Comedies, Histories, & Tragedies: Being a Reproduction in Facsimile of the First Folio Edition, 1623 from the Chatsworth Copy in the Possession of the Duke of Devonshire, K.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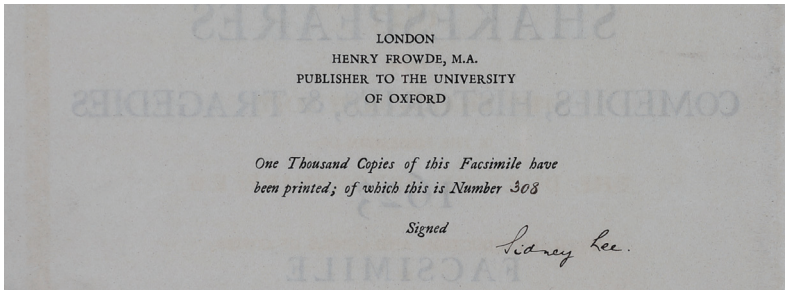
Sidney Lee 서문 및 인쇄 총괄

Oxford : Clarendon Press, 1902.



직전 해제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Q 판본의 영인본이 나오는 상황에서 F1 판본 또한 영인본 수요가 높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되는 바이다. 그리고 이 출판기획이 현실화되었을 때 리만한 책임자도 없었을 것이다. 19세기 후반 Q 판본에 대한 그간의 편견이 누그러지고 일군의 Q 판본은 F1 판본에 버금가는 본문비평의 원 자료로 여겨지기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F1 판본의 독보적인 가치를 주장했던 이가 바로 리였다. 이런 F1 근본주의는 20세기에 들어 신서지학자들에 의해 통렬하게 논박되지만, 이 영인본이 출간되었던 때만 하더라도 셰익스피어 전기작가로 높은 학문적 명성을 누리던 리의 의견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지녔다.

이 F1 영인본은 영인본임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고급화 기조를 따라 제작되었다. 주문자 목록(list of subscribers)이 리의 서문 앞에 배치된 것을 보면 발간 전 선주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총 발간 부수도 1000권으로 한정했으며 개별 권마다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장본의 일련번호는 308번이다. 이절판에다 900쪽에 육박하는 책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필수적이었겠지만, 이 영인본은 굉장히 견고한 양장으로 제본되어있다. 최고 명성의 셰익스피어 학자인 리의 유려한 서문도 책의 소장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도판 12. 『셰익스피어 희곡, 역사극, 그리고 비극』의 한정판 일련번호

리의 서문은 평소 소신대로 F1 판본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역설하는데, 달리 말하면 이 판본의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던 Q 판본을 평가절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리가 개관하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희곡 출판상황을 보면 Q 판본은 신뢰하기 힘든 게 맞다. 당시 극작품의 판권은 극단 경영자에게 귀속되었고, 극작가에게는 저작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극단은 관중의 감소를 우려해 극작품의 출판 자체를 꺼렸지만, 당시의 출판관련 법률은 극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출판업자들은 온갖 경로로 입수한, 인기있는 극작품의 원고를 발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리가 묘사하는 당대의 전형적인 출판업자는 위법자임은 물론이고 일말의 지적인 성실성도 찾기 힘든 파렴치한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출판하는 작품을 그저 돈 벌 거리로만 생각했지 원고의 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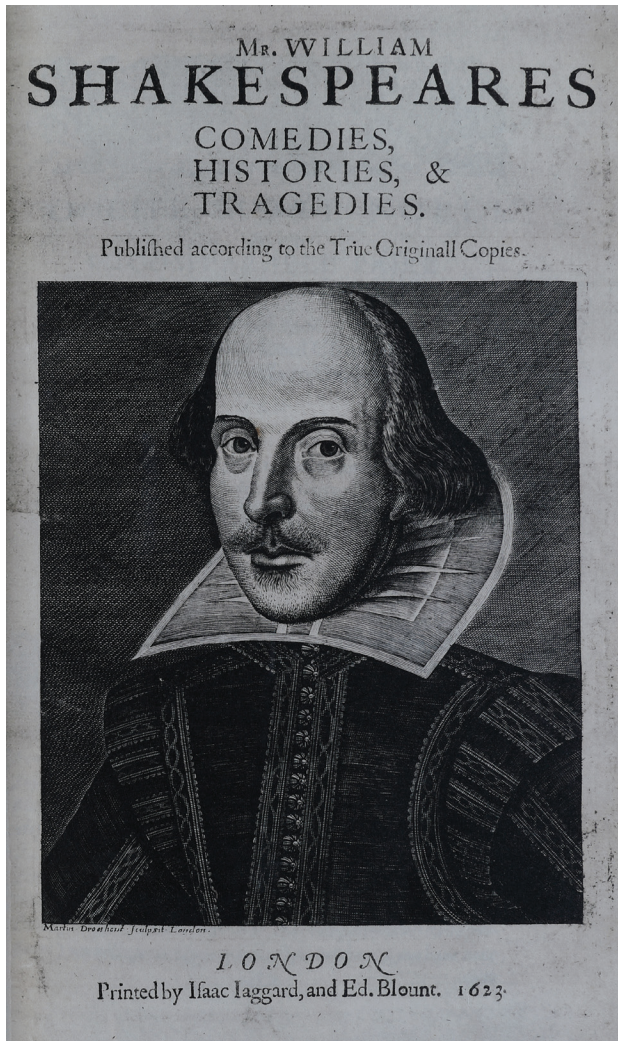
출판업자들은 작가나 극단주의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지적인 관심 또한 무시했다. 그들이 출판원고를 입수하는 방식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면, 그 원고가 작가의 원본을 얼마나 충실하게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 자주 그들은 한 몫 챙기려는 목적으로 극장을 방문한 이가 공연 중에 배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사를 속기로 받아쓴 조악한 원고 조각리들을 출판했다. ... 대부분의 경우 그 원고는 상당히 축약되었고 배우의 덧붙인 말이나 무지한 필사자의 실수로 인해 훼손되었는데, 오류를 교정하려는 출판사의 노력은 없다시피 했다.

리에 따르면, 극작가들은 훼손된 형태로 자신의 작품이 유통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극작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된 판본을 출간하자면 우선 극단주를 설득해 원고의 권리를 양도받은 후 자신

의 작품을 먼저 출간한 출판업자에게도 보상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리는 “셰익스피어 또한 부당한 상황을 관대하게 묵묵히 견뎠을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이 후대 학자들은 보다 면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출판업자의 범죄적 행태에 대한 리의 묘사가 몹시 과장되었음을 밝혀냈다. 리의 추정과 달리 셰익스피어 당대에 해적출판이 그렇게 만연하지는 않았으며, 셰익스피어와 동시대 작가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이 도용되는 것을 방어하고자 애썼으며, 그렇게 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결정적으로 판권등록기록 같은 법률문서들을 발굴하여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F1 판본은 그런 양질의 Q 판본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그리하여 리가 내세우던 F1 대 Q 판본간의 절대적인 대립구도는 무너지게 되었다.

지금이야 폐기된 주장을 담고 있는 서문이지만 출간 당시에는 이 영인본의 가치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어서 대단히 독자들을 고무시켰을 것이다. 물론 소유욕을 자극하는 이 영인본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충실한 영인본이라는 사실, 즉 F1 판본을 원래 판본과 동일한 형태와 크기로 재현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전에도 F1 판본의 영인본은 출간되었지만, 작품별로 분책해 해제를 단 학술적인 판본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보존상태가 좋은 판본을 원본으로 해서 독서도 충분히 가능했다. 지금이야 F1 판본의 이미지 파일은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100여 년 전에는 박물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전시되던 국보급 문화재를 실물과 흡사한 복제품으로 소유하고, 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도판 13. 『셰익스피어 희극, 역사극, 그리고 비극』의 원 표제



To the memory of my beloued,
The AVTHOR

MR, WILLIAM SHAKESPEARE: ♂

AND

what he hath left vs.

No man do draw no enuy (Shakespeare) on thy name,
Am I thus ample to thy Booke, and Fame:
Whis I confesse thy writings to be such,
As neither Man, nor Muse, can praise too much.
'Tis true, and all mens suffrage, but those mayes
were not the path I meant vnto thy praise:
For seclis Ignorance on these may light,
Which, when it founds at best, but cechs's right;
Or blinde Affection, which doth nere aduance
The truth, but gropes, and wreath all by chance;
Or crafty Malice, might pretend thus praise,
And thinke to ruine, where it seem'd to raise.
These are, as some infamous Band, or whore,
Should praise a Matron. Wha could hurt her more?
But thou art prou'd against them, and indeed
About it ill fortune of them, or the need,
I, therefore will begin, Soule of the Age!
The applause! delight! the wonder of our Stage!
My Shakespeare, rise; I will not lodge thee by
Chaucer, or Spenser, or bid Beaumont lie
A little further, to make thee a roome:
Thou art a Monument, no stone, no tombe,
And art alive still, while thy Booke doth liue,
And we haue wits to read, and praise to giue.
That I mixe thee so, my braue excuses;
I meane with great, but disproportion a Muses:
For, if I thought my iudgement were of yeeres,
I should commit thee surely with thy peeres,
And tell, how faire thou didst out Lilly out-shine,
Or sporting Kid, or Marlowes mighty line,
And though thou hadst small Latine, and lesse Greeke,
From thence to honour thee, I would not seeke
For names; but call forth thundring Aechilus,
Euripides, and Sophocles to vs,
Paccuius, Accius, him of Canticus dead,
To life againe, to heare thy Bards in read,
And shake a Stage: Or, when thy Sackes were on,
Lesse thee alone, for the comparison

of

도판 14. 『셰익스피어 희곡, 역사극, 그리고 비극』에 실린 벤 존슨의 헌시

THE TEMPEST.

Actus primus, Scena prima.

A tempestuous noise of Thunder and Lightning heard: Enter a Ship-maister, and a Boatswaine.

Maister.

Boatswaine. O'te-waine.

Boatswaine. Heere Maister: What cheere? fall too, yarely, or we run our shies a ground, be hurr, be hurr.

Enter Mariners.

Boatswaine. Heigh my hearts, cheerely, cheerely my hearts: yare, yare: Take in the toppe-sale: Tend to th' Maisters whistle: Blow will thou burst thy winde, if room e-nough.

Enter Alonso, Sebastian, Antonio, Ferdinand, Gonzalo, and others.

Alonso. Good Boatswaine haue care: where's the Maister? Play the men.

Boatswaine. I pray you, keepe below.

Antonio. Whiete is the Maister, Befon?

Boatswaine. Do you not heare him? you marre our labour, keepe your Cabines: you do asist the storme.

Gonzalo. Nay, good be patient.

Boatswaine. When the Sea is hence, what cares these roaters for the name of King? to Cabine; silence: trouble vs not.

Gonzalo. Good, yet remember whom thou hast aboard.

Boatswaine. None that I more loue then my selfe. You are a Counsellor, if you can commaund these Elements to silence, and weeke the peace of the present, wee will not hand a rope more, vie your authoritie: If you cannot, giue thanks you haue li'd long, and make your selfe readie in your Cabine for the mischance of the hour, if it so hap. Cheerely good hearts: out of our way I say.

Gonzalo. I haue great comfort from this fellowe: he thinks he hath no drowning marke vpon him, his complexion is perfect Gallowes: stand fast good Fate to his hanging, make the rope of his destiny our cable, for our owne doth little aduantage: If he be not borne to bee hang'd, our care is misfeable.

Enter Boatswaine.

Boatswaine. Downe with the top-Mast: yare, lower, lower, bring her to Try with Mainie-courts. A plague vpon him.

Enter Sebastian, Antonio & Gonzalo.

upon this howling: they are lower then the weather, or our office: yet againe? What do you heere? Shal we giue ore and towne, haue you a minde to sinke?

Scholar. A poxe o' your throats, you bawling, blasphemous incharitable Dog.

Boatswaine. Wouke you then.

Antonio. Hang our hang, you whose son insolent Noyemaker, we are telfe-asaid to be drowned, when thou art.

Gonzalo. He warrant him for drowning, though the Ship were no stronger then a Nut-shell, and as leaky as an vnsitch'd wench.

Boatswaine. Lay her a hold, hold, fet her two courses off to Sea againe, lay her off.

Enter Mariners wet.

Mariners. All lost, to prayers, to prayers, all lost.

Boatswaine. What must our mouths be cold? *Gonzalo.* The King, and Prince, as prayers, let's asist them, for our care is as theirs.

Scholar. I am out of patience.

Antonio. We are merly cheated of our liues by drunkards, This wide chept-rafsall, would thou might lye drowning the washing of ten Tides.

Gonzalo. Hee'l be hang'd yet, Though euery drop of water sweare against it, And gape at widit to glut him. *A confused noise within.* Mercy on vs.

We split, we split, Farewell my wife, and children,

Farewell brother: we split, we split, we split.

Antonio. Let's all sinke with King

Scholar. Let's take leaue of him.

Gonzalo. Now would I giue a thousand furlongs of Sea, for an Acre of barren ground: Long heath, Browne firs, any thing; the walls about be done, but I would faine dye a dry death.

Scena Secunda.

Enter Prospero and Miranda.

Miranda. If by your Art (my deereft father) you haue Put the wild waters in this Ror;e;alay them: The kye it seemes would powre downe stinking pitch, But that the Sea, mounting to th' welkins cheek, Dashes the fire out. Oh! I haue suffered With those that I saw suffer: A braue vessel

A

(Who)

도판 15. 『셰익스피어 희곡, 역사극, 그리고 비극』의 첫 작품 『템페스트』의 첫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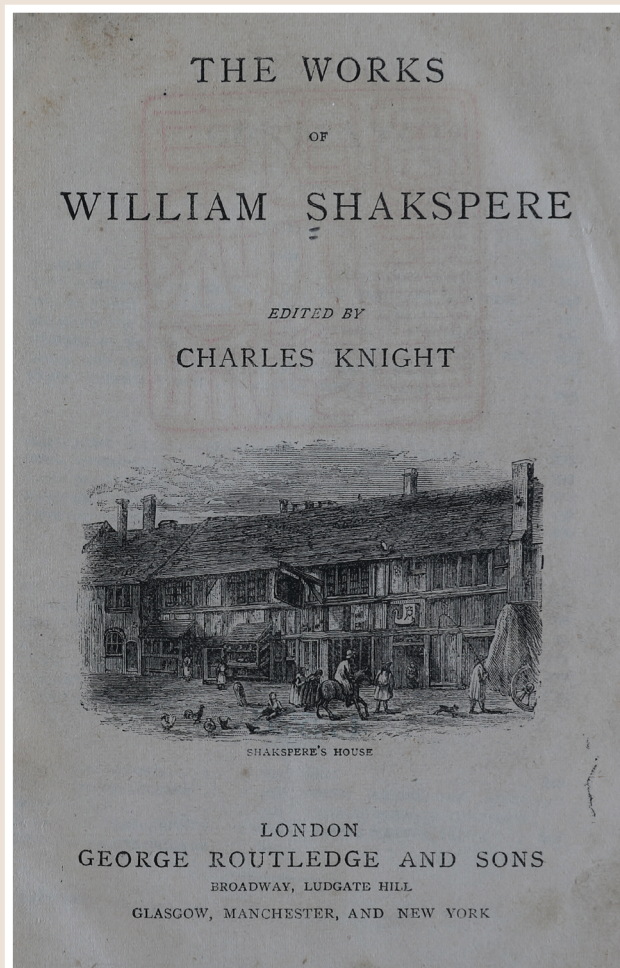
F350 13

셰익스피어 전집

The Works of William Shakspeare

Charles Knight 편집

London : George Routledge and Sons, n. d..



이 전집을 논하면서 편집자인 나이트(Charles Knight, 1791-1873)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여러 종의 셰익스피어 전집을 출간한, 19세기 셰익스피어 출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18세기의 위대한 학자-편집자들처럼 오랜 기간 축적한 본문비평의 성과로 명성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세기 중후반에 발족한 영국 최초의 두 근대적인 셰익스피어 학회에 모두 참여했으며, 전문적인 셰익스피어 연구자들과 협력하긴 했지만 그 자신이 직업적인 학자는 아니었다. 나이트는 기본적으로 출판업자였고, 특히 여러 형식의 교육적인 출판물을 발간함으로써 평생에 걸쳐 지식의 대중화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다.

같은 이름의 저명한 출판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나이트는 청소년기에 아버지 회사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으나 곧 문필가로 성공할 꿈을 품게 되었고, 『가디언』(*Guardian*) 등 여러 매체에서 기자로도 활동하다 삼십대 초반에 출판업에 투신하게 된다. 그는 곧 유용한 지식 보급 협회(The 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에 가입해서 협회가 발간하는 여러 대중교양지의 편집 일을 맡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어서 그는 중산층 가정을 타겟으로 고급 양장본 출판을 기획하게 되고, 그 시작이 바로 1836년 발간된 삽화판 성경이었다. 이 기획의 성공이 바로 나이트가 셰익스피어 편집자로 첫발을 떼게 되는 『삽화판 셰익스피어 전집』(*Pictorial Edition of the Works of Shakespeare*, 1842)의 출간으로 이어진다. 이 최초의 본격적인 삽화판 셰익스피어 전집은 1838년부터 1841년까지 나누어 간행된 것을 8권으로 묶어 재발간되었다.

그의 셰익스피어 전집 출판은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당장 1842년부터 1844년까지 자신의 출판사인 C. 나이트 앤 컴퍼니를 통해 도서관

소장용(library edition) 팔절판 셰익스피어 전집이 12권으로 출간되었다. 이 판본은 학술적인 문건이나 전기를 신거나 빼는 등 여러 편제와 판형으로 이후 여러 차례 발간되었는데, 나이트는 그때마다 표준 판본(standard edition), 국가(대표) 판본(national edition) 등의 자부심이 한껏 들어간 판본명을 붙이고는 했다. 그런 호기로운 이름이 그저 광고효과를 노린 과장만은 아니었다. 그가 펴낸 셰익스피어 전집은 자주 여타 출판사를 통해 중판되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그 당대에는 널리 대중들에게 신뢰받았다.

조지 루틀리지 앤 선 출판사에서 간행된, 이 한 권으로 이루어진 셰익스피어 전집 또한 그런 중판본 중 하나이다. 원 판본 등의 서지 정보를 알려주는 서문이 없는 탓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전집은 1845년 나이트가 자신의 출판사에서 발간한 단권형 전집인 『희극과 시를 망라한 셰익스피어 전집』(*The Works of Shakespeare Containing His Plays and Poems*)을 중판한 것으로 보인다. 원 판본처럼 이 판본 또한 셰익스피어의 전체 시 작품을 싣고 있다. 같은 출판사에서 이 판본 이외에도 나이트가 편집한 여타 셰익스피어 전집 또한 중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적인 성격을 띠는 전집인 만큼 그 구성은 전형적이다. 수록작품과 수록순서는 다음과 같다.

[희극]

『템페스트』-『베로나의 두 신사』-『원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자에는 자로』-『실수연발』-『헛소동』-『사랑의 헛수고』-『한여름 밤의 꿈』-『베니스의 상인』-『뜻대로 하세요』-『말괄량이 길들이기』-『끝이 좋으면 다 좋아』-『십이야』-『겨울 이야기』

[역사극]

『존 왕』-『리처드 2세』-『헨리 4세. 1부』-『헨리 4세. 2부』-『헨리 5세』-『헨리 6세. 1부』-『헨리 6세. 2부』-『헨리 6세. 3부』-『리처드 3세』-『헨리 8세』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오셀로』-『리어 왕』-『맥베스』-『아테네의 타이먼』-『햄릿』-『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심벌린』-『코리올레이너스』-『줄리어스 시저』-『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페리클레스』

[시]

『비너스와 아도니스』-『루크리스의 능욕』-『소네트 작품집』 등

후대에 셰익스피어 정전으로 편입된 비극 작품 『페리클레스』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F1 판본에 실려 있는 36편의 작품이 F1 판본과 마찬가지로 희극, 역사극, 비극으로 분류되어 실려 있다. 작품 수록순서 역시 희극과 역사극의 경우에는 F1 판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비극의 경우 대략 대표작들을 로마극과 구분해 앞서 배치해 두었다. 편집자 서문이 없어 이런 이례적인 순서로 작품을 실은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마지막 범주인 시 작품은 대략 창작시기를 따라 장시집 두 편인 『비너스와 아도니스』, 『루크리스의 능욕』, 그리고 그 유명한 『소네트 작품집』에 이어 몇 편 되지 않은 독립적인 소품들 순서로 실려 있다.

이 전집에는 작품 말고도 일종의 부록으로 까다로운 어휘를 선별해 뜻풀이를 제공하는 어휘목록 또한 갖추고 있지만, 그 분량이 10여 쪽 남짓으로 여타 학술적인 성격의 전집에 비할 바는 아니다. 사실 이 전집은 별로 특색이 없는 편으로, 가정 비치용 수요를 겨냥해서 저렴한 가격의 단권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간기획 의도와도 무관치 않겠지만, 작품별로 2장씩 모두 한 면 전체가 할애된 대형 삽화는

하나같이 강렬하다. 이 전집은 여러 참신한 기획으로 당시 번창하던 '세익스피어 산업'을 주도하던 편집자 나이트의 영향력을 증언하는 한 사례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도판 16. 『세익스피어 전집』 133쪽에 실린 『한여름 밤의 꿈』의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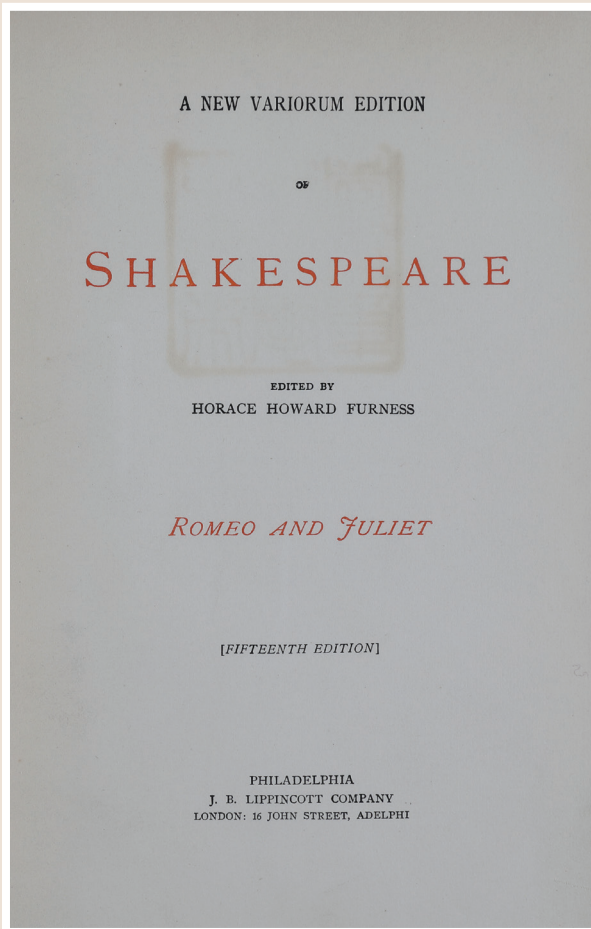
F350 93 1-19

신 집주본 셰익스피어 전집

A New Variorum Edition of Shakespeare

Horace Howard Furness & Horace Howard Furness Jr. 편집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1886-1919.



우선 셰익스피어 전집출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통이라 할 집주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원어에 해당하는 ‘variorum’은 라틴어 표현 ‘cum notis variorum’의 줄임말로 ‘여러 사람의 주를 포함하고 있는’이라는 뜻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주본의 존재는 해당 저자가 그 문화권을 대표하는 진정한 고전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작품뿐만 아니라 과거의 축적된 연구성과까지도 현재적 관심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소수의 작가에게나 해당되는 극히 드문 일인 것이다. 셰익스피어 집주본의 역사는 늦어도 18세기 후반까지는 거슬러 올라간다. 1784년 서지학자 아이스코프(Samuel Ayscough, 1745-1804)가 스톡데일 출판사를 통해 발간한 전집은 이미 이전 시기의 작품해설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주석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초의 본격적인 셰익스피어 집주본이라고 하면 보통 18세기의 저명한 셰익스피어 편집자인 스티븐스(George Steevens, 1736-1800)의 전집을 그의 사후에 친구인 리드(Issac Reed, 1742-1807)가 추가로 작업하여 1803년에 내놓은 확장판을 일컫는다. 21권으로 구성된 이 전집은 셰익스피어에 관한 주요 논의는 물론이고 대표적인 편집자들의 주석까지도 총망라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셰익스피어에 관한 이전의 논의들을 담고 있는 서론 부분(introductory matter)만 무려 3권 1,450면의 방대한 분량이었다. 1813년에 발간된 개정판은 이미 대표 집주본으로 인정받은 이전 판본에 이어서 ‘두 번째 집주본’으로 불린다.

이어서 ‘세 번째 집주본’의 편집자는, 닥터 존슨의 전기작가로 유명한 보스웰의 동명의 아들 제임스 보스웰(James Boswell, 1778-1822)이었다. 이 집주본 역시 친구였던 말론의 전집을 증보한 것으로서 앞선 집주본과 마찬가지로 총 21권으로 구성되었다. (20세기 초반 창립한 영국문학학의 본산인 말론 학회(The Malone Society)가 그의 이름을 딴 데서

알 수 있듯이, 말론은 후대 학자들이 근대적인 셰익스피어 연구의 선구자로 추앙한 위대한 학자였다.) 1821년에 출간된 이 전집의 서론 부분은 두 번째 집주본을 뛰어넘어 1,800쪽에 이르는 압도적 분량을 자랑한다.

아예 전집명에 집주본을 명시하고 있는 이 전집 시리즈는 바로 보스웰의 세 번째 집주본을 계승하며 동시에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편집자인 퍼니스(Horace Howard Furness, 1833-1912)는 시리즈 전체 서문에서 보스웰의 전집을 거론하며, “그 판본은 현재까지도 후대의 셰익스피어 편집자들에게 숭한 예시와 비평의 저장소 노릇을 하는 ... 깊이 있는 셰익스피어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라고 상찬한다. 동시에 반세기가 흐른 시점에서 그 전집은 최신 연구경향과는 동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퍼니스의 냉정한 진단이다. 왜냐하면 “지난 50년 동안 ... 셰익스피어 비평은 이전의 모든 시대를 앞지르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퍼니스는 작금의 학자들이야말로 “포프나 존슨 같은 세계적인 명성을 누린 이름은 없을지라도”, 셰익스피어 연구에 “드높은 학식과 예리한 비평적 통찰 그리고 작가에 대한 존경어린 애정”을 가져왔다고 자부한다.

퍼니스는 세 번째 집주본의 출간 이래로 셰익스피어 연구에 단지 양적인 축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구태도나 방법론 면에서 근본적인 단절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이제 셰익스피어의 문장을 편집자 당대의 기준에서 문법 오류나 의미부재(nonsense) 등의 이유로 함부로 교정하거나 경쟁관계의 편집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집주본 편집자로서 그의 사명은 역사주의적이면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나이트 ... 올리치 ... 허드슨 클라크” 같은 동시대의 탁월한 연구자들의 성과를 최대한 수집하고, “집주본의 방식을 따라” 서로 비교하기 좋은 형태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었다.

본문비평의 측면에서도 이 전집의 야심은 상당했다. 이 전집이 경쟁자로 여겼던 판본은 당시 가장 권위있는 셰익스피어 전집이었던 캠브리지 판이었다. 라이트(William Aldis Wright, 1831-1914)를 위시한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소속 교수들이 1863년부터 1866년까지 9권으로 편집한 이 전집은 단권형으로도 출판되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글로브판 셰익스피어였다. 당시 셰익스피어 관련 연구는 대개 이 판본에서 인용을 하는 것이 관례일 정도로 이 전집은 표준적인 학술 판본으로서 대접받고 있었다.

전체 서문에서 퍼니스는 거듭 존중의 마음을 표하면서도, 그 판본에 결정적인 “공백”(want)이 있으며 자신의 집주본이 그 공백을 메웠다고 자부한다. 캠브리지 전집은 까다로운 본문 대목에 대한 이전 시기 학자들의 논평을 나열하기만 했을 뿐 그 논평에 대한 “다른 편집자들의 수용 혹은 거부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각각의 관점에 대한 평가라는 결정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이 집주본은 각주에서 자신과 다른 견해에 대한 편집자들의 반응까지도 정리해서 신고 있으며, 그런 탓에 각주의 양이 대폭 증가했다. 1871년 첫 번째로 출간된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 작품의 본문만 무려 301면에 이른다.

방대한 작업량 때문에 이 전집은 출간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야말로 편집자 퍼니스의 일생일대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첫 권이 발간된 이래로 퍼니스 생전에 발간된 마지막 15번째 작품이자 (『햄릿』이 별권으로 된 부록을 거느리고 있는 탓에) 시리즈의 16번째 권인 『리처드 3세』까지 무려 4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가 작업한 나머지 작품들인 17권 『줄리어스 시저』와 18권 『심벌린』은 사후인 1913년에 출간되었다. 퍼니스는 자신이 죽고 나서도 전집 출간이 이어지도록 말년에는 아들인 퍼니스 주니어(Horace Howard Furness Jr., 1865-1930)와 공

동으로 작업하며 그를 편집자로 훈련시켰다. 아버지 사후에 출간된 19권 『존 왕』은 아들이 단독으로 편집한 것이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는 19권 중에서 2권 『맥베스』(1873), 9권 『뜻대로 하세요』(1890), 10권 『한여름 밤의 꿈』(1895), 17권 『줄리어스 시저』(1913)를 제외한 총 15권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아들 퍼니스 주니어는 편집자로 아버지만큼 평가가 좋지 않아서 20권인 『코리올레이너스』(1928)를 내놓은 다음에는 미국의 대표 영문학회인 미국현대언어협회(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가 전집출간 기획을 물려받아 후속작에 대한 집주본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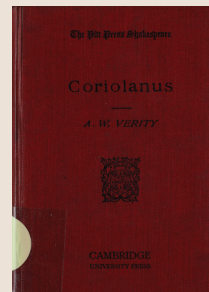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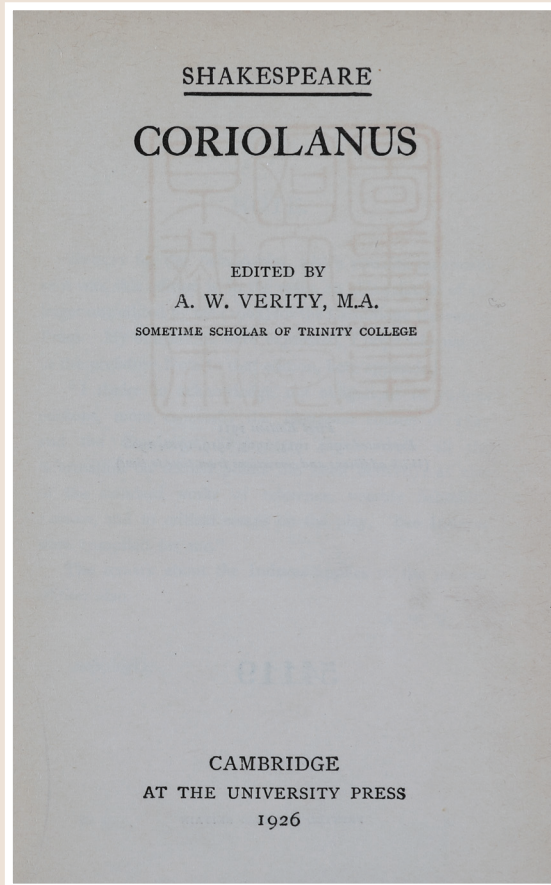
F350 62-74

피트 프레스 셰익스피어 시리즈

The Pitt Press Shakespeare

A. W. Verity 편집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3-1926.



영국사회에서 자국 문학을 교육자료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반 무렵이고, 당시에는 주로 개신교 단체들이 운영하던 비정규 교육기관에 국한해서 이런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후로도 한참동안 중·고등 교육기관에서 인문학 교육은 그리스·로마의 고전 위주였다. 대략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영문학 연구에 이어 영문학 교육 또한 광범위하게 제도화된다. 그런 상황에서 영문학 최고의 정전인 셰익스피어의 교재용 작품집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베러티(A. W. Verity, 1863-1937)가 편집을 담당하는 이 시리즈는 일찍이 교재에 합당한 편제를 갖추으로써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당시 캠브리지 대학출판부는 교재용 셰익스피어 출판에서 각별히 유리한 위치였다. 앞선 항목들에서 언급했듯이 1863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캠브리지 셰익스피어 전집은 오랜 기간 가장 권위있는 판본으로 널리 인정받았으며, 캠브리지 대학 출신 학자들의 기여로 본문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리즈의 편집자 베러티 또한 셰익스피어는 물론이고 영문학 전반에 걸쳐 탁월한 학자들을 배출했던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이었다.

이 시리즈에 포함된 작품은 아래 목록의 총 15편으로, 셰익스피어 작품목록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 위주이다. 『햄릿』과 『리어 왕』 그리고 『한여름 밤의 꿈』과 『십이야』처럼 각각 비극과 희극 장르를 대표하는 작품은 포함된 반면, 위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타이투스 앤드 로니커스』나 『자에는 자로』같이 흔히 문제작으로 분류되며 평판의 부침이 심한 작품은 배제되었다.

1권. 『뜻대로 하세요』

2권. 『코리올레이너스』

- 3권. 『심별린』
- 4권. 『햄릿』
- 5권. 『줄리어스 시저』
- 6권. 『헨리 5세』
- 7권. 『리어 왕』
- 8권. 『리처드 2세』
- 9권. 『맥베스』
- 10권. 『베니스의 상인』
- 11권. 『한여름 밤의 꿈』
- 12권. 『헛소동』
- 13권. 『로미오와 줄리엣』
- 14권. 『템페스트』
- 15권. 『십이야』

시리즈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는 권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권은 i) 작품소개, ii) 작품 본문, iii) 대목별 주, iv) 어휘목록, v) 작품의 출처, vi) 핵심적인 비평용어 해설, vii) 간략한 운율 해설, viii) 색인 순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인 비평판과 비교할 때 우선 각주 대신 미주 채택을 차이로 꼽을 수 있다. 학술적인 비평판의 경우, 주는 본문비평과 관련된 것들의 비중이 크기에 본문 아래에 두는 것이 맞지만, 학생을 포함한 일반 독서대중에게 각주는 독서에 방해가 될 공산이 큰 탓이다. 작품소개는 확고하게 검증된 내용만을 추렸기에 짧은 편이다. 당시 같은 출판사에서 도버 윌슨 편집으로 발간되고 있던 비평판 셰익스피어 전집의 경우 편집자 서문이 100쪽을 넘는 것이 흔했지만, 이 시리즈의 작품 소개는 대개 20쪽 안팎의 분량이다. 무엇보다 비평용어나 운율을 해설하는 부록이야말로 교재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는 시리즈 중에서 1권 『뜻대로 하세요』, 4권 『햄릿』, 9권 『맥베스』, 10권 『베니스의 상인』, 13권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외한 10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판본은 가장 최신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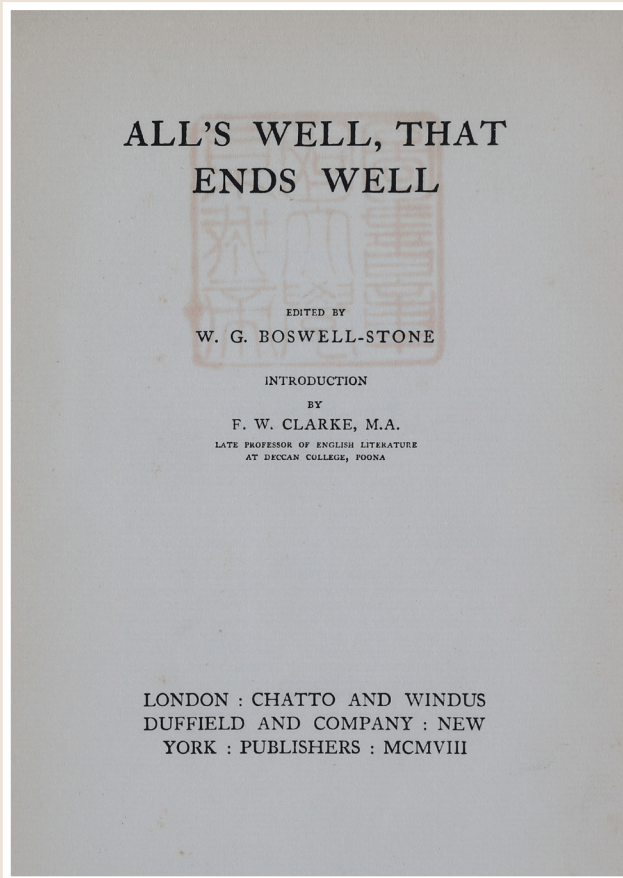
F350 118 1-13

원 표기법 셰익스피어: 최선의 이절판 및 사절판
판본의 철자를 따르는 셰익스피어 작품집

*The Old-Spelling Shakespeare: Being the Works of Shakespeare in the Spelling
of the Best Quarto and Folio Texts*

F. J. Furnivall & W. G. Boswell-Stone 편집

London : Chatto and Windus, 1907-1908.



이 시리즈의 편집자 중 퍼니벌은 19세기 중후반 영문학 분야를 선도한 저명한 학자이다. 그는 현재까지도 가장 권위있는 영어사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옥스퍼드 사전의 책임편집자로도 일한 바 있으며, 일찍이 근대적인 연구제도가 자리잡은 독일학계를 모델로 학회 설립과 학회지 발간을 주도했다. 그는 1868년 이래로 영문학의 주요 작가별 학회의 설립을 주도했는데, 특히 1873년에는 신 셰익스피어 학회를 창립하고 오랜기간 회장으로 재임하며 꾸준히 연구의제를 제시하는 등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공동편집자인 보스웰-스톤(W. G. Boswell-Stone, 1845-1904)은 『셰익스피어의 홀린shed: 연대기와 셰익스피어 역사극의 비교』(*Shakespeare's Holinshed: the Chronicle and the Historical Plays Compared*)의 저자로 유명하다. 이 저서는 최초로 셰익스피어의 사료 활용방식을 분석한 선구적인 학문적 업적이었다.

두 저명 학자가 편집자로 참여한 이 전집은 기획 당시에는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야심찬 시도였을 공산이 크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철자 표기는 본문비평을 위시한 셰익스피어 연구의 여러 분야에 걸쳐 중요한 사안인지라, 학술적인 비평관은 F1 판본이나 신뢰할만한 사절판을 현대적 표기와 병기하거나 부록으로 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전집은 아예 본문의 표기를 셰익스피어 당대의 철자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두 편집자는 이런 대담한 기획의 편집자로 맞춤형 학문적 경력을 쌓아왔다. 퍼니벌은 1880년부터 1889년까지 셰익스피어의 사절판 43종의 영인본 출간을 주도한 바 있으며, 보스웰-스톤의 경우 위의 대표 저작이 말해주듯 엘리자베스 시대와 그 이전 시기의 출판물에 정통한 학자였다.

그러나 공동작업의 실제 결과는 두 학자의 명성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물론 공언한대로 이 전집은 예컨대 's'를 현대의 'f'를 길게 늘여 쓴 것 같은 형태의 옛날 활자체로 인쇄하긴 했지만, 그 점 외에는 별

다른 특색이 없었다. 작품별 한 권의 편제를 취했기에 지면상의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확정의 근거에 대한 편집자 주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인명 정보도 찾기 힘들만큼) 무명의 학자인 클락(F. W. Clarke)이 맡은 작품 해제 또한 굉장히 소략해서 시리즈의 첫 권인 『끝이 좋으면 다 좋아』의 경우 4쪽 밖에 되지 않는다. 추측컨대 1904년 보스웰-스톤의 사망으로 인해 출간기획이 당초의 구상에서 많이 후퇴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 시리즈의 출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퍼니벌 또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이기도 했다. 이 시리즈가 비극은 한 편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다음처럼 총 16권으로 종결된 사실 또한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 1권. 『끝이 좋으면 다 좋아』
- 2권. 『뜻대로 하세요』
- 3권. 『실수연발』
- 4권. 『헨리 4세. 1부』
- 5권. 『헨리 4세. 2부』
- 6권. 『존 왕』
- 7권. 『사랑의 헛수고』
- 8권. 『베니스의 상인』
- 9권. 『원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 10권. 『한여름 밤의 꿈』
- 11권. 『헛소동』
- 12권. 『말괄량이 길들이기』
- 13권. 『템페스트』
- 14권. 『십이야』
- 15권. 『베로나의 두 신사』
- 16권. 『겨울 이야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역사극인 4-6권을 제외한 나머지 희극 13권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 시리즈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당시 셰익스피어 산업의 핵심 상품이라 할 전집 분야에서 실로 다채로운 기획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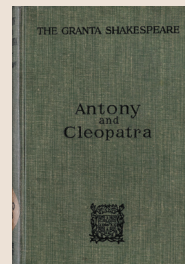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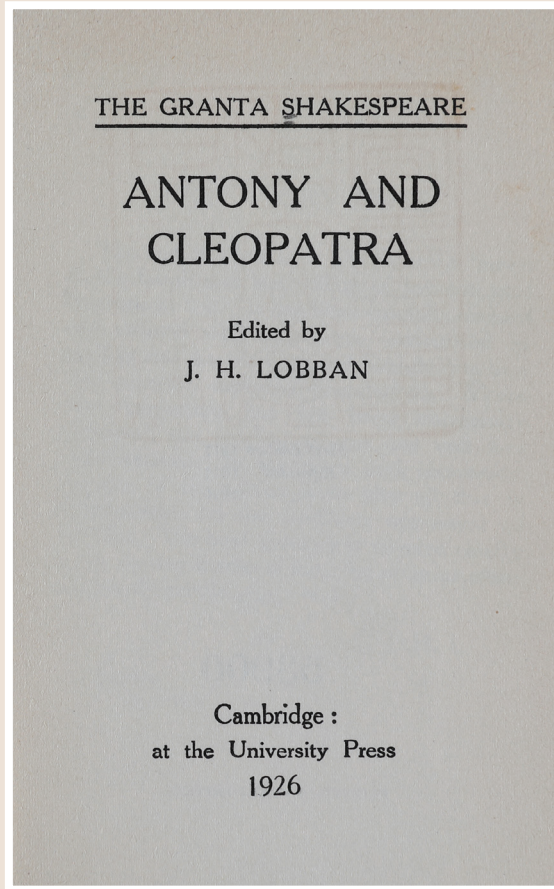
F350 49-60, 86-89

그랜타 셰익스피어 시리즈

The Granta Shakespeare

J. H. Lobban 편집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1-1926.



이 시리즈는 무엇보다 그 소형 판형이 두드러진다. 책의 세로 길이가 불과 16cm로 팔절판보다 작은 초소형 판형은 이 시리즈가 저가의 보급판으로 기획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갖추고 있는 구성이다. 이 시리즈는 작품 본문 이외에도 작품해설과 어려운 대목에 대한 미주, 그리고 어휘목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경우 작품해설이 20여 쪽에 이르고, 미주 또한 비슷한 분량이다. 그러면서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서 실로 휴대용 셰익스피어(portable Shakespeare)라 할 만 했다.

이 시리즈에서 또 하나 특기할만한 것은, 캠브리지 대학출판사에서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슨과 스티븐슨이 공동으로 편집한 전집의 1793년도 4번째 판본”을 본문의 저본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존슨의 본문비평이 신뢰하기 힘들다는 학계의 일반적 평가를 고려하면, 이런 결정은 분명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지만 편집자인 로반(J. H. Lobban, 1871-1939)은 딱히 그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 시리즈는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아마도 (1891년에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창간한) 저명한 문예지인 『더 그랜타』(*The Granta*)에서 주관한 것으로, 당시 학계의 일반적인 셰익스피어 출판관행을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15편의 작품목록과 출판연도이며, 청구기호 순으로 배치하였다.

표 1. 『그랜타 셰익스피어』 권별 출판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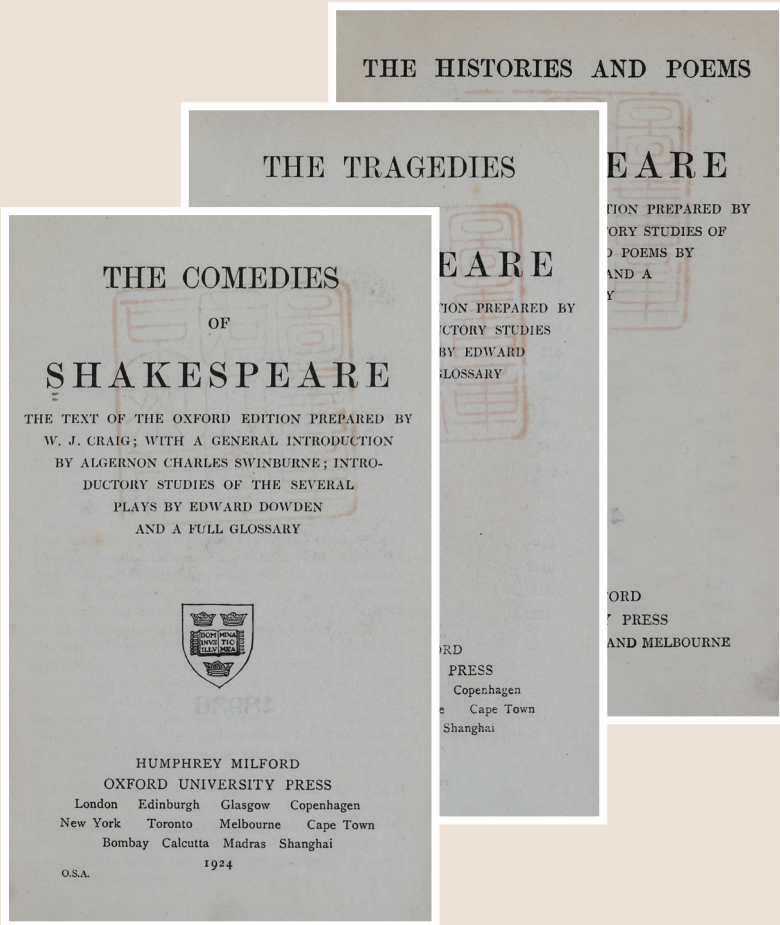
청구기호	제목	인쇄연도	판권
F350 49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1926년	1917년
F350 50	『코리올레이너스』	1917년	1917년
F350 51	『심벌린』	1916년	1916년
F350 52	『줄리어스 시저』	1915년	1915년
F350 53	『헨리 5세』	1922년	1917년
F350 54	『맥베스』	1911년	1911년
F350 55	『한여름 밤의 꿈』	1913년	1913년
F350 56	『베니스의 상인』	1913년	1913년
F350 57	『헛소동』	1916년	1916년
F350 59	『템페스트』	1916년	1916년
F350 60	『십이야』	1911년	1911년
F350 86	『헨리 4세, 1부』	1926년	1910년
F350 87	『헨리 4세, 2부』	1921년	1915년
F350 88	『겨울 이야기』	1924년	1910년
F350 89	『리처드 2세』	1918년	1918년

F350 23-25

셰익스피어 희극, 비극, 그리고 역사극과 시

*The Comedies of Shakespeare ; The Tragedies of Shakespeare ;
The Histories and Poems of Shakespeare*

William James Craig 편집, Algeron Charles Swinburne 전체서문, Edward Dowden 작품해설
London, etc. : Humphrey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5, 1924.



이 셰익스피어 전집은 1891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펴낸 전집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전집을 비롯하여 이후 여러 판형과 구성으로 재출간되는 저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저본이 되는 전집을 거의 단독으로 편집한 이는 서지사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크레이그(William James Craig, 1843-1906)였다. 아일랜드 출신인 그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쳤는데, 이 전집의 작품해설을 맡은 다우든과는 동문 사이였다. 그는 모교에서 몇 년간 강사생활을 한 후 1874년 런던으로 이주해 상당 기간 수험생들에게 영문학을 가르치는 개인교습으로 생계를 해결하게 된다. 이때 가르친 학생 중에는 일본 근대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도 있었다.

크레이그의 셰익스피어 편집자로서의 경력은, 신 셰익스피어 학회의 의뢰로 F1 판본의 본문을 병기하는 학술판 전집중 몇 작품의 편집을 맡으면서 시작되었다. 1883년 그가 편집한 『심벌린』이 출간되었고, 그 작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크레이그는 최초의 옥스퍼드 셰익스피어 전집의 편집자로 발탁되었다. 1891년 출간된 전집은 단권형이지만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 휴대용 전집을 지향했다. 내용 면에서도 이 전집은 독서의 편의를 위해 권말에 인물색인(index of characters)과 어려운 어휘를 풀이한 상당한 분량의 어휘목록을 갖추고 있었다. 이 전집의 대중적인 성격을 말해주는 부록들, 특히 어휘목록(glossary)은 상당한 공력이 투입된 그 나름의 학문적 업적이었다.

유능한 편집자의 노력으로 이미 나름의 특색과 장점을 갖춘 이 전집이 독서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스윈번과 다우든, 특히 지금은 명성이 많이 바랬지만 당대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여겨진 스윈번의 참여였다. 사실 시인 스윈번이 이 전집에 보탠 것은 많

지 않다. 다우든이 권별 작품 해제를 작성한 반면 스윈번의 경우 1권 희극 편에 20쪽 분량의 전체 서문을 쓴 것이 전부이다. 그렇지만 당시 스윈번은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엘리자베스 시대 극작가들에 관한 여러 권의 비평서를 출간하는 등 그 시대 문화전반에 정통한 전문가로 명성이 높았다. 게다가 그는 의도적인 기행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던 당대의 ‘셀럽’이기도 했다. 이 전집이 글 한 편을 실은 스윈번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서문 자체도 확실히 독서의욕을 고취시키는 힘이 있었다. 스윈번이 상정한 창작순서에 따라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에 대한 짙막한 논평이 이어지는 서문은, 말하자면 독자에게 바드의 영혼의 여정을 안내한다. 그는 자신이 셰익스피어에게 느끼는 경이를 독자와 나누고자 애쓰며, 독자 또한 스스로 그런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스윈번에게 셰익스피어 독서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면서도 보람찬 일이었다. 다음 서문의 마지막 대목은 이러한 바드 숭배의 정서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간결하면서도 순수하며 숭고하면서도 상상력 충만한 시에 관한 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준 대가는 없다. 유머에 관해서도, 그토록 높은 수준의 깊은 통찰을 담은 종류를 이 정도로 물려준 대가는 없다. 남녀를 막론해 확고하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인물을 이와 같이 창조한 시인은 없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에 관해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관해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알았다. 그런 이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영국의, 그리고 인류에게 넘치는 영광이었다.

수록 희곡 작품은 F1 판본에 수록된 가장 표준적인 정전목록에 더해 당시 새로이 발간되는 여러 전집과 마찬가지로 『페리클레스』를 포함

한 총 37편이고, 수록순서 역시 F1 판본을 따르고 있다. 마지막 3권 말미에 배치된 시 작품 역시, 시를 포함한 여타의 대다수 전집과 마찬가지로 발간연도를 따라 『비너스와 아도니스』, 『루크리스의 능욕』, 『소네트 작품집』 그리고 기타 군소 작품 순서로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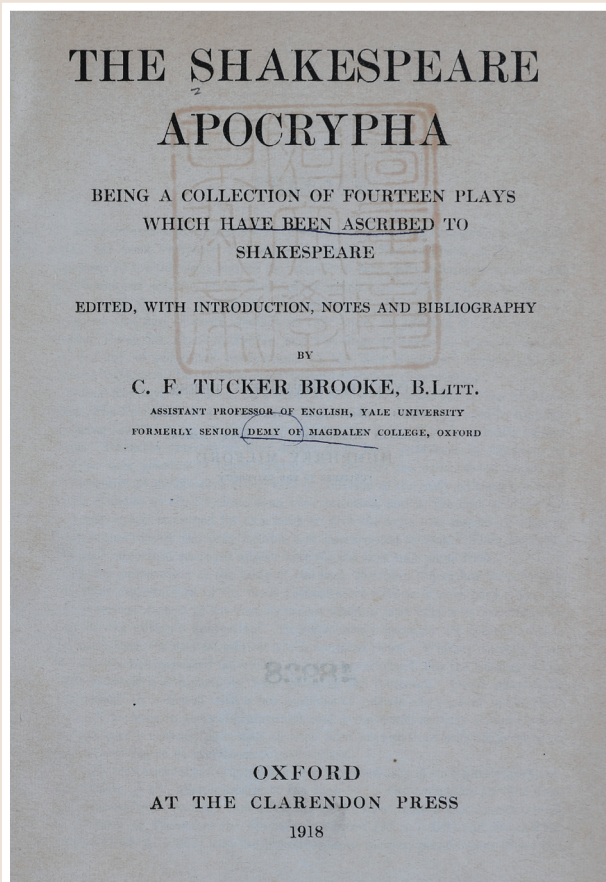
F350 215

셰익스피어 외경: 셰익스피어 작품으로 거론되었던
열네 편의 희곡 선집

*The Shakespeare Apocrypha: Being a Collection of Fourteen Plays Which Have
Been Ascribed to Shakespeare*

C. F. Tucker Brooke 편집

Oxford: Clarendon Press, 1918.



원래 외경(apocrypha)은 정전(canon)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 점차 기독교 경전에서 배제된 일련의 문서를 지칭한다. 오늘날 기독교 외경은 대개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는 실려 있었지만, 히브리어 판본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이다. 외경은 위작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잦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개념은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 외경에 속하는 문서는 경전에서 배제된 이유에 따라 종교적 권위나 가치가 사뭇 달랐다.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 당연히 거론 자체가 금지되지만, 어떤 외 ‘경’ 문서는 정경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조하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런 판정은 해석에 열려있는 문제였기에, 외경에 속하는 문서의 지위는 시대나 교파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오늘날 구교에서는 외경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기에 외경이 포함된 성경 판본의 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개의 개신교 교단에서 외경은 이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놓고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져왔다. 셰익스피어의 1차적인 정전 목록은 F1 판본에 수록된 36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작품군이 존재했다. F1 판본의 편집자들은 배제했지만, 윌리엄 셰익스피어 혹은 약자로 W. S.를 작가로 명기한 작품이 수집 중에 이르렀다. 그밖에도 엘리자베스 시대에 성행했던 공동창작 관행과 더불어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무기명 출판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셰익스피어 작품의 후보군은 더 늘어났다.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에게 문헌학에 기반한 새로운 셰익스피어 정전의 발굴은 너무나 매력적인 과제였다. 그리하여 F1 판본 이전 사절판으로 출간된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대표적으로 『페리클레스』의 경우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거의 인정받으면서 다수의 전집에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중후반 셰익스피어 연구를 주도하던 신 셰익스피어 학회는,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16권의 잠재적

인 셰익스피어 정전 후보작의 출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1918년에 발간된 브룩(C. F. Tucker Brooke, 1883-1946)의 선집은 셰익스피어 학계의 이 ‘핫 이슈’와 관련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학문적 논의의 산물로서, 기본적으로 셰익스피어 정전 목록의 확대 내지는 수정 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브룩은 서문에서 이 선집에 수록된 셰익스피어 외경들을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의심스럽되”(doubtfully Shakespearian) 완전히 터무니없지만은 않은 작품으로 규정한다. 그에게 셰익스피어 외경은 정전 후보작과는 거리가 멀고, 창작의 어떤 단계에서 셰익스피어의 개입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만 기존 정전에 비해 열등한 작품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독자들은 이 의심스러운 작품들의 진짜 셰익스피어 작품과의 유사성보다는 이질성에 더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실로 이 작품들에 대한 정밀한 연구보다 ... F1 편집자들의 지성과 성실성을 증거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 외경들 간에도 질적인 차이, 즉 셰익스피어의 흔적이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했고, 바로 그런 구분이야말로 이 선집의 출간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우선 브룩은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명백한 위작으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43편 정도의 작품들을 추린 후에, 그 중에서 다시 다음 14편을 골라냈다. 수록순서는 최초 출간년도이다.

1. 『피버샴의 아든』(*Arden of Feversham*, 1592)
2. 『로크라인』(*Lochrine*, 1595)
3. 『에드워드 3세』(*Edward III*, 1596)
4. 『뮤서도러스』(*Mucedorus*, 1598)

5. 『존 올드캐슬 경 1부』(*The First Part of Sir John Old Castle*, 1600)
6. 『토마스 로드 크롬웰』(*Thomas Lord Cromwell*, 1602)
7. 『런던의 탕자』(*The London Prodigal*, 1605)
8. 『청교도』(*The Puritan*, 1607)
9. 『요크셔 비극』(*A Yorkshire Tragedy*, 1608)
10. 『에드몬튼의 즐거운 악마』(*The Merry Devil of Edmonton*, 1608)
11. 『아름다운 엠』(*Fair Em*, 1631)
12. 『두 귀족 친척』(*The Two Noble Kinsmen*, 1634)
13. 『머린의 탄생』(*The Birth of Merlin*, 1662)
14. 『토마스 모어 경』(*Sir Thomas More*, 1844)

브룩은 외경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작품이 그나마 이 14편뿐이라고 단호한 판정을 내린다. 나머지 29편은 도용이나 위작 같은 명백한 외재적 증거가 없을 뿐 내재적 분석의 결과 셰익스피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작품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선집에 수록된 14편 간에도 셰익스피어가 작품에 기여한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브룩의 평가였다. 브룩은 여러 기준 논의를 참고하되, 스스로 세밀한 스타일 분석을 통해 작품별로 셰익스피어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책의 서문이 매우 길어진 이유이다. 그 분석 내용의 소개는 이 해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결론만 간추리자면 브룩은 『페리클레스』처럼 추가로 셰익스피어 정전에 포함될 후보작은 없다고 본다. 다만 여러 내외재적 증거로 보건대 플레처(John Fletcher, 1579-1625)와 셰익스피어의 공동창작이 확실한 『두 귀족 친척』의 경우 플롯 구성 측면에서 셰익스피어의 정전과 유사성을 보인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현재 이 작품은 여러 셰익스피어 전집에 포함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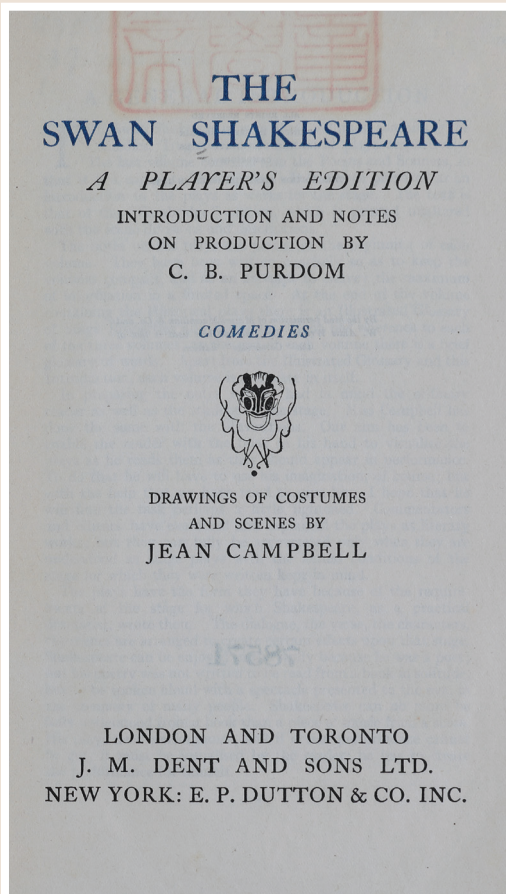
F350 137 1-3

스완 셰익스피어 시리즈: 배우를 위한 판본 -
1. 희극; 2. 역사극; 3. 비극

*The Swan Shakespeare: a Player's Edition -
1. Comedy; 2. Histories; 3. Tragedy*

C. B. Purdom 편집, Jean Campbell 의상과 무대 디자인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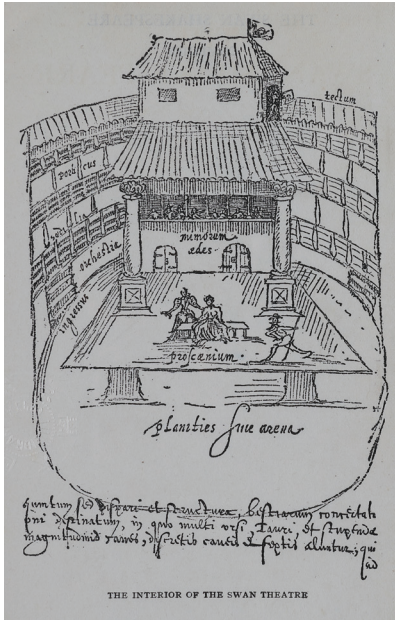
London, Toronto, New York : J. M. Dent and Sons, E. P. Dutton & Co.,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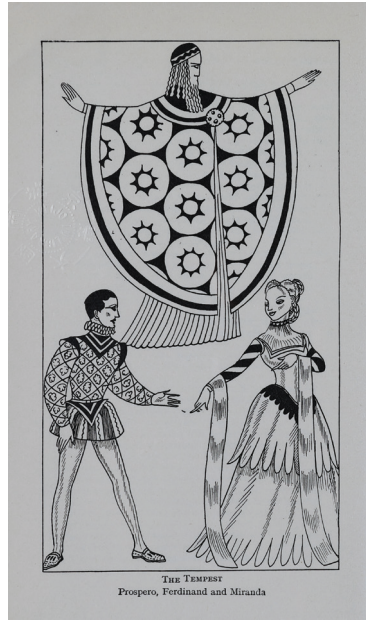
부제명이 이 시리즈의 성격을 명쾌하게 말해준다. 이 시리즈는 ‘배우를 위한 판본’으로 “학교나 대학 혹은 소극장에서 셰익스피어 작품 공연을 시도하려는 이들을 돕기” 위해 출간되었다. 사실 시리즈의 제명인 ‘스완 셰익스피어’ 역시 발간 목적에 부합하는 작명이다. 셰익스피어 하면 우선 글로브 극장이 연상되지만, 그 못지않게 셰익스피어의 창작 경력에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스완 극장이었다. 극작가로 대성하고 글로브 극장의 지분을 갖는 주주가 되기 이전 극작 경력의 전반기동안 셰익스피어의 주 활동공간이 바로 스완 극장이었다. 20세기 후반 셰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랫퍼드에 지어진 셰익스피어 기념극장의 이름 또한 이 극장에서 따왔다.

이 시리즈의 편집은 발간 목적에 충실했다. 대중적인 셰익스피어 전집의 편성을 따라 희극, 역사극, 비극(과 시) 세 권으로 발간된 이 시리즈는 당시 가장 권위있던 캠브리지 전집의 본문을 그대로 가져오되, 본문과 관련된 각주 대신 공연에 도움이 되는 부록과 도판을 실었다. 시리즈의 3권 말미에는 ‘무대도구와 의상 삽화 목록’(Illustrated Glossary of Stage Properties and Costumes)이 있고, 더해서 본문 사이사이에도 복장에 초점을 맞춘 주요인물의 삽화와 무대 디자인 도면이 작품별로 두서너 장씩 들어 있었다. 이렇듯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가 이 시리즈가 내세우는 강점이자 특징이기에 책 표지에서 삽화가의 이름이 공동편집자급으로 부각되고 있다.

편집자인 퍼돔(C. B. Purdom, 1883-1965)의 독자적인 기여는 각 권의 서두에 실린 작품해설이다. 그 글 역시 공연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각각의 작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바탕으로 “올바른 캐스팅을 위해서 주요 인물의 어떤 특성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품의 무대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같은 연출할 때 필수적인 고려사항을



도판 17. 『스완 셰익스피어 시리즈, 1. 희극』 권 두 삽화. 스완 극장의 내부



도판 18. 『스완 셰익스피어 시리즈, 1. 희극』 33쪽에 실린 『템페스트』의 세 주인공 물 프로스페로, 페르디난드, 그리고 미란다의 이미지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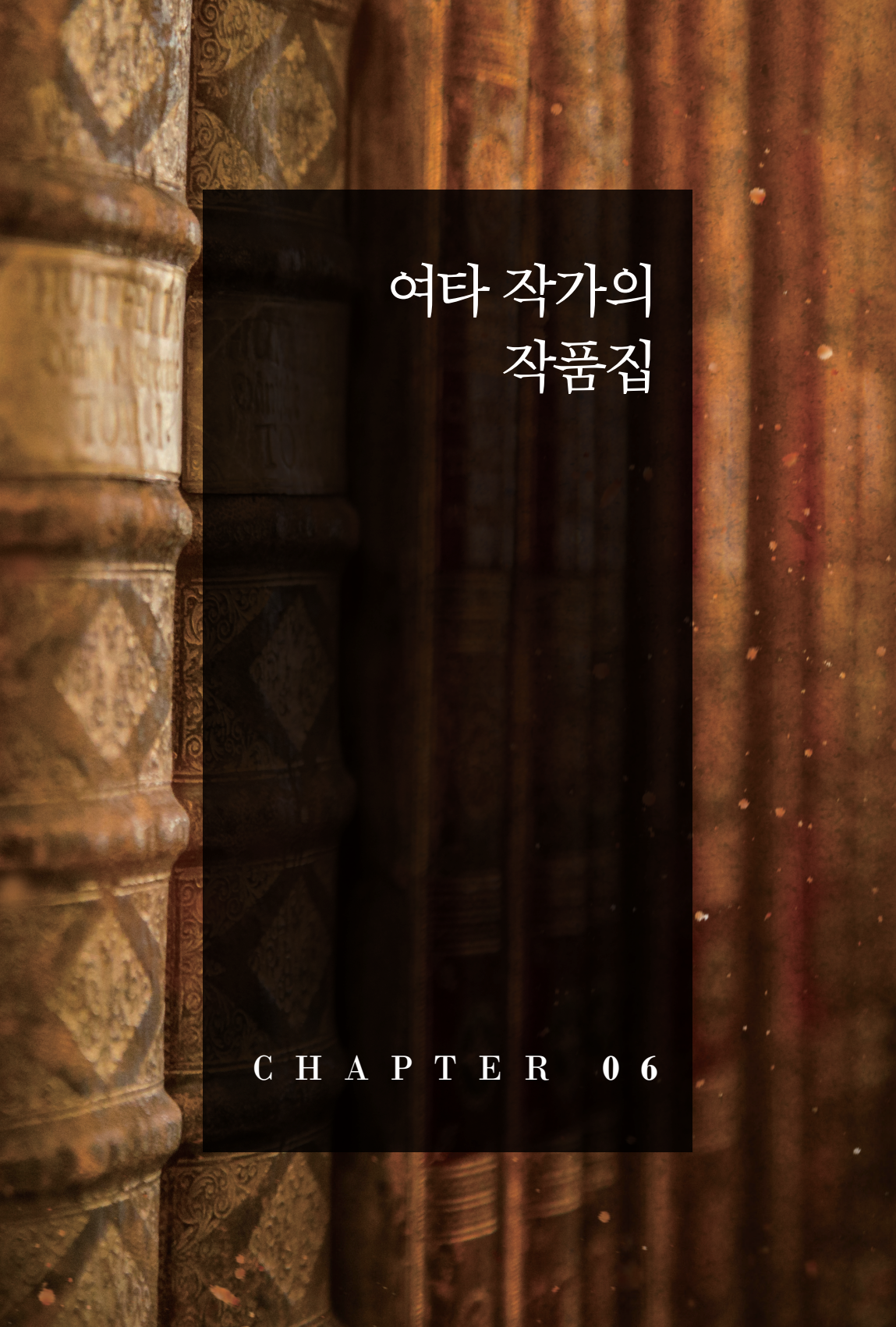
짚어준다. 이처럼 이 시리즈는 공연상의 실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런 편집방향은 이론적인 문제의식과 무관하지만은 않았다.

편집자인 퍼독은 확실히 일반 독자, 더 나아가 전문연구자의 지배적인 셰익스피어 이해를 교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위의 인용문이 포함된 시리즈의 전체 서문에서 그는 그간의 셰익스피어 이해가 문학적인 방식에 치우쳐 있었다고 지적하며 “셰익스피어 희곡은 오직 당시의 무대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염두에 둔 공연대본으로 접근할 때에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런 주장은 당시 영향력을 넓혀가던, 흔히 무대비평학과로 통칭되던 셰익스피어 연구의 신조류를 반향하는 것

이었다. 퍼둠은 그 방면의 최신 연구성과를 두루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집에 수록된 무대 삽화는 직전 시기에서야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셰익스피어 당대의 극장 관련 자료에 의거한 것이었다.

관련하여 퍼둠은 당시 본문편집의 주류 경향에 대해서도 남득할만한 비판을 내놓는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장막의 세밀한 구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편집자의 야심에 따라 점차 늘어가는 무대지문의 삽입 또한 자의적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런 예리한 비판은 오랜 연출 경험을 통해 쌓아온 작품이해 - 즉, 셰익스피어 작품은 일반적인 희곡보다 유별나게 빠른 전개를 필요로 한다 - 에 기반했다. 그는 셰익스피어 본문의 편집이 현대의 출판관행을 따르는 중에 장면간 연속성이 강한 셰익스피어 작품의 특성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퍼둠의 이력이 흥미로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그는 문예지 편집자로 일했고, 여러 예술 관련 단체의 수장을 맡는 등 영국 문화계의 저명인사였지만, 동시에 20세기 초중반 도시계획 분야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가든 시티(garden city)라고 알려진 신도시 건설안, 즉 농경지와 산업시설 및 주거지역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비교적 자족적인 도시형태에 대한 구상을 실제로 추진해서 성공시켰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 주거 및 도시계획 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using and Planning)의 재정이사로 임명되었다. 또한 그는 20세기 전반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인도의 영적 구루인 메허 바바(Meher Baba, 1894-1969)의 전기작가이기도 했다.



여타 작가의
작품집

C H A P T E R 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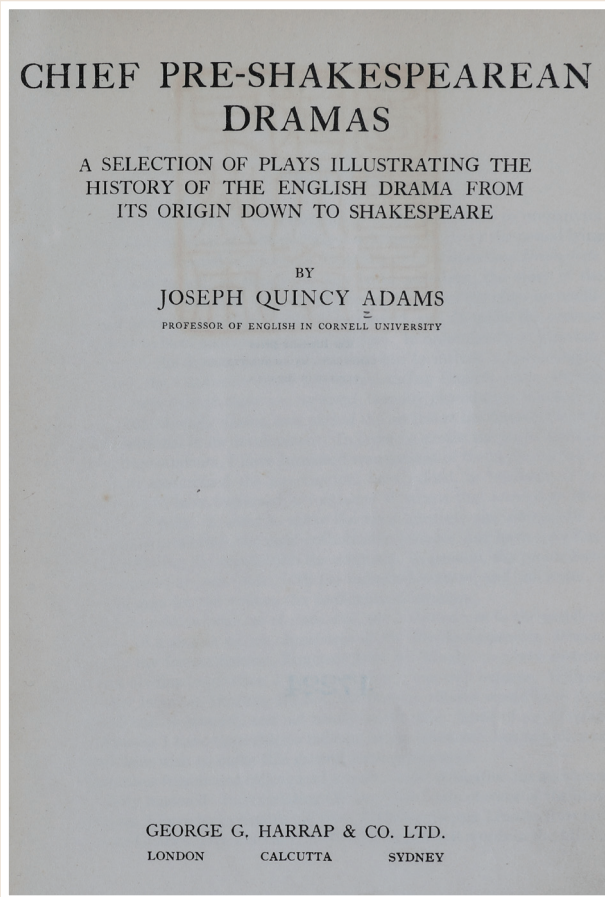
F350 220

셰익스피어 이전 영국의 주요 극작품: 기원부터
셰익스피어까지 영국 희곡사를 예시하는 작품 선집

*Chief Pre-Shakespearean Dramas: a Selection of Plays Illustrating the History
of the English Drama from its Origin Down to Shakespeare*

Joseph Quincy Adam 편집

London, Calcutta, etc. : George G. Harrap & Co., n. d..



이 작품 선집은 이 다음 항목의 책과 동일한 시리즈로서 영국 희곡사를 개관하는 대학강좌의 교재로 기획되었다. 두 책은 모두 1911년에 발간된 닐슨(W. A. Neilson, 1869-1946)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주요 극작가들』(*Chief Elizabethan Dramatists*)을 보완하는 후속 기획이었다. 앞서 몇 차례 언급했듯이 19세기 말에 이르러 셰익스피어를 배출한 예술적 전사(前史)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깝게는 동시대의 선배 작가들, 멀게는 중세 이래로 영국의 다양한 연극전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 선집의 발간은 20세기 초중반에 이르면 이미 그런 학문적 관심사가 교육과정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편자가 서문에서 썼듯이, 이 선집은 엘리자베스 시대 극문학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영국 드라마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명쾌하게 예시”하는 작품들을 선별해 한 권에 모았다.

이런 유형의 출판기획 중에서 두드러지는 이 선집의 특징이라면 “유럽 대륙의 몇몇 종교극(liturgical play)을 포함한” 것이다. 편자는 그 결정이 “영국 드라마의 기원”을 보여주자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연구의 결과 영국의 “초기 드라마 또한 로마 가톨릭 성사의 일부로서, 그 발전과정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설명이 다소 모호한데, 맥락상 전 유럽에 걸쳐 동일한 라틴어 대본에 따르는 종교극 공연이 예배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말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선집의 첫 세 장은 라틴어 종교극에 할애된다. 1장에는 대사가 거의 없는 짧은 대본을, 2장에는 예수의 생애와 관련된 대본을, 3장은 그밖에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가톨릭 성자들의 생애와 관련된 대본을 모아놓았으며, 이런 순서는 대략 종교극의 발전과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틴어 대본의 존재는 당연히 편집상의 추가적인 과정을 수반했다. 전문 학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을 주독자로 상정한 책이기

에, 편자는 “중세 라틴어 대본을 번역하고, 표기법을 현대화했으며, 더 나아가 괄호 안에 무대지문을 추가하고, 독자에게 난해할 것으로 짐작되는 모든 단어를 해설하는 각주까지 달았다.” 그에 앞서 여러 판본을 비교해서 본문을 확정짓는 기본적인 서지학적인 작업도 부담이 컸을 것이다. 편자는 그 결과에 대해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신뢰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 공을 들였다면서 깊은 자부심을 표한다.

이어지는 네 개의 장은 모두 영어로 쓰였고, 역시 넓게 보면 다 종교극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본들에 할애되었지만, 동시에 각각의 장르들은 서로 간에 명확히 구분된다. 4장에 실린 대본들은 앞서 1-3장에 실린 대본과 동일한 종류이나, 그 대본들과 달리 속어(俗語, vernacular), 즉 토착의 영어로 쓰였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어서 5장에는 길드 신비극(craft cycles)이 실려 있다. 이 대본들은 앞선 장에 실린 종교극과 달리 지역별로 직공(craft) 길드들의 후원으로 공연되었고, 따라서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되는 경우가 흔했다. 이런 대본들은 대개 수십 편의 성서 속 일화들을 담고 있어 여러 날에 걸쳐 공연되었기에 흔히 ‘연속공연’(cycle)으로 불렸다. 6장에는 그와 대조되는, 단일한 일화만을 극화하는 대본(non-cycle play)이 실려 있다. 7장에 실린 도덕극(morality play)은 우화적인 형식을 빌려 종교적인 교훈(morality)을 전달하는 작품으로서, 성서의 재현이 아니라 창작극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극문학에 부쩍 가까워진 형태였다. 영국의 경우 15세기 후반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인』(Everyman)을 전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고, 당연히 이 작품은 선집에도 실려 있다.

8장에 이르러서야 세속적인 내용의 대본들이 등장한다. 8, 9장은 각기 로빈 후드 같은 민간설화를 극화한 민속극(folk play)과 다소 저속한 내용의 짧은 희극이라 할 수 있는 소극(farce)에 할애되어 있다.

10장부터는 작자가 분명한 본격적인 창작극이 등장한다. 10장 학교 연극(school play)에 실린 작품을 영국 희곡사의 시작으로 꼽는 연구자들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그 영예는 11장 법학원 연극(inns of court play)에 실린 작품들에게 돌아간다. 『로이스터 도이스터』(*Roister Doister*, 1550)같이 학생들이 배우로 출연하고 학교행사를 위해 쓰인 전자의 작품들은, 아무래도 고전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문사들이 참여한 후자의 작품들에 비해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짙었다.

영국 극문학의 발흥기이자 최고 전성기이기도 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대표적인 극작가는 특이하게도 법학 교육기관인 법학원 출신들이 많았다. 이 해제집의 이후 항목에서 다루는 몇몇 작가들도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법학원은 일찍부터 영국 르네상스의 진원지로서 최신의 문화 흐름을 주도했고,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르면 그런 명성이 여러 방면의 재사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이르렀던 것이다. 1561년 크리스마스 축제 때 공연하기 위해 4대 법학원 중 이너 템플 법학원 소속의 노턴(Thomas Norton, 1532-1584)과 색빌(Thomas Sackville, 1536-1608)은 『고보덕』(*Gorboduc*)을 집필했다. 바로 이 작품은 근대 영국 희곡사를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받는데, 과연 그런 명성에 걸맞은 풍부한 정치적 함의와 예술적 세련미를 갖추고 있었다. 영국의 고대 고보덕 왕가의 비극적인 설화를 각색한 플롯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수준의 군주제 비판을 담고 있었으며, 양식 면에서는 그리스·로마의 고전 비극이 연상되었다. 11장에는 영국 희곡사의 이정표라 할 이 작품 외에도 영국 최초의 산문 희극인 『서포즈』(*Suppose*)가 실려 있다. 개스코인(George Gascoigne, 1535-1577)이 집필해 1566년 그레이즈 인 법학원에서 공연한 이 작품은 시인으로 더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가 아리아스토(Ludovico Ariosto, 1474-1533)의 원작을 번역한 것이었다.

12장은 궁정에서 공연된 작품(the court drama)을 모아놓았다. 각기 1564년과 1584년에 쓰인 『다몬과 피시어스』(*Damon and Pythias*) 그리고 『캄파스피』(*Campaspe*)는 모두 엘리자베스 1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궁중에서 공연되었다. 궁중은 검열제도를 통해 연극계를 규제하는 동시에 영국 희곡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후원자이기도 했다. 궁중은 몇몇 민간의 연극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했고, 가면극(masque) 같은 독특한 연극 형식을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해와 궁정연회에서 꾸준히 공연했다. 그러나 역시 엘리자베스 시대 극예술 발전의 주역은 민간의 직업극단(professional troupe)이었다. 이 선집의 마지막 13장은 킹스맨(King's Men)을 위시한 엘리자베스 시대를 대표하는 직업극단의 대표작 세 편이 실려 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킹스맨이 공연한 『헨리 5세의 유명한 승리』(*The Famous Victories of Henry the Fifth*, 1594)이다. 이 작품이 선례가 되어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국가적 사건을 극화한 역사극 장르는, 같은 소재를 다루는 셰익스피어의 연작 시리즈가 시사 하듯 곧 가장 인기있는 극장르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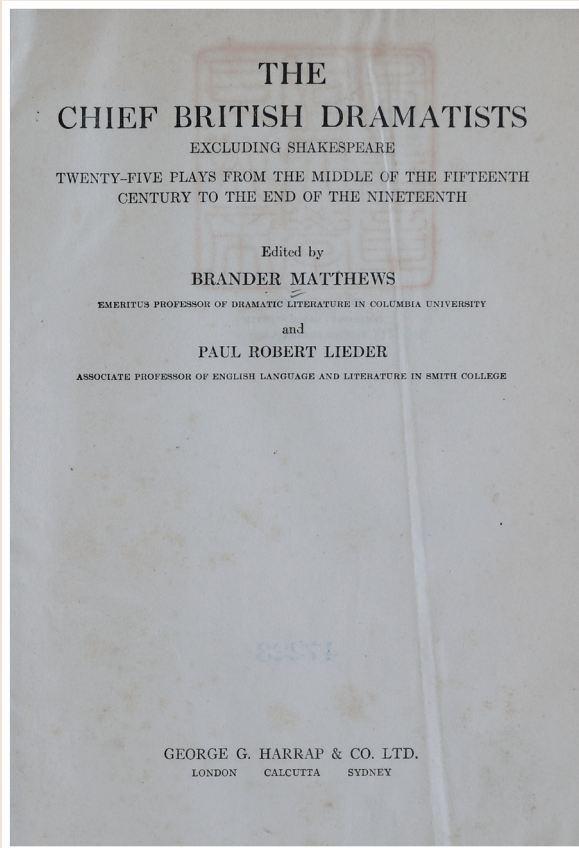
F350 167

영국의 대표 극작가 선집: 셰익스피어를 제외한 15
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25편의 희곡

*Chief British Dramatists: Excluding Shakespeare Twenty-Five Plays from
the Middle of the Fifteenth Century to the End of the Nineteenth*

Brander Matthews & Paul Robert Lieder 편집

London, Calcutta, etc. : George G. Harrap & Co., n. d..



직전 항목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희곡 선집은 직전 항목의 책과 같은 시리즈로서, 역시 영국 희곡사를 개관하는 수업의 교재로 기획되었다. 『셰익스피어 이전 영국의 대표 드라마』가 본격적인 극예술 출현의 전사(前史)에 해당한다면, 이 책은 이후 4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제외한 영국 희곡사의 대표 작품들을 싣고 있다. 이렇듯 한 권으로 영국 희곡사 전체를 아우르는 선집이었기에 작품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두 편자가 서문에서 제시하는 작품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선집에 실린 작품들은 오로지 “영국의 극작가가 쓰고 무대에서 오랜 기간 성공을 누린 희·비극 가운데 엄밀하게 골라낸” 것들이었다. 사실 그 자체로 거의 자명해 보이는 기준이지만, 편자들은 배제된 작품 부류를 밝힘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극예술의 탁월성을 가리는 본인들의 관점을 밝힌다. 이 선집은 “이른바 ‘골방극(drama for closet)’ ... 밀튼이 쓴 것과 같은 그리스 비극의 모방작 ... 스윈번의 극작품 같은 대화 형식의 운문시(poems in dialogue) ... 그리고 브라우닝 등의 시인이 쓴 희곡 작품”을 배제했다. 편자들은 단지 대사라는 외형적인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희곡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상연을 목적으로 쓰었다고 해도 희곡다운 희곡이 창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며 극예술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그들이 볼 때 성공적인 희곡은 “항시 극작가에게 작용하는 세 가지 영향, 즉 그 자신이 속한 시대와 국가의 극장, 동시대를 사는 배우, 그리고 그 시대 관객의 승인과 지지”를 의식하여 그에 창의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 거론되는, 문학사적으로 더 중요한 작가가 썼다 하더라도 “극장만의 고유한 기예”를 갖추지 못한 작품은 ‘무대’에서의 검증을 이겨낼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선집에는

“연극계에서 이름을 알리고 오랜 기간 작품이 ‘무대를 지켰던’ 직업적인 극작가의” 작품만 실려있다. 편자들은 자신들이 선정한 25편의 작품이 “영국에서 극예술의 진화과정을 예시하기에 충분하다”고 자부한다.

필자 또한 이 작품목록을 중요하게 참고해서, 다음 네 작품 『친절이 죽인 여자』, 『필래스터』, 『그녀는 정복하기 위해 굴복한다』, 『스캔들 학교』가 실린 작품집은 개별 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밖의 21편의 작품은 집필연도에 따라 다음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브롬 장원에서 발견된 아브라함과 이삭』(*The Brome Abraham and Issac*) : 15세기 중반 창작 추정, 작자 미상.

『두 번째 목동의 연극』(*The Second Shepard's Play*) : 1500년경 창작 추정, 작자 미상

『랄프 로이스터 도이스터』(*Ralph Roister Doister*) : 1550년, 니콜라스 유들(Nicholas Udall)

『스페인 비극, 혹은 히에로니모는 다시 미쳤다』(*The Spanish Tragedy; or Hieronimo is Mad Again*) : 1582~1592년, 토마스 키드

『에드워드 2세의 고난에 찬 통치와 슬픈 죽음』(*The Troublesome Reign and Lamentable Death of Edward II*) : 1593년, 크리스토퍼 말로

『십인십색』(*Every Man in His Humour*) : 1598년, 벤 존슨

『말피 공작부인』(*The Duchess of Malfi*) : 1613년, 존 웹스터(John Webster)

『오래된 빚을 갚는 새로운 방법』(*A New Way to Pay Old Debts*) : 1625년, 필립 매신저

『정직한 딜러』(*The Plain Dealer*) : 1676년, 윌리엄 위첼리(William Wycherly)

『사랑을 위해, 혹은 완전히 잃어버린 세계』(*All for Love; or, the World Well Lost*) : 1677년, 존 드라이든

- 『베니스의 보존』(*Venice Preserved*) : 1682년, 토마스 오토웨이(Thomas Otway)
- 『부인에 대한 도발』(*The Provoked Wife*) : 1697년, 존 밴브루(John Vanbrugh)
- 『세상 사는 법』 : 1700년, 윌리엄 콩그리브
- 『구혼작전』(*The Beaux' Stratagem*) : 1707년, 조지 파쿠하(George Fagquhar)
- 『리슐리외, 혹은 음모』(*Richelieu; or, the Conspiracy*) : 1839년, 에드워드 불워리튼(sir Edward Bulwer-Lytton)
- 『런던의 확신』(*London Assurance*) : 1841년, 디온 부시콜트(Dion Boucicault)
- 『성』(*Castle*) : 1867년, T. W. 로버트슨(T. W. Robertson)
- 『피그말리온과 갈라티아』(*Pygmalion and Galatea*) : 1871년, W. S. 길버트(W. S. Gilbert)
-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Lady Windermere's Fan*) : 1893년, 오스카 와일드
- 『탄크레이 씨의 두 번째 부인』(*The Second Mrs. Tanqueray*) : 1893년, 아서 윙 피네로(Sir Arthur Wing Pinero)
- 『거짓말쟁이들』(*The Liars*) : 1897년, 헨리 아서 존스(Henry Arthur J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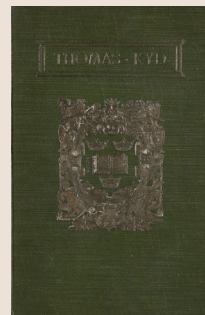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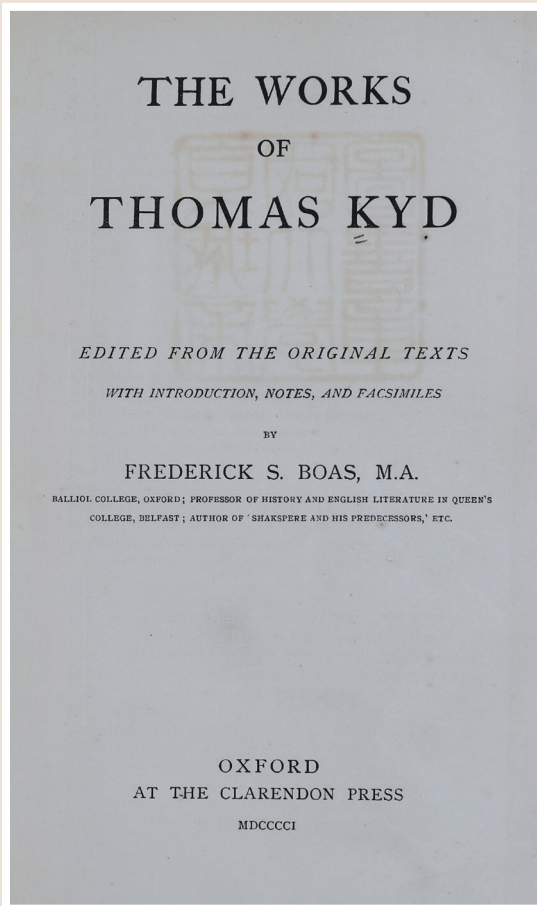
F350 127

토마스 키드 전집

The Works of Thomas Kyd

Frederick S. Boas 편집

Oxford : Clarendon Press, 1901.



키드는 번역작 혹은 공저자로서 일부만 집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을 통틀어도 대여섯 편의 희곡만을 남겼을 뿐이지만, 문학사적 위상은 대단히 높다. 이런 사정은 그의 대표작인 『스페인 비극』이 이른바 복수비극(revenge tragedy)의 전형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복수비극은 그가 활동한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이후 오랫동안 거의 모든 극작가가 시도했던 가장 인기있는 극장르였다. 이에 견줄만한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극장르로는 왕정복고기의 풍속희곡(comedy of manners)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또한 그는 종결부에 앞서 또 한 번의 극적 절정부를 두는 당시로서는 실험적인 플롯 구성을 유행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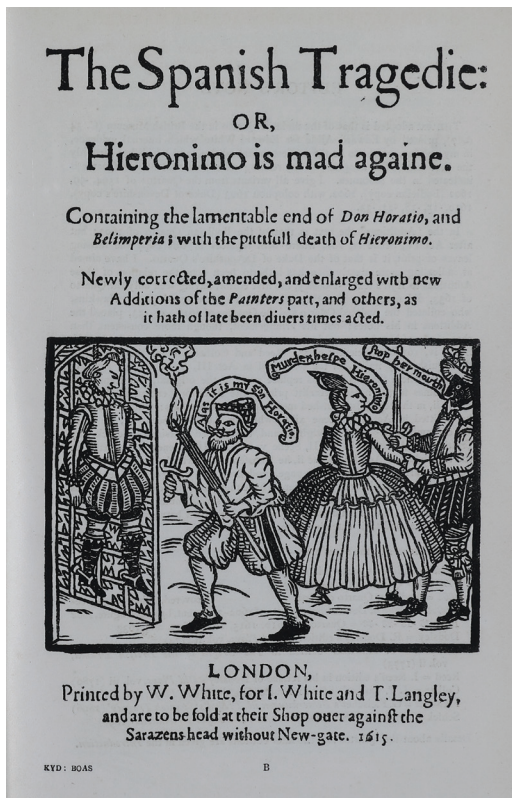
바로 셰익스피어가 키드에게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극작가였다. 흔히 최고작으로 꼽히는 『햄릿』은 『스페인 비극』에서 여러 플롯 장치를 차용하고 있는 복수비극이었고, 햄릿의 복잡미묘한 심리묘사는 키드가 창조한 히에로니모가 연상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평가이다. 더 나아가 키드는 『햄릿』의 직접적인 원형이 되는 작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작품은 유실되었지만, 관련 기록으로 보건대 두 작품의 플롯은 거의 흡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라진 작품이 흔히 ‘원래’를 뜻하는 독일어 접두사 ‘ur’를 붙여 『우르-햄릿』으로 지칭되는 이유이다.

그런 탓에 이 전집의 서문에 나오듯이 키드는 일찍부터 엘리자베스 시대 극문학의 개척자이자 유력한 ‘셰익스피어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전사를 해명하려는 열면 연구활동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19세기 말엽에 키드에 관한 연구서가 여러 권 나왔지만, 문제는 신뢰할만한 본문을 갖춘 작품집이 부재한다는 것이었다. 키드의 작품은 그간 부정확한 본문인 채로, 대개는 일부만이 여타 작가의 작품과 함께 출판되어 왔던 것이다.

이 책은 “키드의 것으로 확인되는 모든 작품을” 한권에 모은 최초의 전집이다. 이후 키드 연구의 토대를 놓는 이 과업을 맡은 이는 보아스로, 그는 이 해제집에도 수록된 『셰익스피어와 전세대 작가들』의 저자로서 당시 영국에서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전사에 대한 연구를 주도한 학자였다. 이 전집은 편자 자신이 자신의 대표 저서에서 주장한 키드의 문학사적 위상에 걸맞게 본격적인 학술적 판본으로 기획되었다. 우선 이 전집은 수록작품의 존재하는 모든 판본을 병기하고, 최초 출판 당시의 표기법을 그대로 살렸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엄격한 본문비평을 통해 키드의 것으로 알려진 작품에서 정확히 그가 쓴 부분을 가려낸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표한다. 특히, 『스페인 비극』에 관한 한 그 연구의 함의는 바로 ‘햄릿 문제’, 다시 말해 셰익스피어에 대한 키드의 영향을 가늠하는 사안과 직결된다. 그렇게 “키드의 탁월한 기예가 드러났을 때 햄릿 플롯의 효과적인 극화는 충분히 그의 예술적 역량 안에 있으며 ... 『스페인 비극』과 『햄릿』의 첫 번째 사절판을 비교해보면, 그 초기 판본에는 키드적인 스타일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다.”

이 전집에서 키드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의 수록 여부는 이 ‘햄릿 문제’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다. 이 전집에는 두 편의 번역작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명히 역자가 명시된 『코넬리아』(*Cornelia*, 1594) 외에도 역자명이 약자 T. K.로만 표시된 『가장의 철학』(*The Householder's Philosophy*, 1588)도 수록되었다. 보아스는 서지학적 연구를 통해 이 T. K.가 『우르-햄릿』의 저자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하여 최초로 명확한 키드의 작품으로 판정했던 것이다. 그밖에도 이 전집은 키드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타 희곡 작품과 단편적인 희곡 원고, 그리고 『이온 브르윈의 살해』(*The Murder of John Brewen*)라는 제목의 집필 년도가 불확실한 짧은 산문까지 총망라해서 실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보아스 자신은 절대로 키드의 작품일리 없다고 평가하는 『이에로니모 1부』(*First Part of Ieronimo*)가 실려 있다는 것이다. 서문에서 밝힌 수록의 이유가 흥미롭다. 보아스는 독자에게 걸작인 『스페인 비극』과 “이 조잡한 멜로드라마”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리하였을 때 “이 작품이 키드의 펜으로부터 나온 것일 리가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리라”는 것이었다.



도판 19. 『토마스 키드 전집』의 『스페인 비극』 원 표제

F35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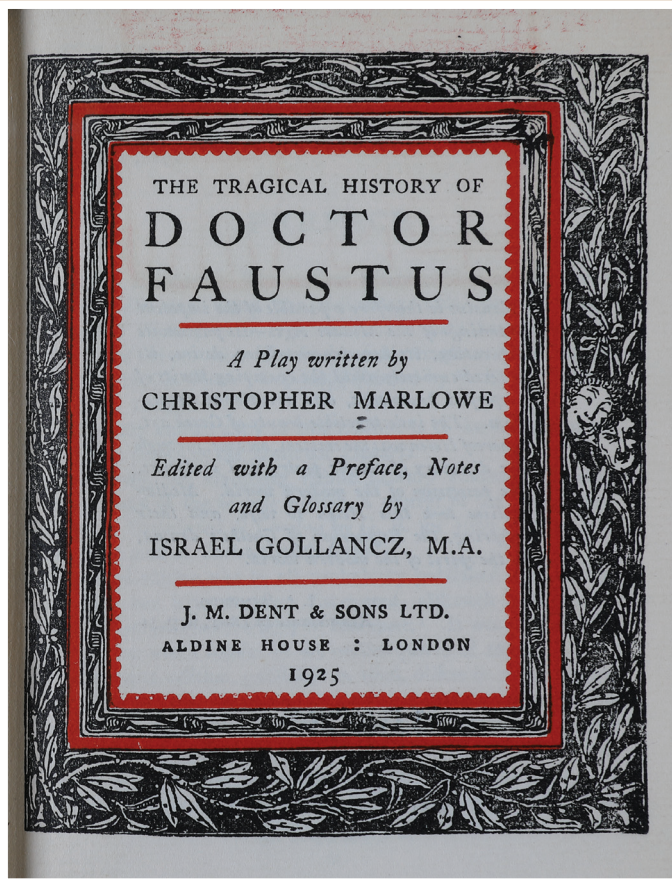
파우스터스 박사의 비극

The Tragical History of Doctor Faustus

Christopher Marlowe 저술, Israel Gollancz 편집

London : J. M. Dent & Sons, 1925.

* 1588-1592년경 집필 추정



말로는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극문학의 전성기를 연 극작가이지만, 동갑내기이기도 한 셰익스피어에 가려 오랜 기간 평가절하된 면이 있다. 혁신적인 양식을 채용하면서도 저마다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의 작품은 영국 희곡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레 요한과 예수의 관계처럼 말로는 그저 셰익스피어를 예고하는 존재로서만 논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실상 뒤집어서 셰익스피어가 말로에게 크게 빚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만큼 말로는 영국 극문학의 진정한 개척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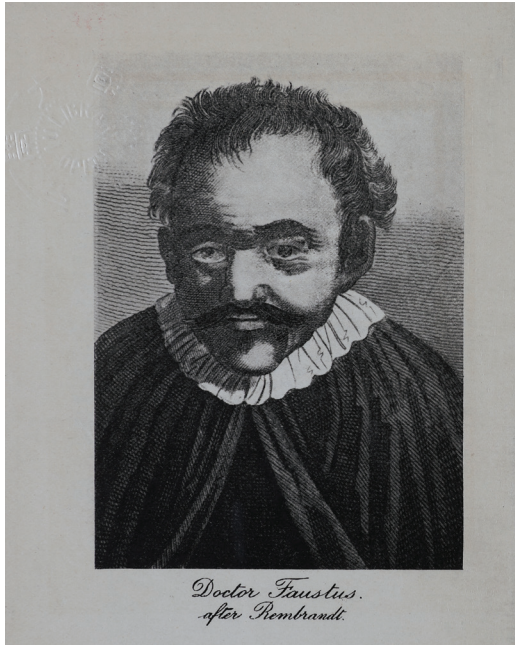
우선 그는 최초로 무운시(blank verse)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그 예술적 가능성을 증명했다. 벤 존슨이 ‘말로의 힘찬 시행’이라 지칭한 그 분방한 운율운용은 이후 영국 극문학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그는 당대의 시대정신과 공명하는 새로운 비극적 인물형을 창조해 토착의 비극전통을 제시함으로써 영국 비극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말로는 운명에 지배되는 고전비극의 세계와 달리 끊임없는 자기확장의 욕망으로부터 파멸이 잉태되는 새로운 비극 플롯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가 창안한 새로운 비극 유형은 바로 자신의 기질을 반영한 것으로 그의 삶 자체가 그만큼 극적이었다. 말로는 기존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르네상스 인이었다. 급작스런 결투로 요절하기까지 스물아홉 해의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이전 시대였으면 허용되지 않았을 여러 가능성을 씬 없이 추구했다. 말로는 캔터베리 출생으로 제화공 아버지와 교구목사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런 낮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출중한 재능 탓에 고향의 명문학교에서 고전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어서 캔터베리 대주교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 신분으로 캠브리지 대학에도 입학했다. 그리고 그는 통상의 세속적인 성공 대신 이제 막 성장해가던

연극산업에 투신해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극작가라는 영예를 거머쥌 수 있었다. 그는 아마도 내쉬(Thomas Nash, 1567-1601)와 공동집필했을 공산이 큰 『디도, 카르타고의 여왕』(*Dido, Queen of Carthage*, 1585-1587년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을 포함해 총 6편의 희곡을 남겼는데, 하나같이 영국 희곡사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그 중에서도 흔히 『탬벌레인 대왕』(*Tamburlaine the Great*, 1587-1588년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과 더불어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 바로 『파우스터스 박사의 비극』이다.

이 작품은 제목이 지칭하는 것처럼 실존인물인 독일인 파우스트(Johann George Faust, 1480-1540)의 유명한 설화에 기반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후에 괴테(Joha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와 토마스 만(Thomas Mann, 1875-1955) 또한 동일한 소재로 장편 극시와 소설을 썼다.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사는 파우스터스 박사는 모든 지식을 탐하는 자로 통상의 학문을 모두 섭렵하고서도 만족하지 못해 마술을 시도한다. 그는 동료학자로부터 기본적인 흑마술을 익힌 후, 메피스토펠리스를 불러내 계약을 맺는다. 파우스터스 박사는 영혼을 파는 대가로 24년간 메피스토펠리스를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는 계약의 후과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어 깊이 고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새로 얻게 된 힘에 탐닉하게 된다. 그는 메피스트펠리스의 힘을 빌려 지상의 곳곳은 물론이고 천상의 세계마저 여행하고,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방대한 지식을 쌓아 큰 명성을 누리게 되고, 교황이나 황제 같은 세속의 최고 권력과도 교류하게 된다. 최고 권력을 매혹시킨 파우스터스의 마술은 사물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으로,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들을 제압하기도 한다.



도판 20. 『파우스터스 박사의 비극』 첫머리 램브란트의 파우스터스 박사 초상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자 상황은 일변하여 이제 파우스터스는 메피스토피리스와 악마 일당에게 조롱거리가 되면서 마침내 참회하고 신께 자비를 구하지만 자신의 지옥행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교훈을 이끌어내는 이런 결론이 앞서 파우스터스가 보여준 파격적인 행적의 함의를 가리지는 못한다. 이 인물은 극단적이기는 해도 그야말로 르네상스를 가져온 새로운 시대정신의 화신으로 부름직했다. 말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망이 열리던 시기에 모든 한계를 부정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인물로 파우스터스를 형상화했던 것이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보유한 판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 책의 편자인 골란츠(Israel Gollancz, 1863-1930)는 셰익스피어 학자로 당대의 가장 인기있는 휴대용 셰익스피어 전집인 템플 셰익스피어(*The Temple Shakespeare*)를 편집한 이였다. 이 책 역시 J. M. 덴트 앤 선즈의 영국 고전 희극작품의 문고판 시리즈 중 한 권이다. 1897년에 나온 이 책은 주기적으로 재발간되어, 이 1925년 판본이 10쇄일 정도로 꾸준한 수요를 누린 듯하다. 이 시리즈 전체의 특징이지만 이 책 역시 휴대용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외에도 서문과 본문 주 및 어휘목록을 수록하는 등 비평판에 준하는 편제를 갖추고 있다. 서문만 하더라도 간략히 정리한 수준이기는 해도 여러 사절판의 비교와 가장 신뢰할만한 판본의 선정 근거, 플롯의 출처와 창작 경위 및 초기 공연사, 심지어 기존의 주요 연구성과까지 소개하는 등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F35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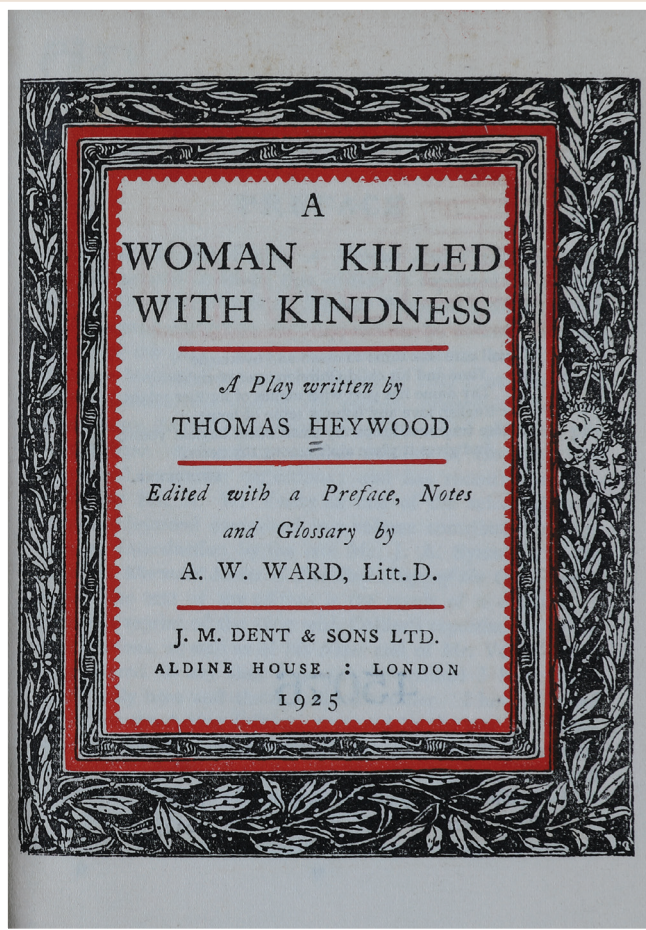
친절이 죽인 여자

A Woman Killed with Kindness

Thomas Heywood 저술, A. W. Ward 편집

London : J. M. Dent & Sons, 1925.

* 1603년 집필 추정



헤이우드는 공동으로 집필한 작품까지 포함해서 평생 220편의 희곡을 써낸 그야말로 다작의 작가이지만, 현존하는 작품은 8편의 가면극 대본을 포함 총 35편뿐이다. 초기 영국 희곡사 발전의 초석을 놓은 극작가로 평가받는 존 헤이우드(John Heywood, 1497-1580)와는 인척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헤이우드가 본격적인 극작가 생활을 시작한 것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마치고 런던으로 이주한 1596년 무렵부터였다. 그는 당대를 대표하는 거물 흥행사인 헨슬로우(Phillip Henslow, 1550-1616)에게 발탁되어 그가 운영하던 애드머럴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그 극단을 위해서 다수의 작품을 썼지만 여러 다른 극단에도 대본을 공급했다. 그는 모종의 이유로 1623년부터 1625년까지 희곡 창작을 중단했지만 그 시기 이외에는 평생에 걸쳐 쉬지 않고 창작활동을 이어갔고, 꾸준히 흥행작을 쓴 인기작가였다. 그는 극작 외에도 영국사를 비롯한 여러 주제에 관해 다수의 책을 펴낸 만능의 직업 문필가이기도 했다. 연극 관련 저술로는 고대로부터 배우의 사회적 역할과 그 나름의 영예를 논한 『배우를 위한 변명』(*An Apology for Actors*, 1612)이 유명하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감상적인 경향을 띠는 한편으로 다양한 계층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잘 재현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런 특색있는 조합이 인기의 비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작한 작가답게 여러 장르를 두루 능숙하게 다루었다. 예컨대, 그의 대표작 중에서 『서쪽의 아름다운 처녀』(*The Fair Maid of the West*, 1631)는 전형적인 모험활극이고, 『포로들』(*The Captives*, 1624)은 로맨스였다. 그밖에도 여러 편이 가면극과 신비극의 대본도 남겼으며, 역사를 연속적으로 극화한 연대기적 역사극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예컨대, 큰 인기를 끌었던 『당신이 나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If You Know Not Me, You Know Nobody*, 1605)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

헤이우드의 진정한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 『친절이 죽인 여자』는 감상적인 가족 멜로드라마이다. 이 작품은 최초로 중산층 가족을 배경으로 하는 비극중의 하나로서, 헤이우드가 이후 크게 인기를 얻게 되는 이 장르를 영국에 정착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아내 앤과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존 프랭크포드가 친구 웬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다. 웬돌이 친구 몰래 앤을 유혹하고, 앤 또한 그에게 이끌렸던 것이다. 그러나 둘의 비밀스런 관계는 곧 한 하인에게 발각되고, 아내에게 크게 분노한 프랭크포드는 집안에서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한다. 한편 이 작품에는 앤과 대조되어 정조와 헌신의 미덕을 보여주는 여성인물로 찰스 마운트포드의 누이 수잔이 등장한다. 찰스는 말다툼 끝에 (바로 앤의 오빠인) 프랜시스 액튼의 하인을 의도치 않게 살해하고 감옥에 가게 된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급한 탓에 막대한 액수의 보석금을 사기꾼 지인에게 빌리는 실수를 저지른다. 결국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 찰스는 다시 한 번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이번에는 프랜시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그는 그 보답으로 누이인 수잔을 프랜시스에게 바치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정조를 지키고, 그런 미덕에 감동한 프랜시스는 찰스의 빚을 탕감해주는 동시에 수잔에게 청혼하게 된다. 반면 앤의 경우에는 결국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완전히 절망한 앤은 일체의 식사를 거부하고, 그녀가 죽음 직전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프랭크포드는 아내와 화해하게 되지만 결국 앤은 죽고 만다. 결국 여성의 덕 = 정조가 보상받는 결말은 당대의 남성중심적인 성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만,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정조를 어긴 여성에게 비극성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당시로서는 실로 파격적인 이런 면모 때문에, 후대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여성의 죽음

이라는 감상적인 소재 아래 당대의 지배적인 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을 숨기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작품의 판본은 직전 항목의 『파우스터스 박사의 비극』과 마찬가지로 J. M. 덴트 앤 선즈 사의 영국 고전희곡 문고판 시리즈 가운데 한 권이었다. 이 책의 서문은 앞선 경우와는 달리 본문의 확정에 관한 내용보다 문학사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영국 희곡사에서 비중이 큰 극작가인데다 인물 자체도 여러 모로 흥미로운 면모를 보여주는지라 간략하게 작가 소개를 한 후에, 이 작품이 속하는 감상적인 가족 멜로드라마 장르에 대한 개관이 제공된다. 이어서 이 작품이 이 대중적 장르의 확산에 기여한 혁신적인 면모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이데올로기적 급진성에 대해서도 논한다.

F350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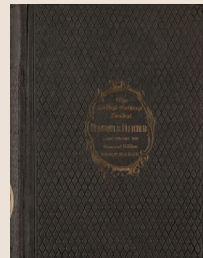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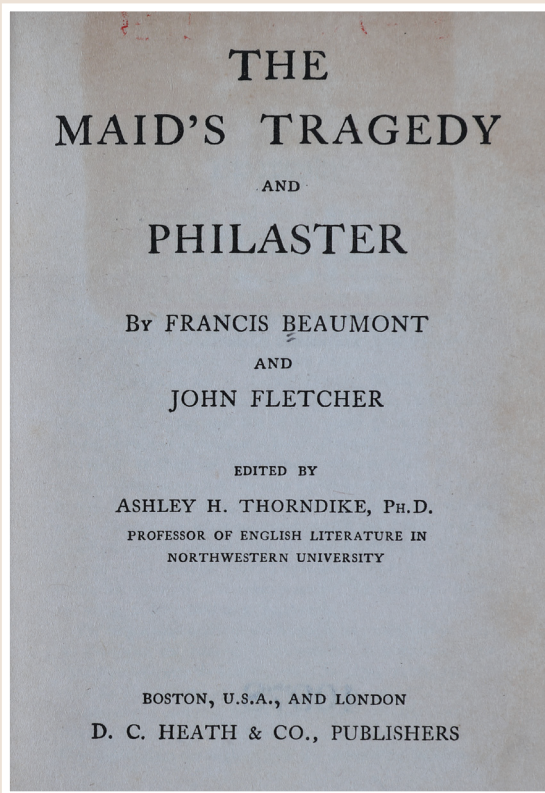
『처녀의 비극』 그리고 『필래스터』

The Maid's Tragedy and Philaster

Francis Beaumont & John Fletcher 저술, Ashley H. Thorndike 편집

Boston & London : D. C. Heath & Co., 1906.

* 두 작품 모두 1609년 집필 추정



이 작품집은 영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이었던 공저자 짝인 보먼트와 플레처 두 극작가의 대표희곡 선집이다.

보먼트는 레스터셔에서 법관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하던 중 부친의 사망으로 그곳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가업을 계승하고자 1600년 이너템플 법학원으로 적을 옮겼으나 법학이 적성이 맞지 않아 오랜 기간 방황하게 된다. 보먼트가 본격적인 극작가로서 출발한 것은 1606년 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문단의 거장이었던 벤 존슨이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였고 가까이 교류하였다. 존슨은 자주 자신의 원고를 보먼트에게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고,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여 작품을 수정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다. 그러나 그의 직업적인 극작가 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다. 1613년 보먼트는 부유한 상속녀와의 결혼을 계기로 상업적인 연극계를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왕실 행사를 축하하는 가면극의 원고를 쓰는 등 극작에 대한 관심은 이어갔다. 1616년 그는 셰익스피어보다 한 달 먼저 사망하였다.

플레처의 삶의 행보는 여러 면에서 보먼트와 겹친다. 플레처 역시 보먼트 이상의 명문가 자제로, 그의 아버지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전담 목회자로 일했다. 또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플레처 역시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596년 부친이 막대한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자 마찬가지로 학업을 중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그의 극작가로서의 등장은 셰익스피어의 경우와 비슷했다. 10여 년간 행적이 묘연했던 플레처는 1600년대 중반 홀연히 런던 연극계에 등장해서 곧장 인기 극작가로 부상했던 것이다. 이후 그는 셰익스피어의 뒤를 이어 국왕이 후원하는 킹스맨 극단의 대표 극작가가 되었으며, 대개는 보먼트를 비롯한 여러 극작가와 협력하여 수많은 작품을 집필했다.

보먼트와 플레처의 공동집필은 1607년 벤 존슨의 『볼포네』(*Volp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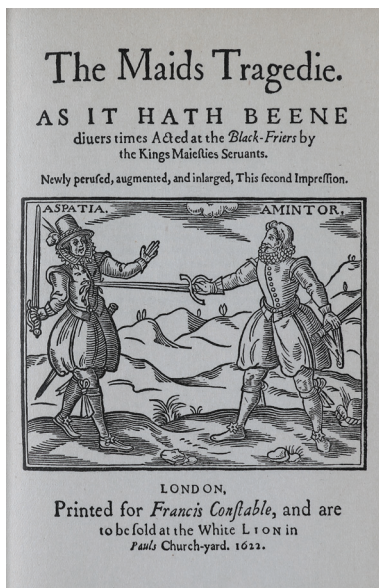
의 서문을 함께 쓴 것이 계기가 되었고, 둘의 합작 희곡이 무려 50여 편에 이른다. 그러나 긴밀하게 협력한 공동집필은 대여섯 편에 불과하며, 둘이 함께 이름을 올린 대부분의 작품에서 플레처가 주저자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나 이 선집에 실린 두 대표작 중에서 이 『처녀의 비극』만큼은 주저자가 보먼트였고, 플레처는 500행 정도만 책임졌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아민터는 아스페이서와 약혼한 사이지만 왕의 명령으로 에바드니와 결혼하게 되는데, 신혼 첫날 밤 신부가 왕의 정부였고, 그녀가 일말의 반성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민터는 복수심이 차오르지만, 신하로서 충성심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억누른다. 대신 아민터는 친구인 에바드니의 오빠 밀란셔스에게 사정을 털어놓는다. 그 후 밀란셔스는 동생을 질책하고,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죄값을 치루기 위해 왕을 살해한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시해사실을 알게 된 아민터는 공포에 질린 모습만을 보여준다. 절망한 에바드니는 남편 앞에서 자결하고 만다. 한편 아민터에게 버림받은 아스페이서는 남자로 위장해서 그에게 결투 신청을 하고 결국 그의 손에 죽고 만다. 이렇듯 끔찍한 폭력 장면이 연이어 나오고 주요인물이 여럿 죽고 마는 이 작품은 엘리자베스 시대 크게 유행했던 복수비극의 계보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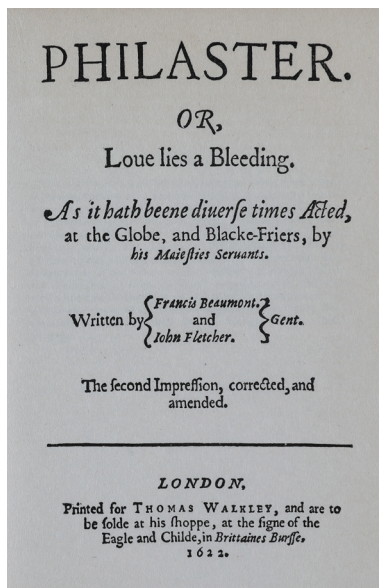
반면 『필래스터』는 비극적 상황이 고조되다가 희극적 결말로 반전되는 희비극(tragi-comedy)으로서 이후 스튜어트 시대에 이 장르가 유행하는 토대를 놓은 작품이다. 작품은 가상의 시실리 왕국을 배경으로 한다. 이 나라는 직전 대에 나폴리 왕국에 병합되어 기존의 왕족은 다 축출되었다. 다만 왕위계승자인 주인공 필래스터만은 그에 대한 신민의 열렬한 지지 때문에 왕궁에서 계속 사는 것이 허용되었다. 아들이 없는

현재의 왕은 필래스터에게 왕위가 가지 않도록 딸인 아레수사를 파라몬드라는 스페인 왕자에게 시집보내 그를 후계자로 삼을 계획을 꾸민다. 그러나 딸은 이미 필래스터와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녀는 부왕의 음모를 막기 위해 파라몬드와 메그라라는 귀족 여성의 관계를 폭로한다. 분노한 파라몬드는 그녀가 (실상은 그녀를 돕기 위해 필래스터가 보낸) 시종 벨라리오와 은밀한 사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린다. 이 소문을 사실로 믿은 필래스터는 사냥 중에 만난 그녀를 칼로 찌른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를 저지하자 두 남자는 서로 싸우고 둘 다 부상을 입게 된다. 다행히 필래스터는 그곳을 빠져나오고 아레수사 역시 궁정 귀족들에게 구조된다. ‘연인이 피를 흘리고 누워있다’(Love Lies a Bleeding)는 비극적인 작품의 부제는 오해가 빚은 이 끔찍한 상황을 예고한다.

이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두 남녀 주인공의 상처는 치명적이



도판 21. 『처녀의 비극』의 원 표제



도판 22. 『필래스터』의 원 표제

지 않아 둘 다 곧 회복하게 된다. 왕은 필래스터를 체포해 사형을 언도하고, 아레수사에게 그를 돌보게 한다. 왕은 짐작한 대로 둘이 혼인관계를 맺자 아레수사에게도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파라몬드를 인질로 잡아 두 주인공의 처형을 저지하고, 또한 벨라리오가 실은 남장한 여성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파라몬드의 사악한 계략이 들통나게 된다. 파라몬드가 스페인으로 사라지면서 공주 아레수사의 남편인 필래스터가 정당하게 왕위를 차지하면서 작품은 끝을 맺는다.

F350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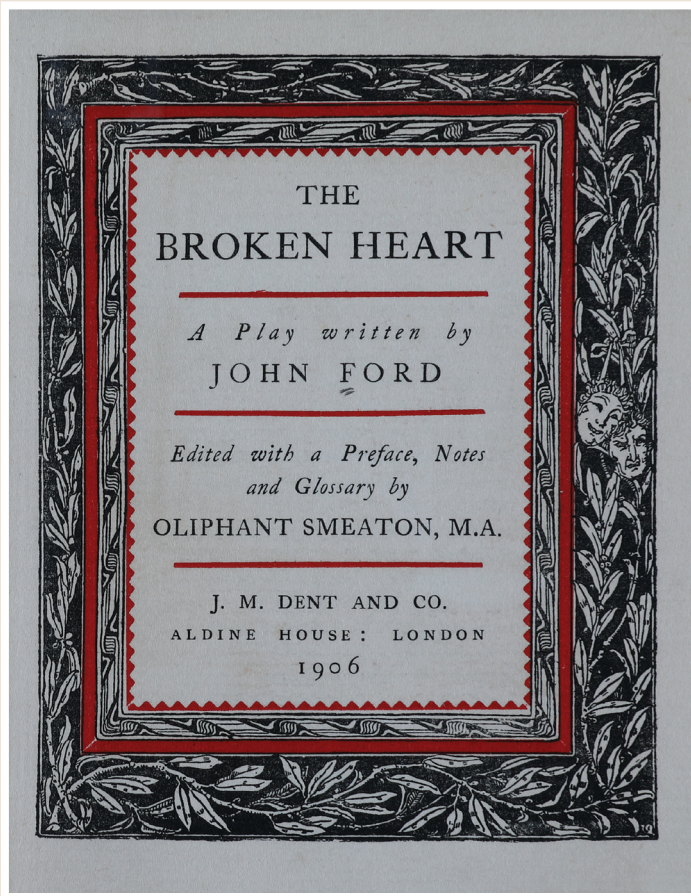
무너진 마음

The Broken Heart

John Ford 저술, Oliphant Smeaton 편집

London : J. M. Dent & Sons, 1906.

* 1629년 집필 추정



퍼드(John Ford, 1586-1639)는 찰스 1세 시대(1625-1649)를 대표하는 극작가 중 한 명이다. 영국 남서부 데본 출신인 그는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런던으로 상경해 미들템플 법학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당시 그곳은 다수의 극작가를 비롯한 문사들이 교류하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그가 문필가로 삶의 경로를 바꾼 것은 그곳에서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1606년 경 그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시작을 시도하고, 한동안 여러 편의 산문집과 시집을 출판했다.

퍼드가 본격적으로 극작활동을 시작한 것은 1620년 무렵부터였다. 처음에 그는 테커, 웹스터(John Webster, 1580-1632), 로울리(William Rowley, 1585-1626) 등 동년배 선배 극작가와 공동으로 작품을 썼지만, 16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홀로 작품활동을 할 만큼 극작가로서 성장하여 『가엽게도 그녀가 창녀라니』(*It's Pity She's Whore*, 1631)나 『숙녀의 시련』(*The Lady's Trial*, 1638) 같은 대표작을 내놓게 된다.

퍼드는 16, 17세기 유명 극작가 중에서도 유독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학계에서 그는 자주 수수께끼 작가로 불린다. 알려진 전기적 정보 중에는 퍼드가 각종 이상심리에 집요한 관심을 가졌으며, 근대 이전 심리학의 대표 저서인 버튼(Robert Burton, 1577-1640)의 『멜랑콜리의 해부』(*The Anatomy of Melancholy*)의 열렬한 애독자였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근친관계가 등장하는 『가엽게도 그녀가 창녀라니』를 위시한 대표작 다수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심리묘사에 강점을 보이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관심사와 관련이 있지 않다.

『무너진 마음』은 『가엽게도 그녀가 창녀라니』와 더불어 퍼드의 작가적 명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작이며, 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여러 특징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도 고귀한 신분과 더불어 탁

월한 덕성을 갖춘 여자 주인공이 진정한 사랑과 강요된 결혼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으로부터 주요 인물들 대부분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이 도출된다.

작품의 배경은 고대 그리스 시대이며 스파르타의 왕 아미클라스의 딸 켈렌사가 주인공이다. 극적 상황의 발단은 후에 그녀의 연인이 되는 젊은 장군 이소클래스의 가정사로부터 비롯된다. 가문의 영예를 중시하는 그는 누이 펜시아가 약혼자 오르길러스 대신 더 신분이 높은 귀족인 바사너스와 강제로 결혼시킨다. 그러나 의심 많은 폭군과 같은 바사너스는 결혼 즉시 펜시아를 집안에 감금시킨다. 한편 버림받은 오르길러스는 아테네로 출타 중이라고 주변에 알린 후 스파르타에서 숨어 지내며 복수를 획책한다. 전쟁에서 개선장군으로 귀환한 이소클래스는 바사너스의 실상을 알게 되어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친구인 프로필러스와 오르길러스의 누이 유프레이니아 간의 결혼을 지지한다. 이소클래스 본인은 공주 켈렌사에게 구애하고, 그녀 또한 아르고스의 왕자 대신 그를 선택한다. 이후 여러 주요 인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죽음으로써 순식간에 비극적인 결말이 도래한다. 우선 감금에 저항해 단식 중이던 펜시아가 결국 죽고 만다. 이어서 오르길러스는 켈렌사와의 결혼식 직전에 기계장치가 설치된 의자로 이소클래스를 유인해 그를 살해한다. 켈렌사는 식전 축하연에서 춤을 추는 중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이어 두 인물의 죽음을 연이어 알게 된다. 이제 스파르타의 여왕이 된 켈렌사는 우선 오르길러스를 사형에 처한 후에 원래 정혼자였던 아르고스의 왕자에게 왕위를 이양한 후 슬픔에 못 이겨 죽고 만다.

이 책 또한 앞서 소개한 여러 권의 책처럼 J. M. 덴트 앤 선즈에서 발간한 영국 고전 희극작품의 문고판 시리즈 중의 한 권이었다. 이 책의 서문은 시리즈의 다른 책과는 달라 간략한 작가 소개 이후 인물분석

이 주를 이룬다. 시리즈의 정체성이라 할, 서문과 본문 주 및 어휘목록이라는 기본적인 편제를 지키는 한에서 편자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었던 듯 하다.

F350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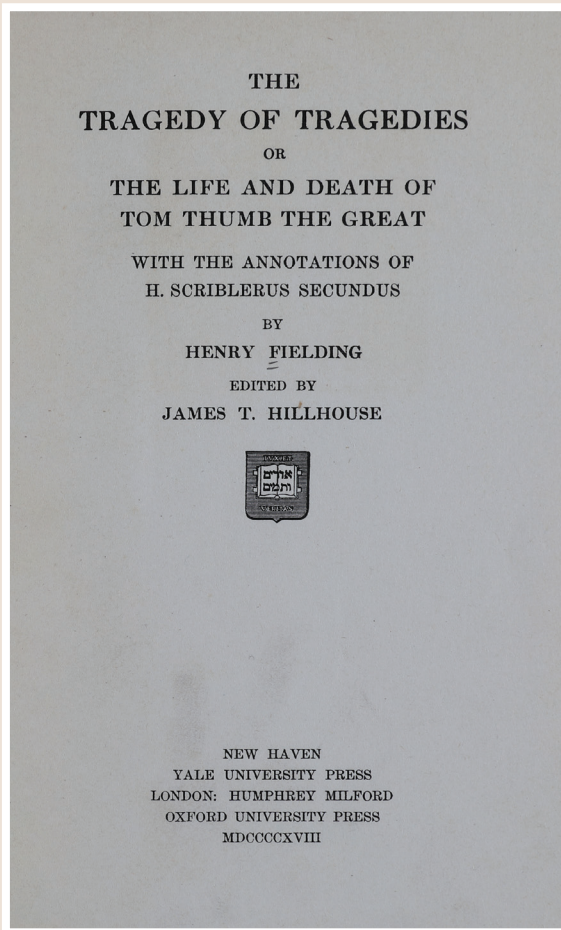
비극의 비극 혹은 위대한 톰 섬의 삶과 죽음

The Tragedy of Tragedies or the Life and Death of Tom Thumb the Great

Henry Fielding 저술, James T. Hillhouse 편집

New Haven,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Humphrey Milford, 1918.

* 1731년 집필



필딩은 리차드슨(Samuel Richardson, 1689-1761)과 더불어 18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가이다. 그의 출세작인 『조셉 앤드류스』(Joseph Andrews, 1742)와 말년의 대작 『톰 존스』(Tom Jones, 1749)는 풍자적인 풍속소설의 전범으로서, 후대 소설 장르의 주요 발전경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뜻밖에도 필딩은 창작경력을 극작으로 시작했다. 명문 귀족가문의 자제로 태어난 그였지만 20대 초반 집안의 경제적 지원이 끊기면서 네덜란드에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호구지책으로 연극계에 투신했던 것이다. 그 후 모든 연극대본에 대한 검열이 입법화되어 공연계가 위축되는 1737년까지, 필딩은 대략 10년간 20편이 넘는 희곡을 썼다. 그러나 그 중 어떤 것도 영국 희곡사의 주요 작품으로 꼽히지 않으며, 당대에도 그는 극작가로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 책의 편자 역시 서문에서 이 작품은 필딩의 것이라는 이유로 오늘날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비극의 비극』이 흥미로운 것은 무엇보다도 필딩이라는 천재의 창의성이 투입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23-24세 무렵 그의 천재성은 아직까지는 10년에서 15년 후 위대한 소설을 낳게 되는 성숙한 분방함에 이르지 못했다.” 동시에 편자는 필딩의 극작 활동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작품에 관한 기존 통념에 대한 수정을 촉구한다. 편집자 서문에 따르면 “그의 희곡은 하룻밤 사이 버려진 담배포장지에 급히 쓰였다”는 것이 극작가 시절 필딩에 대해 널리 통용되는 이미지였다.

그러나 적어도 『비극의 비극』만큼은 그런 통념에서 벗어나는 작품이었다. 필딩은 1730년에 썼던 『위대한 톱 섬』을 그 이듬해 전면적으로 고쳐 썼고, 그 과정에서 분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더 왕의 궁정을 배경으로 난쟁이 톱 섬(thumb, 엄지손가락)이 공주의 배우자가 되

나 시기하는 주변인물에 의해 살해되는 주된 플롯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작을 거치면서 당대에 유행한 영웅적 비극(heroic play) 장르에 대한 풍자가 더욱 예리해졌다. 또한 필딩은 이 작품을 출판하면서 가상의 평론가 이름을 빌려 자신이 패러디한 기존 작품에 대한 주를 달기도 했다. 그렇다면 필딩의 극작 활동은 후에 위대한 소설을 낳는 값진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조셉 앤드류스』는 리차드슨의 『파멜라 혹은 미덕의 보상』(*Pamela; or Virtue Reward*, 1740)의 패러디적인 성격이 강했고, 이후로도 기존 소설 관습을 비틀어 풍자하는 것은 줄곧 그의 예술적 장기였다.

이렇듯 이 책은 영국 문학사의 유력한 통념을 재고하는, 그 나름의 야심찬 목표 아래 기획되었고, 그런 출간의도에 부합하는 학술적인 비평판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40여 쪽에 이르는 긴 편자 서문은 원본과 개작본을 세밀하게 비교하여 필딩의 개작 의도를 읽어내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그밖에 이 작품의 굴곡진 공연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담고 있다. 또한 작품의 본문 구성 측면에서 두 판본 모두를 실었는데, 『위대한 톰 섬』의 경우는 1730년 이후 최초의 출판이었다. 다만 애초에 두 판본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나란히 인쇄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분량 차이로 인한 출판 기술상의 여러 번거로운 문제 때문에 포기하였다고 한다. 이런 비평판에서 기대되는 본문 자체의 정정이 없기는 했지만, 애초에 원작자 본인이 처음 출판할 때 직접 주를 달 정도로 신경을 쓴 만큼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여러 번 출간된 『비극의 비극』의 경우 여러 판본 간의 (대개는 사소한) 차이는 모두 밝혀놓았다. 관련 서지 또한 20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본문 등의 5개 항목으로 나뉘어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공되었다.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역시나 세 번째 ‘필딩에 의해 특정되어 패러디된 작품들’(Plays specifically parodied by Fielding) 항목이다.

F35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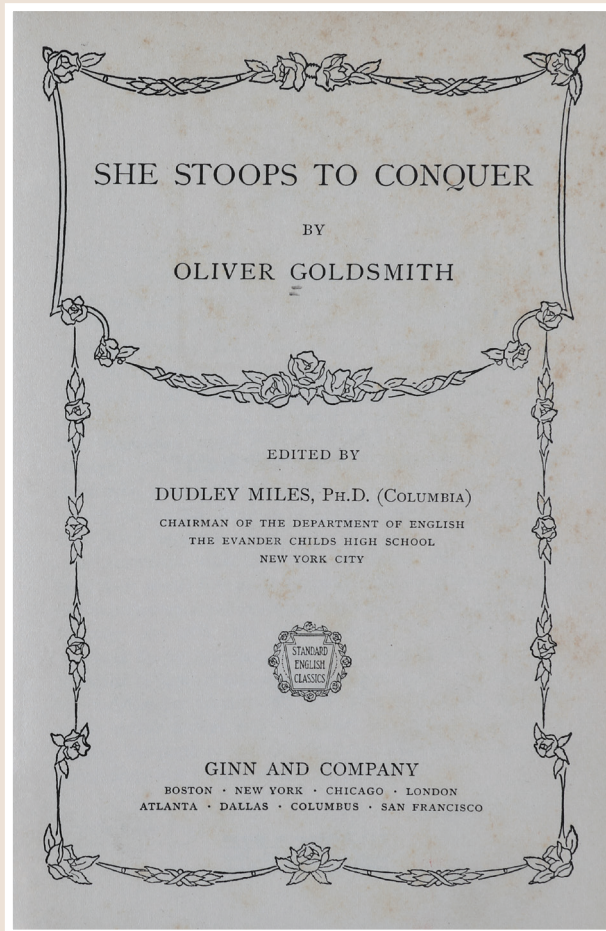
그녀는 정복하기 위해 굴복한다

She Stoops to Conquer

Oliver Goldsmith 저술, Dudley Miles 편집

Boston, New York, etc. : Ginn and Company, 1917.

* 1771년 집필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 1728-1774)는 원래 출판사의 주문에 따라 단기간에 다양한 형태의 출판원고를 공급하던 이른바 그럽가(Grub St.)의 핵 라이터(hack writer), 즉 무명의 직업문필가였다. 그러나 공들여 쓴 몇 편의 시작품이 새뮤얼 존슨 같은 당대의 저명문사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들의 후원 속에서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생애 말년에는 여러 장르에 걸쳐 영문학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남겼다. 우선 소설로는 『웨이크필드의 목사』(*The Vicar of Wakefield*, 1766)를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고, 영국 농촌의 붕괴를 생생히 묘사한 『버려진 마을』(*The Deserted Village*, 1770)이라는 장시 역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희곡은 골드스미스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장르이고 몇 편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극작가로 기억될 만큼 그의 작품은 영국 희곡사의 정전 반열에 올라있다. 『그녀는 정복하기 위해 굴복한다』는 그가 『선량한 사람』(*The Good-Natured Man*, 1768)에 이어 집필한 마지막 극작품이다. 영국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희극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작품이며, 여러 차례 영화로도 제작되는 등 아직까지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5막으로 이루어진 이 장막극은, 당대의 주류 장르인 감상적인 희극의 단순한 도덕률을 조롱한다. ‘어느 날 밤의 실수’(*The Mistakes of a Night*)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이 작품은 경쾌한 소극풍의 작품으로, 인물들간의 오해가 빚어낸 터무니없는 극적 상황의 연속이다. 줄거리를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하드캐슬은 정숙하기로 소문난 딸 케이트를, 수줍음이 많다고 알려진 친구의 아들 말로우에게 시집보낼 계획으로 그를 초대한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찰스가 워낙 숫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하드캐슬 부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토니 럼킨을 자신의 피후견인이자 케

이트의 단짝 친구이기도 한 콘스탄틴 네빌과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말로우의 친구인 헤이스팅스와 연인 관계이며, 토니와는 서로 싫어하는 사이이다. 희극적인 소동은 토니에게 속아 말로우와, 콘스탄틴을 만나러 그와 동행한 헤이스팅스가 하드캐슬의 집을 여관으로 믿으면서 벌어지는데, 뜻밖에도 그 황당한 상황 덕에 케이트와 말로우가 맺어지게 된다. 말로우는 소문과 달리 하녀로 위장한 케이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데, 그는 실제로는 지체 높고 얌전빠는 여성들에게만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다. 한편 토니는 여러 속임수와 술책을 써서 하드캐슬 부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콘스탄스와 헤이스팅스를 맺어준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보유한 판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이 책은 교재로 기획되었고, 그에 걸맞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편자는 서문에서 영국 희곡사를 통틀어 가장 “친숙하고 계속해서 큰 즐거움을 주는 고전” 중의 하나이자 “골드스미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이 희곡을 “중등 교육과정의 영어 시간”에 가르치기 좋도록 이 책을 냈다고 밝힌다. 그런 출간 목적에 맞게 이 책은 “서론과 주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대신 “이 걸작의 학습이 유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되고자 ... 최근 고등학교 문학 수업의 경향을 반영해” “참고도서 목록(Helpful Books)과 공부를 위한 질문과 토론 주제(Questions and Topic for Study)” 목록을 실었다.



도판 23. 『그녀는 정복하기 위해 굴복한다』 52쪽의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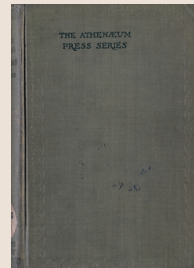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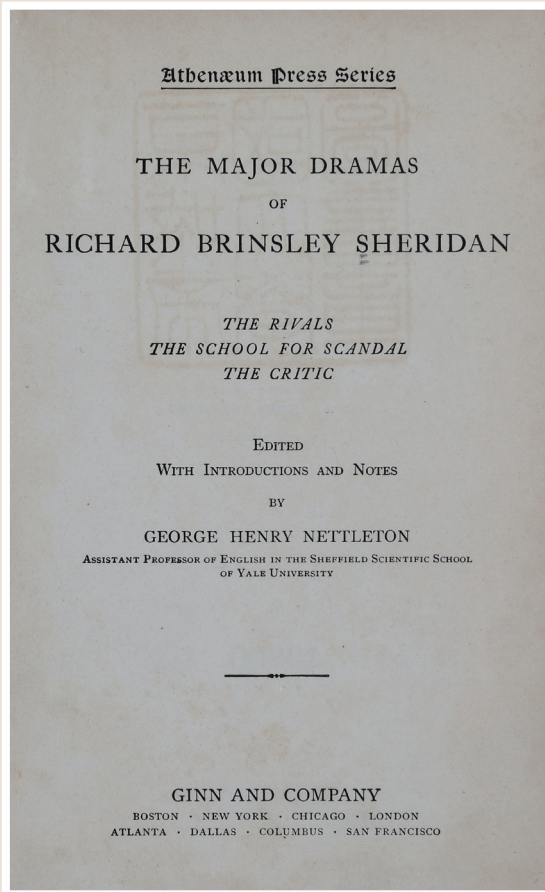
F350 27

리차드 브린슬리 셰리든의 대표희곡 선집:
『연적』, 『스캔들 학교』, 『비평가』

The Major Dramas of Richard Brinsley Sheridan: the Rivals, the School for Scandal, the Critic

Richard Brinsley Sheridan 저술, George Henry Nettleton 편집

Boston, New York, etc. : Ginn and Company,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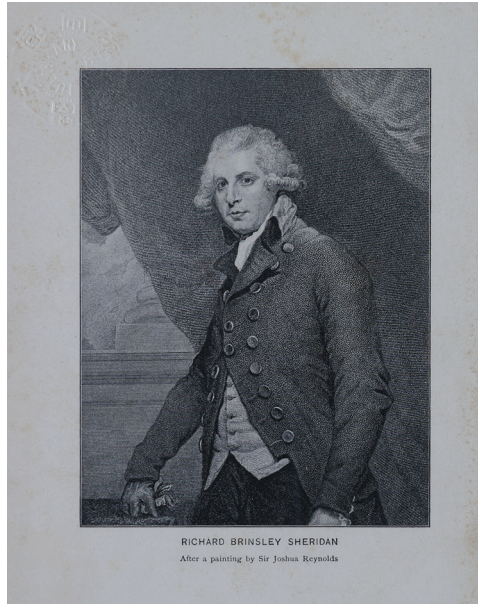


세리든은 18세기 후반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극작가 중의 하나였으며, 문학사적인 위상 또한 줄곧 큰 부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는 영국 극문학의 주류전통이라 할 풍자적인 풍속희곡을 대표하는 극작가 중 한명으로, 그 장르의 정점이라 할 콩그리브와 19세기 후반 그 장르를 다시 부흥시킨 와일드를 잇는 존재이다. 세리든은 집안 내력부터 극작가로서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더블린의 유명한 연극인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는 성공한 배우이자 극장운영자였고 소설가였던 어머니는 자신의 소설을 각색해서 꽤 인기있는 희곡을 여러 편 내놓은 바 있었다.

세리든은 20대 중반 본격적인 극작활동을 시작했을 때 곧장 당대 최고의 인기 극작가로 등극하게 된다. 1775년 런던 연극계의 중심인 코벤트가든에서 상연한 데뷔작 『연적』이 대성공을 거두었고, 연이어 여러 편의 희곡을 같은 극장에서 올릴 수 있었다. 순식간에 부를 거머쥔 세리든은 이듬해 역시 유명 극장인 드루어리레인 극장의 지분을 대배우이자 흥행사였던 개릭(David Garrick, 1717-1779)으로부터 사서 그 극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었다. 『스캔들 학교』(1777) 그리고 『비평가』(1779) 등 여타 대표작은 모두 이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결코 짧지 않은 생애를 산 세리든이었지만 그의 대표작들은 모두 극작가로 데뷔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쓰였다. 창작에 전념했던 시기가 길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780년 그는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드루어리레인 극장의 운영은 계속 맡았지만 이후 삶의 중심이 정치로 옮겨갔다. 그는 1806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정치인으로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누릴 정도로 의정활동에 헌신했다.

이 선집에 실린 세 편의 작품들 중에서 한 편만 대표작을 골라야 한다면 역시나 세리든의 특출한 장기인 풍속희극 장르에 속하는 『스캔들 학교』일 것이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주인공인 찰스



도판 24. 『리처드 브린슬리 셰리든의 대표희곡 선집』 책 머리의 셰리든 초상

서피스는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성정은 착한 젊은이다. 그의 형제인 조셉은 주변 평판은 좋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음험한 계락을 동원하는 위선자일 뿐이다. 그는 부유하고 늙은 귀족의 젊은 아내인 티즐 부인을 유혹하는 중이다. 형제의 삼촌 올리버 서피스 경은 둘 중 합당한 상속인을 고르기 위해서 위장한 채 둘을 시험해본다. 결국 조셉과 대비되는 찰스의 진가가 드러나면서 주인공은 부와 진정한 사랑 모두를 쟁취하게 된다.

이 선집은 최선의 학술적 비평판을 지향하고 있고, 그에 걸맞은 편제를 갖추고 있다. 편자인 네틀튼(George Henry Nettleton, 1874-1959)은 서문에서 이 판본의 “주된 발간목적이 셰리든 당대의 자료에 근

거해서 이 극작가의 주요 작품에 대한 비평적 연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당대의 자료야말로 “작품의 난점을 풀도록 해주는 유일한 열쇠”라는 신념으로 무려 “1000권이 넘는 당대의 회고록, 일기, 소설, 에세이, 시, 신문, 잡지”를 직간접적으로 참고해서 작품별 해제와 본문 주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레이(William Fraser Rae, 1835-1905)의 선행 연구에 기대고 있고,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는 사망 직전 발간한 방대한 분량의 셰리든 전기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 앞서 작가의 자필 원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기반해 기존 본문을 대폭 개정한 작품집을 출간했다. 네틀튼은 레이가 개선한 본문의 정확성을 상찬하며, 그대로 자신의 선집 본문으로 채택했다. 레이의 전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로 평가하며, 이 선집에 축약본을 실고 있다.

동시에 네틀튼은 셰리든 연구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여에 대한 자부심을 감추지 않는다. 900쪽에 육박하는 레이의 전기가 셰리든의 삶을 충실하게 복원해 놓았고 작품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더라도, 작품 자체의 해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셰리든의 문학사적 위상에 비추어 기이하게도 지금까지 비평적인 주나 해제를 단 작품집이 별로 없었으며, 그마저도 대개는 이전 연구자의 오류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네틀튼은 자신의 선집으로 인해 비로소 영국 희곡사 연구의 결정적인 공백이 메워질 수 있었다고 자평한다.

F350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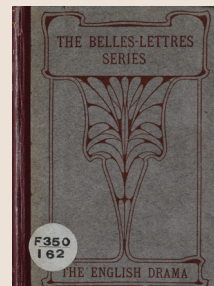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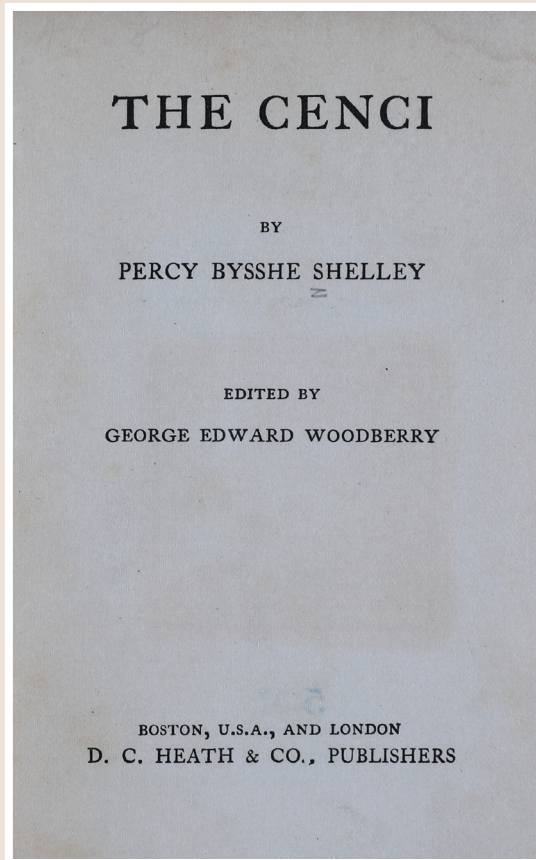
첸치 일가

The Cenci

Percy Bysshe Shelley 저술, George Edward Woodberry 편집

Boston & London : D. C. Heath & Co., 1909.

* 1819년 최초 발간



이 작품은 『풀려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 1820)와 더불어 셸리의 가장 유명한 극작품이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기 전 몇 해 동안 희곡 창작에 몰두해서 연이어 이 두 작품을 발간했는데, 두 작품 모두 그의 대표작이자 영국 문학사 전체로 보아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주지하다시피 셸리는 시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흔히 영국 낭만주의 운동의 주창자인 워즈워스와 콜리지를 이어 바이런, 키츠(*John Keats*, 1795-1821)와 더불어 대표적인 2세대 낭만주의 작가로 분류된다. 공교롭게도 세 명 모두 요절하면서, 결국 보수화된 전 세대 시인들보다 이들에게 전형적인 낭만주의적 천재의 후광이 따라다니게 되었다. 키츠가 짧은 생애 동안 시작에만 몰두했다면, 셸리는 생애 후반에 깊이 교류했던 바이런과 마찬가지로 격렬했던 삶의 족적을 남겼다.

셸리는 바이런과 마찬가지로 귀족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작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급진적인 사상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어 특권과 동떨어진 고난에 찬 삶을 살게 된다. 그는 무신론을 옹호하는 글을 쓴 것이 발각되어 옥스퍼드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고, 이어서 당시의 도덕관념을 거스르는 자유로운 연애활동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으면서 부자관계마저 단절되었다. 이후 그는 집안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아일랜드 독립의 대의를 옹호하는 등의 급진적인 정치 팸플릿을 써 민중의 각성을 도모했다.

1810년대 내내 이어진 그의 왕성한 시작 활동은 이런 불안정한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다수의 작품은 그의 정치사상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시인으로 셸리의 이름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우화 형식의 장시 『맵 여왕』(*Queen Mab*, 1813)은 군주제와 종교 등 여러 억압적 제도에 대한 비판에 이어 그런 악덕으로부터 해방된 미래 인류의 비전을 제

시하고자 했다. 한편 그는 시의 스타일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복잡한 운율 형식을 신축자재(伸縮自在)하게 운용하는 탁월한 시적 기예는 영문학사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정치적 신념이 좌절되는 경험이 반복되고 건강도 악화되면서, 셸리는 1818년 바이런을 따라 두 번째 부인인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1818)의 저자로 유명한) 메리 셸리(Mary Shelley, 1797-1851)와 함께 이탈리아에 정착한다. 일종의 자발적인 망명생활 중 그는 새로운 장르인 희곡에 도전하고, 생애 후반기 몇 년을 몰두하여 나온 결실이 바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와 『첸치 일가』이다. 셸리가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를 평생의 역작으로 자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작품 속 프로메테우스는 인간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셸리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상주의를 총결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첸치 일가』는 여러모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와 대비되는 작품으로 구상되었다. 『첸치 일가』는 그리스 비극을 고쳐 쓴 『풀려난 프로메테우스』와 달리 잘 알려진 실제 역사적 사건에서 소재를 취하고 있으며, (서정극(*lyrical drama*)이라는 셸리 스스로 규정한 장르명처럼) 공연을 염두에 두지 않은 『풀려난 프로메테우스』와 달리 무대극을 지향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어떠한 구원의 전망도 부재하는 극도로 암울한 세계를 그리고 있었는데, 셸리 스스로 “슬픈 현실”만을 담았다고 말하는 이런 극적 상황은 이전 시기 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던 정치적 이상주의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다음은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이다. 극의 배경은 1599년의 로마로, 가히 악마적인 첸치 공작과 그의 살인을 모의하는 여타 가족들의

대립 상황이 플롯의 축이 된다. 도입부에서 첸치 공작은 자신이 연루된 살인사건에 대해 추기경에게 추궁당하고 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는 협박을 받지만, 도리어 태연하게 독신(瀆神)의 말마저 내뱉으며 제안을 거절한다. 네 아들과 딸 베아트리체는 모두 첸치 공작이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그가 먼저 아들들을 죽이고 딸을 강간할 음모를 실행한다. 우선 그는 아들 둘을 살아남기 힘든 전쟁



도판 25. 『첸치 일가』 첫머리에 실린, 실존인물 베아트리체 첸치의 삽화

에 보내고, 과연 계획대로 그들은 시신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남은 두 아들은 베아트리체를 지키고자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두려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결국 베아트리체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야 형제는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꾸미게 된다. 그들 자신이 직접 행동에 나선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하인들에게 자고 있는 공작을 죽일 것을 명하지만 역시 실패하고 만다. 마침내 베아트리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첸치 공작을 죽이고자 하지만, 이를 알아챈 형제들은 그녀에게 칼을 빼앗고 대신 하인들을 시켜 마침내 공작을 죽일 수 있었다. 살인 직후 교황의 명을 받은 추기경이 찾아오자 가족들은 공작이 살해된 경위를 털어놓는다. 처음에 추기경 본인은 베아트리체에게 동정을 느끼지만 결국 관련자 모두는 교황청 감옥에 수감되고 심문을 받게 된다. 작품은 끝내 회개를 거부한 베아트리체가 형장에 향하는 장면으로 끝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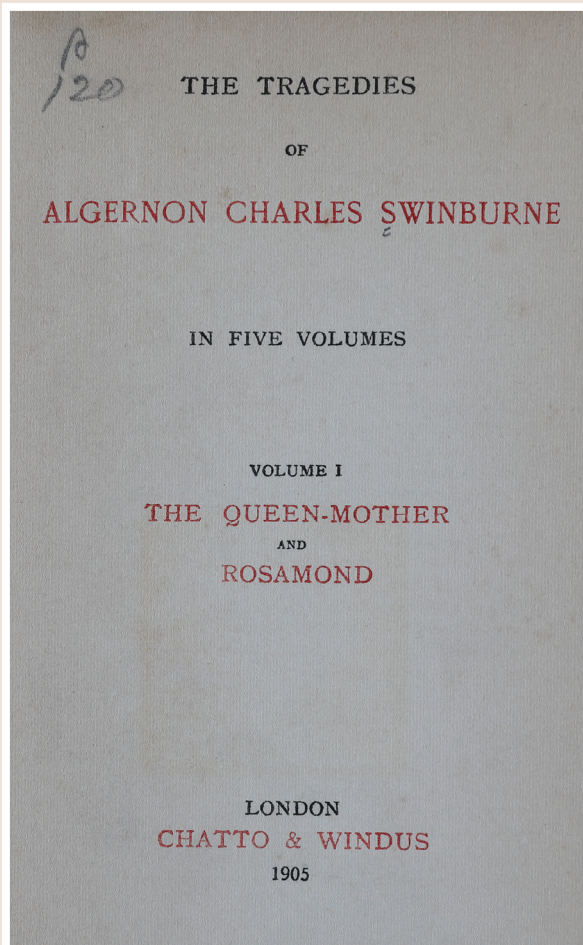
F350 190 1-5

앨저논 찰스 스윈번의 비극

The Tragedies of Algernon Charles Swinburne

Algernon Charles Swinburne 저술

London : Chatto & Windus, 1905-1906.



스윈번은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유명하지만, 앞서 몇 차례 언급되었듯이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엘리자베스조 극작가에 대한 여러 권의 연구서를 집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방하여 직접 여러 편의 희곡을 쓴 극작가이기도 했다. 사실 그는 창작에 전념하기 시작했던 20대 중반부터 시작과 희곡창작을 병행해서 이미 1860년에 운문 희곡인 『여왕 어머니』(*Queen Mother*)를 완성했다. 그는 시인으로의 명성을 가져다준 『칼라이돈의 애틀란타』(*Atlanta in Calydon*, 1865)의 출판에 앞서 먼저 자신의 극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것이다. 비록 그의 극작품은 시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스윈번은 극작활동을 꾸준히 이어갔고, 창작생활을 마무리하는 1905-1906년에 5권 분량으로 이 전집을 출간했다.

각 권에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 1권. 『여왕 어머니』, 『로자몬드』(*Rosamond*)
- 2권. 『체이스트라드』(*Chastelard*), 『보스웰』(*Bothwell*) 1-2막
- 3권. 『보스웰』 3-5막
- 4권. 『메리 스튜어트: 비극』(*Mary Stuart: a Tragedy*)
- 5권. 『로크린』(*Lochrine*), 『자매들』(*The Sisters*), 『마리노 팔리에로』(*Marion Faliero*), 『로자문드』(*Rosamund*)

『자매들』만이 유일하게 동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다른 모든 작품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 혹은 잘 알려진 전설 속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인물창조나 플롯 구성 등 극작의 모든 측면에서 스윈번이 그토록 경애했던 엘리자베스 시대 극작가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작품이 운문희곡이었고, 그 울격은 하나같이 무운을 기조로 했다. 스윈번은 여러 편의 연구서에서 무운시의 정착이야말로

셰익스피어의 작가적 발전에서 결정적인 전기(轉機)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현대극인 『자매들』조차 무운을 기본 율격으로 하는 운문희곡으로 쓰인 것을 보면 엘리자베스 시대 희곡을 상징하는 이 형식에 대한 그의 애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해 준다.

F35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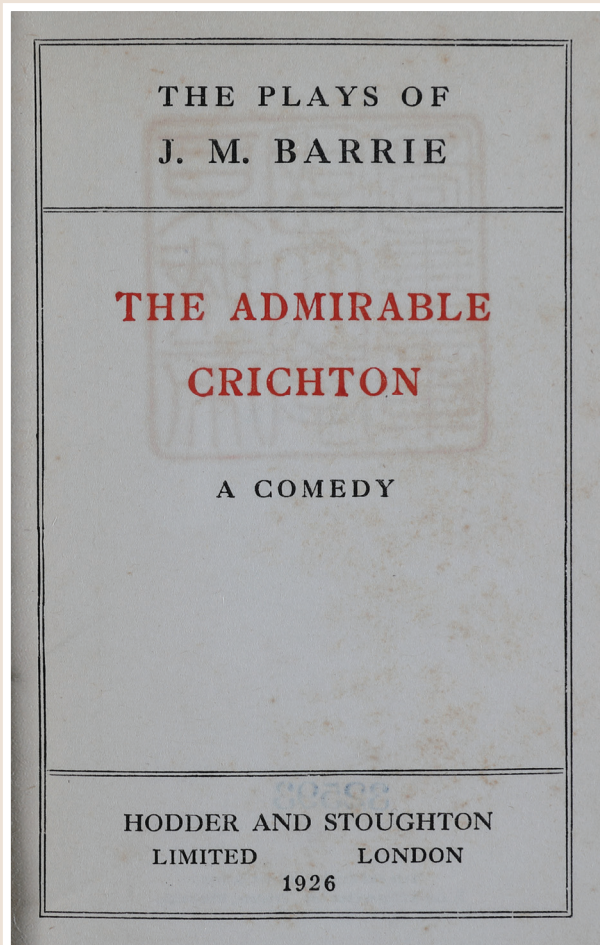
훌륭한 크라이튼 씨

The Admirable Crichton

J. M. Barrie 저술

London : Hodder and Stoughton, 1926.

* 1902년 집필



베리(J. M. Barrie, 1860-1937)는 오늘날 20세기 아동문학의 고전인 『피터 팬, 혹은 자라지 않는 소년』(*Peter Pan; or, the Boy Who Wouldn't Grow Up*, 1911)을 쓴 아동문학가로 알려져 있지만, 당대에는 극작가로 명성이 높았다. 사실 『피터 팬』부터가 1904년에 초연했던 연극에 기반하고 있었고, 소설로 개작하면서도 연극 대본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의 극작가로서 성공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그는 대학교육을 마치고 신문기자로 일하다 1885년 무렵 런던으로 이주해 직업적인 문필가 생활을 시작한다. 한동안 그는 계층별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물 스케치를 잡지에 기고했는데, 그 중 인기있던 몇몇 글을 소설로 고쳐 쓰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편 점차 예술적 관심이 극작으로 옮겨가 즐기차게 극작품을 발표했지만 오랜 기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극작 경력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1897년 자신의 출세작인 소설 『어린 신부』(*The Little Minister*)의 희곡 개작이었다. 10여년의 모색 끝에 찾아온 이 값진 성공을 계기로 베리는 극작에 전념하게 되고 이후 수십 편의 희곡을 발표한다.

베리의 희곡은 작품별로 수준이 고르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며, 최고작으로 꼽히는 『모든 여성이 아는 것』(*What Every Woman Knows*, 1908)을 포함 대략 네댓 편 정도만 후대에까지 기억되었다. 『홀륭한 크라이튼 씨』 역시 초연 때부터 줄곧 높은 비평적 평가를 받으며 아직까지도 종종 공연되는 대표작 중 하나이다. 베리의 상업적 성공 비결이라면 유년기와 전통적인 여성상을 이상화하는 감성성을 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특성이 미학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인 남성이 지배하는 주류 사회에 대한 매서운 풍자를 낳기도 했다. 바로 『홀륭한 크라이튼 씨』는 베리의 이런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작품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작품의 제목이 가리키는 주인공

크라이튼은 롬 백작 가문의 집사이다. 백작은 계급 구분이 작위적이라는 신념에 따라 귀족 손님을 초대해 하인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한다. 그러나 백작의 조치는 모든 이를 당황시킬 뿐이었고, 특히 크라이튼은 계급은 문명사회의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생각을 표출한다. 그러나 이후 벌어지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

롬 백작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크라이튼은 여행 중에 난파를 당해 열대의 무인도로 표류하게 된다. 크라이튼은 유일하게 생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곧 리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점차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익숙해지고 이전 같았으면 상상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그는 어니스트라는 귀족 청년이 유식한 금언 풍의 문장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럴 때마다 그의 머리를 물통에 넣도록 시킨다. 그렇게 크라이튼의 힘이 커지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은 무리에서 이탈하기도 하지만, 식량을 구할 수 없어 결국 그를 다시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후 크라이튼의 주도로 섬의 개간이 이루어지고, 2년 후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받는 위치가 된다. 또한 그는 롬 백작의 딸인 메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결혼식 직전에 구조선의 포 소리가 들린 것이다. 크라이튼은 섬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린다. 이런 결정은 곧 섬에서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쉽지 않은 것인데, 제목이 말하는 크라이튼의 ‘홀통함’은 이렇듯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이들의 안위를 고려한 이 결정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이 작품은 역전된 계급질서가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면서 끝맺게 된다. 첫 장면처럼 롬 백작의 저택이 배경인 마지막 장면에서 크라이튼은 이전처럼 집사로 일하며, 다시 한 번

‘홀탕함’을 발휘한다. 섬에서의 애인이었던 메리의 결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하며 끝내는 자발적으로 집사 일을 그만 두는 것이다.

F350 152

안드로클레스와 사자: 우화 연극

Androcles and the Lion: a Fable Play

George Bernard Shaw 저술, Max Bickerton 편집

Tokyo : Kairyudo, 1933.

* 1912년 집필

Androcles and the Lion.
A Fable Play. By Bernard
Shaw.

Edited by

Max Bickerton.

(First High School.)

Kairyudo,
Tokyo,
1933

일본에서 발간된 이 책은 언뜻 보면 고등학생용 영어독본의 외양을 하고 있다. 책을 낸 카이류도(開陸堂)는 교과서 전문출판사로서 아직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책표지에는 편자인 비커튼(Max Bickerton, 1901-1966)의 이름 아래 도쿄 제일고등학교(First high school)라는 소속을 밝히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제1, 제2, 제3 등의 학교명은, 일본 교육 시스템상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 인문계 고등학교에 부여되었다. 이런 작명 방식은 일제 치하 한국에도 적용되었고, 한국의 일부 고등학교는 아직도 그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이례적으로 책의 표지에 최고 명문고 선생이라는 편집자의 소속을 밝힌 것은 대상 구매층인 학생 독자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홍보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의아한 점이 없지 않다. 당장 작품 선정부터 일반적이지 않다. 버나드 쇼야 이미 1925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해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도 큰 명성을 누리던 세계적인 작가이지만 『피그말리온』(*Pygmalion*, 1912)이나 『성녀 조앤』(*Saint Joan*, 1923) 같은 대표작 대신 왜 하필 인지도가 떨어지는 『안드로클레스와 사자』인가라고 묻게 된다. 그리고 책의 구성이 영어 독본과 거리가 멀다. 이 책에는 작품 본문과 원저자의 에세이 한 편만이 실려 있다. 편자는 표기법에 관한 짤막한 주를 빼면 이 책에 보탬 것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이 책의 존재는 편자인 비커튼과 관련된 사실을 더 조사하다보면 굉장히 뜻깊은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일본문학, 특히 고전시가 형식인 하이쿠(俳句)의 초기 영어 번역자에 속한다는 사실이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의 출판과 관련해서는 그가 1934년 군국주의 시기의 대표적 악법인 치안유지법 혐의로 체포된 최초의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태생인 비커튼은 조부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적 신념을 갖게 되었고, 석

사 과정을 마치고 1924년 일본으로 건너온 후 여러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동안 줄곧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 특히 그 문예 부문에 관심을 두었다. 일본인 지인들이 남긴 여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일본무산자예술연맹(NAPF)의 기관자인 『센키』(戰旗)의 열렬한 구독자였으며, 자주 그 잡지에 후원금을 보냈다고 한다. 더 나아가 1933년에는 직접 번역자로 나서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을 소개하는 선집을 영국에서 출간하기도 했다. 그리고 1934년 이런 일련의 활동에 주목한 경찰 당국이 비커튼을 일본 공산당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그는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에도 불구하고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는 풀렸지만 포괄적인 사상범으로 기소되고 만다. 그러나 곧 영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고, 직후 일본을 탈출했다.

이런 전기적 사실을 고려하면, 이 책의 출간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 그 나름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작품만큼이나, 그 현재적인 정치적 함의를 설명하는 쇼의 에세이가 중요했다. 쇼의 희곡은 사자가 은혜를 갚는 안드로클레스 설화를 근간으로 하되, 초기 기독교 시기를 배경으로 주인공 안드로클레스를 박해받는 기독교인으로 설정함으로써 흔히 종교의 본질을 묻는 우화로 이해되곤 한다. 헌신적인 사회주의자로서 평생 보수적인 사회질서를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를 통렬히 풍자해온 쇼는 이 작품에서는 종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쇼는 작품해설을 겸한 에세이에서, 주인공 안드로클레스 등 순교마저 감수하는 이 작품의 참다운 ‘기독교인’ 인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독자들도 읽으면 알겠지만 이 작품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 생각을 잘 밝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그들이 같은 종교를 받아들인 것은 오로지 그 종교를 통해 제도 종교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저항이 결속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안드로클레스는 인도주의 성향의 자연주

의자이고, ... 라비니아는 영리하고 겁 없는 무신론자(free-thinker)에 가깝다.” 반면 제도 종교로서 기독교는 “내면의 빛을 따라 더 고귀하고 풍부한 삶에 대한 요구에 기반한 더 나은 세계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이 순교자들을 억압할 뿐이다.

쇼는 종교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이런 주제의식이, 이 작품이 출간되고 얼마 안 있어 발발한 제 1차 세계대전이라는 맥락에서 더욱 적실해졌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열렬히 참여했던 반전운동의 대의를 호소하는 에세이를 이 작품이 새로 발간될 때마다 여러 버전으로 함께 실었던 것이다. 쇼에 따르면, 전쟁이야말로 이 작품의 순교자들 같은 각성한 소수와 제도 종교간의 대립이 가장 첨예해지는 때이다. 일단 전쟁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각성과 저항을 저지하는 최후수단이다. “군중을 전쟁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어렵게 획득한 공적 자유와 소중한 사적 이익을 포함해 모든 가치를 잊도록 하는 가장 즉각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이때 제도 종교는 눈먼 분노와 공포를 자극함으로써 대중을 동원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쇼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자신을 비롯해 전쟁에 반대하는 소수를 맹렬히 비판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내 작품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은 모든 시대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이며, 그 박해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쇼는 작품해설을 겸한 에세이를 통해 전쟁 중인 영국 사회에 대한 현재적인 우화로 읽어주길 촉구한다.

이 에세이야말로 비커튼이 교재로 위장해 이 책을 출간한 이유일 것이다. 즉, 그는 쇼의 입을 빌려 소수의 사람들에게라도 조심스럽게 반전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것인데, 만주사변 이후 점차 전쟁의 광기로 치닫는 당시의 일본 사회에서는 그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일로 드러나고 말았다.

